

<연구보고서 2012-01>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과서 보완 지도자료 개발 연구

The Research on the Development of
Textbook-complementary Teaching Materials
for the Prevention of School Violence

연구책임자 : 홍 후 조(고려대학교)

2012. 12.



한국교과서연구재단
Korea Textbook Research Foundation

<연구보고서 2012-01>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과서 보완 지도자료 개발 연구

The Research on the Development of
Textbook-complementary Teaching Materials
for the Prevention of School Violence

연구책임자 | 홍후조(고려대학교)

공동연구자 | 김만곤(한국교과서연구재단)

민부자(고려대학교)

변자정(삼육대학교)

임유나(서울금산초)

조호제(서울버들초)

하화주(서울국제고)

연구보조원 | 장소영(고려대학교)

2012. 12.



한국교과서연구재단
Korea Textbook Research Foundation

○ 이 연구는 2012년도 교육과학기술부의 국고보조금 지원으로 수행되었으며, 이 연구에서 제시한 정책 대안이나 의견 등은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의 공식의견이 아니라 연구진의 견해를 밝히 둡니다.



연구 자문, 자료 조사, 원고 작성 등
연구 협력에 감사드립니다.

강미선(인천구산초)
권혜정(서울창일초)
박해린(서울신양초)
이병호(서인천고)
임혜진(분당서현초)
진상우(고려대학교)
최한울(서울당산초)
최혜미(고려대학교)
황수아(서울대명초)

이상 가나다순

연구 자문, 연구 협력에 감사드립니다.

강익수(천안북일고등학교)
김정호(한국교과서연구재단)
김주환(서울도봉고등학교)
노진덕(한국교과서연구재단)
박하식(경기외국어고등학교)
유대균(국사편찬위원회)
이 림(한국교과서연구재단)
임이균(한국교과서연구재단)

이상 가나다순



차 례



제1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과서 보완 지도자료 개발 연구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내용 및 방법	5
가. 연구 내용	5
나. 연구 방법	6
다. 연구 추진 과정	7
II. 학교폭력의 특징과 실태 분석	10
1. 학교폭력의 개념 및 발생 원인	10
가. 학교폭력의 개념	10
나. 학교폭력의 발생 원인	11
2. 학교폭력의 유형 및 특징	13
가. 학교폭력의 유형	13
나. 학교급별 학교폭력 유형의 특징 분석	16
3. 학교폭력의 최근 경향 분석	17
4. 외국의 사례	22
가. 일본의 학교폭력 특징과 대응방안	22
나. 미국의 학교폭력 예방 전략	24
III.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의의와 실태	27
1.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의의	27
2.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태	27

IV. 학교폭력 예방교육용 보완 지도자료 개발 30

1. 보완 지도자료 개발의 기본 방향30

2. 학교폭력 예방교육용 보완 지도자료 개발의 예37

V. 요약 및 제언 41

1. 요약41

2. 제언43

가. 교육행정가43

나. 학교장44

다. 교사44

참고문헌 45

제2부. 학교폭력 예방교육 보완 지도자료

학교폭력 예방교육 보완 지도자료 내용 체계	55
언어 폭력 예방 : 초등학교	57
언어 폭력 예방 : 중·고등학교	81
심리적 폭력 및 따돌림 예방 : 초등학교	109
심리적 폭력 및 따돌림 예방 : 중·고등학교	133
신체 폭력 예방 : 초등학교	155
신체 폭력 예방 : 중·고등학교	195
사이버 폭력 예방 : 초등학교	237
사이버 폭력 예방 : 중·고등학교	257

제3부. 학교폭력 실태 분석을 위한 연구 자료

1. 학교폭력과 관련된 법률 및 규칙	289
2. 학교폭력 관련 주요 도서의 내용 요약	304
3. 학교폭력 관련 주요 연구 논문의 내용 요약	306
4. 학교폭력 관련 월간지 특집 기사 요약	314
5. 학교폭력 예방 지도 관련 신문 기사 내용 요약	328
6. 일본의 학교폭력, 집단 따돌림(이지메) 관련 연구 요약	334
7. 미국의 학교폭력 관련 연구 요약	345



〈표 1〉 신체적 폭력의 유형	13
〈표 2〉 금품갈취의 유형	14
〈표 3〉 정서적 폭력의 유형	14
〈표 4〉 언어적 폭력의 유형	15
〈표 5〉 사이버 폭력의 유형	15
〈표 6〉 게임을 빙자한 폭력의 유형	16
〈표 7〉 보완 지도자료의 구성	32
〈표 8〉 콜브(Kolb)의 경험학습 이론과 본 지도자료 활동 단계와의 관련성	34
〈표 9〉 인성 및 사회성 교육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 및 치유의 교육내용 체계	35
〈표 10〉 보완 지도자료 교육내용의 학교급별, 영역별 주제	36

그림 차례

[그림 1] 연구 추진 절차	7
[그림 2] 최초 학교폭력 피해경험 시기와 가해경험 시기	18
[그림 3] 동일강도의 위협에 대한 학교급별 학생들의 위협 인지정도	19
[그림 4] 학교급별 학생들의 학교폭력 행사 빈도	19
[그림 5] 학교폭력 양상에서 1970~80년대와 요즘의 교실 비교	20
[그림 6] 개인적·관계적·지역사회적 차원에서 미국의 학교폭력 대책	25
[그림 7] 가해자-피해자의 관계 회복을 위한 화해와 중재 절차	26
[그림 8] 학생이 인식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도움 정도	28
[그림 9] 보완 지도자료의 구성 체계	31
[그림 10] Kolb의 경험학습이론의 순환구조	33

제 1 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과서 보완 지도자료 개발 연구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아동기와 청소년기는 인간의 삶에 있어서 지적, 정서적, 사회적, 신체적 발달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시기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시기에 거의 모든 시간을 학교에서 생활하며 또래관계 경험을 통해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갈등을 경험하기도 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학생들은 이러한 과정 속에서 다른 사람과 적절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고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해야 하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사회성을 발달시켜 나가야 한다. 즉, 학교는 지식 습득만이 아니라 개인의 인격 형성과 나아가 사회의 바람직한 구성원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성장시키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학생들의 또래관계가 항상 긍정적으로만 발전하는 것은 아니다. 오늘날 해가 거듭될수록 심각해지는 학교폭력¹⁾의 문제는 학생들로 하여금 학교부적응이나 등교거부를 넘어 정신과 치료, 심하게는 자살이라는 극단적 형태로 나타나 사회적 문제를 만들고 있다(안정숙·신승우, 2001).

최근 학교폭력은 학생들의 자살로 인해 크게 쟁점화되었다. 피해학생에게는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주고 있으나, 가해학생들이 학교폭력을 한 이유는 “장난” 또는 “이유 없이”로 너무도 간단했다.²⁾ 가해자들은 가해를 해놓고도 그것이 장난기가 다분한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고 여기지만 피해자에게는 매우 심각한 위협으로 느껴진다. 그러므로 학교폭력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조명될 때 해결의 실마리가 열린다. 그러나 학생들은 가정이라는 울타리에서 학교사회라는 집단의 울타리로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관계 맺기를 할 것인지에 대해 매우 서툴다. 학교폭력 문제는 학생들 간의 갈등적 혹은 평화적 관계 맺기에서 출발한다

1) ‘학교폭력’에 대한 법률적 개념을 살펴보면, ‘학교 내외에서 학생간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명시되어 있다(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388호, 2012.3.21. 일부개정).

2) 청소년 폭력예방재단(2012)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학교폭력 가해 이유’ 중 34%가 “장난”이라고 응답했으며, “이유 없음”도 18%나 되었다. 절반이 넘는 학생들이 뚜렷한 이유 없이 장난삼아 다른 사람을 괴롭힌 것이다.

고 볼 수 있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폭력은 우리 사회와 가정의 거울(mirror)로서, 학교의 교육이 어디에 초점이 있고 어디쯤 와 있는가를 여실히 드러낸다. 학생들의 학교폭력 양상은 어른들 사회에 만연한 폭력(TV 드라마, 영화, 각종 뉴스 등에 드러나는 폭력)을 닮은 것이며, 그것을 학습한 결과라고 여겨진다. 그러므로 여기에 대한 대응이나 그 효과는 평소 학교교육이 지향하는 바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학생들의 학교폭력은 우리가 상상하는 정도를 벗어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드러나는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아동기 또는 청소년기의 폭력적, 공격적인 행동에 대한 초기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들이 청소년기와 성인기에 심각한 비행과 범죄행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따라서 아동기부터 폭력예방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이며 이러한 폭력예방 교육의 핵심은 인성과 사회성의 계발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학교 및 학급내 따돌림이나 괴롭힘 등 관계에서의 문제를 예방하고 협력적인 학급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다.

학교폭력은 학생 누구나 피해학생이 될 수 있고, 또 가해학생이 될 수 있다. 오늘날 학교폭력은 점점 더 저연령화·집단화되고 있으며, 남학생뿐만 아니라 여학생의 잔인한 폭력과 동성간의 성추행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금품갈취의 방법도 교묘해지고 있으며, 정보화 시대의 산물인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활용한 사이버 폭력도 크게 증가하는 등 학교폭력은 학교 안을 넘어 날로 그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더욱이 자신이 저지른 폭력에 대한 문제의식이나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청소년의 태도는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다수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지속되고 반복되는 폭력의 고리를 끊기 위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기도 한다.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률은 OECD 국가에서 1위이다. 이제는 학교폭력에 대해 학생들이 성장하기 위한 성장통이나 사춘기의 일시적인 반항으로 생각하는 관점을 벗어나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³⁾

이와 더불어 학교는 폭력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건설적인 행동유형을 계발하

3) 정부에서는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차원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고,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전(全)사회적 대응과 체육·예술교육 등 인성교육 기반 마련, ‘365일, 온종일 안전한 학교 만들기’ 기본 계획 수립 및 학교안전 강화 대책을 이행하고 있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포함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교실은 협동적인 환경이 되어야 하고 그 안에서 학생들은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친구들과 긍정적이고 지속적인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학생들은 갈등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하며, 동료들 간을 중재할 수 있는 훈련도 되어야 한다. 즉, 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습관, 태도, 가치, 관점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방법에 있어서도 주입식이거나 일방적인 강의식 교육보다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는 방안이 효과적이다.

그러나 현재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한 교육은 연간 2회 정도로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연간 2시간의 교육적 조정만으로는 폭력 가해학생을 선도하고 피해학생에게 도움을 주는 데 많은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다. 습관과 태도는 쉽게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지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를 위한 교육 운영에 있어서도 일회성 프로그램이 아닌 학교 내의 수업을 통해 반복적,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학교폭력을 보다 근원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며, 이를 위해서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지도 자료의 개발과 제공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자료의 개발은 정책결정자, 학교 교원, 학생, 학부모에게 다음과 같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정부 정책결정자에게는 학교폭력이 우리나라 교육의 경쟁과 우열 다툼이 심각한 상황에서 학생간 스트레스 해소 및 갈등 해법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생긴다는 점을 고려하여, 교육정책 입안에서 사회성, 대인관계능력, 협동능력 등의 제고에 새로운 초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교폭력은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고, 발생한 사건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나, 단기적으로 즉효성 있는 대책은 없으며 학교-지역사회-가정 등의 협력으로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이를 위한 장기적인 대안을 세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학교 교원에게는 학생간 협력, 대인관계능력 증진, 협동심 배양 등을 위한 학습지도 및 생활 지도상에 필요한 구체적인 교육용 보완 지도 자료가 될 것이다. 이 자료를 통해 학생들의 인성교육 뿐만 아니라 사회성교육의 중요성에 눈뜨고, 주지 도구 교과와 학력신장이나 예체능교육에서의 독창, 독주, 개인운동만이 아니라 합창, 합주, 단체운동의 중요성에 초점을 두고 교육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공받게 될 것이다. 즉, 학교에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위해 교사가 수업 시간이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지도자료를 초, 중, 고등학교의 급별로 수준과 내용을 다양화하여 제공하기 때문

에 교사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또한 1~2회의 단기 교육이 아니라 학교급별로 10회 정도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게 되므로 지속적인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학생들에게는 가해자, 피해자, 방관자, 적극 동조자, 소극 동조자 등 학교폭력을 둘러싼 그간의 행동습관과 생활 관행을 바꿀 수 있는 교육용 자료를 제공하며, 집단 속에서 규칙을 지키고 반칙을 하지 않으며,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의 폭력성을 이해하고,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 상호 존중과 배려할 수 있는 교육적 경험, 역지사지를 통해 동료, 상하급생, 교원 및 어른들과 상호 예의를 지킬 수 있는 교육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부모들에게는 자녀의 소질 및 적성, 수준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여 자녀가 느끼는 학습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녀가 학습 스트레스로 인해 병리적 행동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데 필요한 정보와 학교폭력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집단 속에서 자녀가 행동하는 모습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교사와의 상담 활성화 및 자녀와의 대화법 등을 보완 교재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다. 흔히 ‘문제 가정에서 문제 학생이 나온다.’고 본다면 부모의 자녀양육방식, 가정교육에서 부모의 올바른 역할의 중차대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본 연구는 학교에 만연한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를 비롯하여 범부처적으로 마련한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2012.2.6)」에 따라,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을 예방·지도할 수 있는 자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폭력 문제 등 인성 및 사회성 교육 상황이 우리나라 학교교육(국가 교육과정 및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문제점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고, 교과 교육과정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종합적인 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관점을 견지한다. 따라서 먼저 학교폭력의 특징과 실태, 학교폭력과 관련한 교육내용의 현실태를 점검하고, 나아가 학교폭력을 예방·계도할 수 있는 개선점을 찾아 이를 구체화하는 보완 지도 자료를 개발한다.

즉, 본 연구는 학교폭력 문제를 중심으로 한 인성 및 사회성 지도 내용을 프로젝트형, 체험형과 같은 프로그램 자료로 개발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하고, 향후 교육과정 개선 및 교과서 개발·보완, 현장교육 등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고자 한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가. 연구 내용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학교폭력의 특징과 실태 분석

- 학교폭력의 개념과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가정, 학교, 사회 차원에서의 분석
- 학교폭력의 사례 및 특징에 따른 유형 분류와 초·중·고등학교별 학교폭력 유형의 특징 분석
- 각종 연구 논문 및 보고서, 신문기사, 월간지 특집 기사 및 도서 분석을 통한 학교폭력의 최근 경향 분석
- 일본과 미국의 학교폭력 특징과 대응방안, 예방 전략에 대한 조사
- 학교폭력 예방교육 보완 지도자료 내용체계 및 개발을 위한 시사점 도출

2)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의의와 실태

-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의의와 필요성
- 학교폭력 예방교육 참여 정도와 학생들의 인식에 대한 실태 조사
- 학교폭력 예방교육 지도자료 내용체계 및 개발을 위한 시사점 도출

3) 학교폭력 예방교육 보완 지도자료 개발

- 학교폭력 예방교육 보완 지도자료 개발의 영역, 기본 방향 수립 및 학교급에 따른 내용체계의 개발
- 학교폭력 예방 및 지도를 위한 효과적인 교육 실천 전략, 학교폭력 예방·지도 목표와 지도내용, 지도방법 개발
- 학교폭력 예방교육 보완 지도자료 개발에 활용할 프로젝트형, 체험형과 같은 예시 단원의 구성(학교급별, 학교폭력 하위영역별 단원을 개발하여 제공)
-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의 인성·사회성 계발을 위한 학교급별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지속적 수업 지도자료의 개발

나. 연구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문헌 연구

- 우리나라와 외국의 학교폭력 실태 및 대책 정리와 시사점 도출
- 학교폭력 관련 연구 문헌, 각종 자료의 광범위한 리뷰를 통해 학교폭력의 개념, 발생원인, 유형, 특징, 최근 경향에 대해 논의
- 학교폭력 예방과 예방교육의 중요성 및 필요성, 우리나라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태에 대한 문헌조사와 논의

2) 연구진 및 협력진 간 협의회 실시

- 교재 개발 경험, 학생 생활 지도 경험이 있는 학자나 현장 교사 중심의 연구 협력진을 구성, 학교폭력 예방 및 그 지도를 위한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측면의 방법을 탐색하는 협의회 실시
- 학교에서 지속적·반복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교육자료 개발 및 활용 지침 등에 대한 논의

3) 학교폭력 예방교육 지도자료 개발을 위한 원고 발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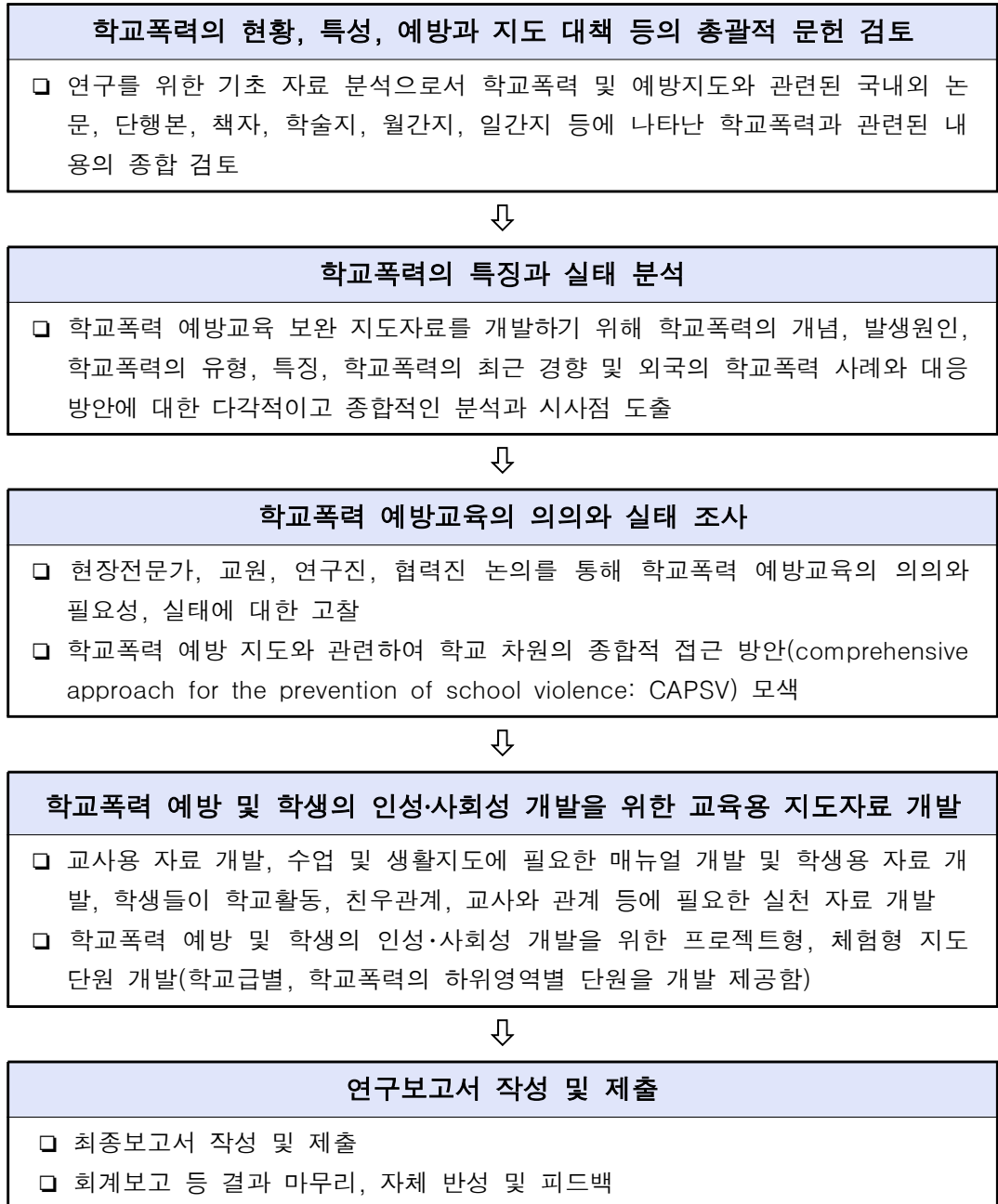
- 현장 전문가 및 연구 협력진에게 학교폭력 예방교육 보완 지도자료 개발을 위한 원고 발주
- 초·중·고등학교 학교폭력 예방교육 보완 지도자료의 내용체계에 따라 각 학교급별로 지도자료 개발

4) 연구진 협의 및 집중작업

- 학교폭력 예방·지도 관련 교원, 전문가 등과 협의회를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본 연구에 반영하기 위한 연구진들의 집중작업을 수차례 실시
- 연구 실행을 위해 연구진 간 수시로 연구 방법 및 연구 내용에 대해 협의
- 외국의 학교폭력 예방·지도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 세미나 개최 및 참석 등

다. 연구 추진 과정

1) 연구 추진 절차



[그림 1] 연구 추진 절차

2) 연구진 역할 분담

연구진은 교육과정 전문가, 인정도서 개발 경험이 있는 현직 교사, 학교폭력 예방교육 관련 지도 경험이 있는 학자 등으로 구성하였고, 개략적인 역할분담 및 협력은 다음과 같음.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소 속	직 급	성 명
총괄	고려대	교수	홍후조
국내외 논문, 단행본, 일간지 등 문헌 분석	고려대 버들초 금산초 삼육대 국제고	겸임교수 교사 교사 강사 교사	민부자 조호제 임유나 변자정 하화주
학교폭력의 특징과 실태 분석	삼육대 금산초	강사 교사	변자정 임유나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의의와 실태 분석	버들초 국제고	교사 교사	조호제 하화주
학교폭력 예방교육 내용 체계 수립	고려대 고려대 교과서연구재단	교수 겸임교수 연구위원	홍후조 민부자 김만곤
연구 협력진 관리 및 협의회 주관	고려대 금산초	겸임교수 교사	민부자 임유나
지도자료 원고 발주 및 수합	삼육대 버들초	강사 교사	변자정 조호제
최종보고서 작성 및 보고, 검토	고려대 고려대 버들초 금산초 삼육대 국제고 교과서연구재단 고려대	교수 겸임교수 교사 교사 강사 교사 연구위원 대학원생	홍후조 민부자 조호제 임유나 변자정 하화주 김만곤 장소영
집중작업 및 회의 소집 안내	고려대	대학원생	장소영
대외협력	고려대 교과서연구재단	교수 연구위원	홍후조 김만곤

3) 연구추진 일정

연구를 추진한 기간은 6개월로 그 일정을 개괄하면 아래와 같음.

업무 추진 내용		연구 기간(2012.7-2012.12)											
		12. 7	12. 8	12. 9	12. 10	12. 11	12.12						
	· 연구 계획 검토, 수정, 확정												
	· 연구진의 역할 분담 확정												
	· 연구의 기본 입장과 틀의 검토 및 완성												
	· 기존 연구 문헌 및 자료 검토												
실행	· 문헌 분석 결과 정리												
	· 학교폭력의 특징과 실태 분석												
	·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의의와 실태 분석												
	· 연구 협력진 구성 및 협의회 실시												
	· 학교폭력 예방교육 내용 체계 수립												
	· 연구 협력진에게 원고 발주												
	· 원고 수합 및 원고 내용 협의												
	· 연구진 세미나, 집중작업 개최												
	· 중간보고 및 협의												
	· 최종보고서 작성을 위한 집중작업												
정리 및 결과 보고	· 보고서 검토 및 수정, 제출 · 연구 결과 보고 및 연구 평가회												

Ⅱ. 학교폭력의 특징과 실태 분석

1. 학교폭력의 개념 및 발생 원인

가. 학교폭력의 개념

학교폭력은 폭력의 형태와 정도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 개념을 정의하기가 쉽지 않다. 예를 들어, 학생들 사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언어폭력을 학교폭력에 포함시켜 넓게 정의하면 거의 모든 학생이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지속적으로 신체적 폭력을 가하고 금품을 갈취하는 것으로 정의한다면 소수의 문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학교폭력은 주로 학교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장소 즉, 학교 내에서 학교구성원들 사이에 일어나는 폭력을 의미하나, 학교폭력이라고 해서 학교 안에서의 폭력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학교주변 등하교 길이나 학원 등과 같이 학교외 장소에서 일어나는 폭력도 포함된다. 또한 학교폭력은 가해자나 피해자 일방 또는 쌍방이 학생의 신분으로서 학교 및 이와 관련된 장소에서 각종 신체적, 물리적, 정신적 차원의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학자들이나 청소년 관련 단체에 의해서 내려진 정의를 종합해보면, 학교폭력이란 일반적으로 ‘학교내외에서 청소년들이 당하는 폭행, 금품갈취 등을 뜻하며 이외에도 협박, 따돌림과 같은 심리적 폭력, 심부름시키기과 성적인 폭행들’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2012년 3월 21일 개정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에서는,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폭력에 대한 개념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기초하고 학교 내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밖, 사이버 공간까지 확장되어 일어나는 폭력행위로 규정하였으며, 가해학생이나 또래집단이 반복적이고도 지속적으로 피해학생에게 신체적,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거나 집단 따돌림, 욕설,

협박 등의 심리적, 언어적 폭력행위를 행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나. 학교폭력의 발생 원인

학교폭력은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얹혀서 발생되기 때문에 특정 원인을 지목한다는 것은 쉽지 않으나 기형적인 입시교육, 폭력적인 정치문화, 도덕성과 자긍심의 상실, 가정교육의 소홀, 황금만능주의 팽배, 비교육적인 유해환경의 만연, 폭력음란물의 범람, 유해업소의 난립 등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이중, 학교폭력의 원인을 크게 가정적 요인, 학교의 문화적 요인, 사회적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가정적 요인

핵가족화와 결손 가정의 심화로 인한 가정의 교육적 기능 약화가 학교폭력의 원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최근 우리 사회는 급속한 양극화 현상을 겪으면서 이혼이나 생계 문제로 인해 방과후 대부분의 시간 동안 아이들을 방치해놓는 가정이 많이 늘어났다.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은 유해한 대중문화나 게임, 폭력 등에 쉽게 노출된다. 이들은 처음에는 폭력의 피해자가 되지만, 나중에는 그 상처로 인해 폭력의 가해자로 자라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런 아이들의 집이 폭력의 현장이나 아지트가 되는 경우도 많다.

부모가 있다 해도 실질적인 돌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다. 아이들이 너무 일찍부터 학원으로 내몰리기 때문에 부모와 제대로 된 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아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 정서적 불안들이 해소되지 못하여 왕따나 폭력문화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학생의 기본생활습관, 생활태도, 가치관 형성 등은 가장 먼저 가정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정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핵가족화와 맞벌이 가정, 결손 가정의 증가로 인해 타인에 대한 배려와 공동체 의식을 익히지 못한 학생들은 학교에서 친구들과 관계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2) 학교의 문화적 요인

학교는 본래 각 개인을 바르게 교육시켜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오늘날 학교 현장을 살펴보면, 우리의 아이들이 바람직한 인격을 갖추고 사회적인 인간으로 자라기 위한 인성이나 사회성에 대한 관심과 교육보다 학업 성취를 강조하는 학교교육 문화가 팽배한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학교 문화가 학교폭력의 문제를 야기했다고 본다. 학력만 강조되는 학교 문화에서는 학생들이 타인에 대한 공감과 배려를 배우기보다는 성적 향상에만 골몰하게 된다. 학생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개발하고 진로를 찾아가는 교육이 아니라 성적과 입시에 대한 경쟁만 있는 상황에서, 학업 성취 정도가 낮은 학생은 열등감과 절망감에 짓눌리고, 성취 정도가 높은 학생도 계속해서 이를 유지해야 한다는 불안감에 짓눌린다. 그리고 이러한 절망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출구로 나타나는 것이 학교폭력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3) 사회적 요인

과학기술과 정보화의 발달은 우리 사회에 여러 긍정적인 변화를 주기도 했지만, 부정적 변화의 하나로 학교폭력에 끼친 영향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요즘 아이들이 즐겨하는 인터넷 게임들을 보면 대부분이 폭력을 기본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게임은 아이들로 하여금 폭력이 타인에게 가하는 고통에 대한 상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인터넷, 스마트폰과 같은 대중 매체를 통해 학생들은 욕설과 폭력 문화에 쉽게 노출되고 있으며 자연스럽게 학교폭력을 배우게 된다. 이에 따라 점점 폭력의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다. 최근 학교폭력 전수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동성간의 성폭력과 성추행이 학교폭력의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도 인터넷 상의 폭력과 음란물이 원인이 된다.

또한, 학교폭력을 범죄가 아닌 미성숙한 학생의 일시적인 일탈로 크게 걱정하지 않는 사회적 인식에도 문제가 있다. 학교폭력을 학교생활을 하다보면 학생과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단순한 실수와 장난으로 치부하게 되면, 학생들은 친구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괴롭히고도 전혀 죄의식이나 죄책감을 갖지 않는다. 내가 하는 사소한 장난이 친구에게는 고통일지도 모른다는 인식 부족과 학교폭력을 일으킨 학생들에 대한 낙인 효과를 걱정하여 엄격한 처벌을 자제하는 사회적 관용이 학교폭력을 크게 키웠다고 할 수 있다.

2. 학교폭력의 유형 및 특징

가. 학교폭력의 유형

학교폭력은 갈수록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과거에는 신체나 금품 등을 대상으로 한 폭력이 많았던 반면, 오늘날의 학교폭력은 다양화, 지능화, 집단화 되고 있다. 또한 매스컴에서 어떤 폭력의 유형이 소개되면, 아이들은 이를 쉽게 모방하고 행동으로 옮겨 학교폭력의 유형에도 유행이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을 정도이다. 일반적으로 학교폭력은 신체적 폭력, 금품갈취, 정서적 폭력, 언어적 폭력, 사이버 폭력으로 대별된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⁴⁾.

1) 신체적 폭력

신체적 폭력은 신체 상해를 일으키거나 불편감을 야기하는 것으로, 최근 집단화된 폭력을 통해 불구 또는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행동이 포함된다.

<표 1> 신체적 폭력의 유형

- 고의적으로 건드리거나 치는 등 시비를 거는 행위
- 장난을 빙자해서 때리거나 힘껏 밀치는 행위
- 물건, 흉기 등을 이용해 신체적인 상해를 가하는 행위
- 빈터, 놀이터 등에서 폭행하는 행위

2) 금품갈취

금품갈취는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협박과 강제적 힘을 바탕으로 하여 금품을 빼앗거나 상납을 요구하는 행위로, 보통 아래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는데 그 방법이 점차 교묘해지고 있다.

4) 학교폭력의 유형은 교육과학기술부(2012.04.18)의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른 후속 업무처리 매뉴얼』, 문용린(2008)의 『학교폭력 위기개입의 이론과 실제』, 박효정 외(2008)의 『학교폭력 지표개발 연구』, 청예단(2012)의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 연구』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하였다.

<표 2> 금품갈취의 유형

- 돈을 빌리는 행위, 강제로 빌려 주고 이자를 받는 행위
- 자신의 낡은 물건을 강매하는 행위
- 생일을 빙자하여 선물을 요구하는 행위
- 돈이나 물건을 감추거나 빼앗는 행위
- 돈을 주지 않고 필요한 물건을 사오라고 하는 행위

3) 정서적 폭력

정서적 폭력은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을 고의로 따돌림으로써 소외시키거나 정신적인 괴롭힘을 통해 고통을 주는 행위로, 이는 장기화될 경우 정신분열이나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 남학생의 경우 따돌리는 상대는 자신들과 잘 어울리지 않는 학생이 대상인 반면, 여학생의 경우에는 자신들과 친한 친구를 따돌리는 경우가 많다.

<표 3> 정서적 폭력의 유형

- 의도적으로 집단에서 소외시키는 행위
- 다른 학생과 어울리지 못하게 하는 행위
- 하고 싶지 않은 일을 강요하는 행위
- 말을 걸어도 무시하고 면박을 주는 행위
- 메일, 문자, 쪽지 등으로 협박하거나 비난하는 행위
- 다른 친구의 접근이나 도움을 막는 행위
- 친구의 비밀이나 인신공격성 소문을 내는 행위
- 심부름이나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하게 하는 행위

4) 언어적 폭력

언어적 폭력은 빈정대거나 거친 말투로 피해학생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로, 요즘 학생들은 욕을 일상어처럼 사용하면서 욕은 폭력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피해학생의 입장에서는 친구들이 하는 욕설이 수치심, 모멸감, 공포심을 느끼게 하여 심리적 고통을 받게 된다. 언어폭력은 대부분 다른 폭력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표 4> 언어적 폭력의 유형

- 별명을 부르며 놀리는 행위
- 말로 위협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 개인적인 약점을 들춰서 괴롭히는 행위
- 빈정거리거나 조롱하는 행위
- 거짓말로 소문을 내거나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

5) 사이버 폭력

사이버 폭력은 인터넷이나 문자 등으로 상대를 협박하거나 상대의 인터넷 아이디를 도용하여 상대방을 곤경에 처하게 하는 행위로, 이는 본인의 동의 없이 원하지 않는 정보를 유포하거나 부적절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일단 게재된 인터넷 자료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폭력이다.

<표 5> 사이버 폭력의 유형

- 인터넷 카페나 클럽에 협박 글 올리기
- 친구를 시켜 수치스러운 동영상 올리거나 모욕하기
- 인터넷 아이디를 도용해서 캐시를 빼가기
- 집단으로 채팅하며 협박하기
- 게임 레벨을 올려 주지 않는다면 메신저로 협박하기
- 개인이 운영하는 미니홈피, 블로그에 욕설 올리기
- 많은 사람이 동시 접속하는 메신저를 통해 헛소문 유포하기
- 문자로 협박하기

6) 게임을 빙자한 학교폭력

게임을 빙자한 학교폭력은 ‘재미’로 시작하지만 그 결과는 끔찍한 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 더욱이 게임에 강제로 참여한 사람은 게임이 아니라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되는데, 이들이 느끼는 그러한 공포가 다른 학생에게는 ‘재미’가 된다. 학급에서 가장 ‘만만한’ 학생이 대부분 피해학생이 되는 경우가 많다.

<표 6> 게임을 빙자한 폭력의 유형

- 동전게임 : 동전에 구멍을 뚫은 후 거기에 낚싯줄을 매어 목 안에 밀어 넣고 꺼내기를 반복하는 것
- 그네게임 : 두 명이 한 조로 양팔, 양다리를 붙잡고 흔들다 집어던지는 것
- 기절게임 : 여러 명이 모여 하는 놀이로 한 사람의 목을 조여 기절하면 깨우고 차례대로 돌아가며 이를 반복
- 수술게임 : 칼등으로 배, 팔, 다리 등을 그어 공포심을 조성하는 것
- 컴퍼스놀이 : 손가락 사이를 컴퍼스로 째는 것
- 왕따놀이 : 한 사람만 집단에서 소외시키며 노는 것

나. 학교급별 학교폭력 유형의 특징 분석

지난 2012년 2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요청에 따라 한국교육개발원의 주관 하에 전국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학생 559만 명 전원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대상 학생 559만 명 중 25%인 139만 명의 학생이 실태 조사에 참여하였고, 전체 응답자 139만 명 중 12.3%인 17만 명이 최근 1년간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실태 조사 참여 학생의 24.5%가 학교 내 ‘일진’이 있거나 있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을 하였다. 학교급별 학교폭력 유형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초등학교

초등학교의 경우 장난과 폭력을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대부분은 특별활동 시간, 방과후 등 담임교사가 없을 때 학교폭력이 발생하였다. 또 바지를 벗기거나 치마를 들추는 등 성과 관련된 폭력이 많고, 기절놀이, 수술놀이, 노예놀이 등 새로운 유형의 폭력이 등장하였다. 특히, 선후배 관계를 이용한 폭력 및 갈취가 심각한 정도인데, 초등 저학년의 경우 피해 사실에 대한 민감성 및 대응력이 약하여 더 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 중학교

중학교의 경우, 성폭력 사건(성희롱, 성추행)이 자주 발생하고 욕설이 난무하는 언어폭력으로 시작해 신체폭력으로 진행되는 사례가 많았으며, 뺑 서툼, 금

품 상납 요구 등 금품갈취 사례가 많았다. 또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및 외모로 인한 집단 따돌림이 심각하고 폭력 서클을 통한 금품상납 및 금품갈취, 신체폭행이 많이 발생하였으며 사이버 상의 폭력도 심각한 수준이었다.

3) 고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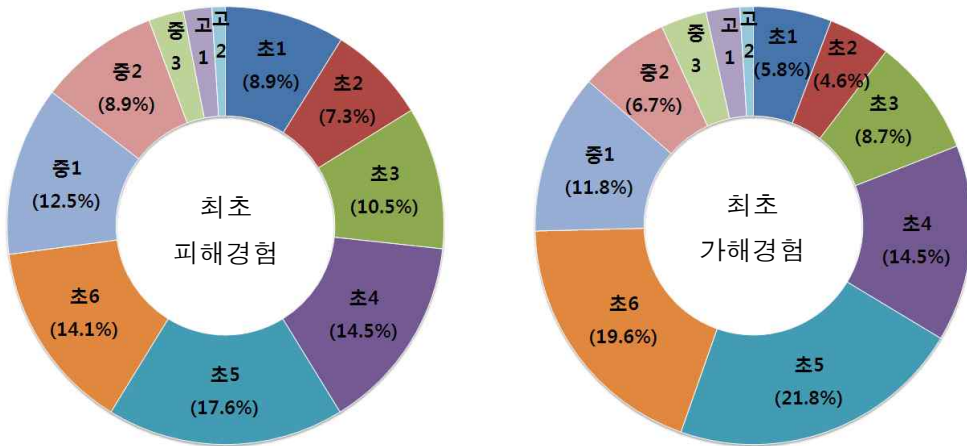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선후배 간 군기 잡기, 금품갈취 등 학교폭력행사, 집단 따돌림 및 성폭력 사례가 많았으며,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폭력서클(성인조직폭력배들과 연계된 경우도 있음)도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은 금품갈취와 폭행 등 겉으로 드러나는 사례가 많고, 여학생은 따돌림, 욕설과 같은 은근한 폭력 사례가 많다. 기숙사 생활을 하는 경우 기숙사내 금품갈취, 괴롭힘, 심부름 등과 같은 사례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 학교폭력의 최근 경향 분석

학교폭력에 대한 최근의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각종 연구 논문 및 보고서, 신문기사, 월간지 특집 기사, 도서 등을 분석해보면 오늘날의 학교폭력은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보이고 있다.

1) 저연령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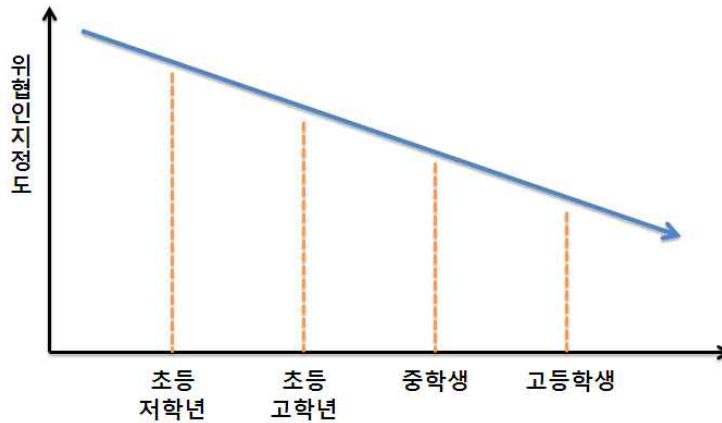
학교폭력의 최초 발생 연령은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2012)에서 2011년 12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전국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의 남녀학생 9,174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최초 학교폭력 피해 경험 시기와 최초 학교폭력 가해 경험 시기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그림 2] 최초 학교폭력 피해경험 시기와 가해경험 시기

재학기간 중 처음으로 학교폭력을 당한 시기를 질문한 결과, 초등학교 고학년(4~6학년)의 비율이 46.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도 26.5%로 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의 피해를 경험하는 아이들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가해경험 역시, 초등학교 고학년(4~6학년)에서 55%로 나타나 학교폭력의 피해와 가해시기의 추세가 초등학교 4~6학년에서 정점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시기에 대한 집중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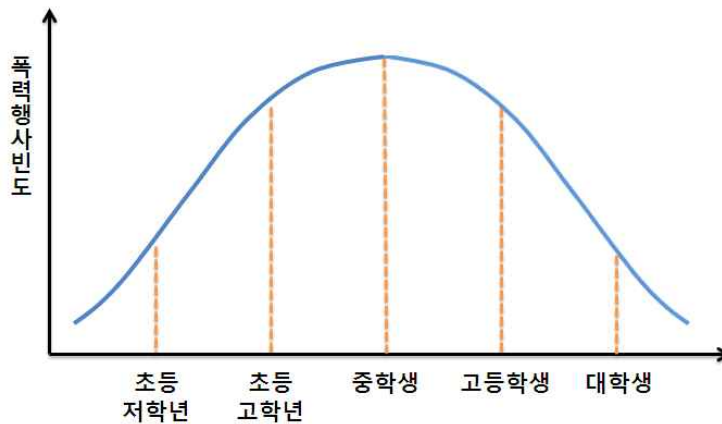
이는 연령이 어릴수록 폭력에 대한 민감성이 크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가령 동일 강도의 위협에 대해서 어린 아이들은 성인에 비해 더 큰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된다. 초등학생들이 느끼는 위협은 중·고등학생이나 어른들의 그것과는 다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가정의 울타리를 벗어나 집단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아동의 경우 동료나 상급생들로부터 가해져오는 위협에 대해 성인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엄청난 공포를 느끼게 될 것이다. 이러한 학교폭력에 대한 위협 인지정도는 다음과 같은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림 3] 동일강도의 위협에 대한 학교급별 학생들의 위협 인지정도

2) 중학생 학교폭력 증가율의 상승

학교폭력의 두 번째 경향은 타학교급에 비해 중학생의 학교폭력 건수가 월등히 높다는 것이다.



[그림 4] 학교급별 학생들의 학교폭력 행사 빈도

2010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총 심의건수 중 중학교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의 69%(5,376건)로, 초등의 3%(231건), 고등학교의 28%(2,216건)에 비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더하여 국민신문고에 신고된 학교폭력 관련 민원도 2010년 대비 2011년에 중학교의 증가율이 초등학교의 7배, 고등학교의 2배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교 시기는 학습자의 발달 단계로 보면 사춘기인데, 정서적·심동적으로 가장 민감한 시기에 학생들이 가해자이거나 피해자로 폭력에 노출되면서 정상적인 성장을 하지 못한다면 이는 사회적 자본의 형성이라는 면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 자명하다. 본래 사춘기 학생들의 뇌의 보상회로는 낮은 수준의 자극에 대해서는 도파민이 분비되기 어렵다. 그래서 이 시기 학생들은 더 큰 자극, 모험, 위험 등을 감수하려는 경향이 있다. 학교폭력도 학생들이 불법, 범법, 규칙위반, 폭력행사, 갈취, 집단 괴롭힘 등을 통해 짜릿한 보상을 기대하는 면이 크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3) 동조자 또는 방관자의 증가

학교폭력의 세 번째 경향은 학교폭력을 둘러싼 학급 내에서 학생들의 입장이 이전과는 많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1970~1980년대와 비교해 보면, 이 당시에는 학교폭력이 발생해도 다수의 방어자가 있어 피해학생을 돕는 구조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학교폭력 발생 시 대다수 학생이 동조자 또는 방관자가 되는 구조를 취한다. 즉, 과거 1970~80년대 교실에서는 학교폭력이 일어나도 피해 학생을 감싸는 다수의 의리와 학생들이 있었지만, 지금의 교실은 친구가 폭행을 당하는데도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학생들이 대다수를 이룬다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피해학생은 절대적인 외로움을 느끼게 된다.



[그림 5] 학교폭력 양상에서 1970~80년대와 요즘의 교실 비교

*출처 : 조선일보 2012년 5월 23일 기사

이처럼 방관자나 동조자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이유는 학생들의 두려움과 무력감 때문이다. 말리다가 자칫 학교폭력의 다음 피해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

다. 실제로 청소년폭력예방재단(2012)의 전국 학교폭력 실태 조사 결과, 학생 절반 이상이 "학교폭력을 목격해도 그냥 방관한다(56.0%)"고 답했다. 그 이유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대답은 "나도 같이 피해를 당할까 봐"(34.0%), 그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대답은 "개입해도 소용이 없어"(16.0%)였다.

4) 가해와 피해의 악순환

학교폭력의 네 번째 경향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별이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학교폭력이 발생해 가해학생을 조사해보면 이전에 피해 경험이 있었던 학생이 대부분이다.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학생은 다시 폭력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다른 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가해와 피해의 악순환이 발생한다. 이러한 원인은 복합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제 해결에 있어서 전문적인 조사와 상담이 필요하다.

또한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특성은 매우 다양하다. 흔히 학교폭력의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은 결손가정의 청소년일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피해자는 미성숙하거나 지능이 떨어지고, 가해자는 공격적이고 충동적인 청소년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나, 모범생이며 반듯한 청소년이 피해학생이 되기도 하고, 리더십 있는 반장이 가해학생이 되기도 해서 단순한 방식으로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의 특성을 규정짓기는 어렵다.

5) 지속적, 반복적, 지능적인 정신적 괴롭힘 증가

학교폭력의 다섯 번째 경향은 정서적 폭력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폭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된다는 것이다. 요즘은 때리고 돈을 뺏으면 신체적 외상이나 목격자 등과 같은 증거가 남게 되어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학생이 많다. 결과적으로 폭력이 지능화되어 단순한 신체적 폭력이 아니라 강제적 심부름, 사이버 폭력, 성적 모독 등 언어적·정신적 폭력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학생들이 손쉽게 휴대하는 휴대전화 SNS 서비스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문제가 된다. 정신적으로 피해학생을 괴롭히면서도,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정반대 내용을 문자로 보내거나, 발신자 번호도 뜨지 않는 문자를 보내 피해학생으로 하여금 불안감과 초조감을 자아낸다. 또한 여학생 사이에서는 헛소문을 내거나 피해학생의 잘못으로 자신이 피해를 당했다고 거짓말을 하며 실제 피해학생을 몰아세우기도 한다.

6) 학교폭력의 집단화

학교폭력의 여섯 번째 경향은 학교폭력이 집단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발생하는 대부분의 폭행이나 따돌림, 괴롭힘은 여러 명으로 이루어진 ‘집단’이 학급에서 한두 명의 학생을 희생양으로 삼아 공격하는 형태이다. 학교폭력 피해학생 중 66.2%가 2명 이상의 가해자에게 폭력을 당하고, 가해학생의 수가 6명 이상인 경우도 16.3%에 이른다고 하니(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12) 학교폭력의 집단화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집단이 한 학생을 공격하다 보니 폭력의 결과는 신체적 외상이나 사망사고뿐만 아니라 우울이나 불안, 정신분열증과 같은 심리적 외상을 남겨 그 후유증이 심각하다.

이처럼 심각한 결과를 남기는 집단폭력은 가해 집단에 속하지 않았을 때 자신이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가해 집단에 적극 가담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즉, 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일진 등 조직에 가입하면서 일진 등의 폭력서클이 학교내 영향력을 증가시키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또한 집단이 주는 이점, 즉 책임이 분산되어 죄책감을 별반 느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집단폭력에 가담한다.

이와 같이 학교폭력이 증가하고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는데 반해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과 대응 수준은 매우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날 학교폭력 문제는 건잡을 수 없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4. 외국의 사례

가. 일본의 학교폭력 특징과 대응방안

외국의 경우에도 학교폭력은 큰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서구 여러 나라에서 집단 괴롭힘은 교내폭력에 포함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일본의 경우는 1980년대 전반에 사회 문제화되고 나서 집단 괴롭힘이 교내폭력과는 또 다른 의미로 구별되어 연구되고 있다(문부과학성이 실시하는 학교기본조사에서도 ‘이지메-집단 괴롭힘’은 교내폭력과 구별되어 별도의 통계를 내놓고 있음). 집단 괴롭힘의 대표적인 예는 이유 없이 무시하고 집단에서 따돌림을 하거나, 욕이나 좋지 않은 소문을 흘리는 경우이다. 또 쪽지나 메일과 같은 전송수단을

통해서 주위의 사람을 부추기고, 신체적인 폭력을 하는 등의 행위를 일삼는다. 이러한 가해자의 행동으로 인해 일본에서는 많은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거나 등교거부, 심신무기력증, 자존심의 상실이나 학습 의욕이 저하되고, 최악의 경우에는 자살에 이른다.

다른 나라와 구별되는 일본의 집단 괴롭힘의 특징은 아이들이 집단 괴롭힘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도 그것을 방관한다는 점과 보호자나 교사가 ‘이지메’의 실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문부과학성(2012)의 「아동 학생의 문제 행동 등 학생 지도상의 여러 문제에 관한 조사」에 의하면, 집단 괴롭힘의 피해를 받은 아동 학생은 학교에 가는 것 자체가 고통이 되고, 또 죽고 싶어진다고 하는 대답이 많다. 실상은 인지되지 않는 학교내 이지메가 더 많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문부과학성의 통계는 실태를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2006년도부터 국립과 사립을 포함한 전체 집단 괴롭힘의 인지(발생) 건수가 통계로 나와 있는데, 2012년 문부과학성의 발표에 의하면, 2011년의 집단 괴롭힘의 인지수는 초등학교 36,909건(전년보다 2,200건 증가), 중학교 33,323건(전년보다 1,200건 증가), 고교 7,018건(전년보다 1,400건 증가)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초등학교 이지메의 인지 건수 99%는 공립 초등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초등학생이 공립에 진학하고 있기 때문에 비중이 높다. 국립, 공립, 사립으로 분류된 자료에서는 각각의 학생 수에서 차지하는 집단 괴롭힘의 인지 건수의 비율은 국립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공립, 사립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중학교에서는 공립학교가 인지 총건수의 97%를 차지하며 동시에 국립·공립·사립별 학생 수에 대한 집단 괴롭힘도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초등학교에서는 고학년이 될수록 집단 괴롭힘이 많아지고, 중학교에서는 고학년이 될수록 감소하고 있다. 초·중·고등학교를 통틀어 집단 괴롭힘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학년은 중학교 1학년 시기로 16,370건이 인지되고 있다. 다만 고등학교에서는 중학교나 초등학교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집단 괴롭힘의 인지 건수는 크게 감소해 고학년이 되는 만큼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실태와 비슷하다.

다음으로 집단 괴롭힘이 계기가 되어 등교거부에 이른 경우는 초등학교에서 1.9%, 중학교 2.3%(2010년)로 나타났다. 학교 기본 조사에서는, 등교거부의 계기가 된 이유인 17항목 중 집단 괴롭힘은 14번째에 상당할 정도의 낮은 이유가 되고 있다(문부과학성, 2012). 하지만 집단 괴롭힘의 국제비교연구에 의

하면, 집단 괴롭힘의 피해를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학생의 비율은, 피해를 받은 학생의 33.9%에 이르고 있어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높은 비율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일본에서 이지메를 등교거부의 이유로 답한 비율은 정확한 수치라고 보기 어렵다(森田, 2010)는 의견도 있다.

문부과학성은 지금까지 학교나 교육청 등에 이지메 문제의 철저한 대처를 요청해 왔으나, 최근에도 이지메로 인해 학생이 자살하거나 학생들의 생명, 신체가 손상된 안타까운 사안이 발생하고 있다. 이들 사안 중에는 학교나 교육청에서 집단 괴롭힘의 징후 파악이나 대응이 부적절했다고 인식되는 사례가 있으며, 국가도 학교나 교육청의 대처에 수동적으로 대응했다는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문부과학성은 지금까지의 대처법을 되돌아보고 문제점을 직시하여 2012년 9월에 “왕따, 학교안전 등에 관한 종합적인 대처 방침”을 마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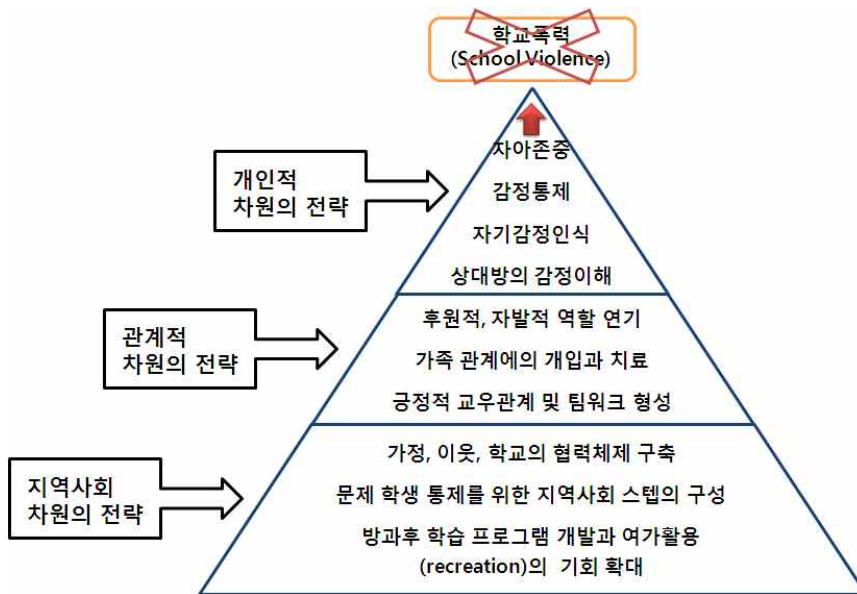
왕따 문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이 방침은 첫째, 학교·가정·지역이 하나가 되어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며, 둘째, 국가·학교·교육청의 협력 강화, 셋째, 왕따의 조기발견과 적절한 대응의 촉진, 넷째, 학교와 관계기관과의 연대촉진을 들고 있다. 또한 네 가지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자세한 대처 방안을 마련하였고, 2013년도 예산을 2012년도 보다 약 27억 엔이 늘어난 약 73억 엔을 책정하여 학교나 교육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하였다.

나. 미국의 학교폭력 예방 전략

정재준(2012)은 미국 학교에서의 학교폭력 유발 요인들에 대한 감소 전략을 연구하였는데, 결론적으로 가정과 학교 그리고 이웃이 활발한 의사소통을 유지하는 가운데, 방과 후 학습이나 학교폭력에 합동으로 대처하는 등 지역 사회의 환경 개선 등이 학교폭력을 줄이는데 건인차 역할을 한다고 제안하였다.

[그림 6]은 이에 대한 전개도를 나타낸 것으로, 지역사회 차원에서는 방과후 학습 프로그램이나 문제 학생 통제를 위한 지역사회 스텝 구성을 제안한다. 현재 미국 사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대표적인 방과후 학습프로그램에는 미국청소년축구교실(American Youth Football), YMCA soccer, Boys and Girls scouts, 4-H Club Activities, 미국정부지원 소년소녀클럽활동(Boys and Girls Club of America provide a safe) 등이 있다. 한 단계 더 나아가 관계적 차원의 전략에서는 긍정적 교우 관계와 팀워크를 형성하고 필요한 경우 가족 관계에 개입하거나 치료를 수행한다. 이러한 바탕 위에 개인적 차원에서는 상대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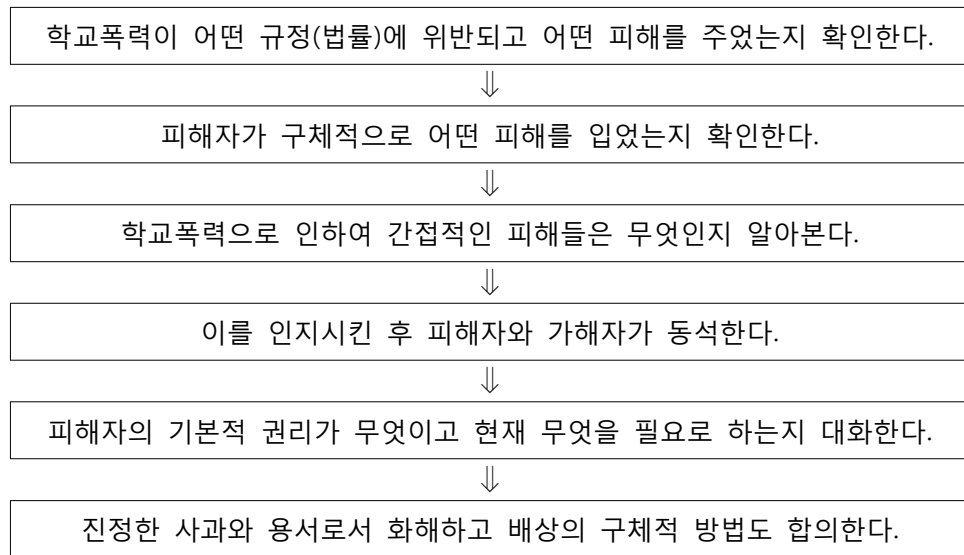
의 감정을 이해하고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며 궁극적으로 자아존중감을 길러 학교폭력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여준다.



[그림 6] 개인적·관계적·지역사회적 차원에서 미국의 학교폭력 대책

*출처 : 정재준(2012). 미국의 학교폭력 방지 대책.

미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또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관계회복적 화해와 중재’가 있다. 1974년 캐나다 Ontario주 Kitchener 지역에서 청소년 범죄를 대상으로 실험되었던 피해자·가해자 화해프로그램(Victim-Offender Reconciliation Program, VORP)은 1978년 미국 Indiana주 Elkhart 지역에 소개되면서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어 현재 약 300여개 이상의 프로그램이 작동 중이다. 미국법률가협회(American Bar Association, ABA)에서도 1994년 VORP의 실천과 법원에서의 반영을 널리 권장할 정도였다. 관계회복적 화해와 중재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대면에 의하여 진정한 사과와 용서를 구하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감정의 회복을 추구하는 제도이다. 학교에서의 적용 가능한 관계회복적 화해와 중재는 다음과 같은 사법적 절차를 가진다.



[그림 7] 가해자-피해자의 관계 회복을 위한 화해와 중재 절차

*출처 : 정재준(2012). 미국의 학교폭력 방지 대책.

이러한 회복적 사법의 장점은 가해자를 엄벌하거나 격리한다고 해서 피해자의 감정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과 법원의 일방적인 처벌보다 피해자에 대한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배상에 유리하다는 점이다.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은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응보적 정의는 실현할 수 있겠지만 이는 일시적인 통제와 감시로 억누를 뿐 근본적으로 해결책은 아니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회복적 정의가 더 힘을 얻고 있다.

Ⅲ.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의의와 실태

1.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의의

학생들은 사회화 과정에서 다양한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특히 학교라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또래 관계를 경험하는 학생들은 많은 갈등에 직면하게 된다. 학생들은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서로의 갈등을 조절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심한 갈등을 경험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폭력은 사소한 오해에서 시작되기도 하며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거나 관계를 조절해 나가는 사회성을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일어나기도 한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의 조사(2012)에 따르면, 왕따를 시키는 학생들은 피해학생의 행동이 잘못 되어서 왕따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물론 폭력을 가한 학생의 행동이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자신감이 없고 부정적인 자기 인식을 지닌 학생은 친구들 사이에서 약자의 위치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강자와 약자 같은 상하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교우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교 교육 안에서의 인성 및 사회성 교육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인식을 기르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기제로 작동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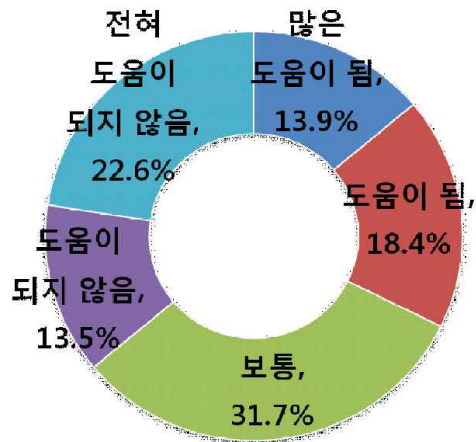
학생들 사이에서 문화처럼 확산되어 있는 학교폭력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리고 그 예방의 중심에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예방교육의 필요성은 궁극적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청소년들의 그릇된 인식과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가해학생 또는 가해의 위험징후가 있는 학생들에게 학교폭력은 범죄라는 인식을 심어 주고 바람직한 태도 변화를 유도하거나 언제 당할지 모를 학교폭력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하는 것이다.

2.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태

2011년 12월부터 두 달간 청소년폭력예방재단에서 실시한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최근 1년간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받은 경험에 대한 질문

에 1회 교육을 받은 학생은 29.6%, 2회 이상 교육을 받은 학생은 53.4%로 83%의 학생들이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지만, ‘예방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17%)’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도 여전히 높았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연2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방교육을 받지 못한 학생들도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학교폭력 예방교육 참여유무와 학교폭력 인지도(학교폭력을 보고도 모르는 척 하는 행동)에 대해 교차분석한 결과를 보면, ‘학교폭력을 1회 이상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인지도가 40.4%, 47.9%로 나타난 반면,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한 학생은 학교폭력을 인지한 확률이 35.5%로 나타나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통해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 및 민감성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8] 학생이 인식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도움 정도

*출처: 청소년폭력예방재단(2011).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 연구.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실제 폭력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보통(31.7%)을 제외하고 부정적인 의견이 36.1%, 긍정적인 의견이 32.3%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생들의 학교폭력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예방교육으로의 수정과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연간 한 두 번의 예방교육이 가져올 수 있는 실제적인 효과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국무총리실의 학교폭력 실태 보고(2011) 내용 중, 학교폭력의 가해 이유에

대한 조사에서 ‘장난’이 1위(27%), ‘상대학생이 잘못해서’가 2위(23%), ‘오해와 갈등’이 3위(16%)로 나타났다. 2009년 연구에서도 ‘장난’이 가해 이유의 1위로 나타난 바 있다. 이렇듯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학교폭력은 서로간의 기본적인 인권존중과 배려의식이 부족하다는 것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즉, 타인에 대한 배려심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이 개발되어 예방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재학 중 학교폭력 가해 유경험자 중 최근 1년간 학교폭력을 멈춘 학생을 대상으로 그 이유에 대해 질문을 한 결과 ‘스스로 나쁜 행동임을 알게 되어서’가 1위, ‘학교 담임선생님의 지도’가 2위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어 ‘학년이 올라갔거나 학교 졸업 등 환경이 바뀌었다’가 3위였다. 하지만 이외에도 ‘학교 폭력 예방교육을 받고 생각이 변했다’는 응답도 나타났다. 조사 결과를 들여다 보면 가해학생 입장에서 스스로 나쁜 행동임을 알게 될 때 폭력을 멈추게 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학생 스스로가 학교 폭력의 심각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교육하고 독려하여, 사전에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IV. 학교폭력 예방교육용 보완 지도자료 개발

1. 보완 지도자료 개발의 기본 방향

본 연구에서는 학교폭력을 예방·해결하고 학생들의 인성과 사회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수업할 내용(소재)과 관련된 긍정적 사례와 부정적 사례를 발굴하여 교과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보완 지도자료를 개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위한 교육 내용 체계를 구안하였다. <표 9>(35쪽)의 학교폭력 예방 및 치유를 위한 교육내용 체계는, 문헌연구 및 실태연구를 바탕으로 예방 또는 해결해야 할 학교폭력의 영역을 크게 언어 폭력, 심리적 폭력 및 따돌림, 신체 폭력, 사이버 폭력으로 나누고, 그 아래 소영역을 두어 각 영역에 속하는 폭력의 유형을 자세히 제시하여 구성하였다. 언어 폭력에 해당되는 소영역에는 ‘거친 말, 비속어, 욕설, 희롱, 모욕, 헐담, 비방, 소문 퍼뜨리기’가 있고, 심리적 폭력 및 따돌림에는 ‘무시, 눈흘김, 음란한 눈빛과 몸짓, 수치심 유발, 왕따, 은따’ 등을 선정하였다. 신체 폭력의 소영역에는 ‘시비, 폭행, 구타, 침뱉기, 유인, 감금, 약취, 성추행, 성희롱, 성폭력, 갈취’ 등이 포함되었고, 사이버 폭력에는 ‘인터넷, 스마트폰’과 관련한 폭력이 해당된다.

이를 바탕으로 수업의 내용 및 소재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는데, 내용 및 소재는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 초등학교 고학년(4~6학년), 중학교, 고등학교용으로 수준을 달리하여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하는 보완 지도자료는 학교폭력 예방을 목적으로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인성 및 사회성 교육이 되며, 학생들에게 길러주고자 하는 인성·사회성의 요소를 소영역, 중영역, 대영역으로 자세히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추구해야 할 인성·사회성 교육의 개인 차원 영역에는 ‘자기 존중, 자기 통제, 자기 성찰’의 중영역이 있고, 이는 ‘생명 존중, 인간 존엄성, 자기 주도성 이해, 기본생활습관형성, 자기 반성, 꿈과 미래 진로 탐색’으로 구성된다. 대인 관계 차원의 중영역에는 ‘협력’과 ‘갈등’이 있는데, 협력에는 ‘타인 존중, 공감, 나눔, 협동, 관용과 배려’가, 갈등에는 ‘소통과 타협, 갈등의 평화적 해결’이 포함된다. 공동체(사회적) 차원의 중영역에는 ‘권리와 의무, 자유와 평등’이 있고, 그 아래 ‘준법/질서, 정의와 공정, 다양성·타문화 이해,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포함되어 구성되었다.

<표 10>(36쪽)은 학교폭력 예방교육 보완 지도자료 교육내용의 주제를 학교 급별, 영역별로 구분하여 나타낸 것이다. 주제는 각 학교급별로 학생들의 생활에 있어서 가장 많이 문제가 되고 지도가 필요한 요소들을 선정하여 구성한 것이다. 한 번의 예방교육으로 인식과 태도 변화까지 이끌어 낼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반복교육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각 학교급별로 10개 내외의 보완자료를 개발하여 총 39개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보완 지도자료를 개발하였다.

학생들에게 폭력이나 자살 사건의 개요와 방법을 지나치게 자세히 알려주면 폭력을 행사하거나 자살하는 방법을 알려주게 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또한 잘못한 후 정직하게 고하여 칭찬을 듣고 자기존중감을 회복한 조지 워싱턴의 미담이 피노키오나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보다 거짓말을 줄이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긍정적인 사례를 많이 적용하여 반면교사(反面教師) 보다는 타산지석(他山之石)의 교육을 지향하여 긍정적 강화를 하고자 하였다.

보완자료는 교사들이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지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림 9]와 같이 구성하였다.

영역		대상		시간	
학습 주제					

I. 이 수업에 대하여

- 개요
- 목표
- 준비물
- 학습 내용

단 계	내 용
생각 열기	
생각 펼치기	
활동하기	
생활에 적용하기	

- 유의 사항

II. 수업 과정안

- 생각 열기
- 생각 펼치기
- 활동하기
- 생활에 적용하기

III. 참고 자료

- 읽기 자료/학습 자료
- 참고 문헌

[그림 9] 보완 지도자료의 구성 체계

각 구성 요소의 성격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표 7> 보완 지도자료의 구성

👉 **영역**(언어 폭력, 심리적 폭력 및 따돌림, 사이버 폭력), **대상**(초저, 초고, 중, 고), **시간**, **학습 주제** 제시

👉 **I. 이 수업에 대하여**

- 본 학습 주제를 선택한 이유와 수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길러주고자 하는 지식이나 태도에 대한 **개요**, 그에 따른 수업의 **목표**와 수업에 필요한 **준비물**을 제시함
- 수업 과정안에서 다루고 있는 **학습 단계**와 주요 **학습 내용**을 제시함. 학습의 단계는 생각 열기 → 생각 펼치기 → 활동하기 → 생활에 적용하기의 순으로 구성하여 체계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하였음
- 교사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염두에 두어야 하는 사항이나 사전 준비와 같은 점은 **유의 사항**에 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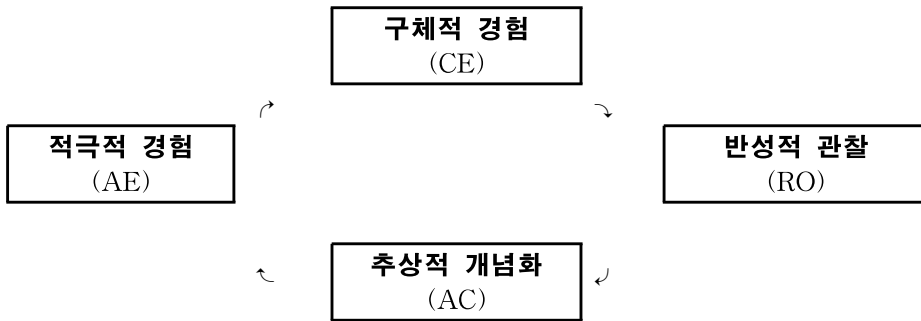
👉 **II. 수업 과정안**

- 수업에 단계에 따라 수업의 과정과 내용을 자세히 제시하였고, 활동은 **체험형, 실험형, 실습형, 실기형, 공감형, 프로젝트형, 문제해결형** 등을 적용하여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함

👉 **III. 참고 자료**

- 수업을 하는데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학습 자료**(활동지)나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읽기 자료**를 제공하였음
- 본 수업에 사용된 **참고 문헌**과 **인터넷 사이트**를 제시하여, 교사들이 필요시 자료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여기서 학교폭력 예방과 실천은 실질적인 행동과 관계가 있으므로 경험학습 이론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경험·체험을 통한 학습이론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콜브(Kolb, 1984)의 ‘경험학습사이클(Experiential Learning Cycle)’이론이며, 이는 '행함(doing)으로써 배운다(learning)'라는 J. Dewey의 경험론에서 반성적 사고과정과 J. Piaget의 인지발달이론을 응용·발전시킨 것이라고 알려져 있다. 교육·실습을 통해 얻은 경험은 학습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학습에 관한 이런 관점을 ‘경험학습’이라 한다. 콜브는 아래 그림처럼 경험적인 학습순환 과정을 통해 학습(행동습관, 행동교정 등)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그림 10] Kolb의 경험학습이론의 순환구조

‘콜브의 학습 사이클’은 순환적 학습 모형으로 학생들은 다음의 순환과정을 겪는다. 첫째, 학습자는 새로운 경험에 충분히 자유롭게 참여해야 한다(CE : Concrete Experience). 둘째, 학습자는 다양한 관점에서 자신의 경험을 반성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RO : Reflective Observation). 학생들 사이의 상호 토론과정을 통해 타인의 피드백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이 이 부분에 해당한다. 셋째, 학습자는 아이디어를 재구성, 처리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건전하고 논리적인 이론으로 통합할 수 있어야 한다(AC: Abstract Conceptualization). 넷째, 학습자는 자신의 이해를 활용하여 의사결정과 문제해결을 시도하고, 새로운 상황에서 가설을 검증한다(AE : Active Experimentation). 이 과정에서 생성된 자료는 다시 구체적 경험으로 이어지는 등 과정을 순환하게 된다.

콜브는 듀이, 피아제 등의 연구를 바탕으로 경험으로부터의 학습은 4가지 다른 능력들을 요구한다고 보았고 이러한 차원들을 순환적 과정으로 나타내었다. 첫째, 구체적 경험을 위해서는 새로운 경험에 접하고자 하는 개방성과 의지가 요구된다. 둘째, 반성적 관찰에서는 새로운 경험을 다양한 관점으로 보는 관찰적·반성적 기술이 요구된다. 셋째, 추상적 개념화에서는 관찰로부터 아이디어와 개념을 분석해 내는 능력이 요구된다. 넷째, 능동적 실험단계에서는 실제상황에서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의사결정과 문제해결에 활용한다. 따라서 경험학습의 사이클은 행하기 뿐만 아니라 반성하기, 처리하기, 사고하기, 이해하기를 포함하며, 이러한 변화를 통하여 학생들은 학교폭력의 다양한 유형에서 기본개념을 획득하고,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필요로 하는 학교폭력의 예방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을 배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 교수학습과정의 핵심으로 채택하고 있는 ‘생각열기, 생각펼치기, 활동하기, 생활에 적용하기’는 콜브의 경험학습이론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다음과 같이 연결될 수 있다고 본다.

<표 8> 콜브(Kolb)의 경험학습 이론과 본 지도자료 활동 단계와의 관련성

과정	생각열기(CE-RO)	생각펼치기(RO-AC)	활동하기(AC-AE)	생활에 적용하기(AE-CE)
활동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험 이야기하기 -사례 읽기 -동영상매체 활동 -읽기 자료 활용 -기본 개념 이해 -문제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사사례 가져오기 -문제 확대 이해 -문제 해결 방법 생각하기 -토론하기 -평가해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제로 해보기 -실험해보기 -역할극하기 -협동하기 -보고서 작성하기 -퀴즈대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짐하기 -실천하기 -적용하기 -봉사하기 -예방하기 -화해하기 -중재하기 -신고하기 등

즉, ‘생각열기’ 단계는 콜브의 ‘학습자는 새로운 경험에 충분히 자유롭게 참여해야 한다’와 맥락을 같이 하여 학습자가 새로운 상황에 접하여 도전 의식을 갖게 하는 단계로 생각한다. ‘생각펼치기’는 콜브의 ‘학습자는 다양한 관점에서 자신의 경험을 반성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와 관련하여 문제에 대한 이해와 이의 해결을 위한 모둠별 토의 등으로 사고를 확장하는 단계이다. ‘활동하기’는 콜브의 ‘학습자는 아이디어를 재구성, 처리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건전하고 논리적인 이론으로 통합할 수 있어야 한다’와 연계하여 실험, 실습, 역할극 등을 통해 학습자의 사고 체계, 행동 체계에 변화를 주고자 하는 단계이며, 마지막으로 ‘생활에 적용하기’는 콜브의 ‘학습자는 자신의 이해를 활용하여 의사결정과 문제해결을 시도하고, 새로운 상황에서 가설을 검증한다’와 관련하여 문제 해결 역량을 실생활에서 발휘하도록 하는 것으로 연계할 수 있다.

영역별 주제에 대한 지도자료의 분량은 수업에 대한 전체적인 개관이 1쪽, 실제 수업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2쪽, 참고자료 1쪽 등 모두 4쪽을 기본으로 하였으나, 일부 학생 활동이 많거나 참고할 만한 읽기 자료, 그림 자료 등이 많은 경우 1~2쪽 정도 분량이 늘어난 주제도 있다.

<표 9> 인성 및 사회성 교육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 및 치유의 교육내용 체계

예방, 해결해야 할 학교폭력		수업의 내용, 소재				추구해야 할 인성·사회성 교육		
대영역	소영역	초·저	초·고	중	고	소영역	중영역	대영역
언어 폭력	거친 말, 비속어, 욕설, 희롱, 모욕, 헐담, 비방, 소문 퍼뜨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른말 고운말, 의사소통법, 경청법, 설득하기, 안심시키는 말, 분노 누그러뜨리는 말, 역지사지하고 배려(허물 덮어주기)하는 말, 남의(내) 말의 이해와 오해, 토론에서 반대 의견과 개인의 인신공격을 구별해내기- 비밀 지키기와 약속 파기(고자질), 거짓말과 속임, 희롱과 욕설(욕의 어원 알기), 비방과 헐담, 공갈과 협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명 존중• 인간 존엄성	자기 존중	개인 차원
	심리적 폭력 및 따돌림					무시, 눈 흘김, 음란한 눈빛과 몸짓, 수치심 유발, 왕따, 은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움과 용서, 분노와 적개심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이해, 분노와 충동 조절법, 열등감과 놀림감, 우월감과 자아존중감, 또래 상담, 인내하기, 심리적 상처 치유하기(트라우마 후의 성장), 행복한 사람 되기(희망, 기쁨, 보람, 긍지, 사랑)- 심리적 거리와 교우관계도(sociogram), 사람들은 왜 적군과 아군을 만드는가? 차별(전입생, 다문화, 장애우, 저소득층, 편부·편모·조손·한부모), 편애, 이성·동성간 친소관계	
신체 폭력		시비, 폭행, 구타, 침 뱉기, 유인, 감금, 약취, 성추행, 성희롱, 성폭력, 갈취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몸의 소중함, 자기 존중과 타인 존중, 갈등의 폭력적 대응과 평화적 해결, 권리와 인권, 학급 규칙, 역할 분담, 책임과 의무, 자치 법정, 자해와 자살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기 반성• 꿈과 미래 진로 탐색	자기 성찰
	사이버 폭력	인터넷, 스마트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타인 존중• 공감, 나눔, 협동• 관용과 배려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통과 타협• 갈등의 평화적 해결	갈등	공동체 (사회적) 차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권리(인권)와 책임(의무)• 준법/질서	권리와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의와 공정• 다양성·타문화 이해•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	자유와 평등	

<표 10> 보완 지도자료 교육내용의 학교급별, 영역별 주제

영역	초저	초고	중학교	고등학교
언어 폭력	① 예쁘게 말해요 ② 그런 별명은 싫어요!	③ 욕에 관한 불편한 진실 ④ 위험한 이야기, 소문! ⑤ 친구가 내게 준 믿음의 증거물, 비밀을 지켜요	① 욕의 뜻, 제대로 알고 쓰는 거야? ② 내가 한 험담(비방), 그에게는 마음의 상처가 되어	③ 친구에 대한 위협(협박)은 이제 그만, 상처주지 말아! (고) ④ 친구들아, 모욕을 당하면 수치심을 느껴 힘들어! ⑤ 말이 우리에게 주는 힘을 아직도 모르겠어?
심리적 폭력 및 따돌림	① 우리는 달라요 1 ② 우리는 달라요 2 ③ 친구를 사귀어요.	④ 다함께 어울려요! ⑤ 정말 내 탓이 아닐까?	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② 화, 분노란 무엇일까?	③ 나는 나! ④ 내 마음에 귀를 기울여요.
신체 폭력	① 친구의 얼굴을 살펴 보아요. ② 그건 장난이 아니야!	③ 폭력 생활, 이제 그만! ④ 위험한 폭력의 눈덩이, 굴리지 마세요. ⑤ 한 박자 쉬고!	① 학생들 사이에도 약취, 유인, 감금은 나쁜 범죄입니다. ② 우리 손으로 만들어 보아요. ③ 학교폭력 신고, 두려워 말아요!	④ 역할 바꿔 생각해 봐! ⑤ 모든 생명은 소중해요. ⑥ 너와 나, 우리! 자존감을 갖자
사이버 폭력	① 너와 나의 얼굴, 인터넷 예절 ② 사이버 폭력, 이제 그만!	③ 악플? 조사하면 다 나와! ④ 개념 찬 초딩으로 거듭나기	① 비방보단 선플로 표현해 봐! ② 내 사진을 마음대로 바꾸지 말아줘! ③ 스마트폰 폭력은 친구에게 휘두르는 흥기와 같아	④ 왕따 카페 탈출기~ ⑤ 신상 털기 이제 그만!

2. 학교폭력 예방교육용 보완 지도자료 개발의 예

영역	언어 폭력	대상	초등 저학년	시간	40분
학습 주제	예쁘게 말해요				

I. 이 수업에 대하여

1. 개요

학생들은 생활하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거나 자신의 인격을 스스로 낮추게 되는 언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이 수업은 과학 실험을 통해서 친구에게 사용하는 거친 말이 서로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직접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하고, 거친 말로 인해 마음이 상했던 것을 사과하여 친구 사이에 긍정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2. 목표

- 실험을 통해 말이 가진 힘을 알고 자신의 언어 습관을 반성할 수 있다.
- 친구 사이에 긍정의 말과 부드러운 말로 대화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다.

3. 준비물

- 도서나 디지털 도서 자료 「화내지 말고 예쁘게 말해요(안미연, 2008)」, 뚜껑이 있는 투명한 용기, 밥

4. 학습 내용

단 계	내 용
생각 열기	기분이 좋아지는 말과 나빠지는 말에 대한 경험 이야기하기
생각 펼치기	이야기 자료를 듣고 슬픔에 빠진 주인공 도와주기
활동하기	'밥' 실험 결과를 통해 말의 힘을 알고 언어 습관 반성하기
생활에 적용하기	친구에게 미안함을 전하고, 용서하기

5. 유의 사항

- 수업 2~3주 전에 미리 밥 실험을 시작하여 수업 때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 밥 실험을 통해 긍정의 말과 부정의 말이 주는 영향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한다.

II. 수업 과정안

1. 생각 열기

◎ 기분이 좋아지는 말과 나빠지는 말에 대한 경험 이야기하기

- 우리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말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여러분의 기분을 나쁘게 만드는 말은 어떤 말인가요?

◎ 거친 말을 했거나 들었던 경험 이야기하기

- 거친 말이나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을 했거나 들었던 경험 이야기해 봅시다.
-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 어떤 말을 들었습니까?
- 그 때 여러분은 기분이 어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행동하였습니까?

2. 생각 펼치기

◎ 「화내지 말고 예쁘게 말해요」 이야기 듣기

<화내지 말고 예쁘게 말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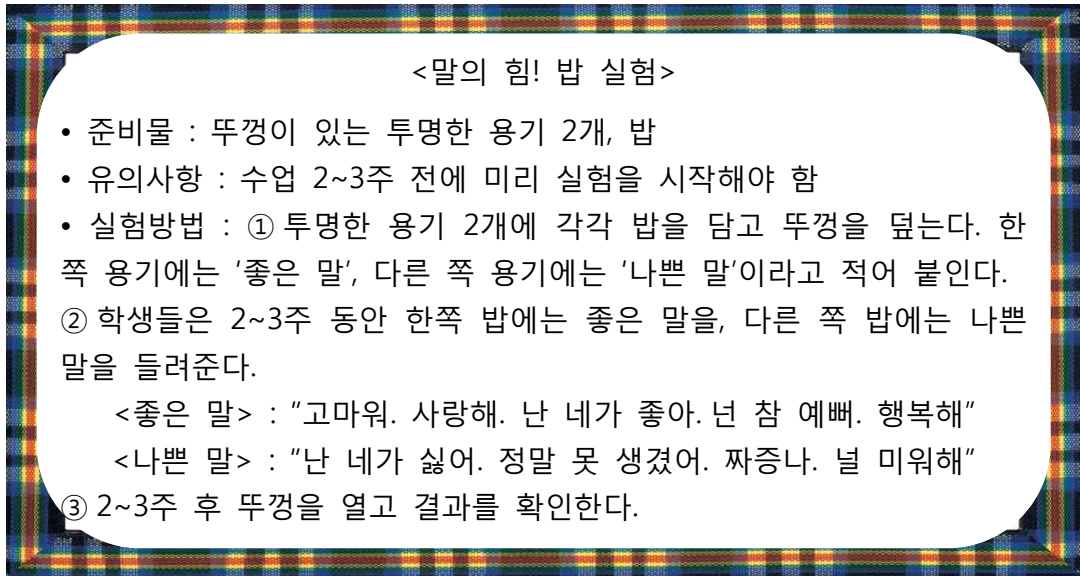
화를 내며 거칠게 말하는 꼬마 고슴도치 '도치'의 별명은 버럭쟁이입니다. 어느 날, 도치의 머리 위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생겼습니다. 도치가 버럭 소리를 질러도 구름은 없어질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장난감을 만진 동생에게 소리를 질렀더니 구름이 식빵만큼 커졌고, 친구에게 화를 내며 거칠게 말했더니 이번에는 구름이 그림책만큼 커졌습니다. 도치가 화를 내며 말할 때마다 머리 위의 구름이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번개가 떨어지고 천둥이 쳤지요. 도치 주위엔 이제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구름 때문이지요. 도치는 혼자 평평 울고 있습니다. 도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도치'는 어떤 꼬마입니까?
- 도치가 화를 내며 거칠게 이야기할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 여러분이 도치의 친구였다면 어떤 기분이 들었을 것 같습니까?

◎ 도치를 도와주세요!

- 도치는 왜 울고 있나요?
- 친구들이 버럭쟁이 도치를 떠났어요. 어떻게 하면 친구들이 다시 도치에게로 돌아올까요?

3. 활동하기 : 실험하기



<말의 힘! 밥 실험>

- 준비물 : 뚜껑이 있는 투명한 용기 2개, 밥
- 유의사항 : 수업 2~3주 전에 미리 실험을 시작해야 함
- 실험방법 : ① 투명한 용기 2개에 각각 밥을 담고 뚜껑을 덮는다. 한 쪽 용기에는 '좋은 말', 다른 쪽 용기에는 '나쁜 말'이라고 적어 붙인다.
② 학생들은 2~3주 동안 한쪽 밥에는 좋은 말을, 다른 쪽 밥에는 나쁜 말을 들려준다.
 <좋은 말> : "고마워. 사랑해. 난 네가 좋아. 넌 참 예뻐. 행복해"
 <나쁜 말> : "난 네가 싫어. 정말 못 생겼어. 짜증나. 널 미워해"
③ 2~3주 후 뚜껑을 열고 결과를 확인한다.

◎ 밥 실험의 결과 살펴보기

- 유리병의 뚜껑을 열어서 좋은 말을 해준 밥과 나쁜 말을 해준 밥의 색깔, 모양, 냄새 등을 살펴봅시다.

◎ 말의 힘에 대해 이야기하기

- 생명이 없는 밥도 우리들의 한 마디 한 마디 말에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다면 말을 알아듣는 우리들은 어떨까요? 이번 실험을 통해 느낀 점을 이야기해 봅시다.
- 우리들은 친구들과 어떤 말로 이야기를 나누어야 할까요?

4. 생활에 적용하기

◎ 친구야 미안해...

- 두 명의 친구는 앞으로 나와서 서로 양 손을 잡고, 친구의 말에 마음이 아팠던 기억을 이야기 해보세요.
- 친구의 속상함을 들은 다른 친구는 친구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생각하며 따뜻한 말로 미안함을 전달하세요.
- 다른 친구들은 이 두 명의 친구에게 박수를 보내주세요.

◎ 이번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과 다짐 발표하기

- 오늘 활동을 통해 느낀 점과 앞으로 여러분의 다짐을 이야기해 봅시다.

◎ 생활과제 : 하루 동안 친구들과 존댓말로 대화하기

Ⅲ. 참고 자료

1. 읽기 자료

<무심코 뱉었던 가시 돋친 말... 미안, 친구야>

“빌린 친구 교과서에 낙서를 한 채로 돌려줬어요. 수업도 안 듣느냐는 친구의 말에 화가 나 너는 얼마나 공부를 잘하느냐며 싸웠어요.” “장난으로 친구 필통을 숨겼는데 친구가 저보고 맨날 그런다고 했어요. 화가 나 필통을 던져 버리고 싸웠어요. 사과하려 했지만 친구가 또 화를 내는 바람에 한 달 동안 말도 안 하고 지냈어요.”

서울 중구 창덕여중 1학년 1반 학생들이 사소한 일 때문에 친구들과 다툰 일들을 털어놓았다. 6일 오전 국어시간이었다.

학생들이 말한 싸움의 원인은 모두 사소한 내용이다. 자신도 모르게 몸에 밴 말투, 친구를 따돌리는 장난, 서로 편하게 말해도 된다는 생각 등등. 얘기를 들은 조건하 교사(26)는 같은 얘기도 부드럽게 말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너 복도에서 뛰지 말랬잖아,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네가 넘어질까 걱정된다고 선생님이 너희들에게 얘기하는 게 좋지 않겠니?” 화가 나도 상대방을 질책하기보다는 자신의 마음을 차분하게 말해 주라고 조언했다. 서로 사랑하는 애인끼리도 말 한마디에 싸울 수 있다는 설명에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조 교사와 학생들의 대화가 끝난 뒤 역할극이 시작됐다. 똑같은 상황이 주어졌지만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말하는 방법을 바꿨다. 물건을 훔친 친구에게 “넌 얼굴도 못생겼고 키도 작는데 돈도 없어서 내 돈을 훔치느냐”며 욕박지르던 아이들이 “난 너에게 정말 실망했어. 하지만 그 돈이 꼭 필요해서 가져간 거라고 생각해. 다시는 그런 짓을 안 하면 좋겠어”라고 말했다. 학생들은 잠시 어색해했지만 친구를 포함한 주변 사람들과 사이 좋게 지내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느꼈다. 국제희 양(13)은 “수업에서 많은 점을 느꼈다. 친구에게 잘못된 일이 있으면서도 오히려 짜증내고 사과하려 하지 않았던 내 모습을 돌아보게 됐다”고 말했다.

[http://news.donga.com/3/all/20120907/49186261/1\(2012.09.07\)](http://news.donga.com/3/all/20120907/49186261/1(2012.09.07))

2. 참고 문헌

박광철(2010). 재미와 감동이 있는 협력놀이. 즐거운 학교.

안미연(2008). 화내지 말고 예쁘게 말해요. 상상스쿨.

에시모토 마사루(2008). 물은 답을 알고 있다. 더난 출판사.

이상현(2011). 흥하는 말씨 망하는 말투. 현문미디어.

<말의 힘 동영상 1> <http://cafe.naver.com/spstudy2012/105>

<말의 힘 동영상 2> <http://cafe.naver.com/whitelambs/328>

<말의 힘 동영상 3> <http://blog.naver.com/sunid4999?Redirect=Log&logNo=110143720849&jumpingVid=9F368164A29EC73B2CDF977D5A4B782B3374>

V. 요약 및 제언

1. 요약

본 연구는 학교에 만연한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를 비롯하여 범부처적으로 마련한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2012.2.6)」에 따라,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을 예방·지도할 수 있는 자료를 개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방법은 주로 문헌연구, 자료 개발연구, 전문가협의회였으며, 이를 통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전반적인 전략 수립과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측면에서의 방법 모색에 대한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연구 내용은 학교폭력의 특징과 실태를 분석하였고,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의의와 실태를 알아보았으며,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위한 보완 지도자료를 개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바탕으로 초·중·고등학교에서 적용해야 할 학교폭력 예방교육 지도 자료를 구안하여 그 내용체계에 따라 각 학교급별로 10개 내외, 총 39개의 교사를 위한 수업지도용 보완자료를 개발하였다.

이러한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우선 이론적 측면에서 학교폭력의 개념과 발생원인, 학교폭력의 유형 및 특징을 고찰하였다. 또한, 초·중등학교의 학교급별로 학교폭력의 유형과 특징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각종 지표를 검토하여 저연령화, 중학생 학교폭력 증가율의 상승, 동조자 또는 방관자의 증가, 가해와 피해의 악순환, 지속적·반복적·지능적인 정신적 괴롭힘 증가, 학교폭력의 집단화 등이 최근 학교폭력의 새로운 경향임을 밝혔다. 한편, 외국의 사례로 일본과 미국의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 전략을 살펴보았다.

학교폭력 예방교육 지도 자료를 개발하기 위하여 그 기본 방향을 언어 폭력, 심리적 폭력 및 따돌림, 신체 폭력, 사이버 폭력으로 나누고, 그 하위에 소영역을 두어 각 영역에 속하는 폭력의 유형을 자세히 제시하여 구성하였다. 먼저, 언어 폭력의 하위 영역에는 거친 말, 비속어, 욕설, 희롱, 모욕, 헐담, 비방, 소문 퍼뜨리기 등을 포함하였다. 심리적 폭력 및 따돌림 영역에는 무시, 눈흘김, 음란한 눈빛과 몸짓, 수치심 유발, 왕따, 은따 등이 있으며, 신체 폭력 영역에는 시비, 폭행, 구타, 침 뱉기, 유인, 감금, 약취, 성추행, 성희롱, 성폭력, 갈취 등을 포함하였다. 사이버 폭력 영역에는 인터넷, 스마트폰 등으로 구분하여 제

시하였다.

이와 같은 4개의 대영역은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 초등학교 고학년(4~6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등으로 구분하여 그 하위에 영역별로 구체적인 보완자료를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교육활동을 통하여 추구해야 할 인성·사회성 역시 소영역, 중영역, 대영역으로 구분하여 지향해야 할 인성교육이 개인 덕목과 사회적 관계에 대한 덕목 등과 연계될 수 있도록 구안하였다.

지도 자료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운영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영역, 대상, 시간, 학습주제, 수업의 개요와 목표, 준비물, 유의사항 등을 제시하였다. 학습 내용은 생각 열기, 생각 펼치기, 활동하기, 생활에 적용하기 등 4단계로 구성하여 학습과정을 손쉽게 파악하고, 학생들이 해당 주제에 대해 공감하고 깨우치며 체험을 통해 성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업 과정안은 체험형 활동과 생활에 적용하는 것을 강조하였으며, 학습을 위한 보충자료와 읽기자료 등을 제시하여 학습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결과는 정부 정책결정자에게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향후 초·중등학교 교육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학교 교원에게는 학생들의 협력, 대인관계능력 증진, 협동심 배양 등 사회적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위해 교사가 수업 시간이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지도 자료를 초, 중, 고등학교의 학교급별로 수준과 내용을 다양화하여 제공하였기 때문에 교사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학생에게는 체험 중심의 다양한 유형의 수업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기 때문에 가해자, 피해자, 방관자, 적극 동조자, 소극 동조자 등 학교폭력을 둘러싼 그간의 행동습관과 생활 관행을 바꿀 수 있는 교육용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학습과정에 참여하고 체험하며, 공감하고 성찰하는 계기를 통해 학생들은 역지사지의 기회와 동료 및 상·하급생, 교원, 어른들과 상호예의를 지킬 수 있는 교육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학부모에게는 학교내 집단에서의 행동양식을 이해하고, 학습 스트레스로 인한 병리적 행동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데 필요한, 학교폭력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교사와의 상담 활성화 및 자녀와의 대화법 등을 보완 교재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제언

본 연구는 학교폭력의 실태, 발생원인 분석, 최근 학교폭력의 유형과 특징의 분석, 외국의 사례 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바탕으로 교과서 보완 지도자료를 개발하였기 때문에 그 교육적 가치나 실용적 측면이 기대된다. 학교에서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일정한 교육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가. 교육행정가

-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교육은 단기적 처방으로는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계획적이고 자율적이며 지속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행정력을 강화해야 한다.
-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정규교과 교육과정과 창의적 체험활동의 자율활동 등을 활용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학교 교육과정에서 인성, 감성, 사회성 교육 과정이 특성화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 개발된 보완 지도자료가 정규교과와 연계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 본 연구에서 개발된 보완 지도자료의 활용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용을 추가, 신설하는 등 재구성하여 지도할 수 있도록, 본 교재를 활용한 전교원의 연수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는 특정 교원에게만 기대서는 학교폭력의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 본 연구에서 개발한 지도자료를 파일로 각급 학교에 제공하고, 2009 개정 교육과정 총론(2012.7.9. 고시)과 연계하여 주교재 또는 보조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한다.
- 본 연구에서 제시된 보완 지도자료가 소책자 형태로 전체 학교와 교원에게 보급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학생에게는 학습지나 교육자료 성격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 교육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범 공개수업 등을 추진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우수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교수·학습 방법의 기법을 확산시킨다.
- 이 연구를 보완하기 위해 ‘각과 교육과정과 연계성 분석 연구’, ‘과정안 내용 상시 보완 연구’를, 학부모를 위한 ‘자녀 폭력 방지와 대응’에 대한 후속 연구를 추진한다.

나. 학교장

- 학교장은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핵심적인 주체이다. 학교에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과정에 인성, 감성, 사회성 교육요소를 충분히 내재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특정 교과나 특정 교사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 학교 전반적인 교육 환경내에서 예방교육을 위한 인프라(infrastructure)를 구축하되, 특히 교수·학습 자료를 활용하여 정규교육과정과 연계될 수 있도록 교내 자율장학을 강화해야 한다.

다. 교사

- 본 연구의 교수·학습 과정안은 실습, 실기, 토의, 토론 등 체험형 중심으로 개발된 것이다. 따라서 모든 학생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며 일상 생활에서 실천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 본 연구에서 개발한 교수·학습 과정안의 궁극적인 도착지점은 학습자 내면의 변화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습 결과에 대한 피드백과 상담 자료로서도 기능할 수 있도록 수업 과정안에 대한 교사의 재구성이 필요하다.
- 학교폭력은 학습자의 실태와 경험, 관심, 흥미 등을 고려한 예방교육이 효과적이다. 스스로 문제점을 유추하고 해결방안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실천중심의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 본 자료는 교과 및 교과외 시간인 창의적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적절하게 지도하며, 교수·학습을 통한 결과는 학습의 정의적 측면과 연계하여 평가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다.
-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교수·학습은 예방을 위한 인식과 행동의 변화에 초점을 둔다. 단순히 실태와 실상을 이해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학습의 소재는 주변의 현실적 사안을 활용하는 것이 교육적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수업 지도안에 교사의 보충자료나 새로운 형태의 학습 소재를 가감하여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한다.



강영혜·이미라·박성호(2012). **학교폭력 조사현황과 과제**.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OR 2012-05-1.

관계부처합동(2012.02.06).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교육과학기술부(2012.04.18).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른 후속 업무처리 매뉴얼.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2012.12.10). 제52회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보고 자료.

권현용·김현미(2009). 학교폭력 가해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요인에 관한 질적 분석. **한국 동서정신과학회지**, 1(12), 1~12.

김봉철·주지혁·최명일(2009). 학교폭력에 대한 학부모들의 낙관적 편견과 예방 캠페인에 대한 탐색적 고찰. **언론과학연구**, 9(4), 65-97.

김재철·조현분·최원형(2010). 애착, 학교폭력 가해경험, 분노, 학교폭력 피해경험의 구조적 관계. **열린교육연구**, 18(1), 185-209.

김지선(2005). 청소년비행 예방을 위한 결연관계의 새로운 모델 : 멘터링 프로그램.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19호, 257-300.

남상임(2008). 청소년 학교폭력 실태 및 대처방안. **21세기사회복지연구**, 1, 101-115.

노순규(2012). **학교폭력의 원인과 해결 방법**. 서울: 한국기업경영연구원.

데이비드 존슨·로저 존슨(2000). **갈등 해결을 통한 학교 폭력 예방**. 백의.

문성호·윤동엽(2011). 학교폭력에 관한 뉴스프레임 연구. **미래청소년학회지**, 8(1), 87-109.

문용린 외(2010). **학교폭력의 현황과 과제**.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OR 2010-04-4.

문용린(2006). **학교폭력 예방과 상담**. 서울: 학지사.

문용린(2008). **학교폭력 위기개입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문재형(2012). **학교폭력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서울: 살림터.

박은희(2002). 일본의 학교 이지메 현상과 대응. **일본어교육**, 22, 157-172.

박유진(2008).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구안**. 석사학위논문.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박효정 외(2006). **학교폭력 대처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RR 2006-8.

박효정 외(2008). **학교폭력 지표개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RR 2006-09-01.

법제처(2012).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시행2012.5.1).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2012).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시행2012.5.1). 국가법령정보센터.

손경원(2008).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사회 규범적 접근. **한국도덕윤리교육학회**, 26, 101-124.

안정숙·신승우(2001). **집단괴롭힘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 엄병용·송민경(2011). 학교 내 청소년들의 권력관계 유형과 학교폭력 참여 역할 유형. **한국사회복지학회**, 63(1), 241-266.
- 염영미(2011). 학교폭력가해청소년과 학교폭력피해청소년의 특성연구 : 자존감의 매개효과. **미래청소년학회지**, 8(3), 117-136.
- 유성은·하미경(2011).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중학교 환경계획에 관한 연구. **디자인 지식저널**, 20, 327-336.
- 윤소영·유미숙(2011). 일반긴장이론에 근거한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청소년의 정서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4(4), 59-75.
- 이동원(1999). 미국의 청소년 폭력예방 프로그램의 고찰-뉴욕의 RCCP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10(3), 295-317.
- 이병환(2010). 학교폭력 대처를 위한 지역유관기관의 지원체제 정립과 활성화 방안.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교육문화연구**, 16(2), 45-73.
- 이이자와 타카오(2012). 일본의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대응. 2012 국제 교과서 심포지엄 자료집.
- 이재훈(2012). **학교폭력 실태와 대책 분석을 통한 예방 수업 프로그램 개발**. 석사학위논문. 대구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희연·이미연(2006). 학교폭력 피해아동의 학교적응유연성과 관련된 보호 요소 탐색. **경성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학논총**, 11(2), 83-102.
- (사)한국학교교육연구원(2012.7). **인성교육, 답은 무엇인가?** 인성교육 심포지엄 자료집.
- 장투용(2008). **학교폭력 및 약물예방 상담과정**. 도서출판 조은.
- 정슬기(2003). An Application of the Primary Socialization Theory to Alcohol and Drug-Related Crime among American Youth on Probation. **청소년복지연구**, 5(1), 129-141.
- 정재준(2012). 미국의 학교폭력 방지대책. **서울대학교 법학**, 53(1), 529-570.
- 정정애(2012). 학교폭력과 가정폭력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지원학회**, 7(1), 301-318.
- 정종진(2012). **학교폭력 상담. 5: 이론과 실제 편**. 서울: 학지사.
- 정탁준(2009). 학생생활지도의 도덕교육적 의미와 제안 : 학교폭력을 중심으로.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28, 57-80.
- 조정실·차명호(2010). **폭력없는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학지사.
- 청소년폭력예방재단(2012).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 연구**.
- 최영신(2001). 미국의 청소년 폭력 예방프로그램 : 폭력예방을 위한 청사진. **형사정책연구소식 통권 제67호**. 14-21.
- Ken Rigby(1996). *Bullying in Schools and What to do about it*. Jessica Kingsley Publishers. Pennsylvania.
- Kolb, D. A.(1984). *Experiential Learning*. Prentice-Hall, Englewood Cliffs, New Jersey.
- 교육을 바꾸는 사람들 <http://21erick.org/edu/>

【일본 참고문헌】

- 朝長 昌三·福井 昭史·地頭蘭 健二·小島 道生·中村 千秋·小原 達朗·柳田 泰典(2009). 児童生徒の特性からみた生徒指導の質的改善 학생의 특징으로 본 학생지도의 질적 개선 Qualitative Improvement of Student Guidance from the Viewpoint of Special Characteristics of Pupils and Students : Aggressiveness of Junior High School Students. Bulletin of Faculty of Education, Nagasaki University. *Educational science* 73, 17-30.
- 伊藤 誠朗(2010). 児童の人間関係を育てる実践の検討 ―グループ学習の工夫を通して― 아동의 인간관계 형성을 육성하는 실제의 검토-그룹학습의 이점을 통해서-. 奈良教育大学教職大学院研究紀要「学校教育実践研究」, 2, 11-20.
- 岡崎 由美子·安藤 美華代(2012). 心理教育的アプローチに対する教育現場の実態とニーズ 심리교육적 접근을 대한 교육현장의 실태와 수요. 岡山大学教師教育開発センター紀要, 2, 33-42.
- 玉野井 敬治(2008). 道徳教育の全体計画にみる、各学校への浸透度の実態(情報教育と情報モラル,新しい教育の波). 도덕교육 전체 계획에서 보는 각 학교의 침투도 실태 (정보교육과 정보윤리, 새로운 교육의 파도), 年会論文集 (24), 238-239.
- 加藤 弘通(2011). 小学校の学級はどのようにして崩壊するのか 초등학교의 학급 붕괴는 어떻게 일어나는가-「側近」の離反としての学級崩壊 (特集 学級崩壊を建て直す). 教育と医学, 59(7), 664-669.
- 黒沢 幸子(2012). 学校で活かすいじめへの解決志向プログラム―個と集団の力を引き出す実践方法 : Solution-Focused Schools : Anti-Bullying Beyond. 199. 金子書房.
- 三坂 彰彦(2011). いじめ被害から不登校となった生徒への対応 이지메 피해로 등교거부가 된 학생에 대한 대응. 教育問題法律相談, 31. 教育公論社,
- 桂川 泰典, 菅野 純(2012). いじめ 予防と対応Q&A73 이지메의 예방과 대응 Q&A 73. 164. 明治圖書.
- 重吉 直美, 大塚 泰正(2012). 中学生に対する怒りのコントロールプログラム実施効果の検討 <論文> 중학생의 화(분노) 조절 프로그램 실제 효과의 검토. 広島大学心理学研究, 10, 273-287.
- 森田 洋司(2001). いじめの国際比較研究-日本・イギリス・オランダ・ノルウェーの調査分析 이지메의 국제비교연구-일본, 영국, 네덜란드, 노르웨이의 조사 분석. 203. 金子書房.
- 森田洋司(2010). いじめとは何か : 教室の問題、社会の問題 이지메란 무엇인가 : 교실의 문제, 사회의 문제. 207. 中央公論新社,
- 百瀬和夫(2012). 特別支援教育の知見をいかした学校経営1―特別支援教育の知見の活用を阻む諸原因について―A School Management based on the Findings of

- Special Needs Education 1 ～The Causes which Obstruct Practical use of The Knowledge of Special Needs Education. *The bulletin of Kansai University of International Studies* 13, 175-185.
- 津村 俊充(2010). グループワークトレーニング：ラボラトリー方式の体験学習を用いた人間関係づくり授業実践の試み(IV 教育心理学と実践活動) Group-Work Training：Introducing Laboratory-Style Experiential Learning Into Classroom Teaching to Enhance Human Relations(IV Educational Psychology and Practical Activities). *The Annual report of educational psychology in Japan*, 49, 171-179.
- 文 鐘聲(2010). 大阪市生野区におけるこどもに関する地域福祉学的研究：青年期 The study of community social work for children in Ikuno ward, Osaka city：Adolescence. *Taisei Gakuin University bulletin*, 12, 97-107.
- 牧崎 幸夫(2011). よりよい人間関係を築く力を育てるボランティア活動：特別活動改訂の趣旨を生かした取組の推進 Building up better human relationships volunteer activity at school: the promotion of a new program about extra curricular activities in a revised course of study. *The Ryukoku journal of humanities and sciences*, 33(1), 107-119.
- 三坂 彰彦(2011). いじめ被害から不登校となった生徒への対応. 31. 教育問題法律相談.
- 吉川 延代, 今野 義孝(2012). 중학생의 이지메와 스트레스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中学生におけるいじめとストレスの関連性についての研究. 人間科学研究 33, 211-231.
- 長谷川 陽子(2011). 生徒の力でいじめを見つけ、いじめを防ぐ 학생의 힘으로 이지메를 발견하고, 없앤다. (特集: いじめを見つけ出す私の工夫 특집: 이지메를 찾아내는 나만의 방법). 刊学校教育相談, 12-15. ほんの森出版,
- 相馬 誠一 佐藤 節子 懸川 武史 入門(2012). いじめ対策-小・中・高のいじめ事例から自殺予防まで 이지메 대책 - 초중고의 이지메 사례에서 자살예방까지. 143. 学事出版.
- 柿沼 昌芳 永野 恒雄(1998). 荒れる学校-教育現場からの証言 무너지는 학교 - 교육현장에서의 증언. 203. 批評社.
- 渡辺敦司(2011.9.12) 이지메의 증가, 그 이유는? <http://benesse.jp/blog/20110912/p2.html>
- 문부과학성(2010). 「平成21年度児童生徒の問題行動等生徒指導上の諸問題に関する調査」(小中不登校)について(8月速報値). 2009년도 아동학생의 문제행동 등 학생지도상의 문제에 관한 조사.

【 월간지 특집 기사 】

- 강종민. 「폭력사건 대처법」, 『새교육』, 2010년 5월호.
- 고성혜. 「학교폭력 대책, 외국에서는」, 『새교육』, 2012년 3월호.
- 김미정. 「통계로 본 학교폭력의 변화」, 『새교육』, 2010년 4월호.
- 김상운. 「학교폭력과 언어폭력은 불가분 관계」, 『꿈나래21』, 2012년 2월호.
- 김선혜. 「학생들 사이의 폭력 해결, 이렇게!」, 『우리교육』, 2012년 봄호.
- 김은식. 「학교에 엄격한 지도·징계 권한 줘야」, 『새교육』, 2010년 4월호.
- 김정호. 「학교폭력으로 보는 교사, 학생의 관계」, 『새교육』, 2010년 7월호.
- 김진수. 「“일진 짱이 때리고 위협” 117 전화는 불났다」, 『주간동아』, 2012년 2월 826호.
- 김혜원. 「때리고 빼앗는 게 일상?! 10대의 학교폭력 심리학」, 『미즈내일』, 2012년 1월 555호.
- 김 환. 「학교폭력 후유증 교사도 치유가 필요하다」, 『새교육』, 2012년 3월호.
- 박길자. 「[‘학교폭력 제로화’ 현장] 땀 흠뻑 흘리며 건강 에너지 발산, 스포츠 활성화로 “학교폭력 이제 그만”」, 『꿈나래21』, 2012년 3월호.
- 배수강. 「한 가족 파탄낸 몸쓸 학교폭력」, 『주간동아』, 2008년 11월 661호.
- 새교육 편집부. 「알아두면 좋은 학교폭력 예방, 이모저모!」, 『새교육』, 2012년 3월호.
- 송형호.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사의 역할」, 『새교육』, 2012년 3월호.
- 유병아. 「“위계질서에 정면으로 맞서는 힘 키워주세요”」, 『미즈내일』, 2012년 5월 571호.
- 이미현. 「학교폭력 근절 대책 방안, 무엇을 담았나」, 『새교육』, 2012년 3월호.
- 이선숙. 「학교폭력 가해자 상담해 보니…」, 『꿈나래21』, 2012년 2월호.
- 이순이. 「학교폭력 제로에 도전한다」, 『새교육』, 2012년 3월호.
- 이혜민. 「“놀이문화 된 ‘괴롭히기’ 반짝 관심으로 근절 어려워”」, 『주간동아』, 2012년 5월 836호.
- 임재연. 「국가 차원의 ‘학교폭력종합대책기구’ 필요해」, 『새교육』, 2010년 4월호.
- 정락인. 「조폭 뺨치는 학교 무법자 ‘일진회」, 『시사저널』, 2012년 1월 1160호.
- 주간동아 뉴스브리핑, 「몰아치는 학교폭력 대책에 몸살 앓는 학교」, 『주간동아』, 2012년 2월 825호.
- 주 연. 「엄마들을 위한 상황별 학교 폭력 대처 매뉴얼」, 『미즈내일』, 2012년 1월 555호.
- 한병선. 「‘예방적 개입’이 최우선」, 『새교육』, 2011년 3월호.
- 홍석희. 「체벌금지 이후 학교폭력과 대안」, 『꿈나래21』, 2012년 3월호.
- 홍혜경. 「안티카페에서 졸업빵 동영상까지 사이버 공간 여학생 폭력 갈수록 심각」, 『미즈내일』, 2012년 6월 475호.

【신문기사】

김만곤. “학교폭력, 누가 해결해야 하나?” 『경기신문』, 2008년 5월 6일.

_____. “이젠 학교폭력이 없어질까요?” 『경기신문』, 2012년 1월 25일.

_____. “학교폭력대책의 선두에 선 장관님께”, 『경기신문』, 2012년 5월 9일.

김수혜, [학교폭력, 이젠 그만] “8만 명(폭력당했다고 응답한 학생의 47%)이 교실·복도·운동장서 폭행당했다”, 『조선일보』, 2012년 4월 23일.

_____. [학교폭력, 이젠 그만] “학교폭력 새 흥기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아이들 24시간 괴롭혀”, 『조선일보』, 2012년 4월 28일.

_____. [학교폭력, 이젠 그만] “초·중·고생 56% ‘학교폭력 봐도 모른 척’ ”, 『조선일보』, 2012년 5월 1일.

_____. [학교폭력, 이젠 그만] “아침 7시30분 딸의 학교, 아버지는 오늘도 싸운다”, 『조선일보』, 2012년 5월 14일.

김연주. [학교폭력, 이젠 그만] “자살 충동 느끼게 하는 언어폭력”, 『조선일보』, 2012년 4월 28일.

_____. [학교폭력, 이젠 그만] “학교폭력 절반 이상이 ‘장난으로’, ‘이유 없이’ ”, 『조선일보』, 2012년 4월 30일.

_____. [학교폭력, 이젠 그만] “초중고 1500명 ‘性的 폭력 당했다’ ”, 『조선일보』, 2012년 5월 2일.

_____. [학교폭력, 이젠 그만] “사채 놓는 일진들… 500원 빌려주고 ‘15만원 내놔’ ”, 『조선일보』, 2012년 5월 4일.

_____. [학교폭력, 이젠 그만] “117 학교폭력신고 석 달 새 6배로 늘어”, 『조선일보』, 2012년 5월 23일.

김희원. “왕따가 학생회 간부로… 학교폭력 극복 ‘화제’ ”, 『세계일보』, 2012년 5월 21일.

남지원. “승자·패자 낙인찍는 경쟁교육, 학교폭력·이지메의 공통 원인”, 『경향신문』, 2012년 3월 15일.

박상기. [학교폭력, 이젠 그만] “가해자 가족 '형량 줄이게 탄원서 써 달라' 졸라, 난 아직 너무 힘들어… 그들의 접근 막아줬으면”, 『조선일보』, 2012년 4월 27일.

박태우. “대구 학교폭력·학생 자살, 학교가 잘 대처 못해 책임 통감”, 『경향신문』, 2012년 5월 8일.

심현정. [학교폭력, 이젠 그만] “일진 120여 명, 아파트촌서 경찰과 7시간 숨바꼭질하며 '맞짱' 시도”, 『조선일보』, 2012년 4월 26일.

_____. [학교폭력, 이젠 그만] “일진 뒤에 '일진 부모'… 피해자 측에 폭언·협박도”, 『조선일보』, 2012년 4월 30일.

_____. [학교폭력, 이제 그만] “가해학생 부모가 운영위원… 회의록 위조… 제 역할

- 못하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조선일보』, 2012년 5월 4일.
- _____. [학교폭력, 이제 그만] “엄마 따라 한국 온 다문화 아이, 왕따 표적된다”, 『조선일보』, 2012년 5월 8일.
- _____. “장관한테 달려온 지방 학생, 학교폭력 눈물의 탄원”, 『조선일보』, 2012년 5월 17일.
- _____. “폭력을 '사소한 다툼'으로 처리… 그게 문제”, 『조선일보』, 2012년 5월 18일.
- _____. [학교폭력, 이제 그만] “맞는 친구 도와주던 학생들, 요즘은 구경만 하는 남남으로”, 『조선일보』, 2012년 5월 23일.
- 장영훈·노인호. “학교폭력 없앤다더니… 중학생 또 투신”, 『동아일보』, 2012년 4월 17일.
- 조진형. “카톡 탓에 하루종일 학교폭력. 중고생 일진들 톡하면 ‘채팅방서 왕따 당해볼래?’ ”, 『매일경제』, 2012년 5월 3일.
- 최수호. [학교폭력, 이제 그만] “영주 자살학생 어머니 ‘애 죽인 건 폭력인데 학교는 정신 문제로 몰아’ ”, 『조선일보』, 2012년 4월 25일.
- 최예나. [학교폭력 끝날 때까지] “가해자 전학 보낸다고? 아직도 피해자만 눈물”, 『동아일보』, 2012년 4월 24일.

제 2 부

학교폭력 예방교육 보완 지도자료

▣ 영역 ▣

언어 폭력 예방

심리적 폭력 및 따돌림 예방

신체 폭력 예방

사이버 폭력 예방

【학교폭력 예방교육 보완 지도자료 내용 체계】

영역	초등학교	
언어 폭력	① 예쁘게 말해요 ② 그런 별명은 싫어요!	③ 욕에 관한 불편한 진실 ④ 위험한 이야기, 소문! ⑤ 친구가 내게 준 믿음의 증거물, 비밀을 지켜요
심리적 폭력 및 따돌림	① 우리는 달라요 1 ② 우리는 달라요 2 ③ 친구를 사귀어요.	④ 다함께 어울려요! ⑤ 정말 내 탓이 아닐까?
신체 폭력	① 친구의 얼굴을 살펴봐요. ② 그건 장난이 아니야!	③ 폭력 생활, 이제 그만! ④ 위험한 폭력의 눈덩이, 굴리지 마세요. ⑤ 한 박자 쉬고!
사이버 폭력	① 너와 나의 얼굴, 인터넷 예절 ② 사이버 폭력, 이제 그만!	③ 악플? 조사하면 다 나와! ④ 개념 찬 초딩으로 거듭나기

영역	중·고등학교	
언어 폭력	① 욕의 뜻, 제대로 알고 쓰는 거야? ② 내가 한 험담(비방), 그에게는 마음의 상처가 되어	③ 친구에 대한 위협(협박)은 이제 그만, 상처주지 말아!(고) ④ 친구들아, 모욕을 당하면 수치심을 느껴 힘들어! ⑤ 말이 우리에게 주는 힘을 아직도 모르겠어?
심리적 폭력 및 따돌림	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② 화, 분노란 무엇일까?	③ 나는 나! ④ 내 마음에 귀를 기울여요.
신체 폭력	① 학생들 사이에도 약취, 유인, 감금은 나쁜 범죄입니다. ② 우리 손으로 만들어 보아요. ③ 학교폭력 신고, 두려워 말아요!	④ 역할 바꿔 생각해 봐! ⑤ 모든 생명은 소중해요. ⑥ 너와 나, 우리! 자존감을 갖자
사이버 폭력	① 비방보단 선플로 표현해 봐! ② 내 사진을 마음대로 바꾸지 말아줘! ③ 스마트폰 폭력은 친구에게 휘두르는 흥기와 같아	④ 왕따 카페 탈출기~ ⑤ 신상 털기 이제 그만!

* 영 역 : 언어 폭력 예방

* 학교급 : 초등학교

* 주요 내용

- ① 예쁘게 말해요
- ② 그런 별명은 싫어요!
- ③ 욕에 관한 불편한 진실
- ④ 위험한 이야기, 소문!
- ⑤ 친구가 내게 준 믿음의 증거물,
비밀을 지켜요

영역	언어 폭력	대상	초등 저학년	시간	40분
학습 주제	예쁘게 말해요				

I. 이 수업에 대하여

1. 개요

학생들은 생활하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거나 자신의 인격을 스스로 낮추게 되는 언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이 수업은 과학 실험을 통해서 친구에게 사용하는 거친 말이 서로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직접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하고, 거친 말로 인해 마음이 상했던 것을 사과하여 친구 사이에 긍정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2. 목표

- 실험을 통해 말이 가진 힘을 알고 자신의 언어 습관을 반성할 수 있다.
- 친구 사이에 긍정의 말과 부드러운 말로 대화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다.

3. 준비물

- 도서나 디지털 도서 자료 「화내지 말고 예쁘게 말해요(안미연, 2008)」, 뚜껑이 있는 투명한 용기, 밥

4. 학습 내용

단 계	내 용
생각 열기	기분이 좋아지는 말과 나빠지는 말에 대한 경험 이야기하기
생각 펼치기	이야기 자료를 듣고 슬픔에 빠진 주인공 도와주기
활동하기	밥 실험 결과를 통해 말의 힘을 알고 언어 습관 반성하기
생활에 적용하기	친구에게 미안함을 전하고, 용서하기

5. 유의 사항

- 수업 2~3주 전에 미리 밥 실험을 시작하여 수업 때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 밥 실험을 통해 긍정의 말과 부정의 말이 주는 영향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한다.

II. 수업 과정안

1. 생각 열기

◎ 기분이 좋아지는 말과 나빠지는 말에 대한 경험 이야기하기

- 우리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말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여러분의 기분을 나쁘게 만드는 말은 어떤 말인가요?

◎ 거친 말을 했거나 들었던 경험 이야기하기

- 거친 말이나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을 했거나 들었던 경험 이야기해 봅시다.
-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 어떤 말을 들었습니까?
- 그 때 여러분은 기분이 어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행동하였습니까?

2. 생각 펼치기

◎ 「화내지 말고 예쁘게 말해요」 이야기 듣기

<화내지 말고 예쁘게 말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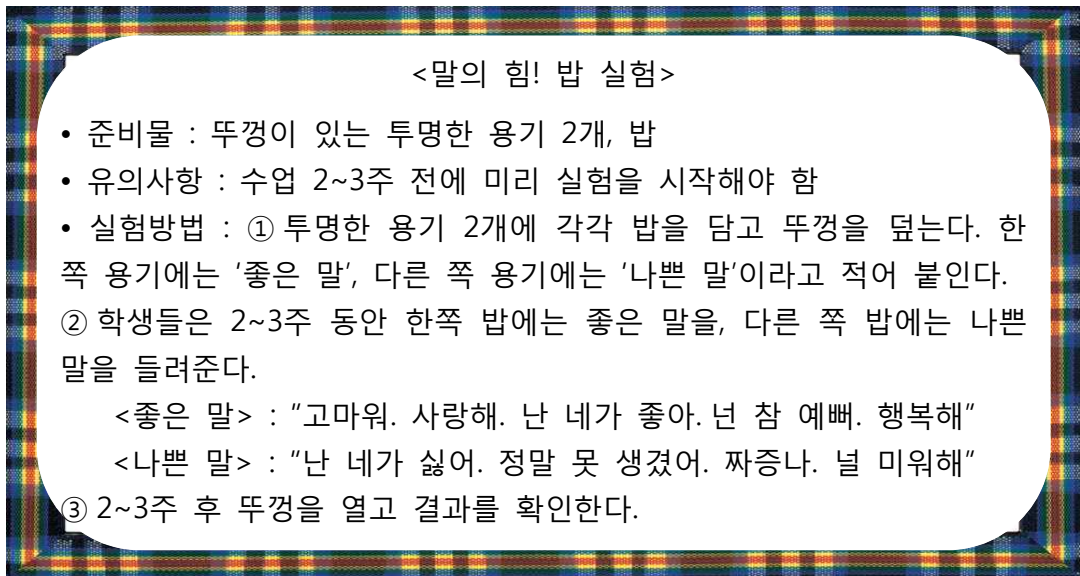
화를 내며 거칠게 말하는 꼬마 고슴도치 '도치'의 별명은 버럭쟁이입니다. 어느 날, 도치의 머리 위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생겼습니다. 도치가 버럭 소리를 질러도 구름은 없어질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장난감을 만진 동생에게 소리를 질렀더니 구름이 식빵만큼 커졌고, 친구에게 화를 내며 거칠게 말했더니 이번에는 구름이 그림책만큼 커졌습니다. 도치가 화를 내며 말할 때마다 머리 위의 구름이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번개가 떨어지고 천둥이 쳤지요. 도치 주위엔 이제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구름 때문이지요. 도치는 혼자 평평 울고 있습니다. 도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도치'는 어떤 꼬마입니까?
- 도치가 화를 내며 거칠게 이야기할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 여러분이 도치의 친구였다면 어떤 기분이 들었을 것 같습니까?

◎ 도치를 도와주세요!

- 도치는 왜 울고 있나요?
- 친구들이 버럭쟁이 도치를 떠났어요. 어떻게 하면 친구들이 다시 도치에게로 돌아올까요?

3. 활동하기 : 실험하기



<말의 힘! 밥 실험>

- 준비물 : 뚜껑이 있는 투명한 용기 2개, 밥
- 유의사항 : 수업 2~3주 전에 미리 실험을 시작해야 함
- 실험방법 : ① 투명한 용기 2개에 각각 밥을 담고 뚜껑을 덮는다. 한 쪽 용기에는 '좋은 말', 다른 쪽 용기에는 '나쁜 말'이라고 적어 붙인다.
② 학생들은 2~3주 동안 한쪽 밥에는 좋은 말을, 다른 쪽 밥에는 나쁜 말을 들려준다.
 <좋은 말> : "고마워. 사랑해. 난 네가 좋아. 넌 참 예뻐. 행복해"
 <나쁜 말> : "난 네가 싫어. 정말 못 생겼어. 짜증나. 널 미워해"
③ 2~3주 후 뚜껑을 열고 결과를 확인한다.

◎ 밥 실험의 결과 살펴보기

- 유리병의 뚜껑을 열어서 좋은 말을 해준 밥과 나쁜 말을 해준 밥의 색깔, 모양, 냄새 등을 살펴봅시다.

◎ 말의 힘에 대해 이야기하기

- 생명이 없는 밥도 우리들의 한 마디 한 마디 말에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다면 말을 알아듣는 우리들은 어떨까요? 이번 실험을 통해 느낀 점을 이야기해 봅시다.
- 우리들은 친구들과 어떤 말로 이야기를 나누어야 할까요?

4. 생활에 적용하기

◎ 친구야 미안해...

- 두 명의 친구는 앞으로 나와서 서로 양 손을 잡고, 친구의 말에 마음이 아팠던 기억을 이야기 해보세요.
- 친구의 속상함을 들은 다른 친구는 친구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생각하며 따뜻한 말로 미안함을 전달하세요.
- 다른 친구들은 이 두 명의 친구에게 박수를 보내주세요.

◎ 이번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과 다짐 발표하기

- 오늘 활동을 통해 느낀 점과 앞으로 여러분의 다짐을 이야기해 봅시다.

◎ 생활과제 : 하루 동안 친구들과 존댓말로 대화하기

Ⅲ. 참고 자료

1. 읽기 자료

<무심코 뱉었던 가시 돋친 말... 미안, 친구야>

“빌린 친구 교과서에 낙서를 한 채로 돌려줬어요. 수업도 안 듣느냐는 친구의 말에 화가 나 너는 얼마나 공부를 잘하느냐며 싸웠어요.” “장난으로 친구 필통을 숨겼는데 친구가 저보고 맨날 그런다고 했어요. 화가 나 필통을 던져 버리고 싸웠어요. 사과하려 했지만 친구가 또 화를 내는 바람에 한 달 동안 말도 안 하고 지냈어요.”

서울 중구 창덕여중 1학년 1반 학생들이 사소한 일 때문에 친구들과 다툰 일들을 털어놓았다. 6일 오전 국어시간이었다.

학생들이 말한 싸움의 원인은 모두 사소한 내용이다. 자신도 모르게 몸에 밴 말투, 친구를 따돌리는 장난, 서로 편하게 말해도 된다는 생각 등등. 얘기를 들은 조건하 교사(26)는 같은 얘기도 부드럽게 말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너 복도에서 뛰지 말랬잖아,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네가 넘어질까 걱정된다고 선생님이 너희들에게 얘기하는 게 좋지 않겠니?” 화가 나도 상대방을 질책하기보다는 자신의 마음을 차분하게 말해 주라고 조언했다. 서로 사랑하는 애인끼리도 말 한마디에 싸울 수 있다는 설명에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조 교사와 학생들의 대화가 끝난 뒤 역할극이 시작됐다. 똑같은 상황이 주어졌지만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말하는 방법을 바꿨다. 물건을 훔친 친구에게 “넌 얼굴도 못생겼고 키도 작는데 돈도 없어서 내 돈을 훔치느냐”며 욕박지르던 아이들이 “난 너에게 정말 실망했어. 하지만 그 돈이 꼭 필요해서 가져간 거라고 생각해. 다시는 그런 짓을 안 하면 좋겠어”라고 말했다. 학생들은 잠시 어색해했지만 친구를 포함한 주변 사람들과 사이 좋게 지내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느꼈다. 국제희 양(13)은 “수업에서 많은 점을 느꼈다. 친구에게 잘못된 일이 있으면서도 오히려 짜증내고 사과하려 하지 않았던 내 모습을 돌아보게 됐다”고 말했다.

[http://news.donga.com/3/all/20120907/49186261/1\(2012.09.07\)](http://news.donga.com/3/all/20120907/49186261/1(2012.09.07))

2. 참고 문헌

박광철(2010). 재미와 감동이 있는 협력놀이. 즐거운 학교.

안미연(2008). 화내지 말고 예쁘게 말해요. 상상스쿨.

에시모토 마사루(2008). 물은 답을 알고 있다. 더난 출판사.

이상현(2011). 흥하는 말씨 망하는 말투. 현문미디어.

<말의 힘 동영상 1> <http://cafe.naver.com/spstudy2012/105>

<말의 힘 동영상 2> <http://cafe.naver.com/whitelambs/328>

<말의 힘 동영상 3> <http://blog.naver.com/sunid4999?Redirect=Log&logNo=110143720849&jumpingVid=9F368164A29EC73B2CDF977D5A4B782B3374>

영역	언어 폭력	대상	초등 저학년	시간	40분
학습 주제	그런 별명은 싫어요!				

I. 이 수업에 대하여

1. 개요

초등학교 저학년은 겉모습이나 이름으로 별명을 짓고 친구를 놀리는 행동을 하여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이 수업에서는 여러 가지 읽기 자료와 학생들의 생활에 기반한 긍정적인 상황과 부정적인 상황에 대한 비교 역할극을 해봄으로써 상대방의 마음을 공감해보고, 친구들 사이에 바르고 고운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2. 목표

- 별명을 포함한 싫어하는 말과 좋아하는 말을 알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다.
- 친구들 사이에 바르고 고운 말을 사용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다.

3. 준비물

- 읽기자료, 사전 앙케이트 조사를 통한 역할극 상황 준비, 편지지

4. 학습 내용

단 계	내 용
생각 열기	읽기 자료 <급식 시간에 있었던 일 1>을 읽고 공감하기
생각 펼치기	읽기 자료 <급식 시간에 있었던 일 2>를 읽고, 친구의 마음 헤아려보기
활동하기	역할극 ‘내가 좋아하는 말과 싫어하는 말’ 하기
생활에 적용하기	자신의 언어 습관을 체크하고 반성하기

5. 유의 사항

- 학급 학생들에게 사전 앙케이트 조사를 하여 역할극 상황을 설정하면 학생들에게 좀 더 실제적으로 다가갈 수 있다.
- 역할극이 단순 재미 위주로 흘러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II. 수업 과정안

1. 생각 열기

◎ <급식 시간에 있었던 일 1>을 읽고 내용 이해하기

<급식 시간에 있었던 일 1>

급식 시간이었습니다. 지호는 얼른 손을 씻고 줄을 섰습니다. 지호가 음식을 받아 자리로 가고 있는데 호덕이가 “돼지야, 많이 먹어라!”라고 하며 어깨를 툭 치며 지나갔습니다. 기분이 상한 지호는 호덕이에게 “뒤질래? 이 호떡아”라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몸집이 큰 지호는 ‘돼지’라는 놀림을 들으면 눈물이 날 것만 같습니다. 자기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호덕이 역시 ‘호떡’라는 말이 너무나 싫습니다.

- 급식 시간에 지호와 호덕이는 왜 마음이 상했습니까?
- 여러분도 지호나 호덕이와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 내가 싫어하는/좋아하는 별명과 놀리는 말

- 여러분이 싫어하는 별명과 놀리는 말을 이야기해 봅시다. 그리고 그 까닭도 자세히 말해 주세요.
- 이번에는 여러분이 듣기 좋은 별명에는 무엇이 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 친구들이 어떤 별명을 들을 때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그 때의 기분은 어떠했는지, 친구들의 마음을 생각하며 들어봅시다.

2. 생각 펼치기

◎ <급식 시간에 있었던 일 2>를 읽고 내용 이해하기

<급식 시간에 있었던 일 2>

호덕이 때문에 화가 난 지호는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지호가 몹시 화난 일이 있어서 밥 먹기 싫은가 보구나.” 지호는 선생님이 마음을 알아주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역시 우리 선생님 최고!’ 선생님이 화난 마음을 알아주셔서 지호는 기뻐합니다. ‘나도 선생님처럼 한번 해 봐야지.’ 지호는 상대방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읽어 주면 친구들 간에도 다툼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 속이 상한 지호에게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셨습니까?
- 선생님의 말씀을 들은 지호는 기분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 내 친구의 마음 헤아려보기

- 내가 친구를 놀리거나 짓궂은 별명을 부를 때 나의 기분은 어떻습니까?
- 그렇다면 놀림을 당하거나 듣기 싫은 별명을 들은 친구의 기분은 어떠할까요? 그 친구의 입장에서 생각해봅시다.

3. 활동하기 : 역할극 하기

◎ 역할극 하기

<역할극 상황의 예>

상황설정방법 : 사전에 학급 학생들에게 '내가 좋아하는 말과 싫어하는 말'에 대한 앙케이트 조사를 하고 1~5위를 선정해 꾸밀 수 있다.

상황 1. 급식 시간에 지호와 동수의 대화를 역할극으로 해보기

상황 2. 친구가 시험 성적이 나쁘게 나왔다면 속상해 할 때

상황 3. 자신의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친구가 있을 때

상황 4. 학급임원선거에서 떨어져서 속상해하고 있는 친구가 있을 때

- 모둠별로 상황에 따른 역할극을 준비합니다. 각 상황별로 친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역할극과 친구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역할극을 각각 꾸며서 발표하도록 합니다.

◎ 역할극을 통해 느낀 점 이야기하기

- 같은 상황을 가지고 서로 다른 말과 행동을 보이는 친구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 우리는 어떤 말과 행동으로 친구들을 대해야 할까요?

4. 생활에 적용하기

◎ 나의 생활 반성하기

- 오늘 활동을 통해 느낀 점과 앞으로 여러분의 다짐을 이야기해 봅시다.
- 일주일 동안 친구가 싫어하는 말이나 놀리는 말을 몇 번이나 사용하는지 매일 매일 기록하고 반성해 봅시다.

◎ 생활과제 : 친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 있었다면 진심을 담아 사과편지를 써서 전달하기

Ⅲ. 참고 자료

1. 읽기 자료

<별명 그리는 아이>

나쁜 별명은 차라리 없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과는 달리 책의 주인공 하나는 별명이란 관심을 끌지 못하면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의기소침해집니다.

생김새도 평범하고 특별하게 잘하는 것도 없는 평범한 이하나. 하나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아이 엠 그라운드 놀이를 하다 자기 별명을 대는 순서에서 별명을 대지 못하고 벌칙을 받고 맙니다. 하나는 별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키가 큰 영철이는 '전봇대', 딸기 캐릭터를 좋아하는 예림이는 '딸기 공주', 말수가 적은 필립이는 '묵언 수행'이라는 별명이 있는데, 하나는 별명이 없습니다.

하나는 자기만 별명이 없는 것이 존재감이 없어서인 것 같아 속이 상합니다. 그래서 '느림보'라는 별명을 스스로 짓습니다. 하지만 하나보다도 더 굼뜬 친구에게 그만 그 별명마저도 빼앗기고 맙니다. 하나는 학교에서 연습장에 친구들의 별명을 그림으로 그려 봅니다. 킁킁 웃음이 나 수업 시간에 들킬 뻔하기도 합니다.

잠깐 화장실에 갔다 와 보니 친구들이 하나의 책상에 몰려 있습니다. 친구들이 하나가 그린 별명 그림을 보고 킁킁 웃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친구들이 떠난 자리, 하나는 자신의 연습장에서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연습장 한 장 가득 친구들이 지어 준 별명이 적혀 있었거든요. 하나가 교실 친구들을 하나하나 뜯어보고 관찰하면서 모두들 제 각각임을 깨닫고 그린 그림을 반 친구들이 보고, 하나에게 '별명박사'라는 멋진 별명을 지어줍니다. 하나는 자신의 별명을 찾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별명 짓기와 그림 그리기를 통해 친구들의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진짜진짜 좋은 별명>

꼬마 토끼는 남다른 외모 때문에 여우와 너구리한테 왕발이, 갈갈이, 나팔 귀라고 놀림을 받았어요. 그런 나쁜 별명은 상대방이 가진 단점을 꼬집어서 하는 말로, 듣는 사람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지요. 하지만 꼬마 토끼의 할머니는 친구들이 말한 단점이 사실은 꼬마 토끼의 장점이라고 말해 주어요. 보는 관점에 따라 좋게 보면 얼마든지 좋아 보이고, 나쁘게 보면 한없이 나쁘게만 보이는 것이니까요.

꼬마 토끼는 다시 용기를 얻어, 자신의 경험을 거울삼아 친구들에게 서로 장점을 보게 하는 좋은 별명을 지어 주기로 했어요. 맨 처음 여우와 너구리에게 각각 피돌이, 멧쟁이라는 별명을 지어 주고 설명해 주었지요. 지금까지 자신들에게 그런 좋은 장점이 있다는 것을 몰랐던 여우와 너구리는 뭘 듯이 기뻐했어요.

이제 꼬마 토끼뿐만 아니라 여우와 너구리도 좋은 별명 지어 주기에 함께하고, 숲 속 친구들의 장점을 찾아 천사, 알뜰이, 천하장사와 같은 별명을 지어 주었어요. 자, 이 모든 변화를 일어나게 한 꼬마 토끼에게는 과연 어떤 별명이 어울릴까요? 바로 '진진토!', 즉 '진짜진짜 좋은 토끼'라는 뜻입니다. 친구들의 단점보다 장점을 먼저 보는 '진진친', '진짜진짜 좋은 친구'가 되어 보세요.

2. 참고 문헌

김세실(2011). 진짜진짜 좋은 별명. 끼리끼리.

류선희(2010). 난 별명이 싫어요. 리틀씨앤틱.

염은비(2012). 별명 그리는 아이. 정글짐북스.

영역	언어 폭력	대상	초등 고학년	시간	40분
학습 주제	욕에 관한 불편한 진실				

I. 이 수업에 대하여

1. 개요

오늘날 학생들의 대화에서는 욕설과 비속어의 사용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무조건 바른 말, 고운 말만 써야한다고 강요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욕설과 비속어에 담긴 뜻을 알고 사용하는지, 왜 그런 말을 쓰는지 헤아리는 과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본 학습에서는 욕설에 담긴 뜻을 알아보고, 욕설 사용에 관한 토론을 통해 자신의 언어 습관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진다.

2. 목표

- 흔히 사용하는 욕설과 비속어에 담긴 뜻을 알 수 있다.
- 욕설과 비속어 사용을 자제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다.

3. 준비물

- 언어순화 공익광고(<http://dnfl2512.blog.me/20166907845>), 포스트잇, 국어사전, 욕설 자료, ‘물은 답을 알고 있다’ 동영상(<http://878kgs.blog.me/140154366008>)

4. 학습 내용

단 계	내 용
생각 열기	언어순화 캠페인을 시청하고, 미소를 부르는 말과 분노를 부르는 말 찾아보기
생각 펼치기	욕설에 담겨 있는 뜻 알아보기
활동하기	욕설의 사용에 관한 토론하기
생활에 적용하기	바르고 고운 말 사용을 다짐하고 실천하기

5. 유의 사항

- 자료로 활용되는 욕설이나 비속어가 분위기를 흐트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 욕의 정확한 뜻을 있는 그대로 노출하여 학생들이 그 뜻을 심각하게 생각해볼 수 있도록 한다.

II. 수업 과정안

1. 생각 열기

<욕, 뇌를 공격하다!>

어떤 학생들은 욕이 입에 배어서 자동적으로 나온다고 하고, 친구끼리는 좀 더 스스럼 없고 친근감의 표현이라고 생각해서 욕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자극적인 욕설은 우리의 몸과 뇌를 직접 공격합니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학생들이 욕을 가장 많이 배우는 시기는 초등학교 시절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언어와 행동의 발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는 유아시절과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입니다.

과학자들은 유아기를 도덕성을 관여하는 이성의 뇌가 빠르게 발달하고 욕설에 반응하는 감정의 뇌가 형성되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만큼 뇌가 욕설에 민감할 때라는 뜻입니다. 유아기에 발달을 시작하는 이성의 뇌는 18세를 전후로 완전한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욕설에 노출될 경우 여러분의 뇌는 치명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기의 뇌 안에서는 프루닝(pruning)이라는 기억의 가지치기 작업이 일어나는데, 그 때 욕을 많이 하게 되면 좋은 기억이 잘리게 되고 안 좋은 기억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즉, 좋은 감정이 제대로 살아나야 할 시기에 욕으로 인해 충동적이고 즉흥적인 감정이 지배하고 인지능력도 현저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욕을 하면서 여러분이 평상시에 가져야 하는 정상적인 반응상태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친근함의 표현으로 사용하는 욕이 자신의 몸과 뇌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생각해보아야 할 일입니다.

◎ [공익광고] 언어순화 캠페인 시청하기

- 여러분은 하루에 욕을 몇 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욕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생활은 어떤 모습이 될까요?

◎ 미소를 부르는 말 vs 분노를 일으키는 말(욕)

- 여러분의 미소를 부르는 말과 분노를 일으키는 말(욕)을 포스트잇에 써서 칠판에 붙여봅시다.

2. 생각 펼치기

◎ 우리의 미소를 부르는 말 vs 분노를 일으키는 말(욕)

- 여러분이 칠판에 붙인 우리에게 미소를 주는 말과 분노를 일으키는 말(욕)에는 무엇이 있는지 함께 살펴봅시다.

◎ 욕설의 담겨있는 뜻 알아보기(국어사전, 욕설 자료 활용)

- 여러분은 욕에 담긴 뜻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주 사용하는 욕설에 담겨 있는 뜻을 알아봅시다.

- 국어사전으로 욕설과 비속어의 어원을 찾아 적어봅시다.
- 욕의 뜻을 알아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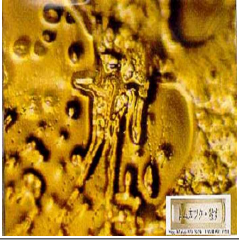
3. 활동하기 : 토론하기

◎ 욕... 해도 될까요?

- 학생들이 욕을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 욕에는 좋지 않은 뜻이 담겨 있고, 욕을 들으면 기분이 상하기도 합니다. 반면, 욕을 사용하면 서로 친근함을 느낀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욕... 과연 해도 될까요? 찬성과 반대 또는 욕을 듣는 사람과 욕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어 봅시다.

4. 생활에 적용하기

<물에게 들려준 긍정의 말, 부정의 말>

			
고맙습니다	쇼팽의 이별곡	부정적인 가사로 된 해비메탈 곡	짜증나, 죽어버릴거야

◎ 바른 말, 긍정의 말의 사용을 다짐하기

- 일본의 에모토 마사루 박사는 물에도 감정이 있어서 물에게 ‘사랑해, 행복해, 고마워’라는 말을 하면 아름다운 눈의 결정을 보여주는데 ‘멍청한 놈, 바보, 짜증나, 죽어버릴거야’ 같이 부정적인 말을 하면 물의 결정은 그 형태를 알 수 없는 혼돈의 모양, 마치 어린아이를 학대 하는 것과 같은 모양으로 변한다고 합니다(‘물은 답을 알고 있다’ 동영상 활용 가능).

◎ 욕설은 다. 왜냐하면 ~ 때문이다.

- 욕설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욕설은 □다. 왜냐하면 ~ 때문이다.”로 정리하여 발표해 봅시다.

◎ 생활과제 : 여러분이 어떠한 말을 사용해야 할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바른 언어사용을 다짐하는 일기를 쓰도록 합니다.

Ⅲ. 참고 자료

1. 학습 자료

<욕의 뜻>

·욕! 욕! 욕!을 하지 맙시다.

❖ 좇갈네. 좇나. 좇같이.
좇까지마. 좇만한 새끼.

- ▶ 좇 = 남자 어른의 성기.
- ▶ "좇같이"는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모양이 좇과 같다는 이야기이다.

·욕! 욕! 욕!을 하지 맙시다.

❖ 개새끼, 개 같은 놈

- ▶ "개"는 단어의 앞에 붙어서 '함부로 되어 변변치 못한'의 뜻
- ▶ 개 새끼 라는 욕은 함부로 되어 변변치 못한 새끼라는 것을 말한다.

❖ 등신

- ▶ 병신과 같은 뜻
- ▶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뜻으로 남을 알잡아 보는 말이다.

·욕! 욕! 욕!을 하지 맙시다.

❖ 엇먹어라, 뽕큐(fuckyou)

- ▶ '엇'은 조선 후기 전통놀이를 하던 남사당패의 은어로 여성의 성기를 가리킨다.
- ▶ '엇 먹어라'는 성행위를 빗대어 상대를 조롱하는 말이다.
- ▶ fuck you의 뜻도 '성관계나 해라'라는 뜻

·욕! 욕! 욕!을 하지 맙시다.

❖ 쪽팔려

- ▶ '쪽'은 '얼굴'을 속되게 이르는 말 '팔리다'는 얼굴이나 이름이 널리 알려지다.
- ▶ 속된 표현으로 '부끄러워 체면이 깎이다'는 뜻이 된다.

❖ 애자

- ▶ 장애인에 비하해 부르는 말.
- ▶ 장애인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이런 말은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다.

·욕! 욕! 욕!을 하지 맙시다.

❖ 씨발, 씹팔, 씹새끼, 씨발놈

- ▶ 씨 = 여자 어른의 성기.
- ▶ "씨발", "씹팔"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교를 하다'는 뜻이다.
- ▶ "씨발놈" 또는 "씨발년"이라고 하면 성교를 할 놈이라는 말이다.
- ▶ "씹팔"은 말 그대로 "씹"을 판다는 것이다. 치욕적인 이다.

·욕! 욕! 욕!을 하지 맙시다.

❖ 지랄하지마

- ▶ '지랄'은 '지랄병'의 준말
- ▶ '지랄병'은 간질을 앓는 사람은 갑자기 몸을 뒤틀거나 까무라치며 의식을 잃는 병을 말한다.
- ▶ '지랄하네'는 "너 간질걸렸구나"하는 식으로 욕을 하는 것이다.

·욕! 욕! 욕!을 하지 맙시다.

❖ 쌍놈, 종간나

- ▶ 조선시대의 신분제도를 반영하고 있는 욕
- ▶ 비참하게 생활 했던 천민을 말하는 '천한 사람'이란 뜻이다.
- ▶ '종간나'도 신분제도를 반영하고 있는 욕으로, 종년의 새끼를 말한다.

주변에서 흔히 듣거나 습관적으로 말하는 욕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그 속뜻은 무엇인가요?

욕의 속뜻을 알고도

함부로 쓴다면

속뜻을 알고 듣는 사람은 어떨까요?

<욕의 뜻 동영상> <http://blog.naver.com/snw11204?Redirect=Log&logNo=140171385909&jumpingVid=20322598804DB852655D4DFACF74B0F20CD0>

2. 읽기 자료

<말과 사람의 됬됨이>

입의 위력은 그 기능이나 영향력에 있어서 상상을 초월한다.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입에서 내보내는 바람이 신통력을 갖는다. "호~~"하고 부는 바람은 뜨거운 것에 덴 아기의 손을 시원하게 해준다. "하~~"하고 내보내는 바람은 온기를 뿜어내어 아기의 차가운 손을 녹여준다. "훅~!"하고 불면 촛불이 꺼지고 "후~~"하고 불면 불씨가 살아난다.

"박가와 박 서방의 차이"는 '가는 말이 고아야 오는 말이 곱다.'라든가 '말 한마디에 천 냥 빚을 갚는다.'는 말의 의미를 잘 전해주는 사례일 것이다. "이봐, 박가야 고기 한 근 썰어다오."라고 말한 사람에게 준 고기 1근과 "여보시게 박 서방, 고기 한 근만 썰어주시게!"라 말한 사람에게 준 고기 1근의 양과 질은 엄청나게 달랐다.는 이야기이다.

명절 귀향길에서 교통체증을 경험해본 사람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기억할 것이다. 거북이걸음과 같은 주행속도에 짜증이 난 남편이 방향을 바꾸어 시골길로 접어들었는데, 상황은 전혀 변함이 없었다. 스트레스가 가중되는 가운데, "그냥 큰길로 갈 걸 그랬나?"하고 꾸짖을 하는데, 부인이 핵폭탄 발언을 한다. "당신이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 불난 집에 기름 부은 셈이다. 무심코 한 말 한마디가 이혼과 가정해체라는 비극으로 결말이 났다고 한다.

말 한마디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우리네 조상들은 구설수(口舌數)를 조심하라고 강조한다. 인간의 모든 갈등과 불행은 입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당(唐) 말기부터 다섯 왕조를 거치며 8성을 지닌 11명의 임금(五朝八姓十一君)을 섬긴 처세의 달인 풍도(馮道)는 '입은 재앙을 부르는 문이요(口是禍之門),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다(舌是斬身刀). 입을 닫고 혀를 깊숙이 간직하면(閉口深藏舌) 처신하는 곳마다 몸이 편하다(安身處處牢).'는 체세훈을 남겼다. 20년이나 재상으로 일한 그의 장수비법은 말 조심에 있었던 것이다.

'칼에는 두 개의 날이 있지만, 사람의 입에는 백 개의 날이 있다.'는 베트남 속담과 '당신의 입 속에 들어있는 한, 말은 당신의 노예이지만, 입 밖에 나오게 되면 그 말은 당신의 주인이 된다.'는 탈무드의 충고는 말로서 말이 많은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주는 명심보감(明心寶鑑)이다.

말은 단순히 사전적 의미를 전달하는 수단이 아니다. 말하는 사람의 인격이나 됬됨이를 반영한다. 입을 통해 나오는 부정적인 말은 통상 4종류로 압축될 수 있다. 진실보다는 거짓을 담은 망어(妄語), 부당한 이득이나 대가를 바라는 아부 아첨의 말(綺語), 갈등과 편 가르기를 조장하는 이간질의 양어(兩語), 그리고 욕설과 험담, 비방 등의 오어(惡語)가 있다. 인간관계를 불편하게 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입의 배설물인 셈이다. 그 배설물에서 냄새가 난다. 인간의 됬됨이를 보고 느낄 수 있다.

이택호. 성숙한 사회 가꾸기 모임. 성숙의 불씨 304호(2012.11.27)

영역	언어 폭력	대상	초등 고학년	시간	40분
학습 주제	위험한 이야기, 소문!				

I. 이 수업에 대하여

1. 개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좋지 않은 이야기를 전달하는 가운데 희열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전달의 과정에서 이야기가 부풀려지기도 하고, 나쁜 소문은 다른 사람의 인생에 커다란 상처를 주기도 한다. 이 수업은 소문과 관련된 놀이와 동영상 시청, 토의 활동을 통해 소문 퍼트리기의 위험성을 느끼고, 행동을 교정할 수 있도록 한다.

2. 목표

- 소문 퍼트리기가 가져오는 위험성을 알 수 있다.
- 소문을 퍼트리지 않는 태도와 나쁜 소문을 극복하는 자세를 기를 수 있다.

3. 준비물

- SBS ‘힐링캠프’ 타블로 편 중 3분 44초(http://wizard2.sbs.co.kr/w3/template/tp1_netcv.jsp?vProgId=1000718&vVodId=V0000350336&vMenuId=1015138&uccid=10001859817&st=0&cooper=NAVER), 읽기 자료

4. 학습 내용

단 계	내 용
생각 열기	소문놀이를 통해 소문의 특징 알아보기
생각 펼치기	좋은 소문과 나쁜 소문에 대한 경험 나누기
활동하기	소문 퍼트리기에 대한 토의하기
생활에 적용하기	자신에 대한 나쁜 소문을 극복하는 자세 가지기

5. 유의 사항

- 소문놀이가 놀이로 끝나지 않도록 하고 놀이가 주는 교훈을 찾아볼 수 있도록 지도한다.
- ‘아니 땀 굴뚝에 연기 날까’라는 속담이 있듯이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학생의 행동에는 문제가 없었을 지에 대해서도 고려해보도록 지도한다.

II. 수업 과정안

1. 생각 열기

◎ 소문놀이 하기

- 소문놀이를 해봅시다.

<소문놀이 방법>

- ① 학급을 반으로 나누어 팀을 만들고 서로 마주보며 나란히 앉는다.
- ② 각 팀에서 대장을 한 사람씩 뽑아, 어떤 말을 소문내기로 약속하고 각각 상대방의 첫 번째 사람에게 귓속말로 이야기한다.
- ③ 소문을 들은 아이는 옆 친구에게 귓속말로 옮기고 이렇게 해서 끝 사람에게까지 전달한다. ④ 이 과정이 끝나면 소문이 여러 사람을 거치는 사이에 바로 옮겨졌는지를 확인하여 바로 전한 팀이 이기게 된다.

- 대장이 한 말이 마지막 사람에게까지 정확하게 전달되었습니까?

- 소문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 어떤 소문이 빨리 퍼질까

- 소문에 대한 아래 글을 읽어봅시다.

<어떤 소문이 빨리 퍼질까>

과연 나쁜 소문과 좋은 소문 중 어느 쪽이 확산 속도가 더 빠를까. 소문을 퍼트리는 사람의 심리는 어떤 것일까. MBC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MBC 스페셜'은 소문 전파와 관련된 심리 실험을 통해 우리 사회 내의 소문 전파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서울대 심리학과 곽금주 교수팀과 함께 소문 전파 실험을 실시했다. 20대와 40~50대 방청객 각 100명을 스튜디오에 초대해 두 가지 실험을 마련했다. 곽교수팀은 심리학 강의를 하던 도중 방청객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은 채 두 가지 소문을 전파시켰다. '어느 연예인이 자살했다.'는 부정적인 소문과 '어느 연예인이 아이를 입양했다.'는 긍정적인 소문을 각 그룹에 전달하고 그 결과를 지켜봤다.

실험 결과, 20대의 경우 '자살했다.'는 소문은 실험 대상자 100명 속에 곧바로 확산돼 81%가 소문을 들었고, 86%가 소문을 전했다. 반면 선행 관련 소문을 들은 이는 18%에 불과했고, 이 소문을 전달한 이들은 4%에 그쳤다. 40~50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나쁜 소문은 84%, 좋은 소문은 16%의 비율로 퍼져 나갔다. 아울러 이 실험에서 불안감이 높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4배가량 소문을 더 많이 듣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생각 펼치기

◎ SBS ‘힐링캠프’ 타블로 편 중 동영상 일부 시청하기(3분 44초)

<사건 그 후... 타블로가 잃은 것들>

가수 타블로의 사건에서 보았듯 한 번 시작된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 한 사람을 궁지에 몰아넣는 것은 순식간이다. 결국 그 사건은 온갖 사실을 다 들춰내고 나서야 마무리가 되었는데, 허무하게도 소문은 그저 소문일 뿐이었다.

◎ 자신의 경험 이야기하기

- 자신에 대해 좋은 소문이나 나쁜 소문이 났던 경험이 있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그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했는지도 말해봅시다.

3. 활동하기 : 토의하기

◎ 제 고민을 해결해주세요

<제 고민을 해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학생입니다. 제 친구에 대한 소문 때문에 고민이 되어 여러분께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어느 날 제 친구에 대한 안좋은 소문을 들었습니다. 처음 들었을 땐 무슨 말도 안된다고, 그럴 애가 아니라고 그랬는데, 자꾸 소문이 돌고 하니 저도 모르게 휩쓸리게 되어 그 소문의 내용대로 친구를 보게 됩니다. 친구에게 직접 물어보기도 어렵고... 어떻게 해야 할지 도와주세요.

-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었나요? 있었다면 그 때 어떻게 행동하였습니까?
- 이 친구의 고민을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모둠별로 토의하여 좋은 방법 찾고 이 친구의 고민을 해결해주세요.

4. 생활에 적용하기

◎ 나쁜 소문 극복하기

<다르게 생각해 보아요>

자신에 대한 나쁜 소문이 들리면, '앗, 저 아이들 또 한꺼번에 화장실에 가네. 틀림없이 내 얘기를 할 거야.'라고 나쁜 쪽으로만 생각하여 마음이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일로 화가 나거나 힘들게 느껴질 때에는 차라리 대범하게 긍정적 생각을 시험해보도록 하세요. '좋은 소문이든 나쁜 소문이든 소문이 난다는 것은 인기가 있다는 증거다. 그렇다면 소문을 계기로 주역으로 나서보자. 나를 적극적으로 PR해보자.'

- 나쁜 소문은 날아가고 좋은 소문은 기어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나쁜 소문에 휩쓸리게 되어도 생각을 전환하여 다르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에게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Ⅲ. 참고 자료

1. 읽기 자료

쌍십절 인육괴담 등 소문의 근원지는...

<세계일보 2012.11.21>

지난 9월 인터넷은 ‘인육 괴담’으로 들끓었다. 중국의 명절인 쌍십절(10월10일)에 인육을 먹는 풍습이 있는데 중국에서는 인육을 먹으면 실정법 위반이기 때문에 한국으로 원정을 와서 먹는다는 소문이었다.

황당하고 믿기 힘든 이야기다. 그러나 그럴듯한 동영상도 인터넷에 떠돌면서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 나갔다. 동영상에는 사람을 납치해 인육을 얻는 방법 등이 자세히 나와 있다. 때마침 관세청이 국내로 밀반입되는 인육 캡슐을 적발하면서 국민들은 괴소문이 마치 ‘진실’처럼 느껴질 지경에 이르렀다. 경찰은 ‘인육 괴담은 사실이 아니다’고 수차례 밝혔지만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인터넷 소문이 진화하고 있다. 믿기 어려운 이야기가 사진이나 도표, 동영상 등 ‘진짜’ 같은 근거로 포장돼 마치 진실인 양 인터넷에서 퍼지고 있다. 진화한 헛소문은 특정 기업에 손해를 끼치는 등 사회적 비용까지 유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럴듯한 근거가 있더라도 공식적으로 진위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무조건 믿고 보는 태도는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1일 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SK텔레콤(SKT)은 요금제 관련 소문 때문에 홍역을 치렀다. ‘아이폰5’의 출시를 앞두고 ‘아이폰 전용 LTE 무제한 요금제’를 출시한다는 소문이 유포된 것. 회사 내부 문서로 보이는 ‘요금제 표’가 근거로 제시돼 신빙성을 높였다.

소문을 접한 시민들은 ‘SKT와 애플이 뒷거래가 있었던 것인가’ ‘특정 단말기 요금제는 차별 아닌가’ 하는 등의 비난을 쏟아냈다. 회사에도 진위를 묻는 고객의 전화가 빗발쳤다. 경쟁사인 KT에서도 ‘LTE 무제한 요금제를 출시한다’는 소문이 요금제 표와 함께 나돌았으나 이 역시 거짓으로 판명됐다.

최승원 덕성여대 교수(심리학)는 “온라인에서는 헛소문을 전달할 때 몸짓, 표정 등 ‘비언어적 수단’을 사용할 수 없다”며 “헛소문이 정교하게 구성되지 않으면 믿음을 주기 어렵기 때문에 거짓말의 강도가 갈수록 세지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룹 ‘에픽하이’의 멤버 ‘타블로’가 미국 스탠퍼드대를 졸업하지 않았다고 몰아갔다가 실형을 선고받은 누리꾼들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들은 타블로의 한국 입국기록 등을 근거로 학력 위조설을 퍼뜨렸다.

이들의 근거는 한때 타블로 측이 제시한 공식 증빙자료보다 더 큰 위력을 발휘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인터넷의 속도에 취해 헛소문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창호 숭실대 교수(정보사회학)는 “정보가 많고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 인터넷의 장점이지만 그만큼 헛소문도 빨리 퍼진다”면서 “소문을 접하더라도 당사자 등에게서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이 아닐 경우 판단을 보류하는 것이 혼란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타블로, 기나긴 학력논란 법적 종지부...'타진요' 회원 8명 전원 유죄 확정

<스포츠 월드 2012.10.10>

힙합그룹 에픽하이의 멤버 타블로(본명 이선웅)가 기나긴 학력논란의 끝을 봤다.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421호 법정에서는 타블로가 학력을 위조했다는 주장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타진요(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회원 8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렸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 박관근 부장판사는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들 중 송모(32) 씨 등 7명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실형을 받은 박모(26·여) 씨에게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으로 형량을 낮췄다. 재판부는 "범행동기가 불순하고 방법이 천박했다. 피해자 측 엄벌 의사가 여전하다"며 양형부당에 관한 항소를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피해자가 인간의 존엄이라는 가치와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는데도 일부 피고인은 학력위조를 끝까지 밝히겠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 이후 경거망동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박 씨에 대해서는 어릴 때부터 아토피성 피부염을 앓아 수감 생활의 고통을 견디기 어려워 보이는 점, 피고인 중 가장 어린 데다 가족들이 선도 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참작해 예외적으로 감형했다.

앞서 9월 공판에서는 '타진요' 회원 모두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법원의 선처를 요청했다. 이날 공판으로 사실상 항소가 기각됐기에 더 이상 관련한 재판이 지속되기 힘들어 보인다. 이로써 타블로 학력위조와 관련된 허위 사실 유포 사건은 유죄로 일단락 됐다.

이번 논란은 2010년 초 한 누리꾼이 "스탠퍼드대 졸업자 명단에 타블로의 이름이 없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지속적으로 올리면서 시작됐다. 이후 '타진요'라는 모임까지 만들어지면서 결국 타블로는 2010년 8월 명예훼손 혐의로 논란을 주도한 누리꾼 일부를 고소했다. 경찰이 이 해 10월 타블로의 스탠퍼드대 졸업 사실을 확인해줬고 이날 결국 결론이 내려졌다.

2. 참고 문헌

<힐링캠프-타블로편> http://wizard2.sbs.co.kr/w3/template/tp1_netv.jsp?vProgId=1000718&vVodId=V0000350336&vMenuId=1015138&uccid=10001859817&st=0&cooper=NAVER

<타블로, 기나긴 학력논란 법적 종지부...'타진요' 회원 8명 전원 유죄 확정. 스포츠 월드(2012.10.10)> <http://www.sportsworldi.com/Articles/EntCulture/Article.asp?aid=20121010023086&OutUrl=naver>

<쌍십절 인육피담 등 소문의 근원지는... 세계일보(2012.11.21)> <http://www.segye.com/Articles/NEWS/ECONOMY/Article.asp?aid=20121121024558&subctg1=&subctg2=&OutUrl=naver>

영역	언어 폭력	대상	초등 고학년	시간	60분
학습 주제	친구가 내게 준 믿음의 증거물, 비밀을 지켜요				

I. 이 수업에 대하여

1. 개요

사춘기 학생들에게 또래 집단이 가지는 의미는 매우 중요하고, 친구간에 비밀 이야기를 많이 형성하게 된다. 그러나 비밀의 의미와 비밀 지키기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여 다른 사람에게 쉽게 폭로해버리는 경우가 많아 친구 관계에 문제가 발생되기도 한다. 본 수업은 다양한 읽기자료와 토의활동을 통해서 비밀의 의미와 비밀 지키기의 중요성을 알고 비밀을 지킬 수 있는 의지와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하였다.

2. 목표

- 비밀의 의미와 비밀 지키기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
- 친구와 공유한 비밀을 지킬 수 있는 의지와 태도를 기를 수 있다.

3. 준비물

- 읽기 자료, 흰 종이, 페놀프탈레인 용액, 붓, 비눗물, 분무기

4. 학습 내용

단 계	내 용
생각 열기	비밀에 대한 생각과 경험 공유하기
생각 펼치기	비밀을 지켜야 하는 까닭 알아보기
활동하기	비밀의 공유에 대한 글을 읽고 주제에 대해 토의하기 비밀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기
생활에 적용하기	비밀편지 쓰고, 친구와의 비밀 지키기

5. 유의 사항

- 비밀편지 쓰기 활동을 할 때에, 비밀의 내용은 간단하고 가벼운 내용으로 작성하는 것도 허용하며, 비밀 내용을 이야기하며 작성하지 않도록 주의시킨다.
- 학생들이 집에서 비밀편지를 읽어볼 수 있도록 생활과제를 자세히 안내한다.

II. 수업 과정안

1. 생각 열기

◎ ‘비밀’에 대한 나의 생각 정의하기

- 여러분에게 비밀은 어떤 의미인가요? “비밀은 다. 왜냐하면 ~ 때문이다.”로 정리하여 이야기해 봅시다.
- 여러분은 친구 사이에 비밀을 잘 지켜주고 있나요? 자신의 경험을 발표해 봅시다.
- 비밀을 지키기가 어려웠던 경우가 있었다면 왜 그랬나요?

2. 생각 펼치기

◎ 비밀을 지켜야 하는 까닭 알아보기

- 친구간에 비밀을 꼭 지켜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지키지 않아도 되는 비밀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 친구 사이에 비밀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 친구 사이의 비밀에 대한 읽기 자료 읽어보기

<친구가 내게 준 믿음의 증거물, 비밀>

“이건 너랑 나만의 비밀이다. 약속!”


새끼손가락을 걸며 맹세합니다. 지금 막, 한 사람이 친구에게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 말하지 않겠다.” 몇 번이고 단단히 다짐을 받고 또 받습니다. 우리는 서로 친구가 된다는 것은 비밀을 공유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연약한 치부를 그에게 드러내는 것이 우정을 만드는 방법이라 여기는 까닭입니다. 실제로 서로의 비밀을 털어놓은 친구끼리는 빠르게 친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정의 확인을 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의 비밀을 그에게 말했으므로 그도 나에게 비밀을 털어놓아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비밀을 공유한 이후에는 그것이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합니다. 만약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발설한다면 우정에 금이 가는 이유가 됩니다. 둘만의 사적인 이야기가 타인에게 누설되는 순간의 배신감은 견딜 수 없는 종류의 것입니다. 나만의 은밀한 비밀이 다른 이들의 입으로 떠돌아다닌다는 것은 무척이나 기분 상하는 일이지요. 그리고 나를 그토록 우울하게 만드는 사람이 나의 친구라면 정말이지 잔인한 경험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친구의 비밀을 함부로 털어놓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곧 자신이 어느 누구와 비밀스런 대화를 나눌 수 없는 사람이라고 공개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죠. 스스로 나는 신용할 수 없는 존재라고 공언하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당신에게 털어놓은 친구의 비밀은 비단 당신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친구의 소중한 보물이고, 나아가 당신에게 보여준 믿음의 증거물입니다. 그리고 둘의 관계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줍니다.

3. 활동하기 : 토의하기

◎ 비밀의 공유에 대한 글을 읽고 주제에 대해 토의하기  읽기자료 참고

<비밀은 어디까지 공유해야 할까?>

김지은, ○○초등학교 6학년. 어제 밤늦게까지 숙제를 하느라 늦잠을 잔 지은이는 아침부터 게으르다는 어머니의 잔소리로 기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수면부족인지 머리도 무겁고... 게다가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짝꿍 준기는 지은이의 기분도 모르고 놀리기 시작합니다.

“너 은준이와 친하다면서? 좋아한다고 소문이 짹~ 났던데.” 지은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떠버리 준기가 어떻게 알았을까? 이거 귀찮게 되겠는걸.’ 이성 친구를 좋아한다는 것이 부끄럽기도 하고 자신의 비밀을 말 많은 짝이 알게 된 것이 약이 오른 지은이는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누가 그래?” 떠버리 준기는 신이 나서 더 큰 소리로 말합니다. “애들이 그러던데, 지은이랑 은준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라고. 잘 되길 바란다야~ 히히히”

며칠 전 다연이와 함께 집에 가던 길이었습니다. 요즘 이성에 관심이 많아진 다연이는 키가 큰 민왕이가 좋다더니 이제는 운동을 잘 하는 영빈이가 더 좋다고 했습니다. 혼자 말하다 멧쩍어진 다연이가 지은이에게 물었습니다.

“지은아, 지난 번 쉬는 시간에 보니까 너 은준이랑 친해 보이더라.” “응, 은준이는 친절하게 말을 건네서 좋더라구. 그런데 이건 아직 비밀이니까 다른 애들한테 말하진 말아 줘.” “음~, 그래. 지은이 너, 은준이를 정말 좋아하는구나.”

지은이는 그날 다연이에게 말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사건이 전말이 짐작된 지은이. 창피하기도 하고 분한 마음도 들어 화가 치밀고 폭발 직전입니다. 준기와 다연이, 이 떠버리들...

- 자, 여러분이 지은이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 친구와의 비밀은 어디까지 공유할 수 있을까요? 토의해 봅시다.

◎ 비밀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 대한 읽기자료 읽어보기

<비밀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러나 우리는 실수를 저지룰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한순간의 방심으로 친구의 비밀을 흘리고 말았다면, 그리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면 서둘러 수습해야 합니다. 친구의 귀에 다른 사람이 그 사실을 들려주기 전에 움직여야 합니다. 즉시 친구에게로 달려가 고백하세요. 그리고 실수를 인정하고 용서를 비세요. 그 후의 판단은 친구의 몫입니다.

물론 어렵고도 힘든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어려움도 친구를 잃는 것과 비교될 수 없다는 걸 기억하기 바랍니다. 둘이 함께 문제의 해결 방법을 의논하다 보면, 새로운 믿음의 물꼬가 트일 수도 있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정직한 대화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만이 자신의 우정을 지킬 수 있습니다.

4. 생활에 적용하기

◎ 비밀편지 쓰기

<너만 볼 수 있는 비밀편지>

- 준비물 : 흰 종이, 페놀프탈레인 용액, 붓, 비눗물(염기성 용액), 분무기
- 유의사항 : 비밀편지는 거창한 내용이 아니라 자신의 기분, 있었던 일, 신체 비밀, 하려고 하는 것 등 원하는 내용으로 작성할 수 있음
- 실험방법 : ① 붓에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찍어서 비밀편지 쓰기
② 종이를 말리고 접어 친구에게 전달하기-흰 종이에 투명한 페놀프탈레인 용액으로 글을 써서 말리면 글씨가 보이지 않음
③ 편지를 받은 친구는 집에 가서 비눗물을 분무기로 뿌려서 비밀편지의 내용을 확인하기
④ 비밀편지의 내용은 둘만의 비밀로 간직하기

- 산성 용액(페놀프탈레인 용액)을 사용하여 친구에게 비밀편지를 작성해 보세요. 작성한 편지는 잘 말려서 친구에게 전달합니다.

◎ 생활과제 : 친구와의 비밀 지키기

- 편지를 받은 어린이는 집으로 가서 비눗물을 분무기로 뿌려 편지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세요. 편지에 담긴 친구의 비밀을 잘 지켜주었으면 좋겠습니다.

Ⅲ. 참고 자료

1. 읽기 자료

<비밀 지키기의 어려움과 관련된 속담, 고사성어, 명언>

- 남의 말 하기는 식은 죽 먹기
-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 언비천리(言飛千里) : 일단 말을 했다하면 벌써 천리밖에 가 있다.
- 무족지언 비우천리(無足至言 飛于千里) :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 악사천리(惡事千里) : 나쁜 소문일수록 세상에 빨리 퍼진다.
- 입은 사람을 상하게 하는 도끼요, 말은 혀를 베는 칼이다. 되도록 입을 닫고 혀를 감추면 어디에 있든지 몸은 편안하다(명심보감).
- 잘못 쓴 글은 지우면 그만이지만, 말이란 한번 내뱉으면 주어 담을 수 없으니 함부로 말하지 말라.

<말(馬)과 말(言) - 네 마리의 말과 혀>

<논어>의 '안연(顔淵)'편에 나오는 '사불급설(駟不及舌)'이라는 표현은 말에 대한 비유 중에서 으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자성어의 의미를 평소 알고 경계하는 습관을 가진다면 친구 사이의 관계가 훨씬 부드럽고 좋아질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사(駟)는 '네 마리의 말이 끄는 빠른 수레'를 말합니다. 아무리 빠른 수레로도 한 번 해버린 말(言)을 붙들지 못한다, 즉 네 마리 말도 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뜻이지요. 이야기를 풀어보자면, 당시에 극자성이란 사람이 자공(공자의 제자)에게 말했답니다.

"군자가 질(質)이 있으면 그만이지, 문(文)이 무엇 때문에 필요하겠습니까?"

그러자 자공은, "안타깝다. 문이 질과 같고, 질이 문과 같다면 호랑이나 표범의 가죽이 개나 양의 가죽과 같단 말인가?"라고 그의 경솔한 말을 반박했습니다. 질은 인간의 본성, 바탕을 말하고, 문은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예의, 학문 등을 가리키는 말인데, 편협한 극자성의 말을 자공은 '사불급설(駟不及舌)'이라고 질책하였다는군요.

이처럼 무심코 내뱉는 말 한마디로 면박을 당하기도 하고, 세상을 시끄럽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상대방을 곤경에 빠뜨리기도 하고, 스스로를 올라미처럼 묶기도 합니다. 이러한 말의 힘은 친구사이처럼 대인관계에서 특히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데, 서먹서 먹했던 사이가 말로 인하여 허물없는 사이가 되기도 하고, 소중하고 절친한 친구가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친구란 어떤 관계여야 할까요?

<친구와의 비밀은 어디까지 공유할 수 있을까? >

친구와 비밀을 어디까지 공유할 수 있느냐?라는 내용의 전화문자를 친구들에게 보냈더니 몇 개의 응답문자가 왔습니다.

<발신내용> 친구와 비밀은 어디까지 공유할 수 있을까요?

<수신내용>

- 인섭 : 친구와는 마음 가는 만큼만 공유한다.
- 진철 : 친구에 따라 비밀 등급이 다르다. 다른 사람 홍보는 비밀 말고는 나누는 게 좋다.
- 정원 : 둘도 없는 친구라면 비밀이 없을 듯...
- 미진 :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겠다고 맹세한 것 빼고 전부 다.
- 계향 : 법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 범죄를 비밀로 해주면 안되니까.
- 은주 :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까지
- 수진 : 남의 비밀은 친구와 공유하지만 나의 비밀은 절대 공유하지 않아. 비밀은 비밀이니까.

여러분은 어떤 내용의 답신 문자를 보내겠습니까?

2. 참고 문헌

이삭(2002). 나랑 닮은 친구에게 주고 싶은 책. 바움.

<비밀은 어디까지 공유해야 할까? - 친구와의 걱정거리><http://blog.naver.com/iceduhope?Redirect=Log&logNo=90150911085>

* 영역 : 언어 폭력 예방

* 학교급 : 중·고등학교

* 주요 내용

① 욕의 뜻, 제대로 알고 쓰는 거야?

② 내가 한 험담(비방), 그에게는 마음의 상처가 되어

③ 친구에 대한 위협(협박)은 이제 그만, 상처주지 말아!

④ 친구들아, 모욕을 당하면 수치심을 느껴 힘들어!

⑤ 말이 우리에게 주는 힘을 아직도 모르겠어?

영역	언어 폭력	대상	중학생	시간	135분
학습 주제	욕의 뜻, 제대로 알고 쓰는 거야?				

I. 이 수업에 대하여

1. 개요

욕을 사용하는 학생들 중에는 욕의 정확한 뜻을 모르고 습관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친구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따라 하는 경우가 많다. 요즘에는 대중매체의 영향도 크다. 심지어 청소년들은 친구들끼리 욕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욕설 사용은 폭력의 일부, 또는 전 단계로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욕의 뜻을 바로 알고 부끄러운 마음이 들도록 한다.

2. 목표

- 욕의 뜻을 제대로 알 수 있다.
- 욕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할 수 있다.

3. 준비물

- 두꺼운 도화지, 팻말, 싸인펜, 포스터 물감, 붓, 싸인펜, 양파 2개, 페트병 2개 등

4. 학습 내용

단 계	내 용
생각 열기	‘물은 알고 있다’ 영상 보기
생각 펼치기	욕의 뜻을 제대로 알기
활동하기	‘욕설 방지’ 캠페인 표어/포스터 만들기
생활에 적용하기	*욕설 금지 개인 서약 받기 *(선택)양파 실험하기

5. 유의 사항

- 욕의 정확한 뜻을 설명하여 학생들이 그 뜻을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한다.

II. 수업 과정안

1. 생각 열기

- ◎ ‘ 알고 있다’ 영상 보기(<http://www.youtube.com/>에서 ‘물은 알고 있다’ 검색)
- 이 영상은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까?
 - 이 영상을 통해서 알게 된 점은 무엇입니까?
- ◎ 욕설을 했거나 들었던 경험 이야기하기
- 다른 사람에게 욕을 했거나 들었던 경험을 이야기해 봅시다.
 -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 어떤 말을 들었습니까?
 - 그 때 여러분은 기분이 어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행동하였습니까?

2. 생각 펼치기

- ◎ 「말의 힘」 내용을 통해 ‘욕설의 뜻’ 알아 보기(PPT)

<말의 힘>

<p>말의 힘</p> <p>-내가 한 말은 다시 내게로 돌아옵니다.-</p>	<p>생각해 봅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가 자주 사용하는 말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긍정적인 말인가 부정적인 말인가? -칭찬이나 격려인가 비난이나 질책인가? -듣기 좋은 말인가 욕설인가? -표준어인가 비속어인가? ● 여러분이 사용하는 욕설의 뜻을 알아보고, 나아가 말의 힘에 대해 알아보시다.
<p>욕설에 담겨있는 속뜻(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랄 : 정신병의 일종인 ‘간질’을 일컫는 말. 사지가 마비되고 발작을 일으킴 ● 염병 : ‘장티푸스’라는 전염병을 일컫는 말. 당시에는 염병이 불치병이었음 ● 개새끼 : ‘개의 새끼’라는 뜻이므로 그 부모까지 ‘개’에 비유하여 욕하는 것임 	<p>욕설에 담겨있는 속뜻(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좃나(좃라) : 앞 글자인 *는 남자의 성기를 가리키는 말로 ‘*나’는 *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심하게’ 라는 뜻으로 쓰임 ● 씨팔(씨발) : ‘씨팔’을 소리나는 대로 읽은 것으로서, 앞 글자인 #는 남녀간의 성관계를 속되게 이르는 말임. 결국 ‘씨팔’은 자신의 성을 팔아 먹고 살라는 말과 같음 ● 욕설, 그 속 뜻을 알고도 쓰시겠습니까?

- 욕설에 담긴 속 뜻을 알게 되었습니까?
- 욕설, 그 속 뜻을 알고도 쓰겠습니까?

3. 활동하기 : 「욕설 방지」캠페인 표어/포스터 만들기

<캠페인 표어/포스터 만들기>

- 준비물 : 두꺼운 도화지, 싸인펜, 포스터 물감, 붓, 피켓 등
- 유의사항 : ①수업 전에 미리 준비물을 챙겨두도록 한다.
②학생들이 캠페인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방법 : ①학생들은 욕설 방지 캠페인을 위해 표어나 포스터 중 선택할 수 있다.
②학생들이 만든 표어나 포스터는 교실 창문, 사물함, 복도 벽 등에 게시하도록 한다.
 <표어의 예> : '네가 한 마디 욕설로 친구의 마음은 썩어든다'
 <포스터> : 욕설로 인한 피해 등이 잘 나타나도록 그린다.

◎ 표어나 포스터 전시하기

- 친구들이 만든 표어나 포스터를 살펴봅시다. 전하려는 의미가 잘 담겨 있습니까?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지 말하여 볼까요?

◎ 욕설 방지 캠페인이 주는 효과 말하기

- 교실, 복도 등에 게시된 표어나 포스터는 반 친구들이나 학교 선, 후배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 여러분은 캠페인을 통해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4. 생활에 적용하기

◎ 욕의 뜻을 정확히 알고 난 이후, 욕에 대한 나의 생각 돌아보기

- 다른 친구가 나에게 욕을 했을 때 나의 마음은 어땠는지 생각해 봅시다.
- 내가 친구에게 욕을 했을 때 친구의 마음이 어땠는지 생각해 봅시다.
- ‘말의 힘’을 공부하면서 욕을 쓰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까?

◎ 이번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과 다짐 발표하기

- 오늘 활동을 통해 느낀 점과 앞으로 여러분의 다짐을 이야기해 봅시다.

◎ 생활과제 : 「욕설 방지」 개인 서약서 쓰고, 게시판에 게시하기 활동지 1

◎ 선택과제 : 양과 실험하기

- 활동지1 - 욕설 방지 개인 서약서 쓰기

서약서

_____중학교 _____학년_____반

나는 학교 생활을 할 때 친구들에게 욕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선생님과 친구들 앞에서 다짐합니다.


20 년 월 일

이름

인

Ⅲ. 참고 자료

1. 그림 자료(양파 실험 사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왼쪽 : 긍정적인 말 (사랑해, 고마워)● 오른쪽 : 부정적인 말 (바보야, 네가 싫어)
---	--

2. 참고 문헌

정영호(2007). 올바른 언어사용 교육을 위한 자료-말의 힘(PPT). 인디스쿨 상담/생활지도 게시판 1번.

<http://www.youtube.com/>(‘물은 알고 있다’ 영상 검색)

영역	언어 폭력	대상	중학생	시간	90분
학습 주제	내가 한 험담(비방), 그에게는 마음의 상처가 되어				

I. 이 수업에 대하여

1. 개요

많은 수의 학생들이 자신의 관점으로만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판단한다. 자신의 관점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다른 성향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을 공격한다. 공격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만 말로 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그 사람에 대한 험담이나 비방이므로 학생들이 그것을 자제하려는 노력을 하도록 돕도록 한다.

2. 목표

-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이나 비방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
-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의 입장에 대해 존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

3. 준비물

- 신문 속 읽기 자료 예화, 활동지, 흰색 전지 6장, 펜 등

4. 학습 내용

단 계	내 용
생각 열기	읽기 자료 2가지 읽기
생각 펼치기	읽기 자료를 읽고, 생각할 점을 2가지 이상 찾아보기
활동하기	그룹별 토의하기
생활에 적용하기	토의한 결과물을 정리하여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기

5. 유의 사항

- 학생들이 토의 시, 조별로 골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학생 수를 조절해 준다.
- 되도록 원하는 그룹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

II. 수업 과정안

1. 생각 열기

◎ 읽기자료 2가지 읽기 📖 활동지 1

읽기자료 1

어느 날 노자가 길을 가는데 세 명의 남자가 다투고 있는 것이 보였다. 궁금해진 노자는 그들 곁에 다가갔다. 첫 번째 남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 세상은 빨강다니까” 그러자 두 번째 남자가 “아니야, 저 하늘을 봐. 이 세상은 파랑다 고” 세 번째 남자는 얼굴에 핏대까지 세우며 되받아쳤다. “이런 바보들 같으니 라고. 니들 눈에는 이 세상이 노란 게 안 보이니?” 세 남자는 서로 자기 말이 옳다고 주장하며 싸움을 그칠 기세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자 노자는 갑자기 큰 소리로 웃기 시작했다. 놀란 세 남자는 노자 쪽을 쳐다보았다. 노자는 말없이 세 남자에게 다가가 그들의 얼굴에서 무언가를 벗겨 내었다. 그것은 선글라스였다. 첫 번째 남자는 빨간색 렌즈, 두 번째 남자는 파란색 렌즈, 세 번째 남자는 노란색 렌즈의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던 것이다.

노자는 세 남자를 향해 말했다. “이보시오. 당신들은 각각 다른 색안경을 쓰고 있으니 세상이 달라 보인 것이오. 그걸 벗으면 싸움 일이 없을 것이오” 이 말을 들은 세 사람은 그제야 싸움을 멈추었다.

읽기자료 2

정민이는 요즘 학교 가기가 싫다. 지방에서 전학을 온 정민이는 학급에서 친한 친구가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매일 아침 교실 안으로 들어가면 친구들은 정민이에게 인사는커녕 눈길조차 주지 않는다. 주눅이 든 정민이는 친구들에게 점점 말을 걸기가 어려웠다. 이런 정민이를 같은 반 친구들은 건방지다고 하나 둘씩 외면하기 시작했다.

전학 온 지 6개월, 정민이의 모든 행동은 건방진 행동이 되고 말았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 질문에 답을 해도 건방진 대답이 되고, 친구를 보고 웃어도 건방진 웃음이 되고 말았다.

- 읽기자료 1에서 생각해 볼 점은 무엇입니까?
- 이 글에서 말하는 ‘렌즈’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읽기자료 2에서 생각해 볼 점은 무엇입니까?
- 정민이라는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말하여 봅시다.

2. 생각 펼치기 활동지 1

◎ 「읽기자료 1, 2」 내용을 통해 생각할 점 2가지 이상 찾아보기

- 읽기자료 1을 통해 친구들과 토의할 점이 있습니까? 1가지 이상 찾아봅시다.
- 읽기자료 2를 통해 친구들과 토의할 점이 있습니까? 1가지 이상 찾아봅시다.

3. 활동하기 : 그룹 토의하기

<그룹 토의하기>

- 준비물 : 흰색 전지, 싸인펜 등
- 유의사항 : ①1조에 5명 정도가 되도록 한다.
②학생들이 스스로 토의하고 싶은 주제, 그룹을 선택한다.
- 방법 : ①교사는 학생들이 읽기자료를 읽고 정리한, <생각해 볼 문제>를 정리한다.
②읽기자료 1에서 3가지, 읽기자료 2에서 3가지 정도 뽑는다.
<예1> : 우리 각자가 쓰고 있는 렌즈를 알고 싶다.
<예2> : 정민이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자.

◎ 5명이 돌아가면서 토의하기

- 순서를 정해서 각 토의 주제에 맞는 내용을 발표하도록 함시다.
- 한 명의 의견이 끝날 때마다 질의, 응답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그룹에서 진행자와 서기를 두어 토의가 원활히 잘 진행되도록 합니다.

4. 생활에 적용하기

◎ 조별로 돌아가며 발표하고, 깨달은 점을 마음 속에 새기기

- 서기는 토의 결과에 대해 발표하여 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토의를 통해서 얻은 결과가 무엇인지 알아보까요? 험담이나 비방을 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잘 알았습니까?
- 앞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이나 비방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여 봅시다.

• 활동지1 - 읽기자료(조선일보 2012.10.29.월.A30)

읽기자료 1

어느 날 노자가 길을 가는데 세 명의 남자가 다투고 있는 것이 보였다. 궁금해진 노자는 그들 곁에 다가갔다. 첫 번째 남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 세상은 빨강다니까” 그러자 두 번째 남자가 “아니야, 저 하늘을 봐. 이 세상은 파랑다고” 세 번째 남자는 얼굴에 핏대까지 세우며 되받아쳤다. “이런 바보들 같으니라고. 니들 눈에는 이 세상이 노란 게 안 보이니?” 세 남자는 서로 자기 말이 옳다고 주장하며 싸움을 그칠 기세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자 노자는 갑자기 큰 소리로 웃기 시작했다. 놀란 세 남자는 노자 쪽을 쳐다보았다. 노자는 말없이 세 남자에게 다가가 그들의 얼굴에서 무언가를 벗겨 내었다. 그것은 선글라스였다. 첫 번째 남자는 빨간색 렌즈, 두 번째 남자는 파란색 렌즈, 세 번째 남자는 노란색 렌즈의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던 것이다.

노자는 세 남자를 향해 말했다. “이보시오. 당신들은 각각 다른 색안경을 쓰고 있으니 세상이 달라 보인 것이오. 그걸 벗으면 싸울 일이 없을 것이오” 이 말을 들은 세 사람은 그제야 싸움을 멈추었다.

읽기자료 2

정민이는 요즘 학교 가기가 싫다. 지방에서 전학을 온 정민이는 학급에서 친한 친구가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매일 아침 교실 안으로 들어가면 친구들은 정민이에게 인사는커녕 눈길조차 주지 않는다. 주눅이 든 정민이는 친구들에게 점점 말을 걸기가 어려워졌다. 이런 정민이를 같은 반 친구들은 건방지다고 하나둘씩 외면하기 시작했다.

전학 온 지 6개월, 정민이의 모든 행동은 건방진 행동이 되고 말았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 질문에 답을 해도 건방진 대답이 되고, 친구를 보고 웃어도 건방진 웃음이 되고 말았다.

❏ 읽기자료 1에서 생각해 볼 점은 무엇입니까?

❏ 이 글에서 말하는 ‘렌즈’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읽기자료 2에서 생각해 볼 점은 무엇입니까?

❏ 정민이라는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말하여 봅시다.

Ⅲ. 참고 자료

1. 읽기자료

<p>馬援이 曰聞人之過失이어든 如聞父母之名하야 耳可得聞이언정 口不 可得言也이니라(마원이 왈 문인지과실이어든 여문부모지명하야 이가득문이언정 구불가득언야이니라)</p> <p>☞ 마원이 가로되 남의 허물을 듣거든 부모의 이름을 듣는 것 같이하여 귀로는 들을지언정 입으로는 말하면 아니되느니라. (부모의 이름을 듣기만하고 부를 수 없듯이 남의 허물을 듣기만 하고 입에 담아 남에게 말하지 말라는 뜻) -명심보감 정기편 중에서-</p> <p>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벵전 2:1) -성경 베드로전서 2장 1절-</p> <p>☞ 이 구절을 읽으면서 어떠한 생각이 들었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비방할 때에는 이미 마음 속에서도 그러한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악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 우리 자신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남에 대한 악한 마음을 품고 있지 않은지 나의 내면을 돌아보고 그것을 씻어내도록 합시다.</p>
<p>말을 많이 하지 말라 -법정스님 1994년 약수암 법문 중에서-</p> <p>☞ 남의 일에 참견하거나 간섭하지 마세요. 우리가 흔히 자기 일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웃의 일을 가지고 자꾸 참견하고 간섭하잖아요. 물론 자녀들, 가족 간에 교육적인 의미에서 또는 가족적인 어떤 화해라든가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또 참견해야 할 일도 있죠. 이것은 더 말할 것도 없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공연히 남의 일에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일에 참견하거나 간섭해서는 안 됩니다. (중략) 옛날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항상 자기 코끝에 뾰족한 것만 볼 것이지 남의 눈동자의 모난 것은 묻지 마라.”는 거예요.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말라는 겁니다. 만약 이와 같이 수행 해 간다면 어디를 가나 도량 아닌 곳이 없으리라. 마태복음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어찌하여 너는 승녀의 눈 속에 든 피는 보면서 제 눈 속에 대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다시 말하자면 자기의 허물을 덮어 두고 남의 허물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서양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의 한 가지 허물을 숨겨 주면 신은 너의 두 가지 허물을 용서 해 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또 옛사람들이 이르기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을 헐뜯는 소리를 듣게 되면 그들과 기쁨을 나누지 말라. 누가 남의 허물을 들추면 끝까지 들으려고 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곧 일어나라. 그 대신 남의 좋은 일에 대한 얘기를 듣거든 마음속에 새겨두고 이웃들에게 얘기해라.”</p>

2. 참고 문헌

조선일보(2012.10.29.월.A30). 노자의 도덕경에 대한 읽기 자료

영역	언어 폭력	대상	고등학생	시간	180분
학습 주제	친구에 대한 위협(협박)은 이제 그만, 상처주지 말아!				

I. 이 수업에 대하여

1. 개요

본 수업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나 모욕을 주거나, 협박을 하는 말에 대해 생각해 봄으로써 친구 상호 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그에 따라 학생들이 주변에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 책이나 신문, 경험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 하고, 가장 적절한 내용을 선정한 후에 직접 대본을 쓰고 연극을 하도록 한다.

2. 목표

- 남을 위협(협박)하는 말들을 왜 사용해서는 안 되는지를 알 수 있다.
-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언어 습관을 갖도록 노력할 수 있다.

3. 준비물

- 연극에 필요한 의상, 소도구 등

4. 학습 내용

단 계	내 용
생각 열기	영화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을 관람하기
생각 펼치기	(사전 과제)소설, 신문기사, 영화 내용 등 자료 수집하기
활동하기	연극에 적합한 내용 선정, 연극 대본 작성, 실제 연극하기
생활에 적용하기	*연극을 하면서 깨달은 점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려는 의지 갖기 *가장 감명깊었던 장면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자신에게 잘못된 행동들이 있었다면 반성해 보기

5. 유의 사항

- (사전 과제)위협이나 협박을 하는 장면(글)을 찾을 때, 되도록 학교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찾도록 안내한다.

II. 수업 과정안

1. 생각 열기

- ◎ 영화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을 보면서 생각해 보기
(<http://www.youtube.com/> 에서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검색 1, 2편)
 - 이 영화는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생각되니까?
 - 이 영화를 통해서 알게 된 점은 무엇입니까?

- ◎ 영화 속 내용 분석하기 📖 활동지 1
 - 엄석대가 반 친구들을 대하는 말과 행동에 대하여 생각하여 봅시다.
 - 엄석대가 한 말들은 주로 어떤 말들입니까? 한병태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 엄석대가 한 말 중에 ‘위협, 협박’과 관련된 말을 생각하여 봅시다.

2. 생각 펼치기

- ◎ (사전 과제)읽었던 책 속에서 사람 상호간에 ‘위협 또는 협박’을 하는 장면을 찾기
 - 사람 상호 간에 ‘위협이나 협박’을 하는 장면이 나오니까?
 - 책 외에도 주변 사람의 경험이나 영화 내용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조사해 올 수도 있습니다.

- ◎ 가장 좋은 장면 선정하기
 - 조별로 조사해온 내용을 발표한 후 가장 적합한 장면을 선정하여 봅시다.
 - 조에서 선정한 내용을 반 전체 앞에서 발표한 후에 최고의 작품(장면)을 선정하겠습니다.
 - 어느 작품(장면)이 가장 인상에 남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3. 활동하기 : 연극하기

<연극 활동>

- 준비물 : 대본, 의상, 소도구 등
- 유의사항 : ①교사는 예시를 주고 학생들이 직접 대본을 쓸 수 있다.
②팀을 나누어 연극을 두 번 할 수 있다.(배우의 입장&관객의 입장)

◎ 연극하기

- 말은 역할에 대한 이해를 잘 하고 있나요? 연극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을 생각하여 봅시다.
- 연극을 두 번 하면 한 번은 배우의 입장에서, 한 번은 관객의 입장에서 연극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 연극 후 느낀 점 말하기

- 연극을 직접 해 보면서 느낀 점을 말하여 봅시다.
- 관객의 입장에서, 연극을 본 소감을 말하여 봅시다.

4. 생활에 적용하기

◎ 남에 대한 위협(협박)이 왜 나쁜 말(행동)인지 생각해보기

- 다른 사람으로부터 위협(협박)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또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협(협박)한 적이 있습니까? 그때의 느낌을 말하여 봅시다.
- 다른 사람을 위협(협박)하는 말(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말하여 봅시다.

◎ 연극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과 다짐 발표하기

- 오늘 활동을 통해 느낀 점과 앞으로 여러분의 다짐을 이야기해 봅시다.

◎ 남을 존중하는 언어 습관 가지기

- 다른 사람을 위협(협박)하는 말이 아니라 남을 존중하는 말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 봅시다.

- 활동지1 -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영화를 보며, 함께 생각해 볼 점

영화 감상

___ 고등학교 ___ 학년 ___ 반 이름 ()

- ♣ 영화를 보면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생각하여 봅시다.

질문	영화 속 말 찾기
1. 엄석대가 반 친구들에게 사용하는 말 중에서 <u>기억에 남는 말</u> 은 무엇인지 생각나는 것을 다 적어보세요.	
2. 엄석대는 <u>반 친구들에게 어떤 행동</u> 을 하였습니까? 기억나는 것을 두, 세가지 적어보세요.	
3. 엄석대가 한 말 중에서 ‘ <u>위협(협박)</u> ’에 대한 말을 찾아보고 적어봅시다.	
4. 이 영화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 위의 내용을 조별로 나누어 봅시다.

Ⅲ. 참고 자료

1. 신문기사(한국아이닷컴, 2007.05.30)

작가 이문열 "美 학생들 소설 속 숨은 관념 정확히 이해해 충격"
페닝턴스쿨서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토론

미국 하버드대 한국학연구소에 연수중인 작가 이문열씨가 29일 뉴저지주 사립학교 페닝턴스쿨에서 자신의 작품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Our Twisted Hero)>을 놓고 학생들과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이씨는 이날 초청특강에서 "작품을 통해 4·13 호헌 조치에 대한 한국 지식인들의 당혹스러움을 드러냄으로써 한국사회의 진실의 한 모퉁이를 보여주고 싶었다."고 작품의 배경을 설명했다.

학생들은 '어떻게 소설의 아이디어를 구상하게 되었는지', '지금 이 소설을 다시 쓴다면 어떤 부분을 바꿀 생각인지', '소설의 주인공 엄석대와 담임선생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등 다양한 질문들을 던졌다.

이에 이씨는 "'권선징악'으로 소설을 마무리한 것은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시 한국 지식인의 황당함을 있는 그대로 절실하게 표현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소설을 다시 쓴다고 해도 결론은 바꾸지 않겠지만, 다시 소설을 쓴다면 낙관적으로 쓰고 싶다."고 말했다.

이씨의 수업을 들은 11학년생 그레시아 르네라는 "책을 읽으면서 궁금한 점이 많았는데 작가의 대답으로 모든 궁금점을 풀 수 있어서 매우 유익했다."고 말했다. 영어 담당교사 마이클 키오는 "친구의 소개로 이씨의 작품을 교재로 선택했다."며 "학생들이 작가와 작품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이씨는 수업을 끝낸 뒤 "학생들이 인물을 설정한 배경과 숨겨놓은 관념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며 "질문의 수준이 뜻밖이어서 상당히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씨는 "내년 말까지 체류허가를 받았지만 귀국일정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며 "앞으로 나올 작품의 '밀천' 마련을 위해 체류기간을 연장할 지, 아니면 올 연말 귀국할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국내 정치상황에 대해 "그런 질문에 대답 안 하려고 멀리 와 있는 것"이라며 "국내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페닝턴스쿨은 1838년 뉴저지 남부에 세워진 역사 깊은 사립 중·고교로 이씨의 작품을 이번 학기 영어 수업에 동아시아 문학 교재로 채택했다.

2. 참고 문헌

<http://news.hankooki.com/>

<http://www.youtube.com/>(유튜브에서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1, 2편 검색)

영역	언어 폭력	대상	고등학생	시간	90분
학습 주제	친구들아, 모욕을 당하면 수치심을 느껴 힘들어!				

I. 이 수업에 대하여

1. 개요

본 수업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모욕을 느끼게 하는 말에 대해 생각해 봄으로써 친구 상호 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평소 학생들이 주변에서 경험하는 내용을 통해서 ‘모욕이 사람에게 주는 안 좋은 영향’을 깨달아, 서로 간에 모욕을 주는 말을 하지 않도록 지도하는데 초점을 둔다.

2. 목표

- 남을 모욕하는 말들을 왜 사용해서는 안 되는지를 알 수 있다.
-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언어 습관을 갖도록 노력할 수 있다.

3. 준비물

- 사진 자료, 신문기사 등

4. 학습 내용

단 계	내 용
생각 열기	(사전 조사)모욕을 겪었던 경험나누기
생각 펼치기	사례 연구하기
활동하기	두 가지 입장에서 토의 활동하기 *모욕을 당하는 입장이라면, 최고의 문제 해결책을 찾아보자. *모욕을 하는 입장이라면, 왜 모욕을 하여서는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보자.
생활에 적용하기	편지쓰기

5. 유의 사항

- (사전 조사)모욕을 목격하거나 직접 겪었던 내용들은 민감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수업 전 비공개 조사를 통해 알아본다.

Ⅱ. 수업 과정안

1. 생각 열기

- ◎ (사전 조사)과거에 친구들 사이에서 모욕을 느꼈던 경험 나누기
- 과거에 친구들로부터 모욕을 느꼈던 경험이 있었습니까? 특히, 말로 모욕을 당했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었는지 다음 빈 종이에 적어 봅시다.
 - (조사 후)여러분들이 과거에 겪었던 경험들 중 비슷한 것끼리 묶어 보았는데 그 중에 가장 많았던 모욕 사건은 ()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 사건도 있었습니다.

2. 생각 펼치기

- ◎ 다음 두 가지 상황에 대해 생각해보기 1. 활동지 1

<모욕을 느끼는 상황들>

<p>▲ 14일 모바일 메신저인 '카카오톡'에서 집단 왕따를 당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강모양이 숨지기 20여분 전에 아버지에게 보낸 캡처 파일, 지난 6월 카카오톡 스토리에 한 학생이 "강○○과 친구를 끊었다"는 글을 올리자, 다른 학생들이 "축하한다" 등의 댓글을 수십 개 올린 것이다. 강양은 지난 5월부터 카카오톡의 집단 채팅방에 초대돼 각종 욕설을 듣는 등 왕따를 당해왔다. /유가족 제공.</p>	<p>"어이, 똥보 왔어?" 지난 6월 어느 날,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이 학교 2학년인 A양(18)이 교실로 들어서자 한 남학생이 큰 소리로 그를 맞았다. 주변 남학생들이 키득거리며 웃었다. A양은 못 들은 척 자리로 향했지만 인신공격 발언이 뒷덜미로 계속 날아들었다. A양은 등교를 거부하기 시작했고, 어머니는 아침마다 우는 딸과 전쟁을 치렀다.</p> <p>"벌써 한 달째인데, 어찌하면 좋을까요..." 7월20일 오후 2시, 경기경찰청 '117학교폭력 신고센터'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A양 어머니였다. 경찰은 학교 측에 적극적인 개입을 요청하고, 매주 한 차례씩 심리상담 교사를 A양 집으로 보냈다. 치료는 방학 내내 계속됐다.</p> <p>학교폭력이 진화하고 있다. 구타 등 물리적 폭력이 감소한 대신 그 자리를 '언어폭력'이 빠르게 채우고 있다.</p> <p>(세계일보-2012.10.31 사회 기사)</p>
--	---

- 왼쪽 상황은 모바일로 떼카(모바일 메신저로 집단 왕따를 당하는 것)를 당한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20분 전에 아버지에게 보낸 채팅방 캡처 사진입니다. 이 여학생은 당시에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말로 하는 모욕이 사람에게 주는 영향을 어느 정도일까요?
- 오른쪽의 상황은 외모로 인해 친구들로부터 모욕을 당하는 학생의 경험담입니다. 이 학생의 기분은 어떨까요? 사람이 외모로 인해 놀림을 당했을 때 겪을 심리적 충격을 생각해 봅시다.

3. 활동하기 : 토의하기

◎ 조별 토의하기 📖 활동지 2

<토의 활동>

- 두 가지 입장에서 토의하기

상황 ① 모바일 메신저로 떼카가 이루어졌을 때

- 👉 모욕을 주는 사람이 받게 될 영향
- 👉 모욕을 당한 사람이 받게 될 영향

상황 ② 키, 얼굴, 몸무게 등으로 인한 놀림이 이루어졌을 때

- 👉 모욕을 주는 사람이 받게 될 영향
- 👉 모욕을 당한 사람이 받게 될 영향

- 위의 두 가지 상황에 대해 상황 1)은 1~3조에서, 상황 2)는 4~6조가 토의하여 볼까요? 두 가지 입장을 모두 토의하도록 합니다. 모욕을 당하는 사람이 받을 영향뿐만 아니라 모욕을 하는 사람이 받을 영향에 관한 문제도 꼭 다루어 봅시다.

◎ 토의 후 조별 발표하기

- 토의 결과를 조별로 발표하여 봅시다.

4. 생활에 적용하기






◎ 언어 폭력으로 인해 피해를 당한 학생에게 편지쓰기

-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언어 폭력, 특히 모욕으로 피해를 당한 학생에게 편지를 써 봅시다. 특별한 친구가 떠오른다면 그 친구에게 써도 좋고, 아니면 ‘떼카 피해로 인해 소중한 목숨을 끊은 강소라(가명)’에게 편지를 쓸 수도 있습니다.

• 활동지1 - 모욕적인 상황에 대한 생각 나누기

_____ 고등학교 _____ 학년 _____ 반 이름 ()

♣ 다음 상황에서 당사자들이 느꼈을 고통을 생각하여 봅시다.

<p>33개의 댓글이 있습니다.</p> <div>  <p>웃크 6월 20일</p> </div> <div>  <p>감사합니다 여러분 6월 20일</p> </div> <div>  <p>웃크 6월 20일</p> </div> <div>  <p>ㅋㅋㅋㅋㅋ 6월 20일</p> </div> <div>  <p>새끼 너도 드려 남자 됐구나 6월 20일</p> </div> <p>▲ 14일 모바일 메신저인 '카카오톡'에서 집단 왕따를 당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강모양이 숨지기 20여분 전에 아버지에 보낸 캡처 파일, 지난 6월 카카오톡 스토리에 한 학생이 "강○○과 친구를 끊었다"는 글을 올리자, 다른 학생들이 "축하한다" 등의 댓글을 수십 개 올린 것이다. 강양은 지난 5월부터 카카오톡의 집단 채팅방에 초대돼 각종 욕설을 듣는 등 왕따를 당해왔다. /유가족 제공</p>	<p>"어이, 똥보 왔어?" 지난 6월 어느 날,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이 학교 2학년인 A양(18)이 교실로 들어서자 한 남학생이 큰 소리로 그를 맞았다. 주변 남학생들이 키득거리며 웃었다. A양은 못 들은 척 자리로 향했지만 인신공격 발언이 뒷덜미로 계속 날아들었다. A양은 등교를 거부하기 시작했고, 어머니는 아침마다 우는 딸과 전쟁을 치렀다.</p> <p>"벌써 한 달째인데, 어찌하면 좋을까요...." 7월20일 오후 2시, 경기경찰청 '117학교폭력 신고센터'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A양 어머니였다. 경찰은 학교 측에 적극적인 개입을 요청하고, 매주 한 차례씩 심리상담 교사를 A양 집으로 보냈다. 치료는 방학 내내 계속됐다.</p> <p>학교폭력이 진화하고 있다. 구타 등 물리적 폭력이 감소한 대신 그 자리를 '언어폭력'이 빠르게 채우고 있다.</p> <p>(세계일보-2012.10.31 사회 기사)</p>
---	--

✕ 왼쪽 상황에서 '강양'은 어떠한 마음이었을지 생각하여 봅시다. 그리고 내가 강양의 입장이었다면 어땠을까요?

✕ '사람 그 자체의 가치'와 '외모'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그리고 내가 외모로 인해 놀림을 당한다면 그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 활동지2 - 조별 토의하기

- 두 가지 입장에서 토의하기(상황 1 또는 2중에서 선택)

상황 ① 모바일 메신저로 떼카가 이루어졌을 때

- ☞ 모욕을 주는 사람이 받게 될 영향
- ☞ 모욕을 당한 사람이 받게 될 영향

상황 ② 키, 얼굴, 몸무게 등으로 인한 놀림이 이루어졌을 때

- ☞ 모욕을 주는 사람이 받게 될 영향
- ☞ 모욕을 당한 사람이 받게 될 영향

1. 선택 상황 ☞ _____

* 모욕을 주는 사람이 받게 될 영향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예)언어 습관- 남에게 모욕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마다 반복될 수 있다.

* 모욕을 당하는 사람이 받게 될 영향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Ⅲ. 참고 자료

1. 내가 마음먹기에 달렸다. 어느 삼성전자 직원의 고백!

<강연자로 선 삼성중공업 전성규 사원>

구치소 수감 경험 이후 달라진 인생 이야기 전해.. “기술명장 되고 싶어요”

"술과 담배, 학교폭력, 오토바이 절도까지.... 중학생 시절 저는 소위 '일진'이라 불리던 불량학생이었다." 지난 1일, 삼성그룹의 '열정락서' 강연이 열린 대구 영남대 천마아트센터의 무대에 등장한 한 청년이 2200여명의 청중을 향해 고해성사처럼 토해낸 일성이다. 그 주인공은 삼성 직원 강연자로 나선 삼성중공업 전성규 사원이다. 이날 전씨는 방황하던 청소년기를 지나 삼성중공업에 입사하기까지 평범치 않았던 인생 스토리를 차분하게 토해냈다.

사연은 이렇다. 청소년기 전씨의 방황은 친구들의 놀림에서 비롯됐다. 그는 다리가 불편한 지체장애 1급의 아버지와 키 130cm 지체장애 5급의 어머니 밑에서 태어났다. 부모님은 불편한 몸으로 구두수선을 하며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갔다. 하지만 부모님의 장애는 학창 시절 내내 그를 괴롭히는 놀림감일 뿐이었다. 부모님을 향한 참기 힘든 모욕에 그는 친구에게 주먹을 날리고 말았다. 그는 그 사건을 계기로 소위 '노는 친구'들과 어울렸다. 술과 담배는 물론 학교폭력까지 일삼았다. 중학교 3학년 때였다. 급기야, 부모와 세상에 대한 원망으로 살아가던 그는 구치소까지 가게 됐다. 오토바이를 훔쳐 타다 경찰에 적발된 것이다. 전씨는 "구치소에서 만난 폭력, 사기 등 다양한 범죄자들이 마치 자신의 미래 모습인 것 같아 끔찍했다"고 회고했다.

특히 구치소 면회실에서 본 아버지의 눈물은 전씨 인생의 전환점을 제공했다. 이때 구치소 면회실을 찾은 아버지는 "성규야, 너는 내 아들이지 죄인이 아니다. 고개 들고 어깨 펴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구치소 생활을 하며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한 그는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했다.

그 후 그의 인생은 180도 달라졌다. 그는 밤낮 없이 공부에 매진해 고교에 수석으로 입학했다. 진학 후 국가기술자격증 3개를 취득했다. 결국, 삼성중공업에 용접기술자로 입사했다. 그는 '대한민국 기술명장'을 꿈꾸고 있다. 그는 "명장이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고 올해 삼성중공업 사내대학(삼성중공업 공과대학)을 졸업했다"며 "한때 불량학생이었지만 지금은 가슴 뛰는 삶을 사는 대한민국 청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순간 청중석에서 뜨거운 박수가 쏟아졌다.

이어 전씨는 "독하게 mam 먹고 열심히 살다 보니 문제아에서 고교 수석입학 모범생을 거쳐 대한민국 명장을 꿈꾸는 기능인이 되었다"며 "이 강의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이 됐으면 좋겠다"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삼성전자 전동수 사장도 청춘멘토로 나서 '예측 불가능하고 승자 독식의 초경쟁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생존 키워드를 제시하면서 "자신만의 색깔이 있고, 과감히 도전하며 시련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삼성에서 필요한 인재"라고 말했다.

(파이낸셜 뉴스, 2012.11.03.10면 기사)

2. 참고 문헌

*신문기사 📖 세계일보(2012.10.31), 파이낸셜뉴스(2012.03.10.10면)

영역	언어 폭력	대상	고등학생	시간	90분
학습 주제	말이 우리에게 주는 힘을 아직도 모르겠어?				

I. 이 수업에 대하여

1. 개요

본 수업에서는 말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에 대해 생각해 본다. 특히, 부정적인 말(욕설)의 사용이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를 생각한다. 장기적으로 욕설을 사용하는 것, 욕설을 듣는 것은 단순히 순간의 폭력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오랫동안 영향을 준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2. 목표

- 부정적인 말(욕설)이 우리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 수 있다.
-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언어 습관을 갖도록 노력할 수 있다.

3. 준비물

- 영상 자료 등

4. 학습 내용

단 계	내 용
생각 열기	청소년의 욕설 문화 영상 보기
생각 펼치기	말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에 관한 영상 두편 보기
활동하기	캠페인 송 만들기
생활에 적용하기	양파 실험하기

5. 유의 사항

- 캠페인 송을 만들 때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가장 부르기 쉬운 곡을 개사하여 부르도록 한다.

II. 수업 과정안

1. 생각 열기

- ◎ 청소년 욕설 문화와 관련된 짧은 영상 보기(<http://www.youtube.com> 에서 ‘요즘 청소년들은 이려고 논답니다’ 영상, 약 2분)
 - 이 영상 속 욕설 문화는 몇 명에게만 해당합니까? 아니면 일반적인 청소년 문화입니까?
 - 왜 이러한 욕설 문화가 우리 주위에 퍼지게 되었을까요? 의견을 나누어 봅시다.

2. 생각 펼치기

- ◎ 다음 영상들을 보고 말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보기(<http://www.youtube.com> 에서 ‘말의 힘2’, ‘뇌는 완전하다’)
 - ☞ 영상 1(말의 힘2, 약 5분) - 말이 주는 영향(신체)
 - ☞ 영상 2(뇌는 완전하다, 약 5분) - 말이 주는 영향(정신)
 - 영상을 다 본 후에 느낀점을 발표하여 봅시다.
 - 첫 번째 영상을 통해 ‘말은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까?
 - 두 번째 영상을 통해 ‘말은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까?

3. 활동하기 : 캠페인 송 만들기

- ◎ ‘부정적인 말 금지(욕설 방지)’ 캠페인 송 만들기 ☞ 활동지 1

<캠페인 송 만들기>

- 요즘 가장 잘 나가는 노래 1곡을 선정하다.
- 각자 노래 가사를 만들어 본다.
- 조별로 가장 좋은 노래 가사를 선정한다.
- 선정된 노래 가사들을 다같이 불러본다.
- 캠페인 송 가사들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학생들이 자주 보도록 한다.

- 예)강남스타일 노래에 맞추어 새로운 노래를 만들어 봅시다. 주제는 ‘부정적인 말 사용 금지(욕설 금지)’입니다. 먼저 각자가 써 보고 조별로 가장 잘된

노랫말을 뽑아봅시다.

◎ (심화)캠페인 송을 발달시켜 ‘청소년 욕사용 금지 UCC 동영상’을 제작하여 봅시다.

4. 생활에 적용하기

◎ 긍정적인 말 사용 다짐하기

- 오늘 활동을 통해서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앞으로 긍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 중에서 어떤 말들을 선택해서 사용하겠습니까? 친구들 앞에서 긍정적인 말 사용에 대하여 다짐하여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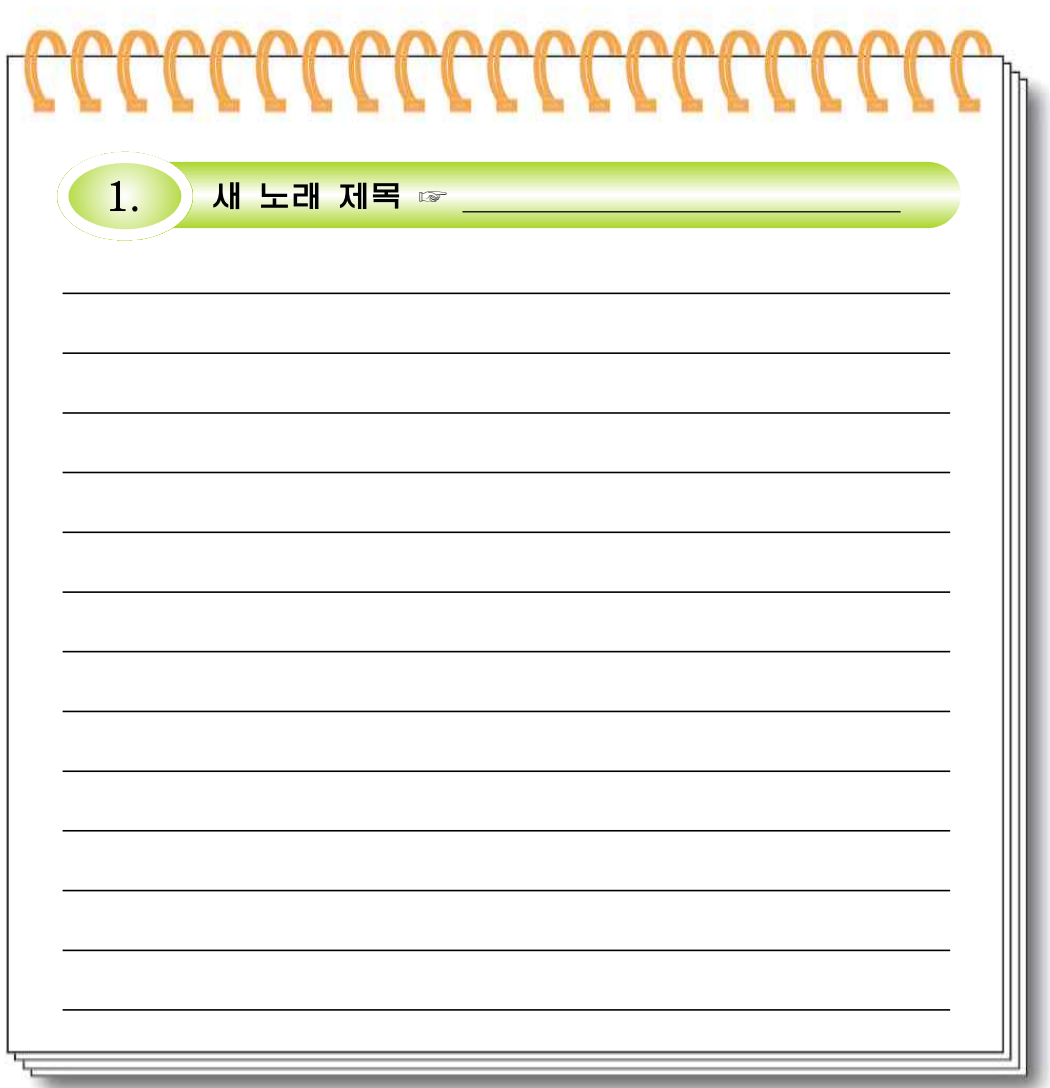
◎ 교실에서 양파 실험하기


- 학생들은 한쪽 양파에 온갖 긍정적인 말을 한다. 다른 쪽 양파에는 온갖 부정적인 말을 한다. 한, 두달 후에 실험 결과를 조장들이 정리하여 발표한다.

• 활동지1 - 캠페인 송 만들기

_____ 고등학교 _____ 학년 _____ 반 이름 (_____)

♣ 인기곡에 ‘부정적인 말 사용 금지(욕설 금지)’에 관한 주제로 노래 가사를 만들어 보시다.



1. 새 노래 제목  _____

Ⅲ. 참고 자료

1. 신문기사 - 긍정 고구마의 힘!

긍정 고구마의 힘! 황진성과 함께하는 '긍정 댓글' 캠페인

'감사나눔운동' 전도사 포항스틸러스가 네이버와 함께 '긍정 댓글'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포항스틸러스 선수단은 지난 6월부터 선수단 숙소 식당 입구 좌우에 고구마를 진열하여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실험 조건에서 선수들은 식당을 지나치면서 한쪽 고구마에게는 부정적인 말, 반대편 고구마에게는 감사의 말을 지속적으로 들려줬습니다.

결과는 현저히 달랐습니다. '좋은 말 고구마'는 잎이 무성하게 자란 반면 '나쁜 말 고구마'는 반대로 썩어갔습니다.

직접적인 실험을 통해서 선수들은 감사와 긍정의 힘을 느꼈고, 시즌 초반 부진을 겪었던 포항스틸러스는 '긍정적인 말의 힘'을 상승세를 타며 지난 10월 20일 FA컵 우승까지 차지했습니다.

"마음으로부터 상대방을 인정하고 좋은 말로 아낌없이 칭찬을 해주면 그 사람과 그 말을 마음에 영원히 새기고 보물로 삼는다" - 데일 카네기

긍정 댓글은 긍정적인 세상을 만듭니다. 네티즌 여러분들도 황진성 선수처럼 <감사하는 마음>을 댓글로 남겨보세요.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주변의 누군가에게 감사의 말을 댓글로 남겨 보세요. 긍정 댓글을 남기신 분 중에서 한 분을 추첨해 황진성 선수가 직접 준비한 선물을 전달해 드립니다. 네이버 스포츠 2012.11.08 기사

2. 참고 문헌

<http://www.youtube.com> 에서 '말의 힘2'

<http://www.youtube.com> 에서 '뇌는 완전하다'

네이버 스포츠(2012.11.08). 긍정 고구마의 힘! 황진성과 함께 하는 '긍정 댓글 캠페인'

*** 영 역 : 심리적 폭력 및
따돌림 예방**

*** 학교급 : 초등학교**

*** 주요 내용**

- ① 우리는 달라요 1
- ② 우리는 달라요 2
- ③ 친구를 사귀어요.
- ④ 다함께 어울려요!
- ⑤ 정말 내 탓이 아닐까?

영역	심리적 폭력	대상	초등 저학년	시간	50분
학습 주제	우리는 달라요 1				

I. 이 수업에 대하여

1. 개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은 자기중심적 사고의 시기에 있다. 친구를 놀리거나 함께 어울리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는 외모나 행동 등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나와 다르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 세상에는 나와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한다. 그러한 친구들을 놀리거나 차별하지 않고 함께 어울리는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지도한다.

2. 목표

- 세상에는 나와 다른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 일상생활에서 나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다.

3. 준비물

- 사진 자료, 동영상 자료, 안대, 마스크 등

4. 학습 내용

단 계	내 용
생각 열기	‘어린이 동화’ 영상 보기
생각 펼치기	‘장애’를 지닌 사람들의 사진을 보고 어려움 알아보기
활동하기	장애 체험하기
생활에 적용하기	친구를 차별했던 자신의 경험을 반성하고 앞으로의 태도 다짐하기

5. 유의 사항

- 장난으로 장애인 체험을 하지 않도록 한다.
- 여건에 따라 영상 보기, 장애 체험 활동은 다양하고 융통성 있게 실시할 수 있다.

II. 수업 과정안

1. 생각 열기

◎ ‘날개 잃은 천사’를 보고 내용 파악하기

<‘날개 잃은 천사’ 어린이 동화 관람

- 주인공의 동생은 나와 어떻게 다른가요?

◎ 주인공의 기분 파악하기

- 여러분들이 주인공이라면 동생을 놀리거나 장난치는 모습을 볼 때 기분이 어떨까요?

2. 생각 펼치기

◎ 여러 가지 장애 알아보기

- 주인공의 동생처럼 우리 주변에는 많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 말을 할 수 없는 사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손가락이 네 개 밖에 없는 사람 등 아주 많아요.

◎ 장애인이 겪는 어려움과 고통 파악하기

- 내가 앞을 보지 못한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 내가 말을 할 수 없다면 무엇이 불편할까요?

3. 활동하기

◎ 안대나 마스크를 사용하여 직접 장애 체험하기

1) 안대로 눈을 가리고 시각 장애 체험하기

2) 마스크 쓰고 언어 장애 체험하기

- 모둠별로 한 명씩 안대를 쓰고 교실을 돌아다녀 봅시다.
- 마스크를 쓴 친구들은 5분간 어떠한 질문에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 장애인 체험 후 소감 발표하기

- 눈을 가리고 교실을 걸어보니 어떠한가요?
- 말을 하지 못하는 동안 기분이 어떠했나요?

4. 생활에 적용하기

◎ 장애를 지닌 친구를 놀리거나 괴롭힌 적은 없었는지 반성하기

- 여태까지 장애를 지닌 친구를 놀리고 괴롭힌 적은 없었나요? 있었다면 잘못된 점을 반성해 봅시다.

◎ 장애를 지닌 친구와 어떻게 지내야 할 지 이야기하고 다짐하기

- 내 주변에 장애를 가진 친구가 있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다짐해 봅시다.

Ⅲ. 참고 자료

1. 학습 자료

국민권익블로그 ‘날개 잃은 천사’ <http://blog.daum.net/loveacrc/5938>

<어린이 동화 ‘날개 잃은 천사’>

내 동생은 달라요. 내 동생은 글자도 잘 몰라요. 그래서 반에서는 꼴찌만 해요. 내 동생은 교실에서 공부하는 것도 싫어해요. 내 동생은 옷에 오줌을 싸기도 해요. 그럴 때면 아이들은 동생을 놀려대요. 동생에게 나쁜 장난을 치는 아이들도 있어요. 한밤중에 울고 있는 엄마를 볼 때도 있어요. (하락)



2. 참고 문헌

국립특수교육원 장애이해 <http://edu.knise.kr>

영역	심리적 폭력	대상	초등 저학년	시간	80분
학습 주제	우리는 달라요 2				

I. 이 수업에 대하여

1. 개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은 자기중심적 사고의 시기에 있다. 친구를 놀리거나 함께 어울리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는 외모나 행동 등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나와 다르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 세상에는 나와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한다. 그러한 친구들을 놀리거나 차별하지 않고 함께 어울리는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지도한다.

2. 목표

- 세상에는 나와 다른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 일상생활에서 나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다.

3. 준비물

- 꽃 사진 자료, 여러 인종 사진자료, 동화책 「신 짜오 베트남 태권팔쥐와 베토콩쥐」, 세계지도, 타 국가 관련 사진 자료, 도화지, 색연필, 사인펜 등

4. 학습 내용

단 계	내 용
생각 열기	보여주는 두 사진을 비교하여 다양성의 가치 파악하기
생각 펼치기	동화를 통해 다문화 가정 학생이 겪는 어려움과 고통 파악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방법 이야기하기
활동하기	‘000의 날’ 신문 만들기
생활에 적용하기	친구를 차별했던 자신의 경험을 반성하고 앞으로의 태도 다짐하기

5. 유의 사항

- 여건에 따라 활동을 다양하고 융통성 있게 실시한다.
- 반에 다문화 가정 학생이 있다면 해당 국가에 대한 수업을 진행한다.

II. 수업 과정안

1. 생각 열기

◎ 보여주는 두 사진 비교하여 다양성의 가치 파악하기



- 어느 쪽 꽃밭이 더 예쁜가요? 그 까닭은 무엇인가요?
- 세상의 꽃들이 전부 똑같다고 상상해 보세요. 꽃이 아름답게 느껴질까요?
- 꽃밭이 아름다운 이유는 향기가 다르고, 색깔이 다르고, 모양이 다른 다양한 꽃들이 함께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 세상의 다양한 사람들과 그들의 삶 알아보기

- 꽃밭이 다양한 꽃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도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사진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이 세상에는 피부색, 머리 모양 등 외모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2. 생각 펼치기

◎ ‘태권팔쥐와 베트콩쥐’ 듣고 내용 파악하기

- 선생님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 최린의 엄마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 다문화 아동이 겪는 어려움과 고통 파악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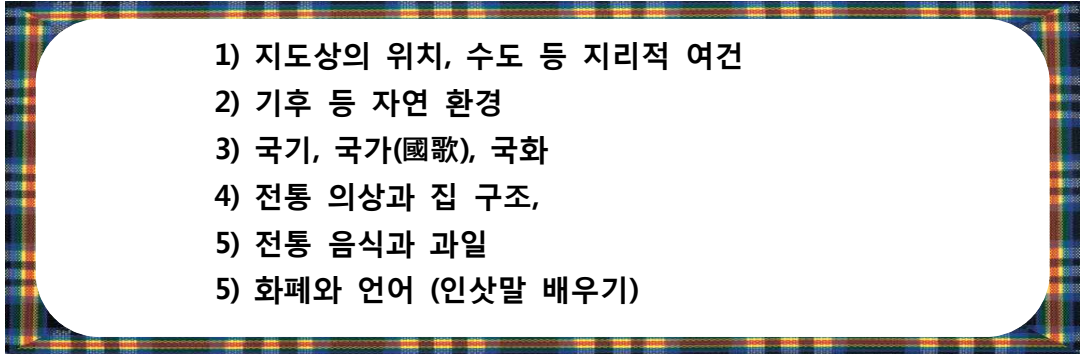
- 내가 최린이라면 놀림을 받을 때 기분이 어떨까요?
- 이 외에도 다문화 가정 아동이 학교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다문화 가정 아동과 사이좋게 지내는 방법 이야기하기

- 우리 반에 최린과 같은 친구가 있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3. 활동하기

◎ ‘000의 날’ 신문 만들기



- 000(예: 베트남)에 대해 미리 조사해온 자료를 모아 모둠별로 살펴봅시다.
- 모둠별로 조사해 온 분야에 대해 안내 신문을 만들어 봅시다.

◎ 신문 전시하여 000나라에 대해 하기

- 다른 모둠에서 완성한 신문을 보고 000 나라에 대해서 우리 모둠이 조사한 분야 이외의 다른 분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봅시다.
- 완성된 신문을 본 뒤의 소감이 어떠한가요?

4. 생활에 적용하기

◎ 머리 모양, 피부색이 다른 친구를 놀리거나 괴롭힌 적은 없었는지 반성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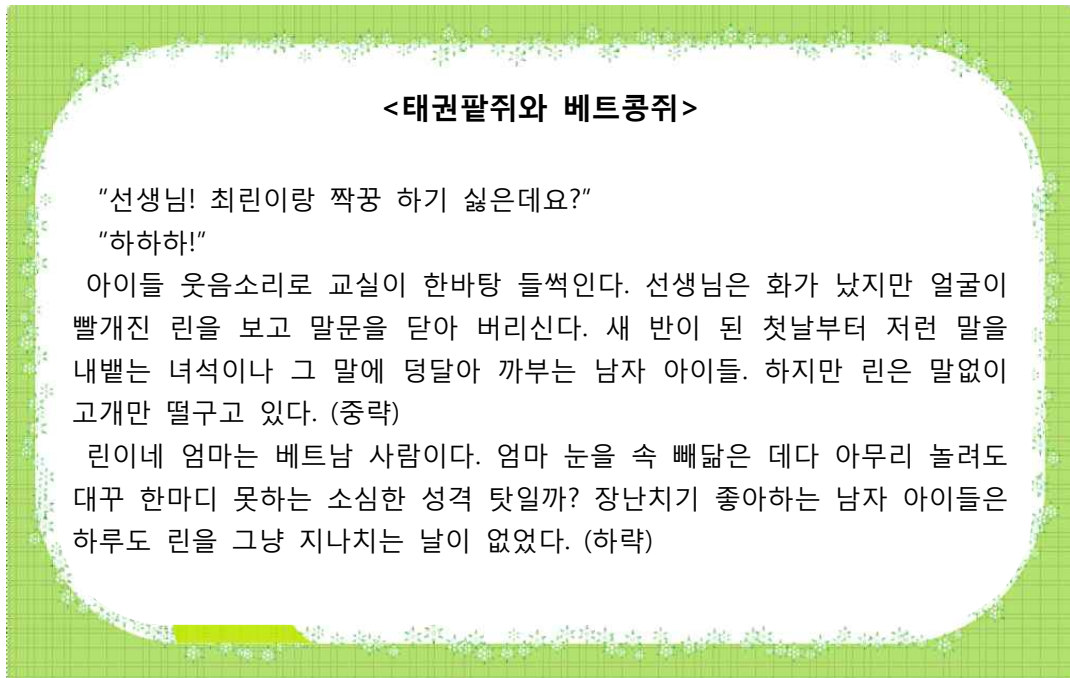
- 피부색이 나보다 까맣다고, 한국어에 서툴다는 이유로 친구를 놀리고 괴롭힌 적은 없었나요? 있었다면 잘못된 점을 반성해 봅시다.

◎ 장애를 지닌 친구와 어떻게 지낼 것인지 다짐하기

- 내 주변에 다문화 가정에서 자란 친구가 있다면 어떻게 지낼 것인지 앞으로의 다짐을 이야기해 봅시다.

Ⅲ. 참고 자료

1. 학습 자료



2. 참고 자료

공동기획 전국다문화가족사업지원단 송혜진 이대연(2009). 마부하이 필리핀 우정의 섬 일로일로. 한솔수북.

벼릿줄_황복실 강민경 김은재 김란주 안순혜(2008). 까만달걀. 샘터.

엘레나 앙굴로 안투네스(2010). 다르니까 재미있어. 찰리북

영역	심리적 폭력	대상	초등 저학년	시간	50 분
학습 주제	친구를 사귀어요.				

I. 이 수업에 대하여

1. 개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은 자기중심적 사고를 하기 때문에 좋고 싫음에 대한 선호가 분명하다. 나의 말과 행동이 타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의식하지 못한 채, 본능에 따라 행동한다. 이 수업에서는 친구 사귀는 것을 거절당했을 때의 마음을 동화를 통해 느껴보고,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해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역할놀이를 통해 친구 사귀는 법을 배운다.

2. 목표

-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다.
- 친구 사귀는 법을 배워 함께 어울릴 수 있다.

3. 준비물

- 그림 동화책 「나랑 친구할래?」, 동물 모양 머리띠

4. 학습 내용

단 계	내 용
생각 열기	선생님이 읽어주시는 이야기 듣기
생각 펼치기	이야기 내용 파악하기
활동하기	역할놀이 하기
생활에 적용하기	친구에게 반응하는 방법 연습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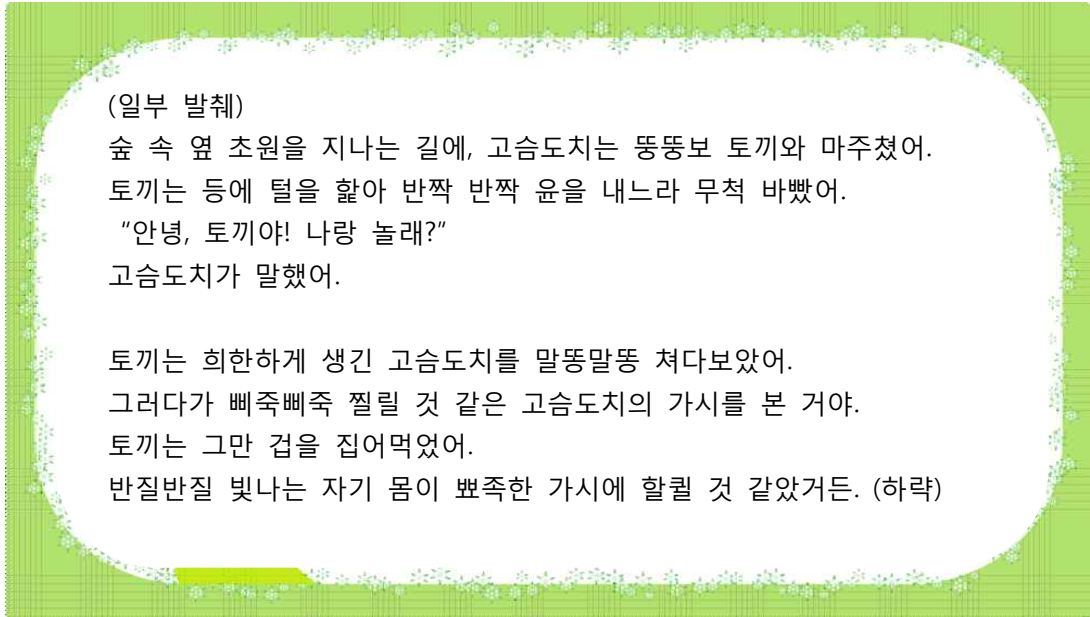
5. 유의 사항

- 역할놀이 활동 시간을 충분히 주어 학생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다양하게 생각해 내도록 한다.
- 아동의 수준에 따라 대본을 제시하여 역할극으로 바꾸어 활동할 수 있다.

II. 수업 과정안

1. 생각 열기

◎ 그림 동화책 ‘나랑 친구 할래?’ 듣기



- 화면으로 그림을 보면서 선생님이 들려주는 동화를 들어봅시다.

2. 생각 펼치기

◎ 동화의 내용 파악하기

- 어떤 동물이 등장하나요?
- 고슴도치와 친구가 된 동물은 누구인가요?
- 왜 고슴도치와 친구를 하려고 하지 않았나요?

◎ 고슴도치와 다른 동물들의 마음 생각해 보기

- 여러분이 고슴도치라면 나랑 놀자는 부탁을 거절당했을 때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 여러분이 토끼, 오리 등의 동물들이라면 고슴도치의 부탁을 거절했을 때,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 고슴도치는 거북이에게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 토끼, 오리, 다람쥐는 고슴도치에게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좋았을까요?

3. 활동하기

◎ 모둠별로 동물의 역할을 하나씩 맡아서 긍정적인 반응 생각하기

- 여러분은 책의 내용과는 반대로 고슴도치와 친구가 될 거예요.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 역할놀이 하기

- 동물 머리띠를 쓰고 앞에 나와서 발표해 봅시다. 관람하는 친구들은 나의 반응과 친구의 반응이 어떻게 다른지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4. 생활에 적용하기

◎ 외모나 성격, 문화가 다르거나, 또는 장애를 지닌 친구가 내게 말을 걸었을 때 반응하는 방법 연습해보기

- 나와 다른 친구가 나에게 함께 놀자는 제안을 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짝과 함께 연습해 봅시다.

Ⅲ. 참고 자료

1. 학습 자료

아순 발슬라(2011). 나랑 친구 할래? 풀벳.

2. 참고 문헌

김경희(2008). 진심으로 통하는 마음 우정. 소담주니어.

이동태(2001). 오성과 한음. 계림.

이규희(2011). 그리스 로마신화보다 재미있는 세계사 100대 일화. “31. 처칠과 플레밍의 우정” 삼성출판사.

영역	심리적 폭력	대상	초등 고학년	시간	80분
학습 주제	다함께 어울려요!				

I. 이 수업에 대하여

1. 개요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어 사춘기가 오기 시작하면서 한 학급 내에서 친한 친구들끼리 무리지어 다니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상황이 고착화되면 편이 나뉘게 되는데 이것이 소수 대 다수로 구분될 경우 학교폭력이 발생하기 쉽다. 이의 예방을 위해서 학생들은 편 가르기가 무엇이고 왜 하지 말아야 하는지, 편 가르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토의 수업을 통해 알아본다.

2. 목표

- 편 가르기의 의미와 이를 하지 말아야 하는 까닭을 이해할 수 있다.
- 편 가르기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일상생활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다.

3. 준비물

- 학급 내의 교우관계도(또는 몇 명씩 무리지어 있는 사진), 활동지

4. 학습 내용

단 계	내 용
생각 열기	‘우리 학급의 교우관계’ 살펴보기
생각 펼치기	편 가르기의 의미와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찾기
활동하기	편 가르기 상황에 대한 해결책 토의하기
생활에 적용하기	진정한 우정에 대해 생각해 보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기

5. 유의 사항

- 사전에 학급 내 학생 간 관계를 파악하여 해당 학급을 대상으로 활용한다.
- 가능하다면 사전에 교사가 학급 내에서 아이들이 무리지어 노는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하여 사진 자료를 도입부에 활용하는 것도 좋다.

II. 수업 과정안

1. 생각 열기


◎ ‘우리 학급의 교우관계’ 살펴보기

- 지난번에 조사한 자료로 선생님이 우리 학급의 교우관계도를 만들어 봤어요.
- 선생님이 우리 학급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봤어요.
- 우리 학급의 친구 관계가 어떠한가요? 무엇이 보이나요? 어떤 문제가 있나요?

◎ 학급의 교우관계를 보고 생각이나 느낌 발표하기

- 우리 반의 교우관계도(또는 사진)를 어떤 생각이 드나요? 기분이 어떤가요?

2. 생각 펼치기

◎ 편 가르기의 의미와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찾기  활동지 1

- 편 가르기란 무엇인가요? 모둠 내에서 이야기해 보세요.
- 편 가르기란 ‘친한 몇 명의 사람들하고만 어울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왜 하지 말아야 할까요?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해 봅시다.
- 모둠별로 정리된 의견을 발표해 봅시다.

3. 활동하기

◎ 편 가르기 상황에 대한 해결책 토의하기

- 문제의 원인을 먼저 알아봅시다.
- 우리 학급의 편 가르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봅시다.
- 우리는 학급의 일원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무엇이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나요?

4. 생활에 적용하기

◎ 진정한 우정 알아보기

- 진정한 우정이란 무엇일까요? 진짜 친구와 편을 가르는 친구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 내가 할 수 있는 일 찾아 실천하기

- 친구 사이에 진정한 우정을 쌓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직접 해 봅시다.

• 활동지1

다함께 어울려요!

※ 다음의 물음에 자신의 생각을 적어보세요.

- '편 가르기'란 무엇인가요?
- 편 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편 가르기의 원인을 파악해 봅시다.
- 편 가르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모둠에서 선택한 방안

※ 진정한 우정이란?

- 진정한 우정이란 무엇인가요? 내가 생각하는 진정한 우정에 대해서 적어봅시다.
- 진짜 친구와 편을 가르는 친구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 진정한 우정을 쌓기 위해 직접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Ⅲ. 참고 자료

1. 학습 자료

<교우관계 조사표 활용 요령>

1. 종이를 1장씩 나눠준 후, 내 생일날 친구를 초대하려고 할 때 우리 반에서 어떤 친구를 초대하고 싶은지 초대하고 싶은 순서대로 3명을 적고, 반대로 초대하고 싶지 않은 순서대로 3명을 적게 한다.
2. 가장 초대하고 싶은 친구들에게는 순서대로 +3, +2, +1씩 주고, 초대하고 싶지 않은 친구에게는 -3, -2, -1씩 점수를 준다. 예를 들어, 1번 친구가 초대하고 싶은 친구들이 3, 5, 8번이면 가로줄 1번에서 옆으로 이동하여 3, 5, 8번 칸에 각각 +3, +2, +1점을 써넣는다.
3. 세로줄 총점은 각 개인의 교우관계를 알아보는 점수가 되는 것이다. 점수가 +1~-10 사이에 잇는 친구는 원만한 교우관계를 보이고 있는 친구이고, +10이 넘는 친구는 교우관계가 좋은 경우이며, -10 이하는 소외받고 있는 친구로 이해한 것이다.

<교우관계 조사표>

	1	2	3	4	5	6	7	8	9	...
1										
2										
3										
총점										

2. 참고 문헌

트레버 로메인(2005). 웃으면서 배워요3 (편가르기는 싫어 편, 싸움꾼도 싫어 편). 한언.

문제현 외(2012). 학교폭력 멈춰!. 살림터. pp.172~223.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2012). 2012 초등 학교폭력예방·대응 전문가 과정 직무 연수 자료집.

영역	심리적 폭력	대상	초등 고학년	시간	100분
학습 주제	정말 내 탓이 아닐까?				

I. 이 수업에 대하여

1. 개요

본 수업에서는 따돌림(왕따)의 피해자와 가해자, 방관자의 감정을 느끼고 따돌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봄으로써 친구 상호 간에 따돌림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는 데 역점을 둔다. 따돌림에 대한 책을 읽어 보고, 역할극을 통해 피해자와 가해자, 방관자가 되어 봄으로써 남을 존중하고 다함께 어울리는 것의 중요성을 체감한다.

2. 목표

- 따돌림의 책임이 학급의 모든 학생에게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 따돌림에 관련된 사람들의 감정을 느끼고 다함께 어울리는 태도를 기를 수 있다.

3. 준비물

- 책 「내 탓이 아니야」, 역할극 대본, 활동지

4. 학습 내용

단 계	내 용
생각 열기	그림 보고 감정 파악하기
생각 펼치기	‘내 탓이 아니야’ 돌려 읽기
활동하기	‘괴롭힘의 원’ 역할극 하기
생활에 적용하기	역할극의 대본을 바꿔 다시 연기하고 소감 발표하기 따돌림 방지 규칙 만들어 보기

5. 유의 사항

- 역할극의 대본은 학급 수준에 맞게 교사가 변형시킬 수 있다.

II. 수업 과정안

1. 생각 열기

◎ 그림 보고 감정 파악하기



- 어떤 그림인가요?
- 그림에 나온 친구들의 감정을 추측해 봅시다.

2. 생각 펼치기

◎ ‘내 탓이 아니야’ 한 쪽씩 돌려 읽기

- 각자 등장인물이 되어 실감나게 읽어 봅시다.


◎ 책의 내용과 등장인물의 감정을 파악하기

- 어떤 내용인가요?
- 책을 읽을 때 ‘나’의 기분이 어땠습니까?
- 등장인물 중에서 나와 생각이 비슷한 친구가 있었나요? 왜 그러한가요?
-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은 누구의 탓이라고 생각합니까?
- 실제로 내가 당사자라면 어떨까요? 역할극을 통해 알아봅시다.

3. 활동하기

◎ 모둠을 정하여 ‘괴롭힘의 원’ 역할극 하기

- 나누어 준 일화를 보고 각자 역할을 맡아 연극을 해 봅시다.

◎ 각자 맡은 인물을 분석하고 상황에 대한 해결책 토론하기  활동지 1

- 나누어 준 활동지에 각자 연기한 인물을 분석해 봅시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가능한 해결책을 생각해 봅시다.

4. 생활에 적용하기

◎ 대본을 바꿔 다시 연기하기

- 모둠별로 선택한 해결책을 적용하여 역할극의 대본을 바꿔 봅시다. 바뀐 대본을 가지고 다시 연극을 해 봅시다.
- 역할극을 한 소감이 어떠한가요?

◎ 따돌림 방지를 위한 학급 규칙 만들기

- 따돌림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학급 규칙을 만들어 봅시다.

• 활동지1

1. 인물 분석하기

- 내가 맡은 역할은? ()
- 맡은 인물의 성격에 대해 말해보세요.

- 이 상황에서 그 인물의 생각이나 감정이 어떨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 내가 맡은 인물은 왜 그렇게 행동할까요?

- 이 장면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 이 이야기에서 다른 학생들은 내가 맡은 인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 이 인물에 대해서 생각나는 다른 것들은 무엇인가요?
(집에서는 이럴 것이다. 학교 밖에서는 이렇게 행동할 것이다 등)

2. 해결책 생각해보기

역할놀이를 한 상황에 대해 해결책을 적어 보세요. 안전한지, 현실적으로 가능한 해결방법인지 생각해 보고,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Ⅲ. 참고 자료

1. 학습 자료

<내 탓이 아니야>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있었던 일?
그건 내 탓이 아니야.

나는 진짜 몰라.
그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정말 모르겠어.

사실 난 알고 있어.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렇지만 내 탓은 아니야.

난 겁이 났어.
말릴 용기도 없었고.
그래서 그냥 보고만 있었어.

그 애들은 여럿이었는데,
난 혼자였거든.
그러니까 내 탓이 아니야.

아이들이 그 앨 때리기 시작했어.
모두 같이 때렸지.
나도 때리긴 했지만 조금밖에 안 때렸어.
(이하 하략)

<‘괴롭힘의 원’ 역할극 일화>

필요한 인원 수 : 9 명 (주희, 연주, 은수, 혜교, 영은, 수진, 현정, 보미, 선생님)

주희가 학교 복도를 가고 있었다. 한 무리의 여자 아이들이 지나가다 주희를 보고 소곤거리면서 웃기 시작했다. 주희가 그 무리 속에 있는 연주를 쳐다보았다. 연주는 주희의 가장 친한 친구 중 하나다.

“연주야, 안녕? 오늘 점심 같이 먹을래?”라고 주희가 말했다.

그러자 그 그룹의 리더인 은수가 말했다.

“넌 우리 중에 아무하고도 점심을 먹을 수 없어, 우리는 너 같은 애랑은 놀지 않아.” 옆에 있던 영은이가 비아냥거리며 말했다.

“누가 너 같은 애를 좋아하겠니?”

영은이의 말에 수빈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주희가 연주를 바라보지만, 연주는 눈길을 피하고 대답하지 않는다. 은수, 영은, 수빈이가 주희에게 손가락질 하며 비웃는다.

점심시간에 주희는 밥을 먹으려고 자리에 앉았다. 바로 가까이에 은수와 연주, 그리고 그 무리의 아이들이 앉아 있었다. 은수가 주희에게 걸어오더니 쏘아보며 말했다.

“너 거기 앉으면 안 돼. 우리랑 너무 가까이 앉아 있잖아. 다른 곳을 찾아봐.”

은수와 함께 자리에 앉아 있던 영은이가 큰 소리로 웃으며 말했다.

“어디서 썩은 냄새가 난다 했더니 저기였네!”

그러자 수빈이도 따라 웃었다. 현정이는 슬쩍 쳐다보고는 밥만 먹었다.

주희와 마주 앉아 있던 혜교가 은수에게 말했다.

“은수야, 그만해. 개가 앉고 싶으면 어디든 앉을 수 있잖아.”

은수는 손가락으로 혜교를 가리키며,

“너도 어떻게 되고 싶나 보네?”라고 말했다. 혜교의 단짝 친구 보미는 혜교를 돕고 싶었지만 은수의 기세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혜교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점심을 먹기 시작했다. 그 때 선생님이 걸어와 물었다.

“여기 무슨 문제 있니?”

은수는 주희와 혜교를 쏘아 보았다. 그러자 주희가 말했다.

“아, 아니에요. 선생님.”

은수는 자기 자리로 돌아가 앉았다. 선생님이 돌아가자 은수와 함께 자리에 앉아 있는 아이들이 웃기 시작했다.

* 노르웨이 올베우스 프로그램의 따돌림 방지 4대 규칙

1. 우리는 다른 친구들을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2. 우리는 괴롭힘 당하는 친구를 도울 것이다.
3. 우리는 혼자 있는 친구들과 함께 할 것이다.
4. 만약 누군가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학교나 집의 어른들에게 이야기 할 것이다.

2. 참고 문헌

레이프 크리스티안손(2007). 내 탓이 아니야. 고래이야기.
문제현 외(2012). 학교폭력 멈춰!.. 살림터.

*** 영 역 : 심리적 폭력 및
따돌림 예방**

*** 학교급 : 중·고등학교**

*** 주요 내용**

- 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 ② 화, 분노란 무엇일까?
- ③ 나는 나!
- ④ 내 마음에 귀를 기울여요.

영역	심리적 폭력 ·따돌림	대상	중학생	시간	180분
학습 주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I. 이 수업에 대하여

1. 개요

학생들의 또래관계에서 가장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학교폭력이다. 학교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만의 문제가 아닌 그 주변인 모두가 공감하는 함께 생각하고 실천해 나가는 실제적인 이해의 장이 필요하다.

2. 목표

- 학교폭력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한다.
- 폭력에 대한 예방 및 다양한 학교폭력 상황에서 대처하는 방법을 익힌다.
- 친구관계에서 요구되는 적절한 사회관계를 갖는 태도를 기른다.

3. 준비물- 활동지, 역할 명찰, 연극에 필요한 각종 소품들

4. 학습 내용

단 계	내 용
생각 열기	수업에 대한 간단한 설명하기
생각 펼치기	역할극의 상황을 설정하고 준비하기
활동하기	역할극 시연하기, 재시연하기
생활에 적용하기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학교폭력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주위에 관심을 갖고 폭력을 예방하고 대처하는 습관을 기른다.

5. 유의 사항


-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 역할극 상황에서 학생들의 연기력이 평가되어서는 안되며, 장난스러운 분위기
기가 되지 않도록 한다.

II. 수업 과정안

1. 생각 열기

- ◎ 역할극이란 무엇일까, 왜 역할극을 해봄으로써 다양하게 느낄 수 있을까?
 - 예) 사이코 드라마 장면을 보았는데 가족간의 갈등을 다루는 것이었다. 상대방의 역할을 하면서 이해되지 않거나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던 기분을 느껴볼 수 있었다.
- ◎ 역할극에 필요한 요소는 무엇인지 알아보기
 - 예) 배우, 감독, 조연, 주인공, 대본, 카메라, 조명 등이 필요하다.

2. 생각 펼치기

- ◎ 조별로 역할극의 장면을 선정하고 발표하기  활동지 1
 - 각 조별로 주변에 있었던 사건이나 발생할 수 있는 학교폭력의 상황을 정해 보고 어떤 등장인물이 필요한지, 어떤 상황인지 등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 ◎ 등장인물 성격 알아보기
 - 어떤 사람이 등장해야 할지, 등장인물들의 이름을 명명하고 목소리, 외모, 학교 성적 등 다양한 인물들의 특성을 파악한다.

3. 활동하기 : 역할극 하기

- ◎ 선정된 역할극의 배역 선정과 배역을 맡은 사람들의 전반적인 계획 세우기
 - (준비물) 역할 명찰, 각종 소품들
 - 역할극의 전반적인 계획을 적어나간다. 역할극에 참여하고자 하는 희망자 또는 추천자를 뽑아서 역할을 정한다.
- ◎ 역할극을 시연하기
- ◎ 역할극에 대한 토론을 하기
 - 주인공 **는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이 주인공이었다면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유도하면서 문제의 다양한 해결방안도 함께 탐색하도록 한다.

◎ 수정된 역할극을 재시연 하기

- 미처 참여하지 못한 학생이나 새롭게 자의적으로 역할을 맡아서 역할극을 재연하도록 한다.
- 서로 다른 해결 방법을 어떻게 말하고 행동할 것인지 실제로 다시 역할극을 재연한다.
- 학생들이 원하는 바람직한 결말을 보았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4. 생활에 적용하기

◎ 폭력예방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시도를 생활에서 찾아보기

- 역할극을 하면서 어땠는지? 소감문을 작성하고, 함께 나누도록 한다.

◎ 폭력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일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발표하기

• 활동지1 - 역할극 장면 선정

<학교폭력 상황 선정>

1. 폭력의 장면:

예) 모두가 즐거워야 할 점심시간..그러나

2. 등장인물:

예) 점심을 먹는 동안 피해자에게 언어적, 심리적 폭행을 하는 가해자 1, 2, 3, 홀로 점심을 먹는 피해자, 놀림과 괴롭힘을 당하는 피해자를 보고도 모른 척하는 학생들.

3. 등장인물의 성격:

예) 가해자 1: 항상 친구들 사이에서 우두머리 노릇을 하려하며, 화를 쉽게 낸다.

가해자 2: 가해자1의 가장 친한 친구로 가해자가 시키는 일이면 무엇이든 도와서 한다.

피해자: 소심한 성격으로 자신의 주장을 잘 펴지 못한다.

방관자1: 피해자를 괴롭히고 놀리는 것이 잘못되었다고는 생각하지만 적극 나서서 도와주지 못한다.

방관자2: 평소 피해자를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해자들의 행동을 비난할 생각이 없다.

방관자3: 피해자의 친구였지만 친구들이 모두 멀리하게 되는 상황이라 자신도 모르게 거리를 두게 되었다.

Ⅲ. 참고 자료

1. 학습 자료

- 역할극이란?

<역할극이란?>

역할극이란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공통의 문제를 토론하고 행동으로 표현해보고, 평소 해보지 않았던 역할을 해봄으로써 다양하게 느껴보는 것이다.

2. 참고 문헌

허미경(2008). 역할극을 활용한 중학생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개발 연구. 한국사이코드라마학회지. 11(2), 37-52.

영역	심리적 폭력 ·따돌림	대상	중학생	시간	100분
학습 주제	화, 분노란 무엇일까?				

I. 이 수업에 대하여

1. 개요

청년기에 학생들은 육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한다. 정서적으로도 강하고 변화가 심하지만 자신의 감정에 대해 이해하는 힘이나 이를 적절히 표현하고 해소하는 방법에 대해 미숙하여 혼란을 겪는 일이 많다. 이 수업에서는 “셀프 토크(self-talk)”를 활용하여 누구에게나 존재하는 분노를 표현하고 해소하는 방법에 대해 학생들 스스로 익혀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목표

- 스스로의 분노, 화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방법을 익혀 해소할 수 있다.
- 주변 사람들의 화에 대해서 이해하는 태도를 가진다.

3. 준비물 - 노트, 필기구

4. 학습 내용

단 계	내 용
생각 열기	사진, 읽기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기
생각 펼치기	자료에 나타난 경우처럼 자신의 분노가 조절되지 않았던 경험을 이야기 하기
활동하기	화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화 뒤에 숨어 있는 속마음과 대화하기
생활에 적용하기	화, 분노 뒤에 숨은 내 마음을 제대로 전달하고, 나아가 다른 사람의 화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이야기하기.

5. 유의 사항

- 시작 전 마음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시간과 상대방의 말에 경청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 학생들이 화를 내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창피를 주거나 깔보는 내용이 되지 않도록 한다.

II. 수업 과정안

1. 생각 열기

◎ 사진과 읽기 자료 보기

- 사진자료와 기사자료를 통해서 생각해 볼 점은 무엇일까요

<월드컵에서 일어난 박치기 사건 1>



<월드컵에서 일어난 박치기 사건 2>


2006년 독일월드컵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결승전에서 지단은 1-1로 맞선 연장전 마테라치와 연쟁을 벌이다가 그의 가슴을 머리로 들이받으며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다. 마테라치는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졌고 지단은 퇴장을 당했다. 이후 마테라치는 승부차기에서 득점을 기록하며 이탈리아의 4번째 월드컵 우승에 기여했다. 마테라치는 대회 후 "(박치기 직전) 지단의 도발적인 말에 내가 그의 누이를 언급하며 모욕적인 말을 했다"고 사건 배경을 솔직히 털어놓았다.

- 예) 지단선수가 화를 조절했다면, 팀을 우승으로 이끌었을 수도 있다, 상대방 선수인 마테라치가 모욕적인 말을 했음으로 '박치기'를 해서라도 화를 표현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등

2. 생각 펼치기

- ◎ 지단선수처럼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화를 낸 경험을 이야기하기
 - 자신이 분노를 억제하지 못한 경험과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여 봅시다.
- ◎ 분노를 조절했다면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을지 생각해 보고 의견을 나누기

3. 활동하기

- ◎ 자신이 경험을 떠올리면서 화가 난 “상황, 그때의 생각, 감정, 바람”으로 나누어서 하나씩 생각해 보기  활동지 1
 - 활동지에 각자의 화를 들여다보는 예를 들어준다.
- ◎ 활동지에 적은 ‘화 열어보기’의 내용을 서로 공유하기
 - 자신이 ‘화난 이유’와 ‘화난 감정’, ‘바람’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한다.
- ◎ 화, 분노 뒤에 들어나는 속마음에 관심을 기울이기.
 -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어떻게 해 주길 바라는지 혹은 상황이 어떻게 바뀌기를 원하는지를 의미하는 ‘바람’을 말해야 화가 제대로 전달된다.
- ◎ 분노를 조절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 분노는 제대로 판단할 때 공격성이나 적대적인 사고, 부정적인 분노표출을 줄일 수 있다.

4. 생활에 적용하기

- ◎ 스스로 자신의 분노를 제대로 판단하고 바라는 바를 솔직하게 전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도록 한다.
 - 자신의 분노를 조절하고 나아가 타인의 분노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의 중요성을 안다.
 - 누가 보아도 화를 낸만한 상황에서 유머를 통해 주변 사람들이 웃음으로 위기를 넘긴 적이 있는지, 그 사례를 찾아본다.

• 활동지1 - 분노, 화를 열어보기

<분노, 화를 열어보기>

- 상황:

- 생각:

- 감정:

- 바람:

예) 친구가 나와 이야기를 하다 말고 다른 친구와의 통화에만 신경을 쓰고 있다.

- 상황: 네가 나랑 얘기하다 말고 다른 친구와 오래 통화하는 것을 보니

- 생각: 나를 무시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 감정: 서운하고 화가 난다.

- 바람: 다음에는 친구에게 나중에 전화하겠다고 말하던지, 통화를 짧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Ⅲ. 참고 자료

1. 학습 자료

<가장 강한 사람>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탈무드’에서는 이런 사람을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몸은 눈, 코, 입, 귀 뿐만 아니라 손과 발, 머리, 심장과 위장, 대장 소장 등 무수히 많은 기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기관들은 저마다 많은 역할이 정해져 있어요. 눈은 파란 하늘을 볼 수 있지만 꽃 향기는 맡을 수는 없어요. 코는 향기로운 꽃 향기는 맡을 수 있지만 달콤한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런 기관들과는 달리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이지요. 마음이야말로 여러 가지 기능을 다할 수 있습니다. 손에게 넘어진 아이를 일으키도록 시키는 것도, 입에게 사과를 맡을 하게 하는 것도 모두 마음이니깐요. 또 무엇인가를 보거나 듣기, 건거나 서기, 기뻐하거나 화내기, 무서워하거나 교만을 떨기, 사랑하기, 미워하기, 시샘하기, 감탄하기, 반성하기 등등도 마음이 시키는 일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을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출처 : 고학년을 위한 탈무드 68-69

2. 참고 문헌

<http://blog.daum.net/collagen/295>

영역	심리적 폭력·따돌림	대상	중학생	시간	90분
학습 주제	나는 나!				

I. 이 수업에 대하여

1. 개요

독서는 어떤 저항감이나 고통 없이 스스로의 잘못을 깨닫게 하고 내성적으로 자기 행동을 통제하는 힘을 길러주며, 객관적인 관찰력과 사고력을 함양시켜 참다운 인생관을 정립시킬 수 있다. 본 수업은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성장기 학생들의 내적, 외적 갈등을 스스로 확인하고 삶에 대한 진지한 태도를 기르고자 한다.

2. 목표

- 스스로의 가치를 관찰해 볼 수 있다.
- 자신을 수용하고 앞으로 나아갈 삶의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 자신과 주변의 사람들의 삶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서로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태도를 기른다.

3. 준비물- 필기 도구

4. 학습 내용

단 계	내 용
생각 열기	동화 <강아지 똥> 감상하기
생각 펼치기	작품에서 인상 깊었던 장면, 감동적인 글귀 나누기
활동하기	한 가지 주제를 골라 간단한 자서전 쓰고 자신의 문제 정리하기
생활에 적용하기	삶의 목표를 정하고 그 꿈을 이루는 데에 도움이 되는 나의 강점 찾기.

5. 유의 사항

-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며 노출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를 형성하도록 한다.

II. 수업 과정안

1. 생각 열기

◎ <강아지 똥>을 감상하기

- 그림책을 돌려가며 읽도록 시간을 주거나, 다함께 애니메이션 영상을 감상하도록 한다.

2. 생각 펼치기


◎ 자신의 상황과 관련지어 느낌 점을 나누어 이야기하기

- 강아지 똥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나 감동적인 글귀는 무엇인가요?

◎ 자신이 초라하고 삶의 목표가 막연하게 느껴졌던 경험을 나누기

- 강아지 똥처럼 내가 초라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진 적은 언제인가요?


3. 활동하기 : 자서전 쓰기

◎ 다음의 주제 중 마음에 드는 한 가지를 골라서 간단한 자서전을 써보자  활동지 1

- 활동지의 주제 중 하나를 골라서 자신의 이야기를 써봅시다.

◎ 자신이 쓴 글을 공유하기

- 어떤 주제를 골라 자신의 자서전을 썼는지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 자신이 쓴 글의 주제와 관련하여 갖고 있는 자신의 문제 정리하기  활동지 2

- 내 꿈을 이루기 위해 바뀌어야 하는 나의 생각은 무엇일까, 내가 겪는 삶의 무의미 문제는 어디서 온 것일까, 내가 삶의 목표를 확실하게 정립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등

4. 생활에 적용하기

◎ 삶의 목표를 정하고 그 꿈을 이루는 데에 도움이 되는 나의 강점 찾기

◎ 나를 이해하고 나아가 주변사람들과의 관계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수용하는 태도 그리기

- 관련 읽기 자료로서 안도현의 <연어>와 같은 동화들을 소개한다.  학습자료 참고

• 활동지1 - 자서전 쓰기

<자서전 쓰기>

1. 다음 중 한 가지 주제를 골라서 자신의 이야기를 써봅시다.

- 강아지 똥이 자신을 초라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과 나를 초라하게 하는 것들
- 강아지 똥이 꿈을 찾는 과정에 도움이 된 것들과 내 꿈을 찾는데 도움이 되는 것
- 내가 혹시 강아지 똥을 지나가던 참새나 닭과 같은 입장이었던 경험
- 강아지 똥이 이론 소박하지만 위대한 꿈처럼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꿈

• 활동지2 - 나의 꿈, 나의 목표

<나의 꿈, 나의 목표>

2. 자신이 쓴 글의 주제와 관련하여 갖고 있는 자신의 문제 정리하기

- 내 꿈을 이루기 위해 바뀌어야 하는 나의 생각은 무엇일까, 내가 겪는 삶의 무의미 문제는 어디서 온 것일까, 내가 삶의 목표를 확실하게 정립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등

Ⅲ. 참고 자료

1. 학습 자료

- 권정생 글, 정승각 그림(1996). 강아지똥. 길벗어린이.
- 강아지똥 애니메이션 영상 <http://youtu.be/argbjMdueug>
- 안도현(2012). 연어. 문학동네

2. 참고 자료

- 이영림(2008). 독서치료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백석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영역	심리적 폭력 ·따돌림	대상	고등학생	시간	50분
학습 주제	내 마음에 귀를 기울여요.				

I. 이 수업에 대하여

1. 개요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고통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만큼 일상생활에서 정신적인 행복대신 온갖 스트레스와 근심과 걱정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청소년기에 접어들수록 스트레스로 인한 고통은 증가하는데, 학생 내면에 잠재한 고통은 저마다 다양하며 그 강도 또한 다르다. 이 수업은 학생들에게 ‘저널 쓰기’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내면을 성찰할 기회를 갖고, 참다운 자아 정체성을 찾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목표

-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는 습관을 갖는다.
- 타인에게 글로써 마음을 정리하여 표현할 수 있다.
- 자신을 넘어 타인의 고통에도 귀를 기울이는 태도를 기를 수 있다.

3. 준비물 - 음향기기, 도화지, 필기도구

4. 학습 내용

단 계	내 용
생각 열기	마음을 안정시키는 음악을 듣고 ‘저널쓰기’에 대한 설명을 듣기
생각 펼치기	고통과의 대화를 준비하기
활동하기	자신의 내면에 자리한 무의식적 고통과 대화하고 저널 대화 쓰기.
생활에 적용하기	실생활에서도 자신의 내면에 귀를 기울이고 성찰하는 습관을 갖기. 자신의 마음에서 시작해서 주변을 이해하는 태도 기르기.

5. 유의 사항

- 학생들이 끈기 있게 무의식인 상처와 대화에 임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활동작업 중 학생들에게 대화하기 싫으면 그만 중지하도록 사전에 안내해야 한다.

II. 수업 과정안

1. 생각 열기

◎ 명상음악 듣기  학습자료 참고

- (눈을 감고 조용히 음악을 감상하면서) 눈을 감고 음악에 조용히 귀를 기울여 봅시다.

◎ 마음 속에 귀 기울이기

- 각자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2. 생각 펼치기


◎ 고통을 찾아가는 시간을 갖기

- 나의 마음속에는 많은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 중 나를 불편하게 하는 감정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 고통에게 이름 붙이기

- 그 고통은 어떤 것인가요? 고통의 별명을 하나 붙여주세요.
- 예) 나의 고통은 공부에서 오는 스트레스다. 내 고통의 이름은 ‘공부’이다.

3. 활동하기

◎ 각자 마음속에 가장 크게 자리 잡은 고통의 이름을 정한 후, 그 고통에게 대화를 시도한다.  활동지 1

- 우리 마음을 괴롭히던 고통을 불러내어 이야기를 해봅시다.

- 예) 나: 야, 공부! 난 네가 싫어.

공부: 왜?

나: 나는 다른 것을 하고 싶거든.

공부: 그런데?

나: 그런데 현실이 너를 강요하잖아.

공부: 아무도 너에게 공부만 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어.

나: 아니, 그렇게 하고 있어.

공부: 왜 그렇게 생각해?

◎ 무의식적 고통 직면하는 시간을 갖는다.

- 무의식적 고통의 말에 귀 기울이고 의식적 자아(나)와 무의식적 고통의 입장을 헤아려 본다.
- ◎ 무의식적 고통과 화해를 시도한다.
- 무의식적 고통에 공감하고 고통을 해소하며 용서하는 방향으로 대화시도하기
- ◎ 고통해결의 대화를 마무리하기
- 의식적 자아가 무의식적 자아에게 지는 끝맺음은 피해야 한다.
- ◎ 저널쓰기 후 각자의 소감을 발표하기

4. 생활에 적용하기

- ◎ 자신의 내면에 바라보고 고통과 마주하는 습관을 들인다.
- ◎ 자신을 넘어 타인의 고통에도 귀를 기울이는 자세를 갖는다.

• 활동지 1 - 저널 도구 '대화' 쓰기

1. 다음의 저널 쓰기(비밀일기 쓰기)의 도구 '대화' 쓰기 활동지입니다. 최대한 자유롭게 사적인 비밀을 보장하는 선에서 아래의 빈칸들을 채워봅시다.

- 1) 학생의 내면에서 가장 괴롭히는 고통(사람, 사물, 감정, 스트레스, 기타)을 찾습니다.
- 2) 학생의 내면에서 가장 괴롭히는 고통에 '별명'을 붙여줍니다.
 학생의 내면에서 가장 괴롭히는 고통은 ()입니다.
 학생의 내면에서 가장 괴롭히는 고통을 별명 붙이면 ()입니다.
- 3) 그럼, 학생의 나(자아)와 학생을 요즘 가장 괴롭히는 고통과 대화를 시도해 봅시다.

- 고통과의 대화

나:

():

나:

():

나:

():

나:

():

나:

():

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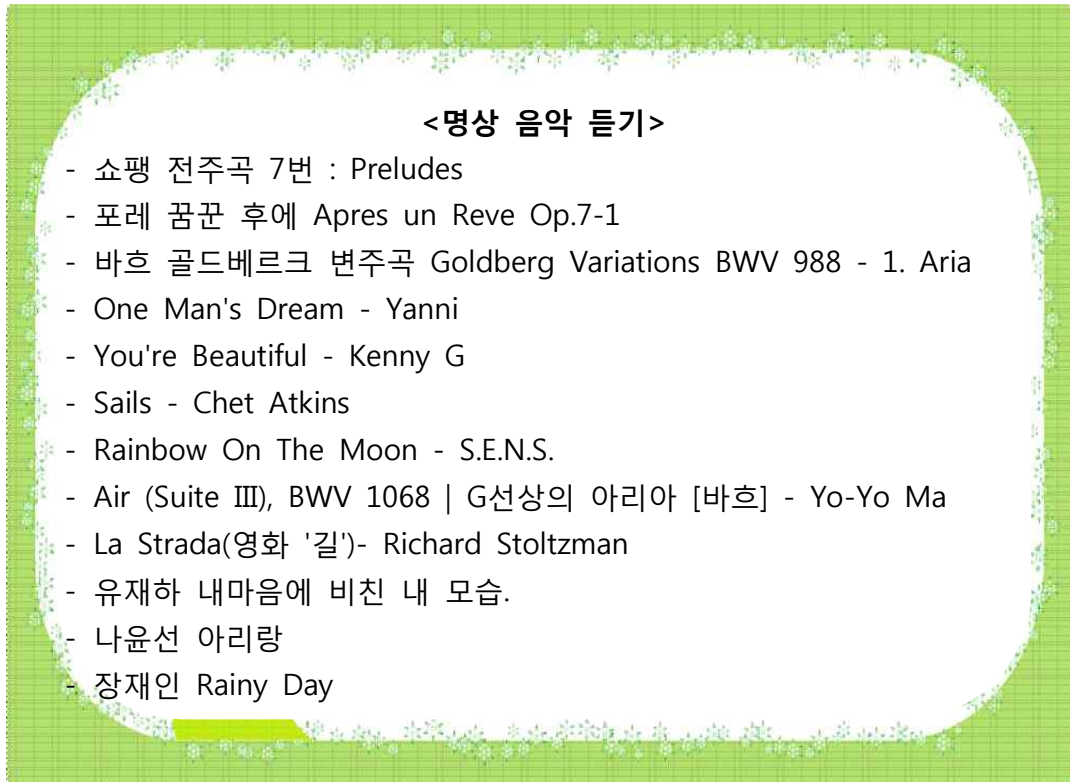
나:

():

2. 1번을 마쳤으면 위의 대화를 다시 읽어보면서 위와 같은 대화가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써봅시다.

Ⅲ. 참고 자료

1. 학습 자료



<명상 음악 듣기>

- 쇼팽 전주곡 7번 : Preludes
- 포레 꿈꾼 후에 Apres un Reve Op.7-1
- 바흐 골드베르크 변주곡 Goldberg Variations BWV 988 - 1. Aria
- One Man's Dream - Yanni
- You're Beautiful - Kenny G
- Sails - Chet Atkins
- Rainbow On The Moon - S.E.N.S.
- Air (Suite III), BWV 1068 | G선상의 아리아 [바흐] - Yo-Yo Ma
- La Strada(영화 '길')- Richard Stoltzman
- 유재하 내마음에 비친 내 모습.
- 나윤선 아리랑
- 장재인 Rainy Day

2. 참고 문헌

박태진(2010). 청소년기 자아의 치료와 정체성을 찾는 저널 쓰기 연구. *작문연구*. 11, 9-44.

* 영 역 : 신체 폭력 예방

* 학교급 : 초등학교

* 주요 내용

- ① 친구의 얼굴을 살펴보아요.
- ② 그건 장난이 아니야!
- ③ 폭력 생활, 이제 그만!
- ④ 위험한 폭력의 눈덩이, 굴리지 마세요.
- ⑤ 한 박자 쉬고!

영역	신체 폭력	대상	초등 저학년	시간	60분
학습 주제	친구의 얼굴을 살펴보아요.				

I. 이 수업에 대하여

1. 개요

감정의 동물인 인간이기에 공동체 일원으로서 상대방의 감정을 읽고, 나의 감정을 제대로 전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감정에 대해 이해하고 자신의 감정 관찰하기, 타인의 감정 관찰하기를 통해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알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도록 한다.

2. 목표

- 인간의 여러 가지 감정을 알 수 있다.
-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통제하고 타인의 감정에 따라 배려하며 행동할 수 있다.

3. 준비물

- 다양한 표정을 하고 있는 사진(인간, 동물), 감정카드, 감정 단어카드, 활동지, 도서명

4. 학습 내용

단 계	내 용
생각 열기	다양한 표정을 하고 있는 사진을 보고 사진의 주인공이 어떤 기분인지 이야기해 보기
생각 펼치기	인간의 다양한 감정을 알고 감정 읽어보기
활동하기	‘나와 너의 감정 알기’ 게임하기
생활에 적용하기	말과 행동을 하기 전에 친구의 표정을 관찰하여 상대방을 배려하며 생활하는 태도 기르기

5. 유의 사항

- 활동을 하기 전, 학생들이 다양한 인간의 감정에 대해 잘 알 수 있도록 지도한다.

II. 수업 과정안

1. 생각 열기

◎ 다양한 표정을 한 사진들을 보고 표정 따라하기

- 학생들은 따라 하기 위해 사진의 표정을 관찰할 것이다. 그 후, 관찰한 것을 이야기해 보도록 한다. 표정에서 관찰할 수 있는 모습을 이야기 하도록 한다.

◎ 사진 속 주인공의 감정 생각해보기

- 사진의 주인공의 기분은 어떤 것 같나요?
- 사진의 주인공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것 같은가요?
- 주인공의 표정을 다시 따라해 볼까요? 내가 이런 표정일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문가요?

2. 생각 펼치기

◎ 인간의 다양한 감정 알기

- 인간에게는 다양한 감정이 있어요. 우리의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와 그림을 연결해 봅시다. 📖 활동지 1, 2
- (같이 확인한 후) 우리는 어떤 때 이런 표정이 되는지 써 볼까요? 📖 활동지 3

◎ 친구들의 감정 알기(활동지 돌려보기)

- 친구들도 나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친구들은 어떤 상황일 때 어떤 감정을 가지게 되는지 알아봅시다.

3. 활동하기 : 게임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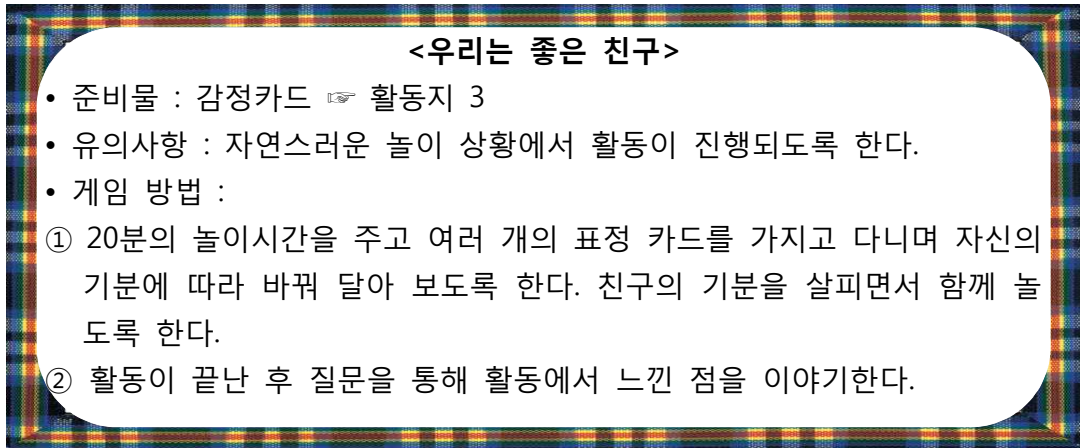
<너와 나의 감정 알기 게임>

- 준비물 : 감정카드 📖 활동지 3
- 유의사항 : 친구와 이야기 할 때 친구의 기분이 어떤지 보고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 게임 방법 :
 - ① 현재 자신의 기분이 어떤지 생각해 보고 왜 그런 기분인지 쓴다. 이런 기분일 때 친구들이 어떤 말이나 행동을 나에게 해 주었으면 좋겠는지 쓴다.
 - ② 자신의 기분을 나타내는 그림 카드를 이마에 붙이고 교실을 돌아다니며 친구들과 이야기 한다.
 - ③ 활동이 끝난 후 질문을 통해 활동에서 느낀 점을 이야기한다.

◎ 느낀 점 이야기하기

- 친구의 기분에 맞추어 나는 어떻게 행동하였나요?
- 친구가 내 기분을 생각해 주면서 대화할 때 기분이 어땠나요?

◎ ‘우리는 좋은 친구’ 활동하기



<우리는 좋은 친구>

- 준비물 : 감정카드 📄 활동지 3
- 유의사항 : 자연스러운 놀이 상황에서 활동이 진행되도록 한다.
- 게임 방법 :
 - ① 20분의 놀이시간을 주고 여러 개의 표정 카드를 가지고 다니며 자신의 기분에 따라 바꿔 달아 보도록 한다. 친구의 기분을 살피면서 함께 놀도록 한다.
 - ② 활동이 끝난 후 질문을 통해 활동에서 느낀 점을 이야기한다.

◎ 느낀 점 이야기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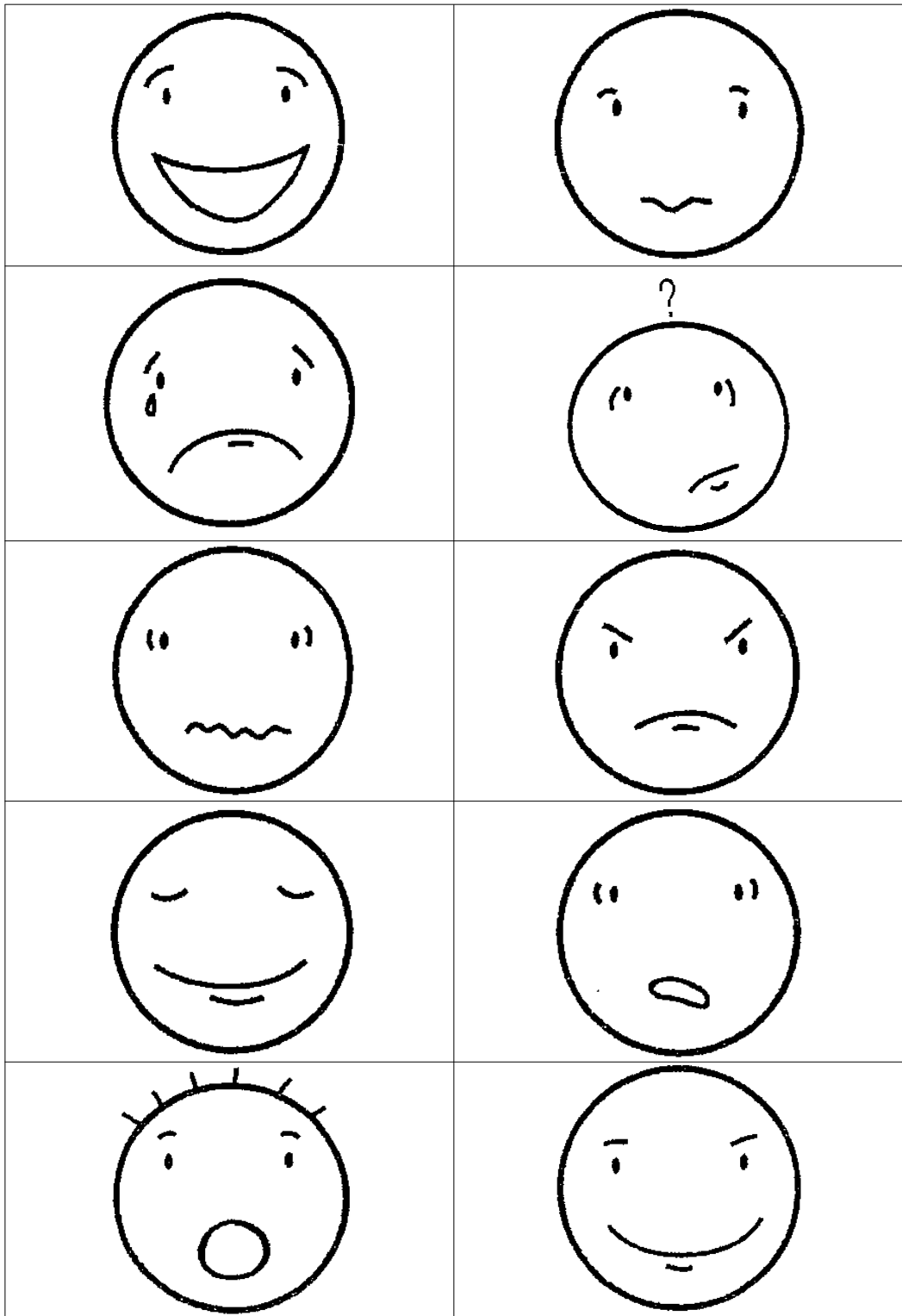
- 친구의 기분에 따라 나는 어떻게 행동하였나요?
- 왜 나는 ~ 기분이었나요?
- 나의 기분을 생각해 주고 잘 대해 준 좋은 친구는 누구였나요?
- 친구의 기분이 ~때 친구가 나에게 어떻게 해 주면 좋았나요?

4. 생활에 적용하기

◎ 친구 감정 관찰일기 쓰기

- 모든 인간에게는 여러 가지 감정이 있어요. 하루 동안 친구의 감정 변화를 관찰해 보고 일기에 써 봅시다.

• 활동지1 - 감정카드



*출처 : 앨런 L. 빈, 2008: 37에서 수정

• 활동지2 - 감정 단어카드

행복하다	신난다	즐겁다	평화롭다
슬프다	너무 슬프고 끔찍하다	울고싶다	자신있다
어쩔 줄 모르다	불안하다	긴장되다	걱정스럽다
편안하다	안전하다	희망적이다	믿음직스럽다
놀라다	두려워하다	충격받다	겁에 질리다
부끄럽다	외롭다	자신이 없다	만족스럽다
이럴수도 저럴수도 없어 곤란하다	머리가 복잡하다	지친다	어지럽다
신경질 난다	미칠 것 같다	화난다	자랑스럽다
무섭다	당황스럽다	잘못한 것 같다	기분이 좋다

출처 : 앨런 L. 빈, 2008: 84에서 수정

• 활동지3

표정	기분	내 경험
	행복하다 신난다 즐겁다	
	슬프다 너무 슬프고 끔찍하다 울고싶다	
	어쩔 줄 모르다 불안하다 긴장되다 걱정스럽다	
	편안하다 안전하다 자신있다 희망적이다 믿음직스럽다	
	놀라다 두려워하다 충격받다 겁에 질리다	
	부끄럽다 외롭다 자신이 없다	
	이럴수도 저럴수도 없어 곤란하다 머리가 복잡하다 어지럽다 지친다	
	신경질 난다 미칠 것 같다 화난다	
	무섭다 당황스럽다 잘못한 것 같다	
	평화롭다 만족스럽다 자랑스럽다	

출처 : 앨런 L. 빈, 2008: 84에서 수정

Ⅲ. 참고 자료

1. 학습 자료 (예시)



- ★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 문국진, 2007: 101, 117, 107, 155, 179, 191에서 재인용.
 쿠르베, <자화상, 상처받은 사나이>, 1841, 개인소장.
 라 투르, <클럽 에이스를 들고 있는 도박 사기꾼>의 부분 확대, 1635년경, 포트와즈 킨메르 미술관.
 메서슈미트, <극심한 고통>, 1770, 빈 오스트리아미술관.
 그람스코이, <잊을 수 없는 여인>, 1883, 모스크바 트레차코프미술관.
 레핀, <소피아 아렉세예브나 황녀>의 부분 확대, 1879, 모스크바 국립 트레차코프미술관.
 램브란트, <벨사살 왕의 잔치>의 부분 확대, 1635년경, 런던 국립미술관.

<사람들은 매일매일 얼굴을 조각하며 산다>

일반적으로 의사소통은 주로 언어와 문자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는 비언어의 하나인 얼굴 표정이 의사소통 행위로 쓰이는 경우가 더 많다. 실은 이것이 언어나 문자에 의한 의사소통보다 더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왜냐하면 언어와 문자는 본인의 의사와 감정을 가리고 꾸밀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표정은 그 사람의 의사와 감정을 숨김없이 솔직하게, 그리고 즉시 드러내기 때문이다.

사람의 얼굴은 부모로부터 물려받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나 자유가 없다. 그러나 삶을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서 얼굴은 변화하게 마련이다. 즉 악의를 품고 질투에 찬 생활을 계속하면 얼굴의 근육이 굳어져 차츰 질투 어린 악인의 표정으로 변하고 만다. 그렇게 변한 얼굴은 아무리 꾸미려 해도 소용이 없다. 결국 사람은 매일 매일 자기 얼굴을 조각하며 사는 셈이다.

문국진, 2007: 10, 15

2. 참고 문헌

- 앨런 L. 빈 저, 이규미·지승희 역(2008). 괴롭힘 없는 교실 만들기. 서울 : 시그마프레스.
 문국진(2007). 법의학자가 풀어본 그림 속 표정의 심리와 해부. 서울 : 미진사.

영역	신체 폭력	대상	초등 저학년	시간	40분
학습 주제	그건 장난이 아니야!				

1. 개요

학교생활을 잘 하고, 나아가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형성하기 위해서는 옳은 행동과 그른 행동을 구별하고 바르게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 나타나고 있는 학교 폭력은 폭력의 개념에 대한 학생들의 무지에 의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사소한 장난도 상대방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는 행동임을 알 수 있도록 한다.

2. 목표

- 폭력적인 행동을 구별할 수 있다.
- 생활 속에서 폭력적인 행동을 줄이고자 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다.

3. 준비물

- 골든벨용 화이트보드, 도화지, 사인펜

4. 학습 내용

단 계	내 용
생각 열기	이야기를 통해 교훈 얻기
생각 펼치기	친구를 괴롭히는 행동 알기
활동하기	친구를 괴롭히는 행동은 그만! 활동하기
생활에 적용하기	친구를 괴롭히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하기

5. 유의 사항

- 지금까지 있었던 친구들의 행동을 폭력이라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고쳐나갈 수 있는 과정이 되도록 지도한다.

II. 수업 과정안

1. 생각 열기

◎ 「제일 아픈 상처」 이야기 듣기

<제일 아픈 상처>

어느 날 뱀이 아주 맛있는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냠냠냠, 아 맛있다! 점심은 뭐니뭐니해도 싱싱한 생쥐가 최고야!”

오늘 점심은 뱀이 제일 좋아하는 생쥐였어요. 뱀은 생쥐 한 마리를 꿀꺽 삼켰습니다. 뱀은 먹이를 먹을 때 꼭꼭 씹어 먹는 법이 없어요. 그냥 꿀꺽 삼켜 버리고 만답니다.

그때 마침 독수리 한 마리가 먹이를 찾기 위해 하늘을 빙빙 날고 있었어요.

“저 녀석, 내가 먹을 생쥐를 먼저 먹어 버렸군.”

뱀이 점심 먹는 모습을 쳐다보던 독수리가 땅으로 내려와 뱀에게 물었습니다.

“뱀아, 너는 음식을 참 이상하게 먹는구나. 사자는 먹이를 쓰러뜨리고 나서 먹고, 늑대는 먹이를 찢은 다음에 먹는데 너는 왜 먹이를 통째로 삼켜 버리는 거니? 욕심쟁이처럼.”

그러자 뱀이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독수리야, 그게 그렇게도 이상하니? 그래도 나는 남을 혈뜯는 사람보다는 낫다고 생각해. 입으로 남에게 상처를 입히지는 않거든.”

마빈토케이어, 2002: 34-35

속담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

- 독수리는 뱀에게 어떻게 행동했나요?

- 뱀이 말한 제일 아픈 상처는 무엇인가요?

◎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는 속담의 뜻 생각해보기

- 우리가 장난으로 던진 돌에 작은 개구리는 죽을 수도 있어요. 어떤 뜻일까요?

- 내가, 또는 친구가 나에게 별 생각 없이 한 행동이 상처가 되었던 적이 있나요?

2. 생각 펼치기

◎ 친구를 괴롭히는 행동 O, X 퀴즈풀기(골든벨)

- 우리가 평소에 폭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도 폭력적인 행동이 될 수 있어요.
- 내가 평소에 하던 장난들이 친구들을 괴롭히는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3. 활동하기

◎ 친구를 괴롭히는 행동은 무엇이 있는지 써 보고 반성하기

- 친구를 괴롭히는 행동에는 무엇이 있는지 큰 도화지에 모둠별로 생각하여 써 봅시다.
- 친구를 괴롭히는 행동으로 쓴 것 중에 자신이 지금까지 해 온 것에는 무엇이 있는지 표시해 보면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여 봅시다.

◎ 학급에서 친구를 괴롭히는 행동이 일어나는 상황 연극하기


<친구를 괴롭히는 행동은 이제 그만!>

- 지도사항 : 학급에서 친구를 괴롭히는 행동이 일어날 경우, 바로 그것을 친구들과 선생님에게 이야기하고 함께 해결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짧은 연극으로 꾸며 연습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괴롭힘 행동이 무엇인지 체득할 수 있도록 한다.
- 대본 예시 :
학생 A : (B의 바지를 내리며) 압!
학생 C : 그런 행동하면 안 돼!
학생 A : 장난인데 뭐 어때.
학생 D : 아니야, 그건 장난이 아니야. B의 기분은 어떻겠니?
학생 C :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다 같이 이야기해 보자!

- 친구가 괴롭히는 행동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4. 생활에 적용하기

◎ 친구를 괴롭히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하기

- 나는 앞으로 이런 행동은 하지 않겠다는 항목들을 다짐서에 쓰고 약속하여 봅시다.  활동지 1

◎ 다짐서 게시하기

- 학생들이 만든 다짐서를 학급에 게시하여 학생들이 수시로 보면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친구를 괴롭히는 행동을 했을 때 다짐서를 보며 반성의 시간을 갖도록 한다.

다짐서

_____은(는) 앞으로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며, 행복한 교실을 만들
기 위해 다음과 같은 괴롭힘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합니다.

년 월 일
이름 :



Ⅲ. 참고 자료

1. 학습 자료

<그건 장난이 아니야! O, X 퀴즈>

- ① 친구들과 괴롭히는 것은 장난일 뿐이에요.
- ② 어떤 친구들은 따돌림을 당하는 것이 당연해요.
- ③ 남자 아이들만 친구들을 괴롭혀요.
- ④ 엄마가 아이들은 싸우면서 크는 거라고 했어요. 친구랑 때리면서 싸우는 것은 괜찮아요.
- ⑤ 친구가 괴롭혔을 때 선생님이나 부모님께 이르는 것은 고자질하는 창피한 짓이에요.
- ⑥ 내가 친구에게 당했을 때는 같이 때리거나 복수해 주어야 해요.
- ⑦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해 상처를 받은 친구는 금방 다시 나올 수 있어요.
- ⑧ 친구들이 싸우고 있을 때 저는 옆에서 구경만 했으니 잘못이 없어요.
- ⑨ 심심해서 친구에게 게임을 하자고 하면서 꿀밤을 때렸어요. 게임을 하다가 때린 거니까 폭력이 아니에요.
- ⑩ 친구가 아침부터 날 화나게 해서 화끈에 손을 휘둘렀는데 친구가 다쳤어요. 하지만 친구와 친구 부모님이 용서해 주었어요. 그럼 저는 벌을 받지 않아도 돼요.
- ⑪ 심심해서 종이를 뭉쳐 만만한 친구에게 던지면서 놀았어요. 맞아도 별로 아프지도 않고 장난으로 그런 것이니 폭력이 아니에요.
- ⑫ 친구와 문자를 주고받다가 장난으로 욕을 했어요. 장난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잘못이 아니에요.
- ⑬ 내 짝이 나를 자꾸 귀찮게 해서 우리 반에서 나와 친한 친구에게 내 짝을 한 대만 때려달라고 부탁했어요. 내가 때린 게 아니니까 저는 잘못이 없어요.
- ⑭ 잘못을 하면 때려서 고쳐 주어야 해요. 친구가 잘못을 하면 때려도 괜찮아요.
- ⑮ 저는 친구를 때리지 않았어요. 그냥 주먹을 보여주면서 찌려보았을 뿐이에요. 때리지 않았으니까 잘못이 아니에요.
- ⑯ 제 짝이 저를 자꾸 화나게 해요.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때렸어요.
- ⑰ 친구들이 장난으로 한 아이를 때리고 있길래 저도 같이 때렸어요. 다 같이 때렸으니 그건 제 잘못이 아니에요.
- ⑱ 장난으로 짝꿍 바지를 벗겼어요. 장난으로 한 것이고, 아무도 본 사람이 없으니까 잘못이 아니에요.

⑩ 우리 반에 어떤 아이는 때려도 웃고 있어요. 그래서 막 때렸어요. 그 아이는 웃고 있었으니까 기분 나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럼 저는 잘못이 없어요.

출처 : 앨런 L. 빈, 2008: 37; 서울시 교육청 정책 포커스 자료 부분 인용

2. 참고 문헌

마빈토케이어(조종순 역, 2002). 고향년 탈무드. 서울 : 효리원.

앨런 L. 빈(이규미·지승희 역, 2008). 괴롭힘 없는 교실 만들기. 서울 : 시그마프레스.

서울시 교육청 정책 포커스 - 학교폭력은 ‘육해도, 재미로 해도, 모르는 척’을 해도 폭력이다! <http://www.sen.go.kr/web/services/bbs/bbsView.action?bbsBean.bbsCd=130&bbsBean.bbsSeq=217>

영역	신체 폭력	대상	초등 고학년	시간	60분
학습 주제	폭력 생활, 이제 그만!				

I. 이 수업에 대하여

1. 개요

각종 미디어와 매체의 영향으로 학생들의 폭력적인 성향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장난으로 폭력을 휘두르거나, 작은 갈등 상황에서도 폭력으로 대응하게 되면서 일상적인 폭력이 증가하고 있다. 일상적인 폭력의 증가는 신체 폭력에 대해 둔감하게 만들어 더 큰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본 차시를 통해 교실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인 신체 폭력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2. 목표

- 작은 폭력도 상대방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교실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인 폭력을 줄이려는 태도를 기를 수 있다.

3. 준비물

- 폭력적인 장면이 나오는 예능 동영상, 스티커(빨강, 파랑, 노랑), 활동지

4. 학습 내용

단 계	내 용
생각 열기	미디어에 나타나는 폭력적인 행동 관찰하기
생각 펼치기	일상적인 신체 폭력과 관련된 자신의 경험 이야기하기
활동하기	‘폭력에 힘들어 하는 내 친구’ 역할극하기
생활에 적용하기	폭력일지 쓰기

5. 유의 사항

- 역할놀이 활동 시 이것은 수업 과정에서의 역할놀이 활동임을 주지시키고 자신이 맡은 역할을 규칙에 맞게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한다.
- 역할놀이를 통해 자신이 느낀 바를 이야기하여 공유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II. 수업 과정안

1. 생각 열기

◎ 미디어에 나타나는 폭력적인 행동 관찰하기(동영상 시청)

- 예능 프로그램에서 폭력적인 장면을 보았을 때 어떻게 반응하였나요?
- 방송을 통해 나온 폭력적인 행동에는 무엇이 있는지 말해 봅시다.

2. 생각 펼치기

◎ 일상적인 신체 폭력과 관련된 자신의 경험 이야기하기

- 교실에서 나타나는 일상적인 신체 폭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폭력은 나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주변에서는 작은 폭력들이 행해지고 있는 것일까요?
- 내가 친구들에게 당하고 있는 일상적인 폭력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 친구가 나에게 장난으로 신체적 폭력을 가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 발표를 통해 친구의 경험 공유하기

- 친구들의 발표를 들으며 작은 폭력에 시달리는 친구의 기분은 어떤지 생각해 봅시다.

3. 활동하기 : 역할극하기

<‘작은 폭력에도 힘들어 하는 내 친구’ 역할극>

- 준비물 : 빨강, 파랑, 노랑 스티커
- 유의사항 :

- ① 학생들의 평소 행동을 관찰하여 자신의 평소 생활 태도와는 다른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역할을 부여한다.
- ② 학생들이 역할놀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사전 지도를 철저히 한다.

- 방법 : 아이들은 앞으로 나오고 교사는 아이들이 자신의 역할을 볼 수 없게 이마에 스티커를 붙여준다. 빨간 스티커를 붙인 아이는 작은 폭력의 대상이 된다. 아이들은 서로 모여 보드게임을 하며 연기를 시작한다. 빨간 스티커를 붙인 아이에게는 장난을 걸면서 건드릴 수 있다. 또는 의견 충돌이 있을 때 작은 폭력으로 대응할 수 있다. 노란 스티커를 붙인 아이에게는 신체 접촉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친구가 놀리거나 무시하거나 하는 행동을 할 수 있다. 파란 스티커를 붙인 친구들은 절대 공격할 수 없으며, 무조건 친절하고 상냥하게 대해야 한다.

규칙 1. 친구가 붙인 스티커에 맞게 행동해야 한다.

규칙 2. 이것은 연극을 하는 상황이다. 자신의 역할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규칙 3. 친구의 이마에 붙은 스티커가 무엇인지 말하거나, 자신의 스티커가 무엇인지 물어보지 않는다. 그냥 상황을 통해 느낀다.

규칙 4. 연극 상황에서 허용이 되었다고 감정을 실어 강하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10분이 지난 후 자신이 빨간 스티커가 붙은 것 같으면 손을 든다. 친구들이 자기를 장난으로 때릴 때 기분이 어땠는지 이야기한다. 친구들이 폭력을 쓸 때 어떤 방법으로 참아 내었는지 이야기해 본다. 다음으로 자신이 노란 스티커가 붙은 것 같으면 손을 든다. 친구들이 자신을 화나게 했을 때 기분이 어땠는지 이야기한다. 화나는 상황을 어떻게 참아 내었는지 이야기해 본다. 다음으로 자신이 파란 스티커가 붙은 것 같으면 손을 든다. 자신이 친구들을 괴롭히거나 때렸는데 친구들이 날 때리지 않고 친절하게 반응하였을 때 기분이 어땠는지 이야기해 본다.

학생들의 역할이 바뀔 수 있게 스티커를 붙여주고 반복한다.

◎ 역할놀이 활동 후 감정 공유하기


- 친구들이 자신을 대할 때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글이나 말로 표현해 봅시다.
- 친구들이 나를 화나게 했을 때 기분이 어땠나요? 친구가 나에게 폭력을 사용했을 때 어떻게 참아내었나요?
- 친구의 작은 폭력을 계속적으로 당한 기분은 어떤가요?
- 갈등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나와 친구에게 좋은 것일까요?

4. 생활에 적용하기

◎ 나의 생활 반성하기

- 나는 일상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가해자는 아니었는지 반성하여 봅시다.

◎ 과제 : ‘폭력 일지’ 쓰기

- 우리는 지금까지 알게 모르게 폭력을 행사하고 폭력을 당하면서 고통을 주고, 고통을 겪어 왔습니다. 하루를 돌아보며 내가 오늘 폭력적인 행동으로 친구를 힘들게 한 적은 없었는지, 또는 친구의 폭력으로 내가 고통 받지 않았는지 써 봅시다. 학급에서 일어난 일상적인 폭력 사건을 생각하여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친구의 행동에 대해서는 그 친구에게 나의 기분을 설명하는 글을 써 봅시다.  활동지 1

• 활동지1 - 폭력일지

오늘 하루 학교생활을 하면서 일상적 폭력과 관련된, 내가 관찰한 사건, 또는 내가 관련된 사건을 생각해 보고 일지를 써 봅시다.

일시	월 일 언제:
어떤 상황이었나요?	
나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 하였나요?	
내 기분은 어땠나요?	
친구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다른 해결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Ⅲ. 참고 자료

1. 학습 자료

<고춧가루 뿌리고 전류 흐르고...가학성에 멎은 TV>

남성 출연자 발 냄새 맡기 등 예능 가학성 수위 도 넘어

"출연자가 가학적인 상황을 얼마나 견디느냐를 웃음포인트로 잡는 게 문제"

TV가 멎고 있다. 예능 속 가학성 수위가 도를 넘어서다.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일본의 자극적인 심야 방송을 보는 것 같다는 쓴소리까지 나올 정도다. 상황이 심각하다 보니 '성우 고(故)장정진 사태' 재발에 대한 걱정까지 고개를 들고 있다. 장정진은 게임 도중 떡을 먹다 기도가 막혀 세상을 떠났다. 이는 '예능의 가학성'에 경종을 울린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예능 속 게임 벌칙의 폭력성은 심각했다. 지상파도 안전지대가 아니었다. KBS2 `청춘불패2` 지난 5일 방송은 `가학적 게임 종결판`이었다. 소녀시대 멤버 써니가 복불복 게임 중 벌칙을 받다 얼굴에 고춧가루 세례를 받는 장면이 전파를 타 시청자를 아연실색하게 했다. 고춧가루가 자칫 눈에라도 들어갔으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다. 뿐만이 아니다. `청춘불패2`는 게임에 진 나르샤와 예원이 머리 위에 건초를 올려놓고 소가 이를 핥게 하는 엽기적인 벌칙까지 받았다. 특히 나르샤는 소가 건초를 핥는 과정에서 울먹이기까지 했다. 종합편성채널 일부 예능 프로그램의 폭력성도 문제다. JTBC `이수근 김병만의 상류사회`는 게임에 진 출연자 몸에 전류가 흐르게 하는 벌칙을 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주의 조치를 받았다. TV조선 개그 프로그램 `코미디쇼 코코아TV` 코너 `선택 개그-여러분이 작가` 코너에는 여자 개그우먼이 남자 개그맨 발 냄새 맡는 장면을 여과 없이 내보내 시청자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전문가들은 이를 방송의 리얼리티 집착에 따른 부작용으로 봤다.

지금 예능 프로그램의 유행은 리얼버라이어티다. 극적인 상황을 주고 연예인의 반응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구성이 대부분이다. 제작진이 이를 구실로 순간의 재미를 위해 가학적인 상황을 연출하는 게 문제라는 지적이다. 방송사의 과도한 시청률 경쟁도 방송의 가학성을 부추기는 원인 중 하나다. 하재근 대중문화평론가는 "현 방송가는 다채널 시대로 접어들며 시청률 경쟁이 치열해졌고 자극적인 방송 아이템이 주를 이뤘다"며 "시청률을 올리기 위한 가학적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 결국 거기에 반응하는 시청자의 자극 수위도 높아져 방송이 더 자극적이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디어세상 열린 사람들 주정순 사무국장은 "고 장정진 씨 케이스는 최악의 상황이긴 하지만 현 예능을 보면 여전히 위험을 내포하는 가학

적 상황이 많다"며 "제작진이 출연자가 얼마나 가학적인 상황을 견디느냐를 웃음의 포인트로 잡는 것이 문제다. 이런 방송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위험한 예능`이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버젓이 전파를 타고 있는 것에 대한 경각심도 높아지고 있다. 청소년이 가학적인 상황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우려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제작진의 자정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주 사무국장은 "현 방송의 `막말 논란` 등의 일정 책임은 이를 편집에서 거르지 않고 이슈를 위해 내보낸 제작진에게 있다"라며 "청소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은 좀 더 적극적으로 걸러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리고 "예능 프로그램의 등급제도 좀 더 엄격해질 필요가 있다"며 "폭력성 범주를 단순히 주인공이 칼 휘두르는 물리적인 내용에서만 찾지 말고 동물 가학 등으로 세분화해 심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2012.5.10 이데일리 양승준 기자

<http://starin.edaily.co.kr/news/NewsRead.edy?newsid=01118486599527608>

2. 참고 문헌

정준하, SBS '짹' 촬영팀 만나 '뺨을 짹' 웃음

http://www.imbc.com/broad/tv/ent/challenge/clip/index.html?list_id=4952568

무한도전 정형돈의 발차기

<http://www.youtube.com/watch?v=DZtfQ8SXIZ0>

1박 2일 강호동 초고속 폭력응징

<http://clip.kbs.co.kr/zzim/index.php?markid=2147070>

영역	신체 폭력	대상	초등 고학년	시간	40분
학습 주제	위험한 폭력의 눈덩이, 굴리지 마세요.				

I. 이 수업에 대하여

1. 개요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신체적으로 성장하는 반면 아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하여 갈등 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자신의 화를 잘 조절하지 못하고 폭력적으로 대응하게 된다. 이는 비단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에게도 나타나는 문제로, 인간관계 형성과 사회생활, 자신의 삶의 질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이 차시를 통해 학생들이 폭력적인 대응의 악영향과 문제를 파악하여 그 심각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2. 목표

- 갈등 상황에서 폭력적인 대응의 문제를 알 수 있다.
- 갈등 상황이 왔을 때 폭력으로 해결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기를 수 있다.

3. 준비물

- 읽기자료, 사진자료, 영화 ‘대학살의 신’ 편집 동영상

4. 학습 내용

단 계	내 용
생각 열기	글을 읽고 교훈 얻기
생각 펼치기	갈등 상황에서 폭력적으로 행동했던 자신의 경험 이야기하기
활동하기	폭력의 속성 파악하기
생활에 적용하기	폭력과 관련된 명언 짓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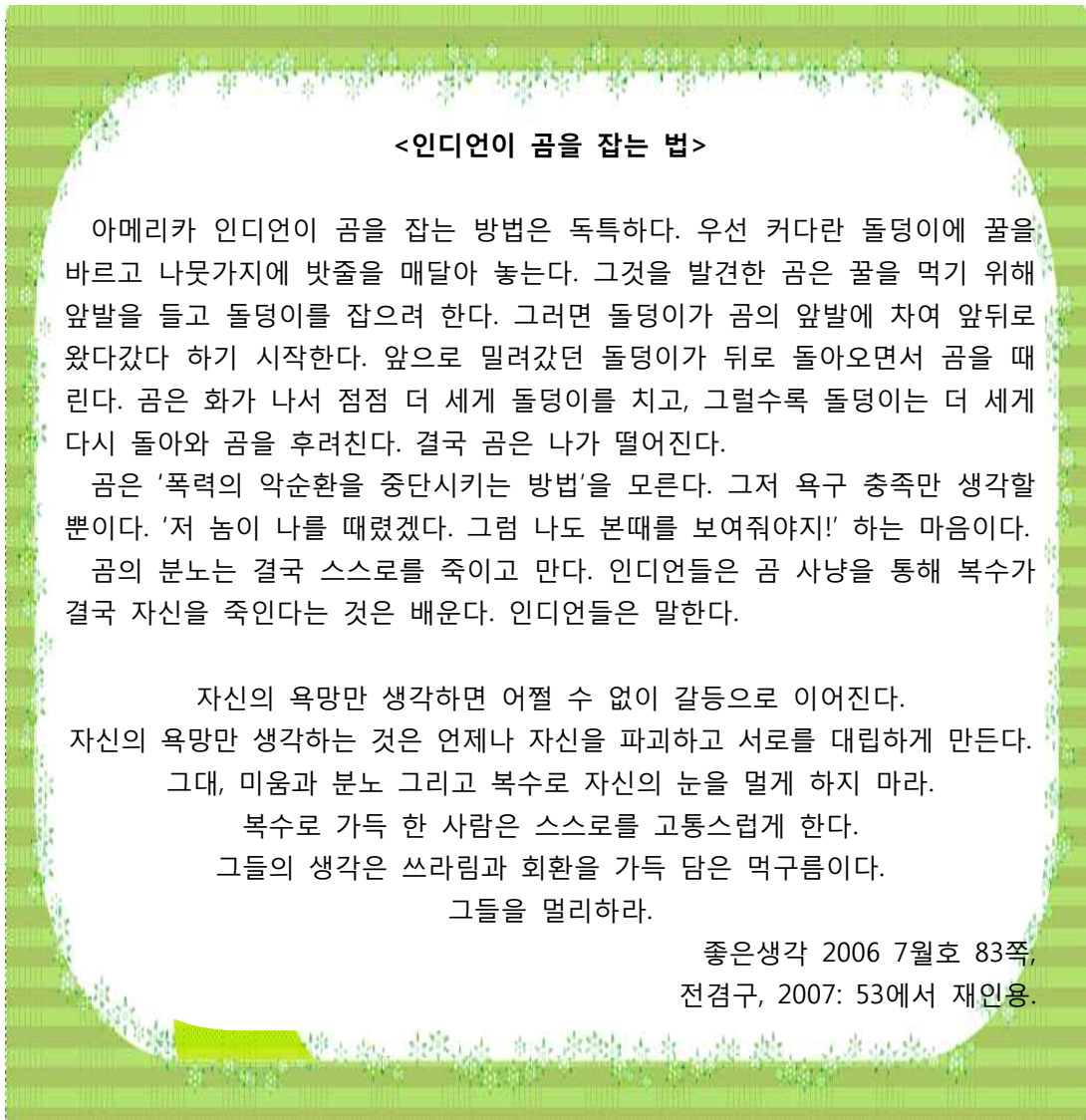
5. 유의 사항

- 자신이 정말로 위험한 상황에 빠졌을 때 용감하게 맞서 싸우는 ‘정당방위’의 경우 폭력이 정당화 될 수 있다. 하지만 상대방에 대한 분노의 감정에 의해 복수를 위한 폭력의 행사는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 학생들이 이것에 대해 질문할 경우 바르게 개념을 정립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II. 수업 과정안

1. 생각 열기

◎ 「인디언이 곰을 잡는 법」 읽기



<인디언이 곰을 잡는 법>

아메리카 인디언이 곰을 잡는 방법은 독특하다. 우선 커다란 돌덩이에 꿀을 바르고 나뭇가지에 밧줄을 매달아 놓는다. 그것을 발견한 곰은 꿀을 먹기 위해 앞발을 들고 돌덩이를 잡으려 한다. 그러면 돌덩이가 곰의 앞발에 차여 앞뒤로 왔다갔다 하기 시작한다. 앞으로 밀려갔던 돌덩이가 뒤로 돌아오면서 곰을 때린다. 곰은 화가 나서 점점 더 세게 돌덩이를 치고, 그럴수록 돌덩이는 더 세게 다시 돌아와 곰을 후려친다. 결국 곰은 나가 떨어진다.

곰은 '폭력의 악순환을 중단시키는 방법'을 모른다. 그저 욕구 충족만 생각할 뿐이다. '저 놈이 나를 때렸겠다. 그럼 나도 본때를 보여줘야지!' 하는 마음이다.


곰의 분노는 결국 스스로를 죽이고 만다. 인디언들은 곰 사냥을 통해 복수가 결국 자신을 죽인다는 것은 배운다. 인디언들은 말한다.

자신의 욕망만 생각하면 어쩔 수 없이 갈등으로 이어진다.
자신의 욕망만 생각하는 것은 언제나 자신을 파괴하고 서로를 대립하게 만든다.
그대, 미움과 분노 그리고 복수로 자신의 눈을 멀게 하지 마라.
복수로 가득 한 사람은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한다.
그들의 생각은 쓰라림과 회한을 가득 담은 먹구름이다.
그들을 멀리하라.

좋은생각 2006 7월호 83쪽,
전경구, 2007: 53에서 재인용.

- '인디언이 곰을 잡는 법'에서 곰은 어떻게 행동하였나요?
- 곰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했으면 죽지 않았을지 이야기해 본다.
- ◎ 폭력적인 대응의 악영향 생각해보기
- 갈등상황에서 폭력적으로 대응하였을 때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일(변화)을 이야기해 봅시다.

2. 생각 펼치기

◎ 친구와의 갈등 상황이 폭력으로 번진 경험 생각해보기  활동지 1

- 친구에게 화가 났던 상황, 또는 내가 친구를 화나게 했던 상황을 쓰고 그 때에 어떻게 대응하였는지 써 봅시다.
- 내가 왜 그렇게 대응하였는지 쓰고, 그 당시의 내 기분은 어떠하였으며, 친구의 기분이 어땠는지 써 봅시다.
- 그래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써 보고, 폭력적인 대응 말고 다른 해결책이 있었을지 생각해 봅시다.

◎ 발표를 통해 친구의 경험 공유하기

- 친구들의 발표를 들으며 갈등 상황에 놓인 두 사람이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생각해 봅시다.

3. 활동하기

◎ 폭력의 속성 생각해보기(참고자료)

- ‘폭력은 소용돌이와 같아요.’에 나타나 있는 폭력의 속성은 무엇인가요?
- 명언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는 무슨 뜻일까요?
- ‘뿌린대로 거두리라’ 사진에 나타난 폭력의 속성은 무엇인가요?
- ‘화 내는 것도 습관이에요’에 나타난 폭력적인 행동의 특성은 무엇인가요?
- 지금까지 이야기한 폭력의 속성과 관련된 자신의 경험이나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 ‘대학살의 신’ 영화 관람하기

- 영화에 드러나는 사건의 발단은 무엇이었나요?
- 폭력의 속성을 정리하여 봅시다.

4. 생활에 적용하기

◎ 폭력과 관련된 명언 찾기

- 폭력의 속성을 생각해 보면서 폭력의 악영향과 문제를 알릴 수 있는 명언을 만들어 봅시다.

◎ 이번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과 다짐 발표하기

- 오늘 활동을 통해 느낀 점과 앞으로 여러분의 다짐을 이야기해 봅시다.

• 활동지1

나는 어떻게 대응하였나요?

친구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친구와의 갈등 상황이 폭력으로 번진 상황을 써 봅시다.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폭력적인 대응 방법 말고 다른
해결책을 생각해 봅시다.

Ⅲ. 참고 자료

1. 학습 자료

<폭력은 소용돌이와 같아요>

급류에서는 미친 듯이 빠르게 빙글빙글 도는 물살의 소용돌이가 일어나곤 합니다. 멀리서 보면 작은 회오리처럼 보여서 쉽게 건널 수 있을 것 같지만, 한번 그 소용돌이에 휩쓸려 들어가면 다시는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움푹 파인 깊은 밑바닥으로 점점 더 빨려 들어가 죽게 됩니다. 아무리 뛰어난 수영 선수라고 헤엄쳐 나올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한 소용돌이입니다. 그러한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 밖에 없습니다. 처음부터 소용돌이에서 멀찌감치 떨어지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거만하게 째려보면 그 사람은 반발심에 휩싸여서 '흥!'하고 비웃습니다. 비웃음을 당한 사람은 험한 욕설을 툭 내뱉지요. 그러고는 순식간에 서로 밀고 당기는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몸싸움을 하다 보면 누군가 따귀를 냅다 때리게 되고, 따귀를 맞은 사람도 그냥 참을 수가 없으니 온 힘을 다해 주먹질을 해 댑니다. 그 주먹질에 얼굴을 세계 얻어맞은 사람은 즉시 돌멩이라도 집어 들게 되고....

아무리 사소한 폭력일 지라도 한번 이끌려 들어가면 점점 악화될 뿐 빠져나오기 불가능해 집니다. 끌려들지 않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폭력이라고 느껴지면 멀찌감치 물러나는 게 좋겠지요.

출처 : 브리지트 라베·미셸 뤼엑, 2007: 13-14

<화내는 것도 습관이에요>

어떤 열두살 짜리 소년이 있었어요. 그 소년은 아버지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었어요. 어렸을 적에 가령 길을 가다가 넘어져서 다친다든가 하는 실수를 저지르면 아버지는 아들을 위로하기는커녕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온갖 욕설을 퍼부었어요. “이 바보 같은 놈! 넌 어떻게 하는 짓이 늘 그 모양이지?” 고작 길을 가다가 넘어져서 다친 정도의 실수를 갖고 것처럼 험악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 그 소년은 그의 아버지를 자상하고 훌륭한 아버지라고 생각할 수 없었어요. 그 소년은 이 다음에 커서 결혼을 하고 자식들을 갖게 되면 자신은 절대로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어요. 아들이 놀다가 다쳐서 피를 흘리더라도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지 않을 것이며, 아들을 품에 안아서 위로해 줄 것이라고 다짐했어요.

어느날 그 소년은 여동생을 데리고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동생이 다른 친구들과 그물 침대에서 놀다가 떨어진 거예요. 돌맹이에 머리를 부딪쳐서 얼굴에 피가 철철 흘렸지요. 갑자기 소년은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소년은 여동생에게 “바보 같은 계집애! 넌 어떻게 하는 짓이 늘 그 모양이지?”라고 소리 지르려고 했어요. 아버지가 소년에게 했던 말을 여동생에게 하려고 했던 것이예요. 그런데 그 순간 평소에 화를 참는 수련을 해온 덕에 소리를 지르는 대신에 얼른 그 자리에서 벗어나 심호흡과 걷기를 했어요.

그 동안 다른 사람들이 여동생을 도와주었어요. 그리고 그 소년은 깨달았어요. 소년이 여동생이 다쳤을 때 보인 그런 과민 반응은 바로 그가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습관적인 것이라는 것을요. 그는 아버지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소년은 아버지의 행동을 싫어하며 자신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지만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습관적 에너지가 너무 강해서 아버지와 똑같은 사람이 될 뻔했어요.

소년은 이러한 깨달음을 얻게 된 뒤 이러한 나쁜 습관을 자기 자신에게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이 변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화를 참는 수련을 하었어요. 그리고 아버지 역시 누군가로부터 전염된 희생자였으리라는 생각을 하게 되자 아버지에 대한 화가 사라졌어요.

출처 : 틱낫한, 2002: 46-49

★ 부모님이나 형제들이 화가 났을 때 하는, 내가 싫어하는 행동들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고 있지는 않나요?

★ 나의 화를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고 폭력적으로 행동하는 습관이 내 동생이나 내 친구들에게, 나중에 나의 아들, 딸들에게 전염된다면 어떨까요?

- 'What goes around, comes around(뿌린대로 거두리라)'



출처: 이제석 광고연구소 홈페이지 <http://www.jeski.org/>

<4억 배상 '어른 싸움' 된 학교폭력, 아이는...>

5년전 동급생들에게 맞아 왼쪽 성장이 멈춰버린 14세 정우

수술해도 정상생활 가망 없는데...

가해자 부모는 재산 명의 넘긴 채 "배상 능력 없다" 개인회생 신청

초등학생들의 학교폭력에 아홉 살 소년은 반신불수가 됐다. 소년의 가정은 풍비박산이 났다. 결국 법원이 가해 학생의 부모에게 배상금 지급을 명령했지만 가해 학생 부모는 재산 명의를 바꾸고 '돈이 없다'며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정우네 가족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후략>

동아일보 2012.9.6. 신광영 기자

<http://news.donga.com/3/all/20120906/49149051/1>

<어른 싸움으로 변진 초등생 학교폭력>

울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학교폭력이 어른 싸움으로 변지자 지역사회의 우려를 낳고 있다.

울산남부경찰서는 울산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A군이 대리인인 어머니를 통해 지난 수년간 또래 초등학생 7명에게 폭행 등을 당했다는 고소장을 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고소장에는 지난해와 올해 같은 학교에 다니는 또래 B군 등에게서 돈을 빼앗기고 폭행 등을 당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고소장에는 A군이 갈취와 폭행 등을 당한 사례가 구체적으로 명기돼 있다.

A군은 안정이 필요해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에 앞서 지난달 A군의 먼 친척(32·남)이 "왜 A군을 괴롭히느냐"며 B군을 폭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아이 싸움이 어른 싸움으로 변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친척은 현재 상해 혐의로 경찰에서 불구속 입건돼 검찰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나이가 어려 신중하게 조사할 계획"이라며 "경찰서장이 직접 지휘하는 합동수사팀을 꾸려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학교 측의 한 관계자는 "지난달 A군의 친척이 B군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를 열어 사건을 마무리했다"며 "그런데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매일신문 2011.12.31. 연합뉴스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76601&yy=2011

2. 참고 문헌

전검구(2007). 똑똑하게 화를 다스리는 법. 경기 : 21세기북스

리사앵겔하트 글·R.W. 엘리 그림(노은정 역, 2003). 그건 옳지 않아! 서울 : 비룡소.

브리지트 라베·미셸 뫼엑(김경은 역, 2007). 폭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서울 : 소금창고.

턱낫한(최수민 역, 2002). 화. 서울 : 명진출판.

이제석 광고연구소 홈페이지 <http://www.jeski.org/>

영역	신체 폭력	대상	초등 고학년	시간	60분
학습 주제	한 박자 쉬고!				

I. 이 수업에 대하여

1. 개요

급격한 성장으로 인해 점차 강한 신체적 폭력에 노출되기 시작하는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에게는 자신의 분노와 화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학교 폭력이 발생하는 초기 상황에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학생 자신의 마음의 평화와도 관련이 있다. 이 차시를 통해 비폭력적인 갈등 해결의 필요성을 알고 갈등 상황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도록 한다.

2. 목표

- 비폭력적인 갈등 해결 방법에 대해 알 수 있다.
- 갈등 상황 속에서 평화적 해결 방법을 생각해 실천하고자 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다.

3. 준비물 - 읽기자료, 도화지, 색연필

4. 학습 내용

단 계	내 용
생각 열기	화가 났을 때 자신의 행동 돌아보기
생각 펼치기	화가 났을 때 비폭력적인 대응의 좋은 점과 필요성 알기
활동하기	모둠 토의하기
생활에 적용하기	갈등 상황에서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여 평화롭게 생활하는 태도 기르기

5. 유의 사항

- 갈등상황을 겪거나 화가 났을 때, 그것을 속으로 삭히거나 모른 척 피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감정을 다스리고 갈등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알게 한다.

II. 수업 과정안

1. 생각 열기

- ◎ 화가 날 때 나의 행동과 감정의 변화 생각하기
 - 화가 날 때 자신의 신체의 변화나 감정의 변화, 생각의 변화 등을 생각하여 이야기해 봅시다.
- ◎ 「화가 나면 우리는 괴물이 되요」 읽고 생각하기
 - 화가 날 때 나타나는 우리의 몸의 변화는 무엇이 있나요?
 - 화가 날 때의 변화를 자신의 경험과 연결지어 이야기해 봅시다.
 - 틱날탄의 말은 무슨 의미인가요?
 - 화를 제대로 조절하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2. 생각 펼치기

- ◎ 갈등 상황에서 폭력적인 대응의 문제점 생각하기
 - 갈등 상황에서 폭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 ◎ 「간디」 일화를 읽고 비폭력적 대응의 중요성 생각해보기
 - 간디는 영국의 폭압에 대응하여 어떻게 행동하였나요?
 - 화가 났을 때, 갈등 상황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유익한 결과를 만들어 낼까요?
 - 간디의 마지막 말의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3. 활동하기

- ◎ 모둠 토의하기
 - 화가 났을 때, 갈등이 생겼을 때 폭력적인 대응 대신 할 수 있는 일을 토의해 봅시다.
- ◎ 토의 결과 공유하기
 - 모둠 토의 결과를 발표하여 방안을 공유하여 봅시다.
- ◎ 화가 났을 때 반격 대신 할 수 있는 일 더 알아보기
 - 「화가 났을 때 반격 대신 할 수 있는 일」을 보며 갈등 상황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4. 생활에 적용하기

◎ 나의 다짐 공언하기

- 오늘 이야기한 여러 가지 방법 중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고 마음에 새겨 봅시다.
- 친구들 앞에서 자신이 실천할 방법을 공언하여 봅시다.

◎ 후속 점검 : 자신의 실천 경험 공유하기

- 3일 뒤, 화가 나는 상황에서 폭력적인 대응 대신에 화를 조절하여 지혜롭게 넘긴 경험을 이야기해 봅시다.

Ⅲ. 참고 자료

1. 학습 자료

<화가 나면 우리는 괴물이 돼요>

친구와 갈등이 생겨서 화가 나면 자신도 모르게 큰 소리가 나오고 짜증섞인 목소리로 욕을 하게 되고 친구를 때리게 돼요. 평소에는 괜찮은데 누군가 자신을 화가 나게 하면 돌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친구에게 욕을 하고 물건을 던지기도 하고 주먹으로 책상이나 벽을 치기도 해요. 또는 친구를 때리기도 하지요.

하지만 화가 난 상황이 지나고 나면 자신이 왜 그랬나 싫어져요. 이것은 화가 났을 때 우리 몸이 변하기 때문이래요. 화가 나면 우리의 근육과 팔다리로 엄청난 에너지가 쌓이게 되어서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변하고, 또 신경이 날카로워 지게 되면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게 돼요. 내가 화가 났을 때 누가 주변에서 조금만 뭐라 그러면 화가 더 나잖아요. 평소에는 화내지 않을 일인데도 말이에요. 너무 화가 나서 책상을 주먹으로 치는 경우도 있어요. 몸에 쌓이게 된 엄청난 에너지를 밖으로 내보내는 것인데, 정상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장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났을 때 저지른 행동이 앞으로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줄 지, 친구에게 어떤 영향을 줄 지 생각할 수 없게 돼요.

“화나는 감정을 통제하라. 안 그러면 그것이 너를 통제할 것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화가 나게 되면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바로 ‘화’나는 감정이예요.

이렇게 ‘화’에 따라 움직이면 주위의 소중한 것이 파괴되어 버려요. 우리는 우리의 화를 잘 다스리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해요. 그것은 우리의 의지,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밭이다.

그 안에는 기쁨, 사랑, 즐거움, 희망과 같은 좋은 씨앗이 있는가 하면

미움, 절망, 좌절, 시기, 두려움 등과 같은 나쁜 씨앗이 있다.

어떤 씨앗에 물을 주어 꽃을 피울 지는 자신의 의지에 달렸다.

-틱낫한-

출처 : 틱낫한, 2002: 5; 강영진, 2009: 249

<간디>

간디는 작고 겁 많고 수줍음을 타는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는 어른이 되고 나서야, 영국의 지배 아래 재산과 자유를 빼앗긴 조국 인도의 비참한 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간디는 자신의 조국 인도의 독립을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그 즈음에 제1차 세계대전에 참여하고 있던 영국 정부는 간디에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면 인도를 독립시켜 줄 테니, 전쟁에 나가 싸울 사람들을 모아 주시오.”

간디는 그 약속을 믿고 영국을 돕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인도 사람들이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도 영국은 인도를 독립시켜 줄 생각은 없었고, 간디는 배신감과 자신의 어리석음에 괴로워했습니다.

인도 사람들도 영국의 배신에 불만을 표시하기 시작하면서 여기저기서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영국은 인도를 독립시켜주기는 커녕 악법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영국의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는 인도 사람은 재판 없이 감옥에 가두겠다’는 법이었습니다. 간디는 분노하였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영국의 지배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총파업*으로 대항해 조국 인도의 독립을 이룩합니다.”

파업은 성난 파도처럼 전 인도로 퍼져 나갔습니다. 그러자 영국 군대가 항거하는 인도 시민들에게 총을 쏘아 379명이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쳤습니다.

간디는 자신의 잘못으로 수백명의 형제가 죽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간디는 투쟁 방식을 바꾸어 영국이 만든 모든 법과 제도를 거부하고, 영국에서 만든 제품을 쓰지 않는 ‘불복종 운동’을 벌이기로 하였습니다. 폭력적인 시위 대신에 스스로 필요한 물건은 만들어 쓰며 영국에 복종하지 않는 ‘비폭력 불복종 운동’이었습니다.

이 운동이 시작되고 1년이 지난 어느 날, 영국산 제품들을 불에 태우면서 인도인들의 성난 마음에도 다시 불이 지펴졌습니다. 결국 인도의 한 작은 마을에서 성난 인도 사람들이 폭력을 휘두르는 영국 경찰을 잡아 죽이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인도는 긴장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폭력의 위험성을 너무도 잘 아는 간디는 크게 놀랐습니다.

“비록 우리가 얻은 것은 없지만, 폭력 저항은 중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반발이 뒤따랐습니다.

“무슨 말이오. 계속 싸워야 합니다!”

“간디는 배신자다, 비겁자다.”

간디는 비난을 당하면서도 폭력적인 저항은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폭력은 더 큰 폭력을 부를 뿐입니다. 오로지 비폭력 투쟁만이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간디는 영국의 폭력에 폭력적인 저항으로 맞서지 않고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대항하여 영국정부 만든 부당한 법을 바꿨습니다. 간디는 인도 독립 운동의 위대한 지도자이자 정신적인 스승이었습니다.

“나는 비폭력이 폭력보다 무한히 우위에 있음을, 용서가 처벌보다 훨씬 큰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출처 : 조영권, 2005

<화가 났을 때 폭력적인 대응 대신 할 수 있는 일>

화가 나면 우리는 화가 나는 감정을 밖으로 내보이려고 해요. 친구에게 욕을 하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것으로 말이에요. 화가 났을 때 친구에게 반격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화가 많이 난 상태에서는 가급적 말을 하지 않아요. 화가 날 때는 말하기 전에 열까지 세요. 화가 아주 많이 날 때는 백까지 세요. 내가 화가 났다고 해서 듣는 사람의 기분을 생각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말하게 되면 듣는 사람의 마음에 크게 상처를 남길 수 있어요.

2. 화가 나서 근육과 팔다리에 쌓인 나쁜 에너지를 풀어줘야 해요. 그 에너지를 친구에게 퍼붓는 대신에 달리기, 뛰기, 피아노 치기, 걷기, 일하기 등으로 풀 수 있어요. 가끔 엄마들이 화가 났을 때 말도 안하시고 설거지를 하거나 빨래를 하거나 열심히 집안 청소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 어머니께서 마음 속에 있는 나쁜 에너지를 현명하게 풀기 위해 노력하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3.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감동적인 영화 보기, 좋아하는 책과 시 읽기 도 도움이 돼요. 화가 나서 정상적이지 않은 내 감정으로 풀고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게 돼요. 또한 내가 좋아하는 친구에게로 가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좋

은 방법이에요. 단, 이때 좋아하는 친구에게 내 화를 풀면 안되겠지요. 그럼 내 친구가 상처받을 거예요.

4. 내 마음이 편해져서 내 몸과 정신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면 갈등이 생긴 친구와 풀어야 해요. 나는 그 친구의 어떤 말이나 행동 때문에 화가 났으니 앞으로 이런 일이 없기 위해서는 이야기를 해야 겠지요. 분노를 표현하지 않고 “괜찮아, 화 안 났어.”라고 이야기 하면 마음 속에 화가 쌓이게 돼요. 왜 나에게 그런 말이나 행동을 했었는지 물어보고 내 감정을 전달해 보세요. “내가 ~해서 화가 나고 기분이 좋지 않았어. 다음부터는 ~ 해주었으면 좋겠어.”

5. 화가 나면 거울에 자신의 얼굴을 비춰 봐요. 화가 났을 때는 얼굴이 일그러지고 남에게 보여주기 부끄러운 얼굴이 돼요. 화가 나면 얼굴에 있는 근육들이 긴장해서 굳어지거든요. 내 얼굴이 곧 폭발하려고 하는 폭탄처럼 보이고 매우 흥해 보여요. 거울을 보며 차분하게 숨을 깊게 들이쉬고 미소를 지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6. 화가 났을 때 남의 탓을 하지 않아요. 많은 친구들이 어떤 친구 때문에 내가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친구도 고통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내가 또 그 친구를 공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친구에게 고통을 주면, 그 친구도 자기가 당하는 고통을 덜어보려고 더욱 험한 말이나 행동을 하게 돼요. 자꾸 앙갚음을 하려고 하면 내 고통도 점점 늘어날 거예요. 친구를 응징하는 것은 곧 스스로를 응징하는 것이에요.

7. 내가 친구를 미워하면 나도 미움 받는다는 사실을 떠올려요. 화가 날 때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고 욕을 하거나 폭력을 휘둘렀어요. 화를 나쁜 방향으로 내보이면 내 주위에는 나쁜 기운들이 생겨나요.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그것을 느끼면 나를 좋아할까요? 나는 친구들에게 폭력적으로 행동하면서 남들은 나를 좋아하기를 바랄 수는 없어요.

8. 나를 화나게 한 친구에게 친절하게 대해보세요. 물론 그것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 노력해보세요. 이러한 행동은 친구를 놀라게 할 뿐만 아니라 내 마음 속에서 그 친구에 대한 미움을 가라앉히고 마음을 너그럽게 해 줍니다.

출처 : 틱낫한, 2002; 앨런 L. 빈, 2008: 37; 강영진, 2009

2. 참고 문헌

- 강영진(2009). 갈등해결의 지혜. 서울 : 일빛.
- 문재현(2012). 학교 폭력, 멈춰!. 서울 : 살림터.
- 전겸구(2007). 똑똑하게 화를 다스리는 법. 경기 : 21세기북스
- 조영권(2005). 비폭력 저항의 아버지 간디. 서울 : 웅진씽크빅.
- 턱낫한(최수민 역, 2002). 화. 서울 : 명진출판.
- 앨런 L. 빈 저(이규미·지승희 역, 2008). 괴롭힘 없는 교실 만들기. 서울 : 시그마프레스.

* 영 역 : 신체 폭력 예방

* 학교급 : 중·고등학교

* 주요 내용

- ① 학생들 사이에도 약취, 유인, 감금은 나쁜 범죄입니다.
- ② 우리 손으로 만들어 보아요.
- ③ 학교폭력 신고, 두려워 말아요!
- ④ 역할 바꿔 생각해 봐!
- ⑤ 모든 생명은 소중해요.
- ⑥ 너와 나, 우리! 자존감을 갖자

영역	신체 폭력	대상	중학생	시간	45분
학습 주제	학생들 사이에도 약취, 유인, 감금은 나쁜 범죄입니다.				

I. 이 수업에 대하여

1. 개요

약취는 훔치거나 빼앗아서 갖거나 폭행, 협박 등의 수단으로 다른 사람을 자기 또는 제삼자의 실력적 지배하에 두는 것입니다. 감금은 강제로 사람을 가두는 것입니다. 범죄가 발생하면 약취와 유인, 감금은 동시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평소 생활에서도 누구나 이러한 행위를 할 수 있음을 알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2. 목표

- 생활에서 사소한 약취, 유인, 감금도 범죄가 됨을 이해한다.
- 일상생활에서 약취, 유인, 감금 행위 등을 예방하는 태도를 기른다.

3. 준비물

- 학습 활동지, UCC 동영상, 약취, 유인, 감금 대한 사회적 사건 및 학교 사례 (수업자료 PPT) 등

4. 학습 내용

단 계	내 용
생각 열기	약취, 유인, 감금의 의미 알아보기
생각 펼치기	학교에서 사소하게 일어날 수 사례 알아보기
활동하기	약취, 유인, 감금 역할극 하기
생활에 적용하기	약취, 유인, 감금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인식하고 실천하기

5. 유의 사항

- 약취, 유인, 감금은 서로 동떨어진 개념이 아니라 범죄가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동시에 관련되어 있음을 이해시킨다.
- 평소 생활에서도 약취, 유인, 감금과 관련된 행위를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례를 강조하여 지도한다.

II. 수업 과정안

1. 생각 열기

◎ 폭력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이야기 해 봅시다.

- 언어폭력, 사이버 폭력, 신체폭력, 성폭력, 왕따 등

◎ 약취, 유인, 감금의 의미를 이해하기

- 약취: 타인의 물건을 빼앗거나 폭행, 협박 등의 수단으로 다른 사람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하에 복종시킴

- 유인: 주의나 흥미를 유발하여 꾀어 이끌어 부당한 일에 참여시킴

- 감금: 사람을 강제로 일정한 곳에 가두어 드나들지 못하게

- 약취, 유인, 감금은 각각 범죄가 되지만, 보통 범죄가 발생되면 유인과 감금이 병행해서 일어나게 되고 동시에 약취와 관련한 범죄까지 발생할 수 있다. (예컨대 유괴, 납치 감금, 유괴를 하고 금품을 요구하는 일 등)

2. 생각 펼치기

◎ 학교에서 사소하게 일어날 수 있는 약취, 유인, 감금 등의 일 알아보기

1) 약취와 관련된 행위

- 친구의 물건을 빌리고 돌려주지 않음.
- 친구의 금품을 협박하여 강제로 빌림.

2) 유인과 관련된 행위

- 싫어하는 친구를 꾀어 부당한 일에 함께 동참함.
- 부당한 일에 친구를 동참시키고 조정하면서 자신은 빠져나옴.

3) 감금과 관련된 행위

- 친구를 일정한 장소에 가두고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시킴.
- 친구의 자유로운 행동을 제한하고 억압함.

◎ 평소에 소홀히 생각하여 약취, 유인, 감금 등과 유사한 행동을 했던 자신의 경험이나 사례를 발표해 봅시다.

- 자신이 물건을 빼앗긴 경험이나 본 경험
- 친구를 꾀어 부당한 일을 한 경험이나 본 경험 등

3. 활동하기

<약취, 유인, 감금과 관련된 역할극 하기>

◎ 역할극 계획하기

- 4~5명이 한 모듬이 되어 역할 정하기
- 약취, 유인, 감금 가운데 하나의 주제를 정하기
- 빼앗기거나 감금당하는 상황을 설정하기
- 피해자와 가해자의 입장을 바꾸어서 해보기

◎ 역할극 실행하기

- 약취, 유인, 감금을 당하는 타인의 마음 이해하기

◎ 평소에 무심코 일어나는 약취, 유인, 감금에 대한 토론하기

- 평소에 학교에서 쉽게 생각했던 약취, 유인, 감금에 해당하는 행동을 반성하기

◎ 학교에서 약취, 유인, 감금을 완전히 추방하기 위한 방안을 이야기하기

- 친구의 몸과 마음, 물건 존중하는 마음 갖기
- 오해받을 행동하지 않기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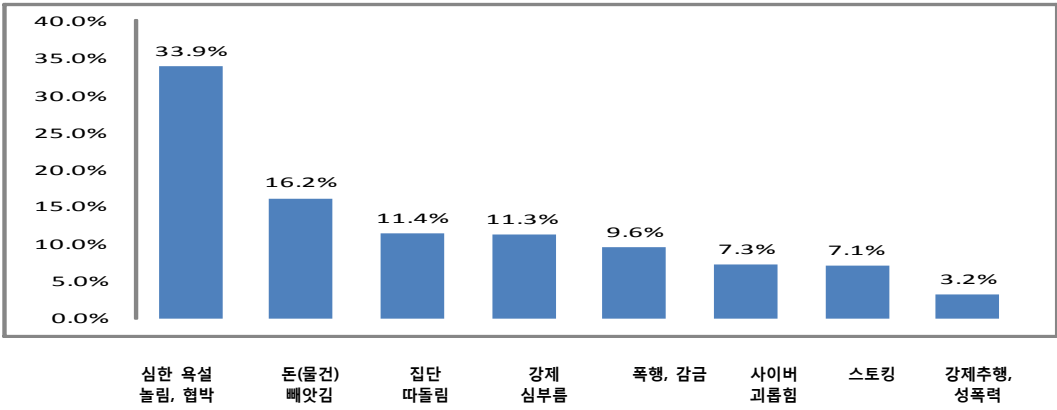
4. 생활에 적용하기

◎ 평소 학교생활에서 약취, 유인, 감금 등에 해당하는 유사한 행동과 사례를 더 알아보기

◎ 타인에 대한 약취, 유인, 감금 등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명확하게 갖고 생활에서 실천하기

• 활동지1

◆ 다음의 학교 폭력 유형별 피해 경험에서 약취에 해당하는 비율을 알아보고 줄이기 위한 방안을 토론해 보자.



출처: 학교폭력실태조사결과(제4차학교폭력대책위), 국무총리실.

◆ 약취, 유인, 감금과 관련된 역할극을 하고 그 때의 느낌을 써 보시오.

유형	역할극에서 느낌
약취를 당했을 때	
유인을 당했을 때	
감금을 당했을 때	

◆ 학교에서 은연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약취, 유인, 감금의 사례를 정리해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 보시오.

유형	학교생활에서 나타나는 방식	해결하기 위한 방안
약취		
유인		
감금		

Ⅲ. 참고 자료

○ 피해 유형별 발생 빈도 및 지속기간

발생 빈도	6개월 1-2회	한달 1-2회	1주일 1-2회	거의 매일	계	1차
폭행·감금	5.5%	1.6%	1.4%	1.1%	9.6%	10.4%
물건(돈) 빼앗김	12.2%	2.4%	1.1%	0.5%	16.2%	12.8%
강제 심부름	7.3%	2.2%	1.2%	0.6%	11.3%	7.1%
심한 욕설·놀림·협박	18.8%	6.1%	5.1%	3.9%	33.9%	37.9%
강제추행·성폭력	1.8%	0.5%	0.4%	0.5%	3.2%	5.2%
지속 기간	1개월	2-3개월	4-5개월	6개월 이상	계	1차
집단 따돌림	6.8%	2.1%	0.8%	1.7%	11.4%	13.3%
사이버 괴롭힘	5.5%	0.9%	0.3%	0.6%	7.3%	13.3%
스토킹	4.6%	1.1%	0.4%	1.0%	7.1%	-
총 계	62.5%	16.8%	10.7%	9.9%	100%	100%
			1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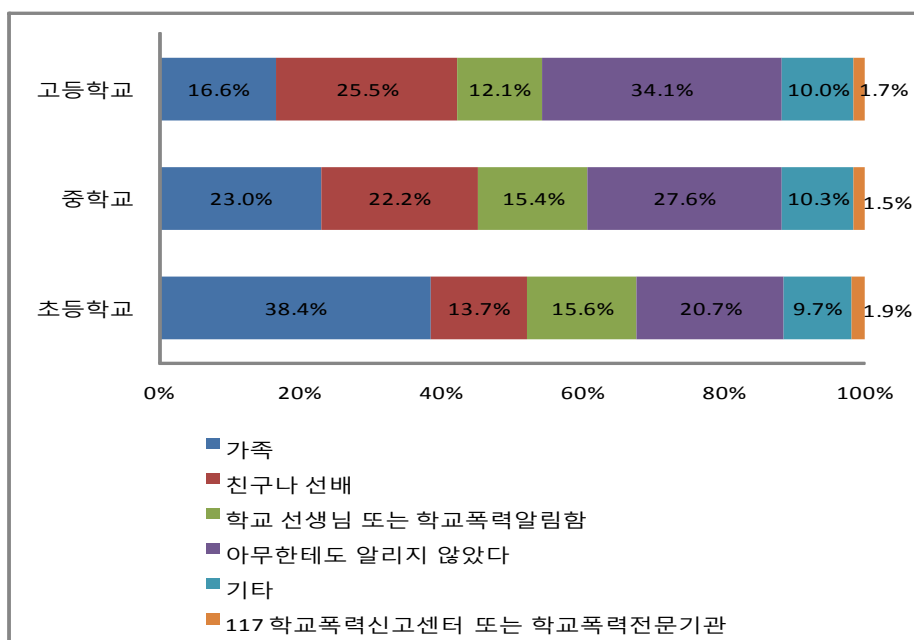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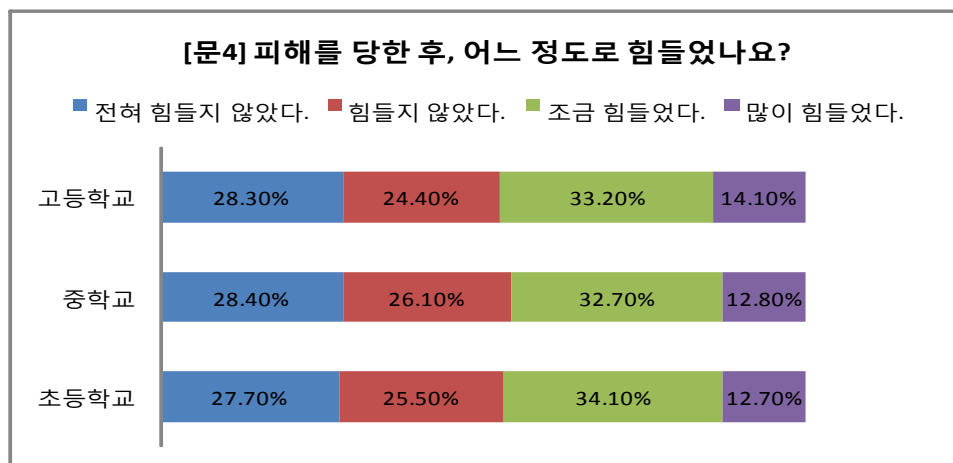
○ 피해 장소

학교 안	2차	1차	학교 밖	2차	1차
교실 안	41.7%	25.0%	학원이나 학원 주변	3.9%	3.5%
운동장	3.4%	5.9%	오락실, PC방, 노래방	3.5%	2.9%
화장실	2.2%	9.6%	놀이터, 공원, 동네골목, 뒷산 등	5.3%	3.1%
복도	5.4%		사이버공간(인터넷, 이메일, 휴대폰)	5.7%	7.7%
기숙사	0.8%	-	우리집(친구집)	1.8%	-
학교 내 다른 장소	8.1%	7.5%	계	20.2%	17.2%
계	61.6%	48%			

○ 피해 시간

피해시간	응답율	피해시간	응답율
등교시간	1.3%	하교시간	5.8%
쉬는시간	37.7%	하교시간 이후	17.6%
점심시간	8.7%	기타	22.1%
수업시간(방과후수업 포함)	6.9%		

○ 피해에 대한 학생인식(%)



영역	신체 폭력	대상	중학생	시간	45분
학습 주제	우리 손으로 만들어 보아요.				

I. 이 수업에 대하여

1. 개요

학교생활을 하다보면 사소한 말싸움에서 시작하여 몸싸움까지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학생들 스스로 교칙을 만들고 이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교실 안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들을 되짚어보고, 죄의 경중에 따라 상벌을 제시하는 ‘학생자치법정’을 실시해보도록 한다.

2. 목표

- 학교 폭력·신체 폭력의 의미와 문제점을 알 수 있다.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다.

3. 준비물

- 싸움을 하는 학생들과 법정의 모습, 그리고 보호소 모습이 담긴 사진

4. 학습 내용

단 계	내 용
생각 열기	싸움을 하는 학생들, 면회소의 모습, 형무소의 사진 등을 보여 주며 어떤 느낌이 드는지 확인하기
생각 펼치기	학교폭력의 정의와 특징, 학교폭력과 관련된 법에 대해 설명하기
활동하기	학생자치법정에 대한 설명과 함께 신체폭력을 줄이기 위해 학생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 만들어보고, 최근에 규칙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학생이 있다면 학생 자치법정 실시하기
생활에 적용하기	자치법정에 참여한 학생들의 소감 및 앞으로의 다짐 확인하기

5. 유의 사항

- 활동 시 학생들이 소란스러워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 학생들이 신중하게 교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한다.
- 규칙위반학생에 대한 인격모독 혹은 마녀사냥식 법정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II. 수업 과정안

1. 생각 열기

◎ 사진을 보며 드는 느낌 말하기

👉 활동지 1

- 다음의 사진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 여러분의 만약 이 상황에 처해있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2. 생각 펼치기

◎ 학교폭력의 정의와 특징 설명하기

- 학교폭력의 정의란 무엇일까요?
- 학교폭력의 특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해요.

< 학교폭력의 정의 >

학교폭력이라 함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간에 발생한 폭행, 협박, 따돌림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 제 2조 1항)

< 학교 폭력의 특징 >

- 장난이라도 피해학생에게는 큰 후유증을 남김
- 일부러 또는 아무 이유 없이
- 반복적, 지속적, 의도적, 계획적
- 힘으로 인정받은 학생이 약하고 소외된 학생을 괴롭히는 것.

◎ 신체폭력의 정의와 범위

- 신체폭력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해요.

< 폭행죄 >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 고소·증언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폭행, 야간 또는 2인 이상이 폭행한 경우는 가중처벌됨.

구타, 밀치는 행위, 손·옷을 세차게 잡아당기는 행위,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 좁은 공간에서 흥기를 휘두르는 행위, 돌을 던지는 행위, 수염이나 머리카락 절단 등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음.

- 다음의 사례는 신체폭력에 해당할까요?

👉 활동지 2

3. 활동하기 : 자치 법정

- ◎ 신체폭력을 줄이기 위해 학생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 제정하기  활동지3
- 학교 안에서 신체폭력이 발생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을 제정해보도록 해요.
- 모둠별로 제정한 규칙들 중에서 좋은 의견들을 투표로 선정하여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들을 확정해 보도록 해요.

(* 선택사항 - 2차시로 수업 진행시 사용)

◎ 자치법정 실시하기

-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규칙을 확인해봅시다.
-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규칙에 위반했던 학생들 손을 들어봅시다.
- 약속한 것에 따라 자치법정을 열도록 합시다.

<학생 자치 법정 실시를 위해 필요한 것>

* 역할 정하기

- 판사 3명(재판장 1명 포함)
- 변호인 1명
- 검사 1명
- 잘못을 한 학생(피고)

4. 생활에 적용하기

◎ 이번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과 다짐 발표하기

- 오늘 스스로 규칙을 만들어본 소감을 이야기해 봅시다.
- 오늘 활동을 통해 느낀 점과 앞으로 여러분의 다짐을 이야기해 봅시다.

◎ 생활과제 : 학생들이 서로 의견을 모아 제정한 규칙을 준수하기

• 활동지1 - 어떤 기분이 드나요?

사진 1.



영화 《싸움의 기술》 중 한 장면

사진 2.



영화 《부러진 화살》 중 한 장면

사진 3.



영화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중 한 장면

• 활동지2 - 이건 신체 폭력에 해당할까요?



사례 1.

오늘은 영수의 생일입니다. 같은 반 학생들은 생일을 축하해준다는 명목 하에 영수의 발을 밟고 등을 내리쳤습니다.

영수는 고통으로 소리를 지르며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아이들은 웃으며 '너의 생일을 축하해주는 거잖아.'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신체폭력에 해당할까요?

나의 의견: _____

사례 2.

미형이는 반에서 '순딩이'로 불리는 여학생입니다. 미형이 뒤에는 반에서 제일 '잘나가는' 아이라 칭해지는 세희가 앉아 있습니다.

세희는 지난 시간 과제를 깜박 잊고 해오지 않아서 미형이에게 보여달라고 하였으나, 미형이는 과제는 스스로 해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였기에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결국 세희는 과제를 해오지 않았다고 선생님께 혼이 났습니다.

세희는 미형이가 너무 괘씸했습니다. 다음 수업시간 도중, 세희는 가지고 있던 가위로 미형이의 머리카락을 몰래 잘라버렸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신체폭력에 해당할까요?

나의 의견: _____

꼭, 이것만은 지키도록 해요!!

하나, _____
둘, _____
셋, _____
넷, _____
다섯, _____
여섯, _____
일곱, _____
여덟, _____
아홉, _____
열, _____

위 규칙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위 규칙들을 안 지켰을 때에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20__년 __월 __일

이름 :

Ⅲ. 참고 자료

1. 학습 자료

“재판 지켜보며 교내 자치법정 운영 절차 배워”

‘그림자배심원’ 참여한 중학생들

지난 15일 오후 5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어떤 판결을 내려야 할까’를 놓고 중학생들의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서울 성북구의 학생참여위원 25명은 이날 법원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 ‘그림자배심원’으로 참석했다. 대부분은 재판을 처음 보는 학생들이었다.사회>교육·입시<“”>.

최근 학교에서 학생자치가 확대되고 있다. 교칙을 위반한 친구들에 대해 학생들이 스스로 어떠한 징계를 내릴지 결정하는 자치법정이 운영되는가 하면, 학생회를 중심으로 ‘좋은 학교 만들기’ 캠페인을 전개하기도 한다.

서울 성북교육지원청은 자율과 참여 중심의 학생자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번 체험을 추진했다. 직접 재판 과정을 지켜봄으로써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을 높이고 민주적 절차에 대한 신념을 증진시키는 게 목적이다. 성북구 학생참여위원들은 지난 10월에도 학교 교칙을 학생들이 스스로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지 논의하고 캠페인을 벌였다.



서울 성북구의 중학생 학생참여위원 25명이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성북교육지원청 제공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경향신문. 2012년 11월 19일자 기사

2. 참고 문헌

김용수(2012). 알기쉬운 학교폭력, 성폭력. 진원사.

문용린(2007). 무지개속으로 거침없이 미안해~. 청소년폭력예방재단.

_____(2008). 위풍당당 무지개 학교폭력 가해 청소년 선도 프로그램 개발. 청소년 폭력예방재단.

_____(2008). 위풍당당 무지개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 치료 프로그램 개발. 청소년 폭력예방재단.

『부러진 화살』. 정지영 감독. 2011.

『싸움의 기술』. 신한술 감독. 2005.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송해성 감독. 2006.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main.html>

영역	신체 폭력	대상	중학생	시간	60분
학습 주제	학교폭력 신고, 두려워 말아요!				

I. 이 수업에 대하여

1. 개요

학교폭력을 당했거나 목격했다 해도 신고했을 경우 보복의 두려움으로 인해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하여 고통의 고리를 끊지 못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학생들이 있다. 본 수업에서는 학교폭력을 신고해야 하는 이유와 중요성, 학교폭력 신고 방법과 절차를 이해하고 신고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도록 한다.

2. 목표

- 학교폭력을 신고해야 하는 이유와 중요성, 방법과 절차를 이해할 수 있다.
- 학교폭력을 신고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다.

3. 준비물

- 활동지 1, 활동지 2, 네임펜(사인펜), 가위, 뱃지 만들기 재료(버튼 제작기, 핀 버튼 재료)

4. 학습 내용

단 계	내 용
생각 열기	학교폭력 신고를 했던 경험이나, 신고하지 못했던 이유 나누기
생각 펼치기	학교폭력을 신고해야 하는 이유 알아보기 학교폭력 신고 절차와 신고 방법 알아보기
활동하기	학교폭력 신고 관련 홍보물 만들기
생활에 적용하기	학교폭력 신고의 중요성과 방법 홍보하기

5. 유의 사항

- 학교폭력 신고 경험을 이야기할 때에 학생 입장에서 말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대답을 강요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뱃지 만들기 활동의 준비물을 갖추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선택활동으로 대체하여 활동하고, 활동 결과물을 전시하여 학교폭력 신고를 홍보하도록 한다.

II. 수업 과정안

1. 생각 열기

◎ 학교폭력 신고, 할까? 말까?

- 여러분은 학교폭력을 당했거나 목격했을 경우에 신고해본 적이 있나요?
- 신고해본 경험이 있다면 누구에게 또는 어떤 방법을 사용했나요?
- 신고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 학교폭력 보복과 관련된 뉴스 시청하기

- “학교폭력, 보복이 무서워요”(1분 38초)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5&aid=0000040557>

2. 생각 펼치기

◎ 학교폭력을 신고해야 하는 이유 알기

- 학교폭력을 당하거나 목격하였을 때 신고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다음 글을 읽고 생각해봅시다.

<4년 고민한 학교폭력, 신고 2일 만에 해결하다(2012.11.07)>

학교 폭력 원스톱(one-stop) 센터(원스톱 센터)가 지난 3일로 개소 100일을 맞았다. 원스톱 센터가 생기기 전에는 117(학교 폭력 신고전화)로 신고하더라도 수사까지 잘 연결되지 않았다. 학교 폭력 117센터는 단순 신고 접수기관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서울지방경찰청은 신고 접수부터 조사, 사후조치까지 일괄적으로 해결하는 원스톱 센터를 만들었다. 원스톱 센터가 생기자 단순 상담 종결이 91.2%에서 56.7%로 줄어들었고, 수사개시·긴급출동 등 후속조치가 전체 접수 건수 중 8.8%에서 43.3%로 늘었다. 100일간 원스톱 센터는 전체 신고 4205건 중 1821건의 후속조치를 펼쳤다. 하루 18건꼴로 학교 폭력을 해결한 셈이다. 원스톱 센터의 대표적 학교 폭력 해결 사례를 들여다봤다.

● 사례 1 ● "담배 셔틀 안 하면 죽인다" 협박받던 15살 남학생...

4년 고민한 학폭 문제, 신고 2일 만에 해결

김상익(가명·15)군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왕따를 당했다. 가해 학생들은 상익이에게 담배를 사오라고 하고, 안 사오면 '죽인다'는 협박까지 했다. 10월 31일 김군의 어머니 서모(43)씨는 원스톱 센터에 이를 신고했다. "상익이가 불안해하는데, 신고했다가 괜히 더 큰 피해를 보는 건 아니겠조?" 원스톱 센터는 즉시 상익이의 집에 찾아갔다. 상익이는 처음엔 "보복이 두렵다"며 진술을 꺼렸지만, 스쿨폴리스의 지속적인 설득에 결국 자신이 괴롭힘당한 사실을 털어냈다. 이날 오후 서울청 수사팀은 수사에 착수해 학교에 이를 통보했고, 가해 학생들과 상익이를 분리 조사했다. 신고 다음날 가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어머니는 상익이의 집에 찾아와 사과했다. 4년 동안 신고도 못한 채 고민해 온 학교 폭력을 원스톱 센터가 2일 만에 해결한 것이다.

● 사례 2 ● 성적 잘 나왔다고 친한 친구들에게 왕따·폭행당한 외고생...
두 달 걸친 사후관리로 사과 받아

8월 31일 원스톱 센터에 "○○외고 1학년에 다니는 딸이 왕따와 폭행에 시달려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들어왔다. 접수 직후 센터 상담사와 1319 수사팀, 스쿨폴리스가 피해 학생의 집으로 찾아갔다. 강희영(가명·16)양은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가장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로부터 5월부터 왕따를 당했다. 이유는 희영이가 중간고사를 잘 봤기 때문이다. 친구들은 희영이를 화장실로 끌고가 때렸고, 다른 친구들에게도 희영이와 말하지 말라고 왕따를 부추겼다. 경찰은 일단 희영이의 자살 충동을 진정시킨 뒤, 희영이를 인근 신경정신과 병원으로 인계했다. 또 약 두 달에 걸쳐 가해학생들, 학교 담임교사, 같은 반 친구들을 대상으로 심층 상담했다. 가해 학생들은 희영이에게 "미안하다. 질투가 나서 그랬다"며 사과했다.


● 사례 3 ● 왕따 당해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 된 여고생...
가해 학생 반성문, 피해 학생 심리치료

8월 7일 최민정(가명·16)양의 어머니 이모(49)씨는 원스톱 센터에 전화를 걸어 "딸이 집에만 있고 불안에 떠다. 아무래도 학교 폭력 때문인 것 같다"고 신고했다. 그날 저녁 경찰은 민정이의 집을 방문했다. 민정이는 경찰에게 자신이 왜 집 밖으로 안 나가는지 털어냈다. "같은 반 애들이 저더러 '나댄다', '깁친다'면서 따돌렸어요. 학교 애들 만날까봐 무서워 밖에 못 나가겠어요." 민정이는 지속적으로 심리치료를 받고 있고, 스쿨폴리스는 이후 한 달에 한 번꼴로 민정이와 가해 학생들을 만나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민정이는 9월부터 원만한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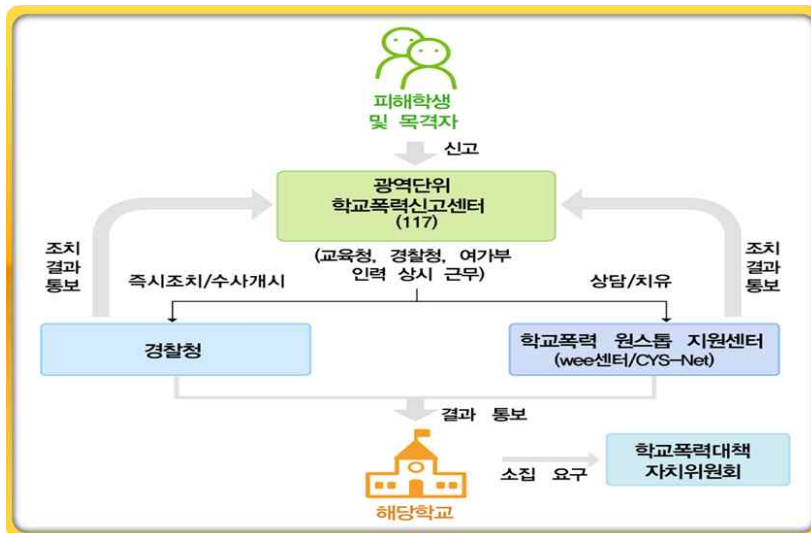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11/07/2012110700151.html

◎ 학교폭력 신고 방법 알기


-학교폭력을 당했거나 목격했을 경우에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보시다.

: 학교폭력 신고 절차 알기  활동지 1 활용

스마트폰을 소지한 학생은 굿바이 학교폭력 앱 다운받기



3. 활동하기 : 홍보물 만들기

◎ 학교폭력 신고 홍보물(배지) 만들기  활동지 2 활용

<학교폭력 신고 홍보물 만들기>

- 학교폭력 신고 배지 만들기

- 준비물 : 학습지, 네임펜(사인펜), 가위, 버튼 제작기, 핀버튼 재료

- 방법

- ① 학습지에 있는 원 모양에 학교폭력 신고와 관련해 홍보하고자 하는 내용을 디자인하고 색칠하기

- ② 디자인 한 것을 가위로 오리기

- ③ 디자인 한 것을 핀버튼 재료와 함께 버튼 제작기에 넣고 제작하기

- 기계로 배지 만드는 방법 설명 및 동영상

<http://blog.naver.com/husksy?Redirect=Log&logNo=157858150>

<http://blog.naver.com/talkactive?Redirect=Log&logNo=100167979232&jumpingVid=672CC66ECC7B3FDB8C0501D2991DD77D6E08>

※ 학교 사정에 따라 배지 만들기가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아래 활동으로 대체

- <선택1> 학교폭력 신고 포스터 그리기
- <선택2> 학교폭력 신고 표어나 캐치프레이즈 만들기
- <선택3> 학교폭력 신고 글짓기
- <선택4> 학교폭력 신고 만화 그리기(6컷, 8컷)
- <선택5> 학교폭력 신고 피켓 만들기
- <선택6> 학교폭력 신고 리플릿 만들기
- <선택7> 좋아하는 가요의 가사를 학교폭력 신고 홍보 내용으로 개사하기

- 자유로운 디자인으로 ‘학교폭력 신고’ 배지를 만들고 학교폭력 신고의 중요성과 방법을 홍보하는 글을 써봅시다.

4. 생활에 적용하기

◎ 홍보물 전시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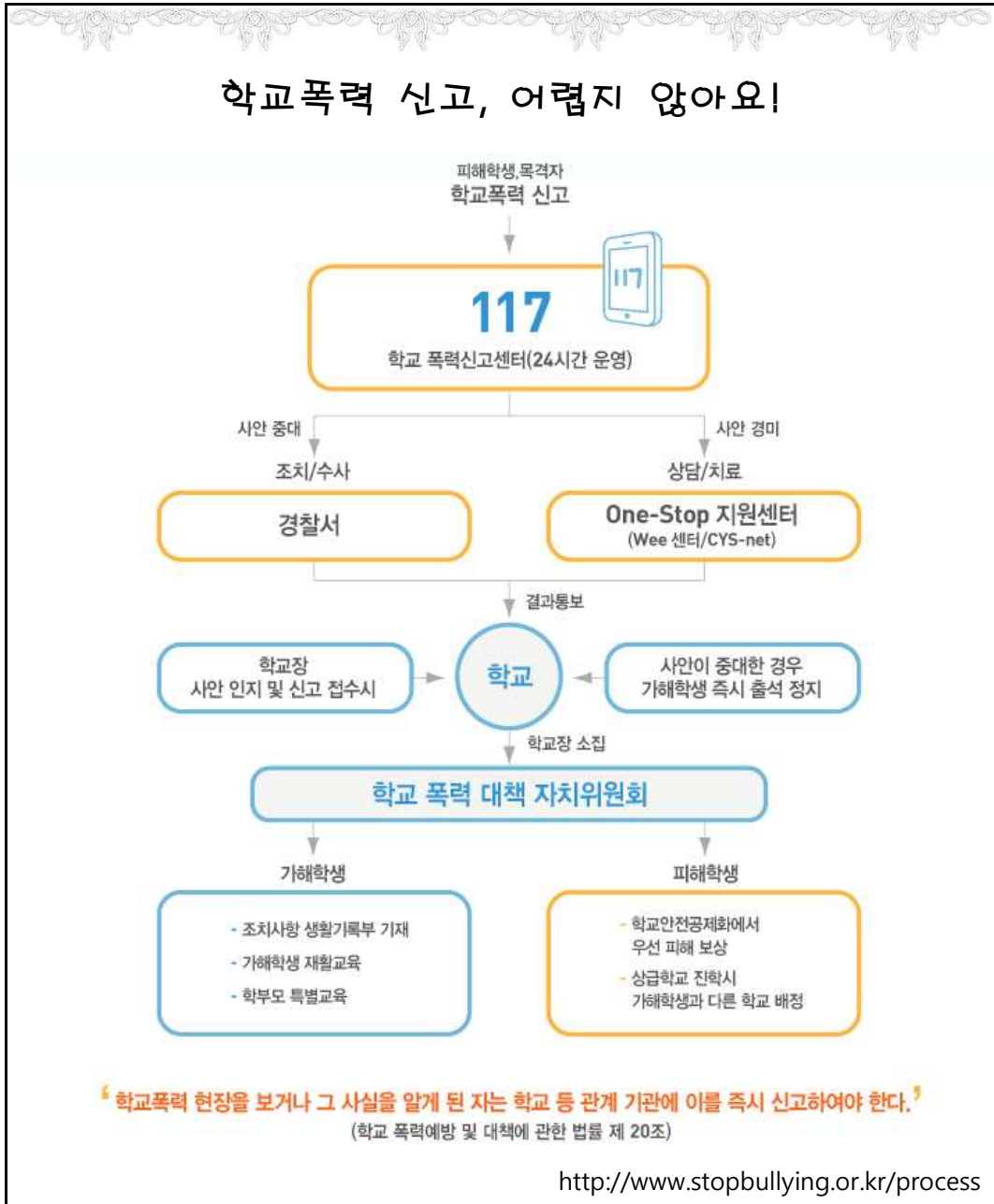
- 여러분이 만든 학교폭력 신고에 대한 홍보물을 학교 곳곳에 전시하고, 학교폭력 신고의 중요성과 방법을 홍보해 봅시다.

◎ 이번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과 다짐 발표하기

- 오늘 활동을 통해 느낀 점과 앞으로 여러분의 다짐을 이야기해 봅시다.

◎ 생활과제 : 학교폭력을 당하거나 목격한 경우에는 보복을 두려워하지 말고 신고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 되기

• 활동지 1



<학교 폭력 원스톱(one-stop)센터>

서울지방경찰청이 흩어져 있던 학교 폭력 관련 기관을 하나로 합친 것으로, 지난 7월 26일 개소했다. 기존 학교 폭력 117신고센터·1319수사팀·스쿨폴리스를 통합해 신고 접수부터 조사, 사후 조치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24시간 대응 체제를 갖췄다. 원스톱센터는 학교 폭력 신고를 하루 평균 42건 접수한다. 현재 경찰 11명을 포함해 직원 24명이 근무한다.

Ⅲ. 참고 자료

1. 읽기 자료

<“알려야 소용없어” 학교폭력 쉬쉬... 38%가 교실에서 발생>

32.5%가 '폭력 피해 후 아무에게 알리지 않았다'

[CBS 조태임 기자] 알려봐야 소용없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피해사실을 주변에 잘 알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9월부터 두 달 동안 전국 중고등학생 15,954명을 대상으로 학교 폭력실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최근 1년 동안 학교 폭력을 당한 비율은 6.7%였으며 폭력 피해 후 대처 방법에 대해서는 '아무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대답이 32.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친구(26%),가족(21%), 선생님(19%)에게 알린다는 응답이 그 뒤를 이었다. 아무에게 알리지 않는다는 응답을 한 중고등학생에게 '왜 알리지 않느냐?'고 묻는 질문에 '알려봐야 소용없으니까'라는 대답이 52%의 높은 수치를 보였다.

폭력 피해 이유로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가 42.5%로 나타나 맹목적으로 폭력이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그 뒤로 '몸이 작거나 힘이 약해서(14%), 성격(10%)등이 이유로 꼽혔다. 상대방에게 폭력을 행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응답이 31%로 두 번째로 높게 나왔다. 폭력을 가하는 이유로는 '상대가 잘못했기 때문'(47%)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돈을 얻기 위해(4%)', '부추기는 분위기에 휩쓸려서(3.5%)' 등으로 학교 폭력이 특별한 이유 없이 우발적으로 이뤄진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학교 폭력을 가장 많이 당하는 곳으로 38%로 교실 안이 꼽혀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을 실감케 했다. 교실 밖(12%)과 동네 골목 (10.5%)이 그 뒤를 이었으며 유흥가는 2%로 비교적 낮은 순위를 차지했다.

누구한테 맞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같은 학교 동료나 선후배가 42%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다른 학교 동료나 선후배가 현저한 격차를 보이며 6%의 비율을 나타냈다. 전혀 모르는 사이인 경우에도 3%를 차지했다.

최초 폭력 연령이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갓 중학교에 입학한 나이에 해당되는 11.4세로 조사됐으며 전년보다 1.5세 떨어졌다. 최근 3년 동안 감소하는 추세라는 점에서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 연령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광역 117신고센터를 개설해 24시간 신고를 접수받도록 할 예정이다. 또 학교폭력 사이버 상담소를 적극 활용하고 다양한 학생들이 또래 상담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다방면으로 학교폭력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계획이다.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7446460&ctg=1201

2. 참고 문헌

http://blog.naver.com/ssy_baek?Redirect=Log&logNo=20160074714&jumpingVid=64D46CD A7FAFA77F9FBE82D38295C600259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2&aid=0000417428>

학교폭력예방 종합포털사이트 <http://stopbullying.or.kr/>

영역	신체 폭력	대상	고등학생	시간	50분
학습 주제	역할 바꿔 생각해 봐!				

I. 이 수업에 대하여

1. 개요

최근 성폭력과 관련된 많은 기사와 영상을 접할 수 있다. 그러나 학생들은 성폭력이 가해자 또는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크게 인식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성폭력의 의미와 범위를 알고, 제시된 상황에 대하여 모의법정을 실시하여 여러 입장(가해자와 피해자 등)에서 생각해본다. 이를 통하여 성폭력의 심각성을 느껴보도록 한다.

2. 목표

- 성폭력의 의미와 범위와 처벌에 대하여 알 수 있다.
- 피해자의 마음을 이해하고 이를 예방하고자 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다.

3. 준비물

- 성폭력 관련 자료, 모의법정 대본 작성을 위한 용지, 활동지 1 등.

4. 학습 내용

단 계	내 용
생각 열기	성폭력에 대한 정확한 의미 이해
생각 펼치기	자신의 경험과 연결 짓기
활동하기	모의법정을 위한 대본 작성 및 모의 법정 실시하기
생활에 적용하기	모의법정을 실시한 소감 확인 및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확인하기

5. 유의 사항

- 모의법정 대본작성을 위해 주제를 선정할 때에는 크게 자극적이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한다.
- 교실에서 성폭력이 아니라도 왕따와 같은 피해를 당하는 학생이 있다면 그 학생에게는 피고인 역할을 맡겨서는 안 된다. 경우에 따라서 피고인 역할은 교사가 맡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
- 대본을 쓰거나 모의법정을 할 때 교실이 시끄러워지지 않도록 아이들에게 주의 시킨다.

Ⅱ. 수업 과정안

1. 생각 열기

◎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잘 모르고 저지르기 쉬운 성추행

- 위의 영상을 보고 어떤 느낌이 드나요?

- 장난으로 하는 바지 내리기, 치마 걷기부터 성적 모멸감을 느끼기 쉬운 언어 구사 등 이러한 것도 법적으로는 성폭력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합시다.



동영상 주소(유튜브):

<http://www.youtube.com/watch?v=zVEDm4dLA2Y>

◎ 성폭력의 의미 안내하기

- 성폭력의 의미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 성폭력이란? >

강간뿐 아니라 희롱이나 음란전화, 성기노출, 추행 등의 여러 가지 형태를 포함한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막연히 느끼는 불안이나 공포, 행동의 제약도 넓은 의미에서 성폭력에 해당된다.

2. 생각 펼치기


◎ 자신과의 경험과 연결짓기

- 앞서 보여주었던 동영상처럼 여자친구의 치마를 걷어올린다거나, 바지를 내리는 등 장난삼아 친구를 괴롭혀 친구의 마음을 상하게 한 적은 없는지 경험

을 이야기해보도록 합시다.

- 이러한 행동을 해본 적이 있거나 혹은 당해본 적이 있는 학생들이 있나요?
혹시 이런 행동을 당해보았다면 그때 기분이 어떠했나요?
- 이러한 일들이 우리 학교 생활에서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으며, 그보다 정도가 심한 일도 뉴스화되어 나타날 만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3. 활동하기


◎ 성폭력의 결과에 대한 안내하기(처벌을 받게 됨 안내)  학습자료 1

- 미성년자일지라도 잘못을 저지른다면 그에 따른 처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 사소한 것일지라도 성폭력이 발생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과 처벌이 따른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성폭력

- 이외에도 우리 주위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성폭력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 이와 관련하여 하나의 주제를 선정해 봅시다.
-

◎ 성폭력과 관련된 모의법정을 위한 대본 작성

 활동지 1

*** 모의 법정 대본 작성을 위한 안내사항**

1. 주제 정하기
2. 등장인물 정하기
 - 판사 1,2,3 (재판장 1인 포함)
 - 검사 1.
 - 변호사 1.
 - 증인 1,2,3(경우에 따라 늘어날 수 있음)
 - 피고 1
3. 대본 내용 작성하기

◎ 모의 법정 역할 분담 및 실시하기

- 배역을 정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모의 법정을 실시해보도록 하죠.
- 이외에도 배심원 역할을 할 사람도 선정해보도록 합시다.

4. 생활에 적용하기

◎ 학생들의 소감 확인

- 실제 모의법정에 참여한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죠.

- 모의 법정 수업을 한 후에 느낀 소감을 발표해 봅시다.

-

◎ 성폭력에 대한 인식의 변화

- 중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한 성폭력(성추행)도 범죄에 해당하며 성인과 마찬가지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활동지1 - 모의법정 대본

모의 법정 사건번호 2012 - (사건명쓰기)

I. 모의 법정 상황 소개

II. 각 역할의 주장 정리

1. 피고인 주장:

이유: :

2. 검사 주장:

이유: :

3. 변호사 주장:

이유: :

4. 검사 쪽 증인 주장:

이유: :

5. 변호사 쪽 증인 주장:

이유: :

III. 배심원 판결

(사건 _____)에 대해서 나는

IV. 모의법정 수업을 한 후에 느낀 소감을 적어보자

Ⅲ. 참고 자료

1. 학습 자료 – 관련 신문기사

같은 학교에 다니는 여학생 성폭행

같은 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중학생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하고, 5년 동안 신상정보도 공개하도록 했다.

춘천지방법원 제 2형사부는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같은 학교 2학년 A 군에게 장기 3년, 단기 2년6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또한 A 군의 신상정보를 5년 동안 공개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40시간 수강하도록 명령했다.

A 군은 지난 6월 22일 오후 6시쯤 B 양을 마을 면사무소 봉사회 사무실로 불러내 강제로 성폭행하는 등 3차례나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 한국뉴스투데이 2012년 10월 30일자-

공원서 술 취한 여학생 성폭행한 10대 구속

서울 동작경찰서는 공원에서 술을 마시고 게임을 하다 술에 취한 여학생을 성폭행한 A(15)군 등 2명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B군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달 1일 오후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의 한 공원에서 같은 학교 여학생 C(15)양과 술을 마시며 게임을 하다 C양이 술에 취하자 번갈아가며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기 위해 노숙자에게 심부름 값 3000원을 주고 2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사달라고 부탁해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게임에 서툰 C양이 술을 많이 마셔 취하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 뉴시스 2012년 7월 12일자 기사 -

2. 참고 문헌

김왕식, 곽한영(2007). 학교폭력과 법. 한국학술정보.

김용수(2012). 알기쉬운 학교폭력, 성폭력. 진원사.

장난으로 바지 내리기.. <http://www.youtube.com/watch?v=zVEDm4dLA2Y>

영역	신체 폭력	대상	고등학생	시간	50분
학습 주제	모든 생명은 소중해요.				

I. 이 수업에 대하여

1. 개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동식물은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비록 하찮은 미물이라고 해도 모든 생명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무심코 생명의 소중함을 잊어버리고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한 번 생명의 소중함을 생각해 보고 생활에서 실천하는 태도를 갖추도록 노력합시다.

2. 목표

- 생명의 소중함을 이해할 수 있다.
- 일상생활에서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고 바르게 실천할 수 있다.

3. 준비물

- 학습 활동지, UCC 동영상,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사례(수업자료 PPT) 등

4. 학습 내용

단 계	내 용
생각 열기	생명의 소중함과 소중하게 여기지 못한 행동 알아보기
생각 펼치기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세태를 파악하고 비판하기
활동하기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실천하기
생활에 적용하기	생명을 경시했던 자신의 경험을 반성하고 실천하는 태도 기르기

5. 유의 사항

- 생명 존중을 주변과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찾아 실천하도록 지도한다.
- 우리 사회에서 생명을 경시하는 사례를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자세를 기른다.

II. 수업 과정안

1. 생각 열기

- ◎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한 사례 생각해 보기
 - 동식물을 학대한 행위
 - 사람을 학살하거나 사회에서 발생하는 우발적인 범행 등
- ◎ 생명을 소중하게 여긴 사례 생각해 보기
 - 지진이 일어났을 때 생명을 구하는 모습
 - 재난이 일어난 국가에 소방대원을 파견하여 건물 잔해에서 생명을 구하는 모습
 - 고 이수현의 신문기사와 낙태아 문제점 등

2. 생각 펼치기

- ◎ 생명을 소중하게 ‘슈바이처의 삶’ 알아보기

<작은 곤충도 사랑한 생명을 존중의 삶>

남아프리카 밀림의 성자라고 불리는 슈바이처 박사는 평생을 아프리카의 원주민들을 위한 의료 봉사에 바쳤습니다. 또한 그는 모든 생명을 존귀하게 여겼습니다.

“나는 하나의 나뭇잎도 공연히 따 버리지 않고 한 떨기 들꽃도 꺾지 않는다. 기어 다니는 벌레도 밟지 않으려고 조심한다. 여름밤 등불 아래서 일할 때 많은 날벌레들이 등불로 날아들다가 떨어져 책상 위에 뒹구는 것을 보느니, 차라리 무덤더라도 창문을 닫고 방 안에 앉아 있는 것을 택하겠다.”

- 슈바이처 박사의 말에서 어떤 생명존중이 정신을 읽을 수 있습니까?
- 슈바이처 박사가 생명을 존중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 생명을 경시하는 요즘의 세대에 대하여 이야기하기
 - 우발적인 사건의 사례에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태도에 대하여 토론해 봅시다.
 - 생명을 경시하는 윤리적 의식과 문제점 이야기하기

3. 활동하기

◎ 생명을 경시하는 실태를 알아보고 문제점과 해결하기 위한 방법 등을 발표하기

- 대표적인 생명 경시현상은 자살
- ‘묻지마 살인’과 낙태 행위의 사례
- 범국민적으로 생명 경시풍조의 위험을 각성할 수 있는 시민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

◎ 생명존중 선언문 만들기

- 생명 존중에 대한 자신의 각오를 만들어 발표하기

<생명 존중 실천 선언문>

나는 생명이 소중함을 인식하고 다음과 같이 생명을 존중하기 위한 실천을 다짐합니다.

◎ 평소 생활에서 생명을 존중하고 실천하는 태도를 정리하기

- 작은 동식물도 사랑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을 갖기
- 충동적인 행동으로 친구의 몸에 상처를 입히지 않도록 조심하기

4. 생활에 적용하기

◎ 주변에 있는 작은 동식물을 보호하는 방법 이야기하기

- 주변의 생명체를 잘 살피고 보호하기

◎ 생명 존중의 실천하기

- 무심코 한 자신의 행동이 남의 생명을 해칠 수 있음을 인식하기
- 예) 아파트에서 물건을 던져 타인의 생명을 앗아간 사례
- 유기 동물을 학대하거나 방치하는 사례

◎ 생활과제

- 자신의 몸을 소중하게 간직하기 위한 마음을 부모님께 전달하기
- 이오덕 선생님의 “사람은 벌레 한 마리, 풀 한포기도 아무런 까닭 없이 죽이거나 짓밟을 권리가 없다.”라는 말의 의미를 토론해 보기

- 활동지1

- ◆ ‘생명’을 다른 단어와 연관시켜 소중함을 생각해 봅시다.

생명은 ()이다.	
동식물의 그 림	왜냐하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림>	

생명은 ()이다.	
	왜냐하면 () 때문이다.
<그림>	

- ◆ 생명을 경시하는 다음의 사례를 읽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해봅시다.

1. 모교의 유익한 시설과 장비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수달처럼 귀여운 **밍크**들은

하루의 3분의 2를 묵소에서 사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두발에는 물갈퀴가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단지 모피를 얻기 위해서

이 밑크는 45cm × 넓이 30cm × 높이 25cm(2면만 상자 정도)도

채 안도는 우리에게 가닿아 버립니다. 밍크의 몸길이는 28~43cm인데요.



푸른 여우는 어두운 농장에서 살아가는데,

크기 50cm 밖에 안되는 우리에 한마리씩 감공해 삽니다.

이들 4개항에서 철도가 갖는 대외적 비교는 4백만배나 작은

공간이어서 스트레스를 스스로를 해결하게 되고,

무릎 관절도 아파드립니다.

다리가 부러질 지라도 모피를 벗기는 12월까지 그대로 내버려 두지요.

다들 걱정하는데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Ⅲ. 참고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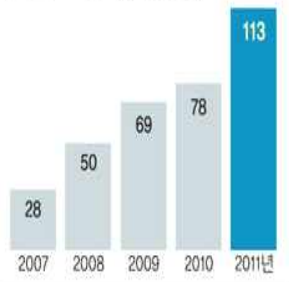
*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생명경시 현상

생명경시 현상은 우리 사회의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수준의 낙태, 동물 학대 등은 우리 사회의 생명경시 현상을 단적으로 보여 줍니다.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개인과 가정, 국가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늑대가죽에 손상을 우려해 산 채로 질식사시키는 무자비한 모습>

동물보호법 위반 입건수



자료: 경찰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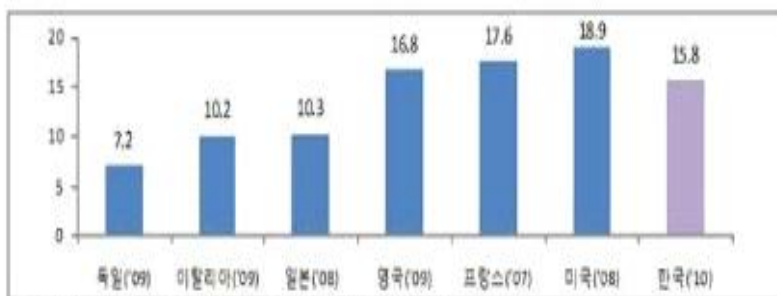
유기동물 발생 현황 (단위: 마리)



자료: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늘어나는 동물 학대>

<OECD 주요국 인공임신중절률 비교>



* 국외 주요국 중절률('11, UN) / 한국 중절률('10, 실태조사)

<우리나라의 높은 낙태율>

영역	신체 폭력	대상	고등학생	시간	50분
학습 주제	너와 나, 우리! 자존감을 갖자				

I. 이 수업에 대하여

1. 개요

10대의 사망원인 1위가 자살(고의적 자해)로 청소년 자살문제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자살은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무력감의 발생에서 시작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자존의식을 갖고 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삶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를 형성시키는 일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2. 목표

- 자존 의식의 중요성을 이해한다.
-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를 기른다.

3. 준비물

- 학습 활동지, 자살 통계 PPT 등

4. 학습 내용

단 계	내 용
생각 열기	청소년 자살의 심각성 알아보기
생각 펼치기	자존감을 갖는 말과 행동 알아보기
활동하기	자신이 잘 하는 것, 자랑스러운 모습, 소중한 이유 등 알아보기
생활에 적용하기	자존 의식을 갖고 자신감 있게 생활하기

5. 유의 사항

- 자살이 자존의식이 약화됨에 발생될 수 있음을 이해시킨다.
- 자존 의식을 갖고 자신이 누구에게나 소중한 존재임을 인식시키도록 한다.
- 생명을 존중하는 관점에서 자살 예방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Ⅱ. 수업 과정안

1. 생각 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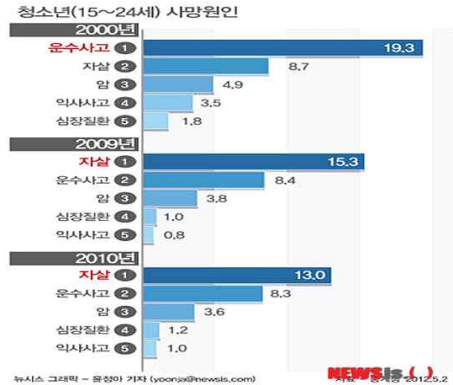
◎ 청소년 자살 실태의 심각성 알아보기

- 청소년 사망 원인

청소년(15~24세) 사망원인 (단위 : 명/청소년 인구 10만명당)

	1위	2위	3위	4위	5위
1999	운수사고 19.8	자살 10.1	암 5.1	익사사고 3.2	심장질환 2.3
2000	운수사고 19.3	자살 8.7	암 4.9	익사사고 3.5	심장질환 1.8
2008	자살 13.5	운수사고 9.2	암 3.7	익사사고 1.3	심장질환 0.9
2009	자살 15.3	운수사고 8.4	암 3.8	익사사고 1	심장질환 18.1
2010	자살 13	운수사고 8.3	암 3.6	심장질환 1.2	익사사고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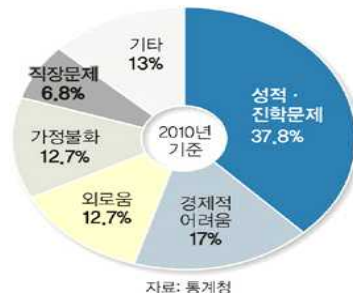
◆ 통계청 copyright datanews



◎ 자살을 생각하는 이유 알기

- 자살을 생각하는 이유에서 자살이 무엇을 원인으로 시작되는지 파악하기

청소년이 자살을 생각하는 이유



2. 생각 펼치기

◎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의 소중함 알기

1) 자존의식이 필요한 까닭

-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을 수 있음
- 긍정적인 사고를 형성하는 출발점
-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신감, 유능감의 원천
- 자가 정체감의 형성 등

2) 자존 의식을 가질 수 있는 방법

- 자율적 환경을 갖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
- 문제 해결을 통한 유능감을 가짐.
- 작은 일에서 큰 일로 확대시켜 나감.
- 자신의 성공한 과거 경험, 타인을 통한 모델, 적절한 조언 수렴 등

3. 활동하기




◎ 나를 생각해 보기

- 나는 누구인가? 생각해 보기
-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이유를 3가지 발표하기


◎ ‘자존감 키우기’ 활동하기

- 내가 좋아하는 것(물건, 사람, 음식 등)
- 내가 잘하는 것(과목, 운동, 요리 등)
- 나의 자랑스러운 점(3 가지)
- 활동 자료 일부 예시

내가 좋아하는 것은,

-  사람 : _____
-  음식 : _____
-  물건 : _____

내가 잘하는 것은,

-  과목 : _____
-  놀이 : _____
-  요리 : _____

◎ 나의 높아진 자존 의식을 보고 좋아할 사람 상상하기

- 부모님, 친인척, 친구 등 구체적으로 생각하기
- 즐거워하는 사람의 모습을 이야기하기 등

◎ ‘자존감 키우기’ 발표하기

- 내가 작성한 내용을 발표하고 자존의식 갖기
- 작성한 활동 자료 잘 보관하고 자신이 약해질 때 살펴보기

4. 생활에 적용하기

◎ 학교와 가정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자존의식을 갖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활동한다.

◎ 늘 자신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갖는다.

• 활동지1

◆ 다음 자살률 통계 자료를 살펴보고 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토론힐 보자.



◆ 다음과 같은 상황에 있는 어떤 말을 통하여 친구에게 자존의식을 길러 줄 수 있는지 자유로운 의견을 쓰시오.

상황	지존의식을 길러 줄 수 있는 말
성적이 떨어진 친구	
경제가 궁핍한 친구	
가정 불화가 자주 있는 친구	
부모님에게 꾸중을 들을 친구	
성적으로 우울하고 비관적인 생각을 하는 친구	
신체의 경함이 있는 친구	
친구로부터 따돌림을 당한 친구	
이성 친구로 고민하는 친구	
학교폭력으로 고민하는 친구	

◆ 우리나라의 사망 순위가 어떠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지 아래의 자료와 최근의 자료를 찾아 비교하여 토론힐 보시오.

우리나라 사망순위 변화 (2007)			
1992년	1998년	2006년	2007년
1. 암 2. 뇌혈관질환 3. 심장질환 4. 운수사고 5. 간질환 6. 고혈압성질환 7. 당뇨병 8. 만성하기도질환 9. 호흡기결핵 10. 자살(3,533명)	1. 암 2. 뇌혈관질환 3. 심장질환 4. 운수사고 5. 간질환 6. 당뇨병 7. 자살(8,569명) 8. 만성하기도질환 9. 고혈압성질환 10. 호흡기결핵	1. 암 2. 뇌혈관질환 3. 심장질환 4. 당뇨병 5. 자살(10,668명) 6. 간질환 7. 운수사고 8. 만성하기도질환 9. 고혈압성질환 10. 폐렴	1. 암 2. 뇌혈관질환 3. 심장질환 4. 자살(12,174명) 5. 당뇨병 6. 운수사고 7. 만성하기도질환 8. 운수사고 9. 고혈압성질환 10. 폐렴

Ⅲ. 참고 자료

1. 학습 자료 - 청소년 자살의 특성

가. 자살의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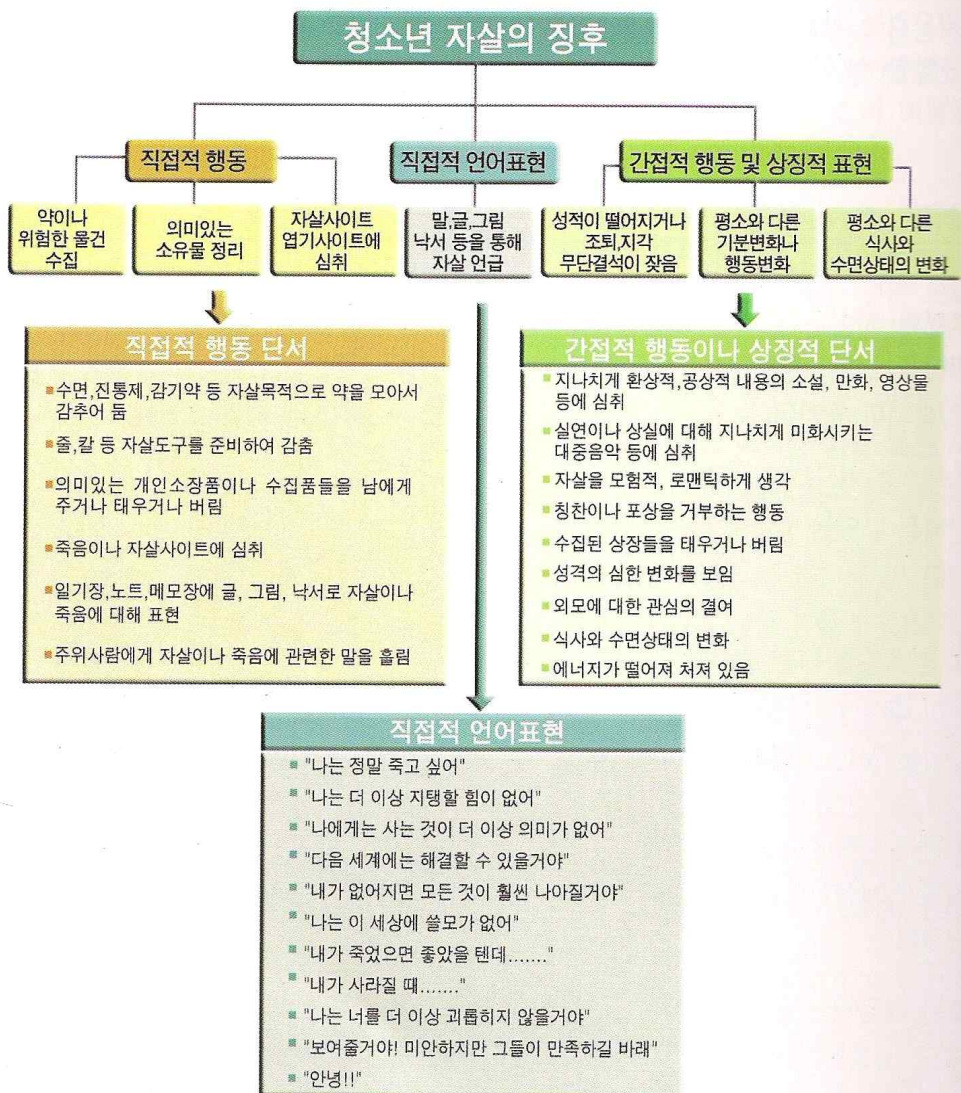
자살(Suicide)이란 의도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끊는 행위이다. 청소년기의 자살은 청소년의 성장발달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스트레스에 대한 극단적이고 치명적인 대처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나. 청소년 자살의 특징

발달 단계적 특성상 자살 시도율이 높은 시기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두엽 발달이 완전하지 못하여 종합적 사고가 어려운 시기 • 신체적, 정서적 많은 변화로 인한 격동의 시기 • 지적변화로 기존의 가치나 규범에 도전하는 시기 • 자아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정체성 혼란의 시기 • 학교생활과 학업스트레스가 많은 시기
계획적인 경우보다 충동적인 경우가 많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가치하다고 생각되어질 때 충동적으로 선택 • 부모나 주변 어른들의 잔소리가 싫어질 때 충동적으로 선택 • 여러 사람 앞에서 비난이나 꾸중을 들을 때 충동적으로 선택
자기 나름대로의 분명한 자살동기를 갖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살을 준비하던 중 “나가 죽어라” 라는 말이 방아쇠가 되어 바로 시도 • 고통의 끝이나 문제해결의 대안으로 선택 • 분명한 이유를 만들어 합리화하는 경향 • 남을 조정하거나 보복하려는 동기로 선택
동반자살 및 모방자살 가능성이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 암시성이 강함 • 자살사이트를 통한 관심 • 연예인이나 추종자의 죽음으로 연쇄 자살
죽음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타지 소설류나 인터넷 게임의 영향 • 대중매체가 전하는 자살소식을 여과장치 없이 받아들임 • 죽음을 문제해결방법으로 잘못 생각

다. 자살 징후

자살징후는 언어적, 행동적, 상징적 표현 등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여러 가지 단서에 대해 미리 알고 이를 세심하게 관찰하여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작은 징후라도 발견되면 학부모에게 알리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안내하고 학생과 가족과의 상담내용을 기록해 둔다.



라. 자살 위험 요인

위험요인이란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내·외적 환경이나 개인의 특성 중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말한다.



- ◆ 위험요인을 가진 취약한 학생은 자살 위험이 낮다가도 갑자기 높아질 수 있다.
- ◆ 자살경과 징후에 관한 완벽한 리스트는 없다.
- ◆ 자살은 항상 다차원적이다.
- ◆ 만약 위험요인을 줄일 수 있다면, 자살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

출처: 교육과학기술부(2011). 학교 및 교육기관에서의 학생자살 위기 관리 프로토콜.

마. 자살 위기에 있는 친구를 돕는 방법

* Do 해야 할 일	* Don't 하지 말아야 할 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가간다. - 질문을 한다. - 관심을 보인다. - 친구가 이야기를 하도록 격려한다. - 판단하지 않고 들어준다. - 자살에 대해 개방적으로 이야기한다. - 차분하게 듣는다. - 긍정적으로 이야기한다. - 의지할 만한 사람을 만나보라고 제안한다. - 자신의 한계를 안다. - 도움을 청한다. - 친구가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면 즉시 조치를 취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구의 문제가 별것 아닌 것처럼 들리도록 이야기 하지 말라. - 충격을 받은 듯 행동하지 말라. - 친구의 자살계획에 대해 비밀을 지키지 말라. - 친구에게 그의 자살에 다른 사람들이 어떤 감정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묻지 말라. - 어떤 무기이든 친구에게 빼앗으려고 하지 말라. - 친구가 위험한 상황에 빠졌을 때 혼자 내버려 두지 말라. - 희망을 잃지 말라.
출처 : '십대를 위한 자살 예방법(시그마 프레스)'	

2. 관련 사이트

생명의 전화 <http://lifeline.or.kr>

한국자살예방협회 <http://www.suicideprevention.or.kr>

수원시 자살 예방 센터 <http://www.csp.or.kr>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국민재단 <http://www.1318love.net>

아동 청소년 가족 상담센터 <http://songsim.catholic.ac.kr>

사랑의 전화 상담센터 카운셀 24 <http://www.counsel24.com>

한국청소년상담원 <http://www.kyci.or.kr>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http://www.kassw.or.kr>

소아청소년 정신건강클리닉 <http://drchoi.pe.kr>

청소년폭력예방재단 <http://www.jikim.net>

counpia.com인터넷 상담 <http://counpia.com>

학교폭력상담전문왕따닷컴 <http://www.wangtta.com>

* 영 역 : 사이버 폭력 예방

* 학교급 : 초등학교

* 주요 내용

- ① 너와 나의 얼굴, 인터넷 예절
- ② 사이버 폭력, 이제 그만!
- ③ 악플? 조사하면 다 나와!
- ④ 개념 찬 초딩으로 거듭나기

영역	사이버폭력	대상	초등 저학년	시간	40분
학습 주제	너와 나의 얼굴, 인터넷 예절				

I. 이 수업에 대하여

1. 개요

사이버 공간은 현실 세계와 달리 직접 얼굴을 맞대고 상호작용하지 않는다. 때문에 학생들이 사이버 공간에서도 지켜야 할 예절이 있다는 생각을 자칫 소홀히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수업은 먼저 학생들이 인터넷 예절에 대해 인지적으로 이해한 후, 활동을 통해 사이버 공간에서도 현실 세계에서처럼 예절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마음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한다.

2. 목표

- 인터넷 예절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 인터넷 예절을 지키고자 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다.

3. 준비물

- 동영상 자료(공익광고 ‘인터넷 예절편’), 풀, 가위

4. 학습 내용

단 계	내 용
생각 열기	공익광고 ‘인터넷 예절편’을 보고, 인터넷 예절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얼굴임을 느끼기
생각 펼치기	올바른 인터넷 예절에 대해 이해하기
활동하기	‘선물상자 만들기’ 활동하기
생활에 적용하기	인터넷 예절지킴이 활동을 통해 일상생활에서도 인터넷 예절을 지킬 수 있도록 내면화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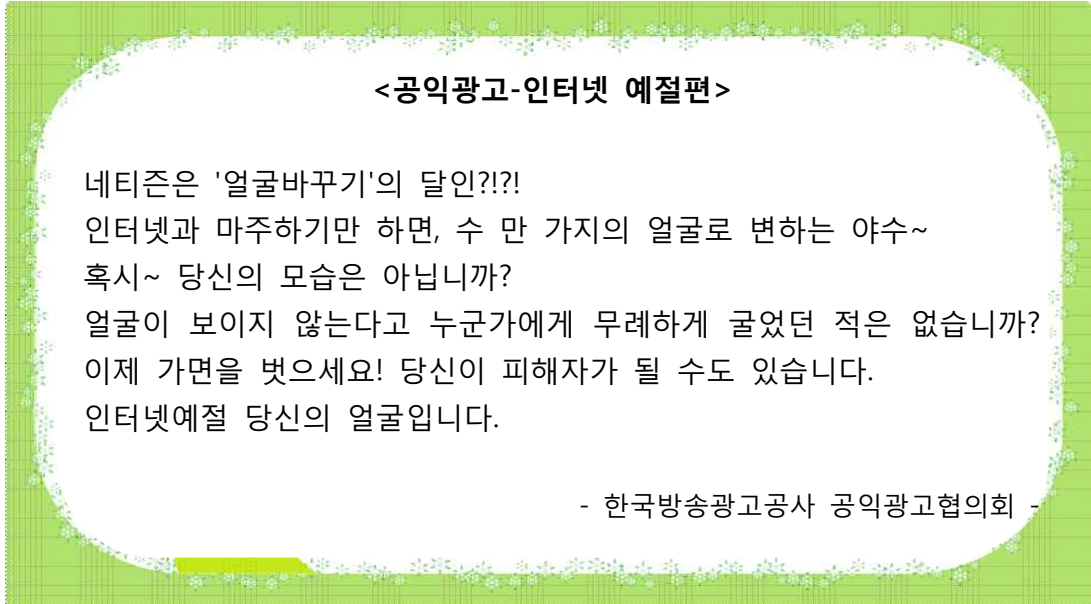
5. 유의 사항

- 올바른 인터넷 예절에 대해 지식적 이해 뿐 아니라 공감적 이해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며, 인터넷 예절은 일상생활에서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므로 학급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인터넷 예절 지킴이 활동을 활성화 시키도록 한다.

II. 수업 과정안

1. 생각 열기

◎ 「공익광고-인터넷 예절편」 영상보기(검색엔진에 ‘공익광고 인터넷 예절편’ 검색)




- 여자의 얼굴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 왜 그렇게 바뀌었다고 생각하나요?
- 여자의 얼굴이 바뀔 때 마다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2. 생각 펼치기

◎ 올바른 인터넷 예절에 대해 알아보기


- 올바른 인터넷 예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욕설하지 않기, 비방하지 않기,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않기 등

◎ 얼굴 완성하기 활동하기

- 활동지를 보고, 인터넷 예절을 잘 지키고 있는 사람에게는 웃는 얼굴을,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화난 얼굴을 붙여 봅시다.  활동지 1
- 완성된 학습지 속 인물들의 얼굴에 대해 짝과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 어떤 느낌이 듭니까?
- 나는 어떤 얼굴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3. 활동하기

◎ 인터넷 예절 선물상자 만들기

- 배운 내용을 떠올리며 올바른 인터넷 예절은 선물상자에, 올바르지 않은 인터넷 예절은 쓰레기통에 써넣어 봅시다.  활동지 2
- 모두 작성한 후 학습지 안의 선물상자만 오려냅니다.
- 완성한 선물상자를 짝에게 선물하고, 서로서로 인터넷 예절을 잘 지키도록 다짐합니다.

4. 실생활에 적용하기

◎ ‘인터넷 예절 지킴이’ 활동하기

- 우리 반 친구들 모두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인터넷 예절 지킴이로 활동해 봅시다.
- 인터넷 예절 지킴이가 된 학생들은 오늘 배운 내용을 되새기며 인터넷을 사용할 때 예절을 지키도록 합니다.
- 자신이 지킨 아름다운 예절들을 기록해두고 친구들과 나눠봅시다.

◎ 활동 결과 나누기

- 활동을 통해 느낀 점을 친구들에게 이야기해봅시다.
- 실생활에서 계속 인터넷 예절을 잘 지키고, 자신의 활동을 기록지에 잘 기록한 학생들은 ‘인터넷 예절 지킴이 수료증’을 받도록 합니다.

◎ 생활과제 : 인터넷 예절 지킴이 활동하기

• 활동지1 - 얼굴 완성하기

- 활동지 아래에 있는 얼굴모양을 오려 인터넷 예절을 잘 지키고 있는 사람에게는 웃는 얼굴을,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화난 얼굴을 붙여봅시다.

안 보이는데 뭐 어때?
그냥 반말로 쓰지 뭐~



댓글에 욕을 쓰면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겠지?



바르고 고운말로
이메일을 작성해야지



채팅을 할 땐
존댓말을 사용해야해!



글을 올릴 땐
사실만을 올려야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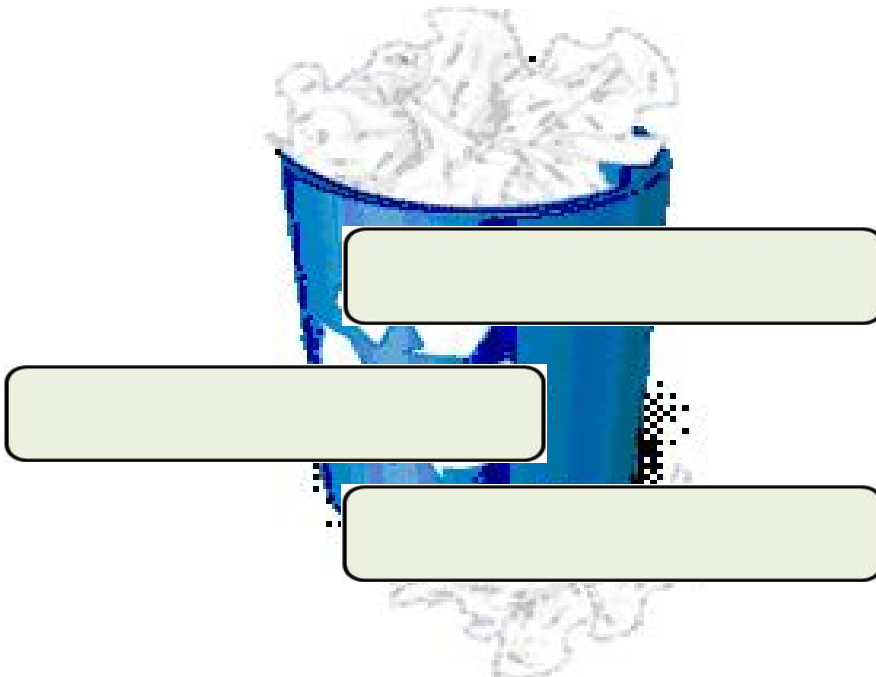


내가 싫어하는 연예인
이니까 악플을 달아야
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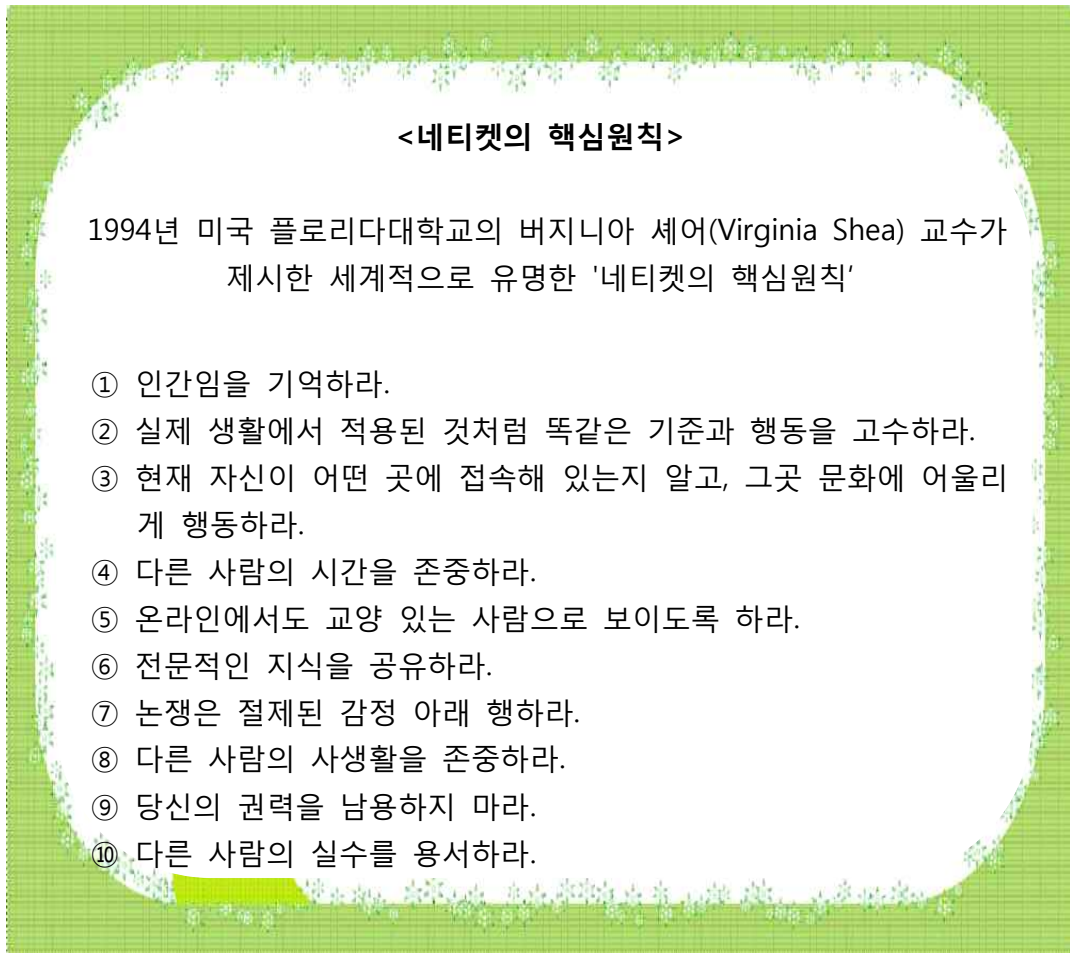
• 활동지2- 인터넷 예절 선물상자 만들기

- ▣ 선물상자에는 올바른 인터넷 예절을 쓰레기통에는 잘못된 인터넷 예절을 써넣어 봅시다.



Ⅲ. 참고 자료

1. 학습 자료



<네티켓의 핵심원칙>

1994년 미국 플로리다대학교의 버지니아 셰어(Virginia Shea) 교수가 제시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네티켓의 핵심원칙'

- ① 인간임을 기억하라.
- ② 실제 생활에서 적용된 것처럼 똑같은 기준과 행동을 고수하라.
- ③ 현재 자신이 어떤 곳에 접속해 있는지 알고, 그곳 문화에 어울리게 행동하라.
- ④ 다른 사람의 시간을 존중하라.
- ⑤ 온라인에서도 교양 있는 사람으로 보이도록 하라.
- ⑥ 전문적인 지식을 공유하라.
- ⑦ 논쟁은 절제된 감정 아래 행하라.
- ⑧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존중하라.
- ⑨ 당신의 권력을 남용하지 마라.
- ⑩ 다른 사람의 실수를 용서하라.

2. 참고 문헌

<http://www.kobaco.co.kr>(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전산원(1997). 정보사회의 네티켓과 정보이용윤리 정립방안 : 정보사회 촉진방안 연구사업. 한국정보화진흥원

이주호(2012). 게임, 인터넷, 스마트폰 올바른 사용을 위한 생활지도 매뉴얼. 교육과학기술부.

영역	사이버폭력	대상	초등 저학년	시간	40분
학습 주제	사이버 폭력, 이제 그만!				

I. 이 수업에 대하여

1. 개요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인터넷과 SNS(Social Networking Service)를 사용하게 되면서 사이버 폭력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초등학생은 사이버 상황에서 자행되는 폭력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에게 사이버 폭력의 정의와 그 위험성을 이해시키고, 바람직한 인터넷 활동 문화를 내면화 하도록 한다.

2. 목표

- 사이버 폭력의 정의와 위험성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 바람직한 인터넷 활동 문화를 지키고자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다.

3. 준비물

- 동영상 자료(EBS 지식e-‘대삼이의 일기편’), 포스트잇, 2절지

4. 학습 내용

단 계	내 용
생각 열기	대삼이의 일기를 통해 악성댓글이 당사자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줄 수 있는지 느껴보도록 한다.
생각 펼치기	사이버폭력의 정의와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기
활동하기	‘사랑의 댓글나무 만들기’ 활동하기
생활에 적용하기	‘우리 반 선플 통신원’ 활동을 통해 실생활에서도 바람직한 인터넷 활동 문화를 지키고자 하는 태도 기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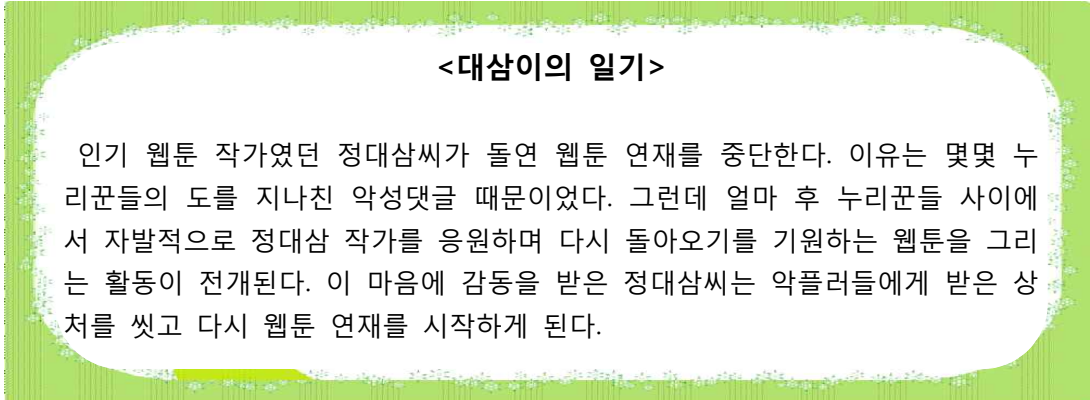
5. 유의 사항

- 사이버 폭력의 자세한 방법이나 사례 보다는 사이버 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의 고통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며, 나아가 정대삼 작가를 일어서게 했던 힘이 선한 댓글이었음을 알고 사이버폭력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도록 한다.

II. 수업 과정안

1. 생각 열기

◎ 정대삼 작가의 기분에 감정이입하기(검색엔진에 ‘대삼이의 일기’ 검색)



- 내가 정대삼 작가라면 악성댓글을 보았을 때 어떤 기분을 들었을까요?
- 정대삼 작가가 다시 웹툰을 시작하는데 도움을 준 가장 큰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2. 생각 펼치기

◎ 사이버 폭력에 대해서 이해하기

- 사이버 폭력의 정의
- 사이버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의 동기 분석 자료 살펴보기

◎ 사이버 폭력 사건에 대한 조별 조사하기

- 타블로와 타진요(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사건
- 왕따와 악성댓글에 시달려 자살에 이른 아만다 토드 사건
- 카카오톡 왕따 실태
- 각종 홈페이지와 기사에 난무하는 악성댓글의 실태

◎ 조별로 조사한 사이버 폭력 사례를 나누고 이에 대한 생각나누기

- 불특정 다수로부터 사이버 폭력을 당한 사람들은 어떤 고통에 시달렸나요?
- 사이버 폭력이 왜 나쁘다고 생각합니까?
- 사이버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3. 활동하기

◎ ‘사랑의 댓글나무’ 만들기

- 사이버 폭력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사랑의 댓글을 달아봅시다.
- 작성한 댓글을 사랑나무에 붙여봅시다.
- 함께 만든 사랑의 댓글나무를 보면서 올바른 인터넷 문화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생각해봅시다.

4. 생활에 적용하기

◎ 우리 반 선플 통신원 활동

- 서로서로가 선플 통신원이 되어 학교홈페이지와 학급홈페이지 등에 선한 댓글달기에 앞장서봅시다.

◎ 생활과제 : 하루에 한 개씩 관심 있는 사이버 상의 글에 선한 댓글 달기

◎ 선택과제 : 인터넷 사이트 ‘선플달기운동본부(www.sunfull.or.kr)’에 방문하여 활동하기

Ⅲ. 참고 자료

1. 학습 자료

<"내겐 아무도 없어" 왕따 자살 15세 소녀의 마지막 절규>

집단 괴롭힘으로 자살한 캐나다 소녀가 유튜브에 영상을 남겨 충격과 아쉬움을 주고 있다.

캐나다 유력 일간지 밴쿠버선(Vancouver Sun)은 2012.10.11일(현지시간) 캐나다 코퀴트람 자신의 집 근처에서 자살한 채 발견된 아만다 토드(15세)에 대해 12일 보도했다. 아만다는 자살 한 달 전 유튜브를 통해 자신의 심경을 고백했다. 왕따가 된 모든 원인의 시작은 한 남성이었다. 그녀는 과거 온라인 화상 채팅으로 만난 남성에게 가슴 부위를 노출한 적이 있었다. 그 남성은 이 영상을 캡처해 자신의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으로 사용하고 사람들에게 퍼뜨렸다. 이 일로 아만다는 온라인과 학교 내에서 왕따를 당해 이사를 했다.

하지만 불행은 끝나지 않았다. 이사 후 새로 사귀는 남자친구에게 알고 보니 여자친구가 있었고, 그녀는 아만다가 전학 온 학교에 찾아와 심한 욕설과 함께 발길질을 해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줬다. 그날 밤 그녀는 자살할 생각을 하고 페이스북에 마지막 말을 남겼다. 하지만 돌아오는 댓글은 "죽었으면 좋겠다", "당연히 그래야지"라는 잔인한 대답뿐이었다.

당시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그녀는 다시 이사를 했다. 그러나 온라인에서의 비난과 악재가 끊이지 않자 그녀는 6개월 후 다시 자살을 결심한다. 자살 한 달 전에는 유튜브에 동영상도 게재하기도 했다. 3분가량의 흑백 영상에서 아만다는 자신이 겪었던 왕따가 된 전후 사정들을 적은 카드를 한 장 씩 보여준다. 그녀는 자신의 심경을 카드를 통해 설명한 후 "나에겐 아무도 없다. 누군가가 필요해"라는 글을 마지막으로 영상을 끝낸다. 마지막으로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으나 아만다의 영상에 관심을 가진 이는 없었다.

자살 이후 아만다의 페이스북과 유튜브에는 애도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페이스북에는 그녀를 위한 추모 페이지가 따로 만들어져 현재 70만 건이 넘는 Like(좋아요)가 누적되었다. 트위터를 통해서도 아만다의 이름은 많이 노출되고 있고 유튜브에서는 그녀를 추모하며 왕따와 관련된 자작 노래 영상을 올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현지에서도 후속기사가 연일 쏟아지고 있으며 아만다 토드 관련기사가 세계적으로 보도되면서 왕따와 사이버왕따 문제의 심각성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또, 일부에서는 아만다 토드처럼 자살하는 학생이 많아질까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머니투데이, 정소라 기자(2012.10.16)

2. 참고 문헌

<http://www.nethics.kr>(인터넷윤리교육정보서비스)

<http://www.no-acple.com>(악플방지위원회)

<http://www.sunfull.or.kr>(선플달기운동)

home.ebs.co.kr/jisike(지식채널e)

송연숙(2004). 학교폭력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을 중심으로. 경상남도교육청.

교원연수자료(2012). 생활지도 지구별 통합협의회 중심의 학교폭력 책임교사 워크숍.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행정간행물(2012). 서울교육 봄.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

영역	사이버폭력	대상	초등 고학년	시간	40분
학습 주제	악플? 조사하면 다 나와!				

I. 이 수업에 대하여

1. 개요

학생들이 사이버 환경에서 활동을 할 때,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생각 때문에 예절을 지키는 것에 대한 감각이 다소 헤이 해 질 수 있다. 하지만 사이버 환경에서 활동을 한 것들은 모두 전자기록으로 남게 된다. 때문에 학생들이 이 같은 개념을 이해하도록 하고, 더 나아가 사이버 환경에서도 실제 생활에서처럼 자신의 얼굴을 걸고 예절을 지켜야 하는 곳임을 느끼도록 한다.

2. 목표

- 사이버 환경에서 자신의 활동이 전자 기록으로 남는 것을 이해 할 수 있다.
- 사이버 환경에서 예절을 지키고자 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다.

3. 준비물

- 다양한 표정을 하고 있는 사진(인간, 동물), 감정카드, 감정 단어카드, 활동지, 도서명 등

4. 학습 내용

단 계	내 용
생각 열기	쿠키와 인터넷 사용의 공통점을 찾아보기
생각 펼치기	부메랑 효과에 대해 이해하기
활동하기	구글링을 통해 부메랑 효과의 위험성 느껴보기
생활에 적용하기	수업 중 다짐한 일을 실생활에서 직접 이행해보고, 결과 나누기

5. 유의 사항

- GOOGLING 활동 시 학생들이 자칫 개인정보 유출이나 사이버 마녀사냥과 같은 방법을 배우지 않도록 교사가 ‘기록이 남는 것에 대한 경각심’에 맞춰 수업을 진행하도록 한다.

II. 수업 과정안

1. 생각 열기

◎ 쿠키와 인터넷 사용의 공통점

- 쿠키와 인터넷 사용의 공통점을 아나요?
- 쿠키와 인터넷의 공통점은 ‘부스러기’가 남는다는 것입니다.

◎ 인터넷 ‘쿠키’의 개념 알아보기

-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쿠키’란 용어를 들어본 적 있나요?
- ‘쿠키’란 어떤 개념일까요?
- 왜 ‘쿠키’란 용어를 사용하였을까요?

2. 생각 펼치기

◎ 「KUS와 PLUS」 사례 듣기

<KUS와 PLUS의 해킹전쟁>

KUS는 1991년에 만들어진 카이스트의 해킹동아리 이고, PLUS는 1992년에 만들어진 포항공대의 해킹동아리입니다. 두 동아리는 서로 국내 최고의 해킹동아리라는 이름을 걸고 보이지 않는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1996년 카이스트의 전산망이 해킹을 당하게 됩니다. 카이스트 학생들은 모교를 해킹할 수 있는 곳은 포항공대 뿐 이라고 생각하며 보복 해킹을 하게 됩니다. 결국 1996년 4월 5일, 쿠스는 포항공대의 전산망에 침입해 학과 시스템의 전산 자료를 삭제하고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포항공대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자 경찰은 범인을 잡기 위한 수사를 벌이게 됩니다. 경찰은 심증을 토대로 쿠스의 학생들을 조사하였으나, 그들은 해킹행위 자체를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경찰은 해킹 시간대에 쿠스의 한 학생이 해킹시스템을 사용한 흔적을 찾아냈습니다. 범인이 미처 지워버리지 못한 단 한 줄의 로그 기록을 찾아낸 것입니다. 결국 로그 기록으로 인해 카이스트는 재학생 구속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되었습니다.

- 두 동아리 사이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 경찰이 범인을 잡게 된 결정적인 단서는 무엇이었습니까?

◎ ‘부메랑 효과’에 대해 알아보기

- 부메랑의 특성에 대해 알고 있나요?
- 부메랑 효과란 무엇일까요?
- 여러분이 남긴 악플이 나중에는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생각해 봅시다.

3. 활동하기

◎ ‘GOOGLING(구글링)’을 통해 부메랑 효과의 위험성 느껴보기

<GOOGLING과 부메랑 효과>

개념 : 구글링(Googling→구글로 검색하기)이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포털사이트인 구글(Google)에 -ing 를 붙여 만든 단어로, "구글로 정보를 검색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영어권에서도 구글이라는 말을 이 같은 뜻의 동사로 사용한다. 정확하고 뛰어난 검색력으로 인해 '구글링한다' 라는 말이 일반명사화 되었다. 그런데 뛰어난 검색결과로 인해 구글링이 개인신상정보유출이라는 문제점을 나타내게 되었다. 구글에 특정인을 검색하면, 그 사람의 신상정보는 물론, 그 사람이 그 동안 썼던 글이나 댓글 등을 매우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 ‘GOOGLING(구글링)’ 실험해보기

- 검색엔진 구글에 담임교사가 자주 사용하는 아이디(사전 검열을 마친)를 검색해본 후 검색 결과를 학생들과 함께 살펴본다.
- 자신의 인터넷에서 했던 활동들이 모두 전산기록에 남는다고 생각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드나요?

4. 생활에 적용하기

◎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활동하기

- 실생활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때 자신이 머물렀던 자리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활동을 생각해보고, 실천해봅시다.

◎ 실천 결과 나누기

- 실천을 통해 느낀 점과 앞으로 여러분의 다짐을 이야기해 봅시다.

Ⅲ. 참고 자료

1. 학습 자료

<‘부메랑 효과’가 담긴 이솝우화 ‘사자와 생쥐’>

- 당신이 무엇을 던지든, 결국 모든 것은 당신에게 돌아올 것이다. -

춤추기 좋아하는 아기 생쥐가 빙글빙글 춤을 추다 그만 낮잠 자던 사자의 꼬리를 밟고 말았어요.

"으르렁~감히 내 꼬리를 밟다니!"

아기 생쥐는 너무 무서워 오들오들 떨면서 살려달라고 빌었어요. 사자는 그 모습이 불쌍해서 생쥐를 놓아 주었어요.

"고맙습니다. 사자님,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번엔 제가 사자님을 꼭 도와드릴게요. 약속드려요."

"찌꼬만 네가 나를 도와준다고?푸하하하."

사자는 큰 소리로 웃었어요.

며칠 후 사자가 숲속을 어슬렁어슬렁 건다가 그만 덜컥 그물에 걸리고 말았어요.

"흥! 이까짓 그물쯤이야. 고응~"

하지만 그물은 끄떡도 하지 않았죠. 으르렁거리고 몸부림을 쳐보았지만 그럴수록 그물은 더 사자를 휘감았어요.

"으르렁! 사자살려! 사자살려!"

숲 속의 동물들이 모두 달려와 애를 써도 그물은 끊어지지 않았어요.

"아이고 아이고.이젠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으영 으영!"

바로 그때 숲에서 사자의 울음소리를 들은 생쥐가 쭈르르 달려왔어요.

"사자님 걱정마세요. 제가 구해 드릴게요."

생쥐가 조그만 이빨로 그물을 사각사각 갉기 시작했고 이윽고 그물이 뚝 끊어졌어요.

"이럴수가.. 아기 생쥐야! 정말 고맙다 고마워."

사자와 생쥐는 얼싸안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2. 참고 문헌

이솝 저. 김수희 역(2008). 이솝이야기. 어린이 작가정신

김온영(1996). 사과전쟁. 세명문화사

<http://axes2024.blog.me/110129716700>(레오가 소개하는 다양한 지식 IN)

영역	사이버폭력	대상	초등 고학년	시간	40분
학습 주제	개념 찬 초딩으로 거듭나기				

I. 이 수업에 대하여

1. 개요

인터넷에 악플을 다는 연령층 중 상당수가 초등학생이다. 때문에 초등학생을 부르는 다른 말인 ‘초딩’은 ‘무 개념’과 같은 좋지 않은 의미를 함의하고 있다. 학생들이 ‘초딩’에 담긴 숨겨진 의미를 이해하고, 앞으로 그런 의미를 탈피하여 인터넷을 활용하여 좀 더 생산적이고, 바람직한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2. 목표

- ‘초딩’에 담긴 숨겨진 의미를 알 수 있다.
- 인터넷을 통해 더 멋진 활동을 하고자 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다.

3. 준비물

- 브레인스토밍 용 A4용지

4. 학습 내용

단 계	내 용
생각 열기	‘투모로우-초딩이 온다.’ 동영상을 보면서 ‘초딩’에 담긴 의미에 대해 관심 갖기
생각 펼치기	‘초딩’에 담긴 뜻 알아보기
활동하기	‘무 개념 초딩’을 탈피할 수 있는 방법 생각하기
생활에 적용하기	활동하기에서 구안 한 방법을 직접 실생활에서 실천해보기

5. 유의 사항


- 본 수업의 핵심은 학생들이 인터넷에서 좀 더 큰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데 있다. 때문에 ‘초딩’이라는 개념을 다루면서 학생들이 ‘변화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수업을 전개한다.

II. 수업 과정안

1. 생각 열기

- ◎ 인터넷 패러디 동영상 「투모로우-초딩이 온다.」 시청하기(검색엔진에 ‘초딩이 온다.’ 검색)

<투모로우 - 초딩이 온다.>



인터넷 상에 각종 악플, 유언비어 등을 퍼트리는 초등학생들을 초딩이라고 지칭하며, 이들을 주인공으로 재난 영화 투모로우를 패러디 한 것이다. 패러디 영상에서는 각종 악플 등 무 개념 인터넷 사용자가 많아지는 시점인 초등학생의 방학을 지구의 빙하기가 닥쳐오는 재난에 비유하고 있다.

- 패러디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 패러디 영상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 왜 사람들이 이러한 패러디 영상물을 만들었을까요?

2. 생각 펼치기

- ◎ ‘초딩’이라는 말의 개념 알아보기

-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초딩’이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숨어 있을까요?
- 네이버 오픈국어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초딩’이 들어간 단어의 의미를 살펴봅시다.

예) 초딩문, 초딩스럽다, 초딩소설, 초딩머리, 초딩만렙 등

- ◎ ‘초딩’이라는 단어를 탈피해야겠다는 느낌 갖기

- ‘초딩’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말의 의미를 살펴보니 어떤 느낌이 듭니까?
-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위의 의미가 담긴 ‘초딩’으로 불린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 우리가 사이버 상에서 ‘개념 없는 초딩’으로 불리는 것을 극복하려면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3. 활동하기

◎ 사이버 상에서 행해지는 ‘아름다운 활동’ 살펴보기



- '팬플'은 어떤 형태의 카페입니까?
- '팬플'이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무 개념 초딩'을 탈출 할 수 있는 방법 생각하기

-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인터넷 상에서 초등학생이 '개념 없는 초딩' 대신 '개념 찬 초딩'으로 거듭나는 방법을 생각해봅시다.
-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나온 방법들 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 3가지를 선정해 봅시다.
- 선정된 3가지 방법 중 자신이 직접 실천해보고 싶은 방법이 쓰여 있는 쪽으로 모여 봅시다. 모인 친구들과 함께 실천 계획을 짜봅시다.

4. 생활에 적용하기

◎ 활동하기에서 계획한 '무 개념 초딩 탈출법' 실행하기

- 친구들과 함께 계획한 것을 사이버 상에서 직접 실천해 봅시다.
- 실천한 내용들을 잘 기록해둡시다.

◎ 개념열매 수확하기

- 개념열매의 날을 맞아 그 동안 실천한 사이버 선행(혹은 유용한 활동)을 친구들과 나눠봅시다.
-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사이버 선행(혹은 유용한 활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Ⅲ. 참고 자료

1. 학습 자료

‘초딩’이 사용 된 다양한 신조어	
신조어	뜻
초딩몬	초등학생의 준말인 초딩(주로 개념이 없는 일부 문제 초등학생을 지칭)과 몬스터[괴물]의 합성어. 초등학생을 얹잡아 부르는 말.
초딩소셜	유치하거나 앞뒤가 맞지 않는 인터넷 소셜. 보통 초등학생들이 쓰므로 초딩소셜이라고 이름이 붙게 되었다.
초딩크레프트	사람과 사람간의 말다툼이 있을 때,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말다툼에 대한 언어를 구사할 때, 저질적이고, 품위 없는 언행과 설득력이 없는 단어 및 문장을 활용하여 말다툼 자체가 유치하게 분위기가 조성될때,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어이없는 웃음을 자아내게 하는 그 말다툼 자체를 비유한 신조어.
네이버 초딩	네이버 기사나 여러 정보문, 여러 자료들에 댓글을 남기는 사람들 중에서 주로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거나 자기가 마치 영웅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을 뜻한다.
초딩스럽다.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상식이하의 행동을 하는 네티즌을 초딩(일부 개념 없는 초딩)으로 비하하는 말
출처 : 네이버 오픈국어사전	

2. 참고 문헌

<http://www.fanpple.com>(팬플)

<http://www.pullbbang.com>(풀빵닷컴, 투모로우-초딩이 온다.)

* 영 역 : 사이버 폭력 예방

* 학교급 : 중·고등학교

* 주요 내용

① 비방보단 선플로 표현해 봐!

② 내 사진을 마음대로 바꾸지 말아줘!

③ 스마트폰 폭력은 친구에게 휘두르는
흥기와 같아

④ 왕따 카페 탈출기~

⑤ 신상 털기 이제 그만!

영역	사이버 폭력	대상	중/고등학생	시간	40분
학습 주제	비방보단 선플로 표현해 봐!				

I. 이 수업에 대하여

1. 개요

사이버 공간은 사람과 사람이 직접 대면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큰 죄책감 없이 남을 비방하거나 인신공격하는 등의 악의적인 댓글(악플)들이 넘쳐나고 있다. 이에 선의적인 댓글(선플)달기 체험을 통해 선한 말-선한 행동이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생각해 보고 다른 사람에 대해 비방하는 문화를 바꾸려는 마음 가짐을 갖도록 한다.

2. 목표

- 악플보다는 선플을 달 수 있다.
- 다른 사람을 비방하려는 마음가짐을 버릴 수 있다.

3. 준비물

- 활동지, 개인 PC

4. 학습 내용

단 계	내 용
생각 열기	악플로 인한 피해 사례를 살펴보고 법적 조치에 대해 알아보기
생각 펼치기	‘선플의 기적’을 살펴보기 내가 할 일 찾아보기
활동하기	선플달기 운동 참여하기
생활에 적용하기	댓글이 없는 세상, 책임 있는 글쓰기에 대해 생각해보기

5. 유의 사항

-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때는 책임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지도한다.
- 게시글에 대해서 꼭 댓글을 달 필요는 없으며 글을 읽고 조용한 독자로 남을 수도 있음을 지도한다.

II. 수업 과정안

1. 생각 열기

◎ 악플로 인한 피해 사례 살펴보기 📖 활동지 1

<‘기부 천사’ 문근영 선행에 악플이라니...>

네티즌은 문근영씨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난 6년간 익명으로 총 8억 5000만원을 기부했다는 선행이 알려지면서 오히려 악성 댓글에 시달린다는 소식을 듣고 문씨를 격려하는 글들을 인터넷에 올리고 있다. 경찰도 악플에 대한 자료수집에 나섰다.

- 자신의 글에 악플이 달리게 된다면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 선행을 왜곡 비방한다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 악플에 대한 법적 조치 알아보기

- 악플도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 악플에 대한 법적 조치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2. 생각 펼치기

◎ 선플의 기적 「대전 중태 중학생 인공호흡기 떼다」 기사 살펴보기

📖 활동지 2

<대전 중태 중학생 인공호흡기 떼다>

수학여행 중 버스 추락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중학생이 학교 친구들의 선플사랑 메시지를 전달받은 이후 두 달여 만에 인공호흡기를 떼고 일반병실로 옮기는 등 상태가 급격히 나아지고 있다. 식물인간 상태로 병실에 누워 있을 때부터 학교 학생들이 임 군의 쾌유를 바라는 글을 써서 가족에게 전달했고, 병실에서 가족들은 이를 보드판에 옮겨 임 군에게 들려주거나 잘 보이는 곳에 걸어 놓았고 이 메시지가 지속적으로 전달되면서 임군에게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 임군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 이 기사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 여러분이 임군의 친구였다면 어떤 일을 해주었을 것 같습니까?

◎ 내가 할 수 있는 일 찾아보기

- 악플방지위원회와 선플운동본부 홈페이지를 보며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봅시다.
- 게시글을 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3. 활동하기 : 실천하기

◎ 선플달기 운동 실천하기

<선플달기 운동 실천하기>

- 준비물 : 개인이나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PC(컴퓨터실 수업 장려)
- 유의사항 : 게시된 글에 댓글을 단다는 것은 글 쓴 사람의 진심과 책임감이 뒷받침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 방법 : 평소 자신이 즐겨 찾는 사이트에 접속해 악플이 달린 기사를 탐색하고 주인공에게 힘이 될 만한 선플을 단다.

- 악플 속의 주인공이 나라면 어떤 기분이 들지를 생각하며 선플을 달아봅시다.

4. 생활에 적용하기

◎ 자신이 단 선플에 대해 이야기 하고 깨달은 점 마음 속에 새기기

- 선플의 기적에 대해 생각해보고 앞으로는 다른 사람의 글에 비방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해 봅시다.

◎ 생활과제 : 책임 있는 글쓰기

- 다른 사람의 글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싶으면 논리적인 글로 작성해 봅시다. 예) 300자 이상의 책임 있는 글

• 활동지1 - 악플로 인한 피해사례(조선일보 2003.11.09.)

‘기부 천사’ 문근영 선행에 악플이라니...

"힘내요, 사랑해요" 위로·격려 선플 쏟아져
"(나보다 어리지만) 존경합니다."
"힘내요. 근영 양. 세상엔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답니다."



‘기부 천사’ 문근영 씨가 악플에 시달리자, 문 씨를
옹호하는 선플 운동이 크게 일어나고 있다. 네티즌들
은 문근영 씨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난 6년간
익명으로 총 8억5000만원을 기부했다는 선행이 알려지면서 오히려 악성 댓글에
시달린다는 소식을 듣고, 문 씨를 격려하는 글들을 인터넷에 올리고 있다. 경찰도
악플에 대한 자료수집에 나섰다.

문 씨는 지난 14일부터 악플에 시달렸다. 일부 네티즌들은 “돈 몇 푼 쥐어 주고
착한 척은 혼자 다한다” “몸값 올리려는 언론 플레이다”라는 막말로 문 씨를 깎아
내렸다.

문 씨의 고향이 광주라는 점을 들어 지역 감정을 부추기거나, 비전향 장기수였
던 문 씨의 외할아버지까지 언급하며 가족사에 비난을 퍼붓는 사람도 있었다.

육사 출신의 극우인사 지만원 씨는 “좌파들이 문근영 영웅 만들기에 혈안이 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지 씨의 해석대로라면 불우이웃을 돕는
사람은 모두 불순한 의도로 무언가를 챙기려 한다는 것인가”라며 지 씨를 비판했
다.

악플에 대해 문근영 씨 소속사인 나무엑터스는 18일 “일일이 대응하지 않을 것”
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 활동지2 - 선플의 기적(연합뉴스. 2012.7.26.)

<선플의 기적! 대전 중태 중학생 인공호흡기 떴다>



수학여행 중 버스 추락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중학생이 학교 친구들의 선플사랑 메시지를 전달받은 이후 두 달여 만에 인공호흡기를 떼고 일반병실로 옮기는 등 상태가 급격히 나아지고 있다.

지난 5월 강원도 양구에서 대전 우송중 수학여행단 41명을 태운 버스가 절벽으로 추락하는 과정에서 임재윤(2학년) 군은 머리를 심하게 다쳐 충남대병원에서 인공호흡기에 의지한 채 두 달째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그러던 임 군이 지난 23일 스스로 호흡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호전돼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기고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 임 군은 인공호흡기를 떼 이후 자가호흡을 하면서 의식을 조금씩 찾아가고 있고 눈을 깜빡이거나 하품을 하는 등 눈에 띄게 상태가 나아지면서 가족과 학교 친구들에게 완쾌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하고 있다. 사고 직후 현지 병원에서 '살 가능성은 1%'라는 판정을 받았던 임 군의 차도에 대해 학교 측과 가족은 국민이 보내준 '선플'의 힘이 작용한 것으로 믿고 있다.

식물인간 상태로 병실에 누워 있을 때부터 학교 학생들이 임 군의 쾌유를 바라는 글을 써서 가족에게 전달했고, 병실에서 가족들은 이를 보드판에 옮겨 임 군에게 들려주거나 잘 보이는 곳에 걸어 놓았고 이 메시지가 지속적으로 전달되면서 임 군에게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우송중 교직원과 학생은 선플국민운동본부 홈페이지(www.sunfull.or.kr)와 우송중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임 군의 쾌유를 바라는 선플을 달아 왔으며 소셜모금플랫폼 엔분(www.nboon.com)을 통해서도 치료비 모금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이들 홈페이지 등에는 현재에도 임 군의 쾌유를 기원하는 선플이 하루에 수십건씩 달리고 있으며, 일주일도 안 돼 150여만원의 치료비도 모였다. 각종 홈페이지를 통한 선플은 가족을 통해 임 군에게 수시로 전달되고 있다.

우송중 최순주 교장은 "많은 친구로부터 선플 메시지를 전달받고 임재윤 학생의 상태가 호전돼 기쁘게 생각한다. 교직원들과 학생들의 선플사랑이 임재윤 학생에게 전해지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덕 교사는 "사고 직후 일어설 가능성이 거의 없었던 재윤이의 상태가 호전되고 있는 것은 선플의 힘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친구와 가족, 그리고 국민의 응원과 격려가 병상에 누워 있는 어린 학생의 생명을 살리고 있다"고 밝혔다.

Ⅲ. 참고 자료

1. 학습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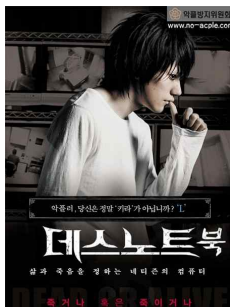
- 악플에 대한 법적 조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 61조

-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해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기록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악플방지 포스터



2. 참고 문헌

- 악플방지위원회 <http://www.no-acple.com>
- 선플운동본부 <http://www.sunfull.or.kr>
- 악플러 비판랩 <http://no-acple.com/495>

영역	사이버 폭력	대상	중/고등학생	시간	80분
학습 주제	내 사진을 마음대로 바꾸지 말아줘!				

I. 이 수업에 대하여

1. 개요

최근에는 급격히 보급된 SNS나 스마트 폰 등을 통해 사진이나 동영상의 빠른 속도로 퍼져 나갈 수 있으며 이렇게 유포된 사진이나 동영상은 여러 경로로 저장되어 언제든지 다시 나타나는 악순환을 이어가게 된다. 따라서 타인의 사진을 불법으로 도용하거나 합성해 유포하는 것이 어떤 악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고 건전한 인터넷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

2. 목표

- 합성사진의 피해를 알 수 있다.
- 모의재판을 통해 온라인상에서 이상한 사진을 찍어 유포하는 비윤리적 행위를 심판할 수 있다.

3. 준비물

- 활동지

4. 학습 내용

단 계	내 용
생각 열기	합성 사진으로 인한 피해 사례 살펴보기
생각 펼치기	모의 재판의 형식을 알아보고 준비하기
활동하기	모의 재판 실행하기
생활에 적용하기	재판 주제의 내면화 및 실천을 위한 행동지침 만들기

5. 유의 사항

- 모의재판에 참여하는 학생들 상호간에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도록 지도한다.
- 모의재판에 참여하는 배역에 대한 사기를 진작시키고 역할의 내용이 확실히 전달되도록 한다.

II. 수업 과정안

1. 생각 열기

◎ 합성사진으로 인한 피해 사례 살펴보기

<소녀시대, 인권 침해 합성 누드사진 수사 의뢰>

장윤정에 이어 소녀시대까지 합성 누드사진의 타깃이 됐다. 소속사 측은 강경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소녀시대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16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최근 퍼지고 있는 합성 누드사진과 관련,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소녀시대의 누드 합성사진은 지난 15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퍼지기 시작했다. 소녀시대는 2년 전, 같은 일을 겪었을 당시 강경 대응에 나섰지만 최초 게시자와 유포자가 어린 청소년이라 선처한 바 있다.

소속사 한 관계자는 "최근 여성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면서 "이번에는 사진을 불법으로 제작한 사람과 최초 게시자, 유포자에 이르기까지 엄중히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전했다.

오마이뉴스. 2012.2.16.

- 자신의 합성 사진이 유포되었다면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 이런 사진은 왜 유포시키는 것이겠습니까?

2. 생각 펼치기

◎ 모의재판의 형식을 알아보고 준비하기  활동지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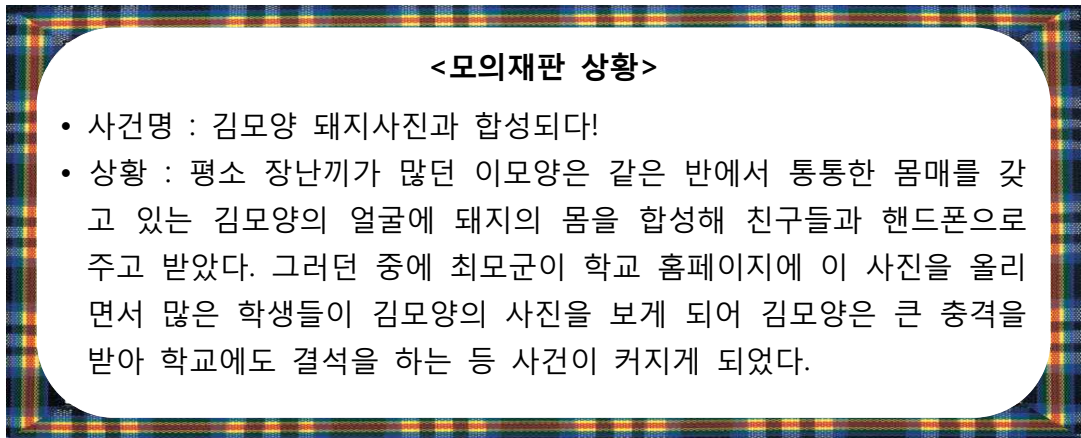
- 재판장의 개정 선언 및 인정심문→배심원 선서→검사의 발언, 검사측 및 변호인 측의 피고인 신문하기→검사측의 증인신문 및 변호인의 반대신문→변호인측의 증인신문 및 검사측의 반대심문→검사 및 변호인의 최종의견 진술→피고인의 최후 진술→배심원 판결→재판장의 판결

◎ 각자의 역할 정하기

- 재판장, 검사, 변호인, 피고인, 증인, 사무관 등의 역할에 따라 배역을 정해 봅시다.

3. 활동하기 : 모의재판 실시하기

◎ 모의재판 실시하기



- 재판장, 검사, 변호인, 피고인, 증인, 사무관 등의 역할에 맞게 모의재판을 실시해 봅시다.

4. 생활에 적용하기

◎ 모의재판을 통해 느낀 점과 다짐 발표하기

- 모의재판을 통해 느낀 점과 앞으로의 다짐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 생활과제 : 사진을 함부로 합성해 유포하는 행동을 방지하기 위한 행동지침 만들기

- 다른 사람의 사진을 함부로 합성하고 유포하는 행동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지침들을 만들어 봅시다.

• 활동지1 - 모의재판 단계

모의 형사 재판의 단계

모의형사 재판 단계	해야 할일
1단계 : 재판장의 개정 선언 및 인정신문	<p>◆ 재판장 : 개정선언</p> <p>◆ 재판장 : 인정신문을 한다. ⇒ 피고인의 성명, 나이, 직업 등을 물어 피고인 임이 틀림없음을 확인한다.</p>
2단계 : 배심원 선서	◆ 배심원 선서한다.
3단계 : 검사의 발언, 검사측 및 변호인 측의 피고인 신문하기	<p>◆ 검사의 기소요지 설명(검사의 입론) ⇒ 검사가 피고인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진술</p> <p>◆ 검사가 피고인에 대해 신문한다.</p> <p>◆ 변호인이 피고인에 대해 신문한다.</p>
4단계 : 검사측의 증인신문 및 변호인의 반대신문	<p>◆ 피고인의 잘못을 설명할 증인을 채택하여 검사가 신문한다.</p> <p>◆ 변호인이 반대 신문한다.</p>
5단계 : 변호인측의 증인신문 및 검사측의 반대신문	<p>◆ 피고인을 변론해줄 증인을 채택하여 변호인이 신문한다.</p> <p>◆ 검사가 반대 신문한다.</p>
6단계 : 검사 및 변호인의 최종의견 진술	<p>◆ 검사의 최종 의견 진술한다.</p> <p>◆ 변호인의 최종 의견 진술한다.</p>
7단계 : 피고인의 최후 진술	◆ 피고인의 최후 진술한다.
8단계 : 배심원 판결	◆ 배심원은 판결을 내린다.
9단계 : 재판장의 판결	◆ 배심원 다수의 판단에 의해 유죄 또는 무죄를 판결한다.

Ⅲ. 참고 자료

1. 학습 자료

- 공소장 양식

00 학생 모의 재판

○ ○ 시 ○ ○ 구 ○ ○ 동 ○ ○ ○-○ 번지 / 전화 ○○○-○○○-○○○○/
2012형 제 ○ ○ ○ ○ ○ 호

2012. 00. 00.

수신 :

발신 :

제 목 : 합성 사진 유포 사건

검사 000 (인)

아래와 같이 공소를 제기합니다.

피고인	성 명	
	반 번	
	주거지	
죄 명		
공소 사실	별지와 같음	
적용 법조		
신 병		
변 호 인		
첨 부	1. 피의자용 영장 1통 2. 변호인 선임서 1통 3. 피의자 출석 동의서 1통 4. 자치 법정 재판 동의서 1통	
공소 사실		

- 증인 선서문 양식

<p>선 서</p> <p>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본 법정에 맹세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12년 00월 00일</p> <p style="text-align: right;">000 (인)</p>

- 판결문 양식

학생 모의재판 판결문				
지도교사 () (인)				
문서번호 ()				
학생(피고인)	학번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일시 및 장소	2012년	월 일	0000 학교 모의 재판장	
제목				
검사(원고) () 인				
변호인 () 인				
판사 () 인 () 인 () 인				
모의재판사무관 (기록유지 및 전달)				
<div>[모의 재판의 권고 판결 내용]</div> <div>별점 전, 교내봉사 일</div>				

2. 참고 문헌

- 최동호(2007). 학생 자치 운영 법정을 통한 학교 법규 일탈행위 선도 전략. 현장교육연구보고서.
- 사이버 법교육센터 <http://www.lawedu.go.kr/main/index>

영역	사이버 폭력	대상	중/고등학생	시간	180분
학습 주제	스마트폰 폭력은 친구에게 휘두르는 흥기와 같아				

I. 이 수업에 대하여

1. 개요

최근 학생들 간 이루어지는 폭력 중에는 스마트폰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사이버 폭력 역시 신체적 폭력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입힐 수가 있음을 주지시킨다. 그래서 본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친구들에게 나쁜 말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도록 한다.

2. 목표

-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친구를 헐뜯지 않겠다는 다짐을 할 수 있다.
-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친구에게 나쁜 말을 했을 때 친구는 큰 상처를 입게 됨을 알 수 있다.

3. 준비물

- 신문기사, 싸인펜, 흰색 전지, 도화지, 그림도구 등

4. 학습 내용

단 계	내 용
생각 열기	스마트폰 ‘떼카’에 관한 신문기사 읽기
생각 펼치기	(조별)신문기사에 등장했던 네 명의 학생들 입장 파악 및 행동 조언해주기
활동하기	스마트폰 폭력 예방을 위한 글짓기/그리기 대회 열기
생활에 적용하기	토의 결과물을 교실 게시판에 게시하여 생활화하기

5. 유의 사항

- 스마트폰 폭력이 피해 학생에게 입히는 부정적인 면을 생각해 봄으로써,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친구에게 나쁜 말을 하지 않도록 지도해야 한다.

II. 수업 과정안

1. 생각 열기

◎ 스마트폰 ‘떼카’에 대한 신문기사 읽기 📖 활동지 1

경북 지역에 사는 초등학교 6학년 A양은 이달 초 주말 집에서 휴대폰을 열었다가 충격을 받았다. 카카오톡에서 누군가 '그룹채팅'을 신청해 들어갔더니 같은 학교 학생 B양을 포함해 10여 명이 A양에게 한꺼번에 욕을 했다. "A 대가리는 꾸진 면상" "존나 나대" "인간멸종 쓰레기야" 같은 욕설이 수십 개 뜨자 A양은 휴대폰을 꺼버렸다.

며칠 전 A양은 B양과 사소한 말다툼을 했는데, B양이 자신과 친한 친구들과 함께 카톡으로 A양에게 복수를 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카톡 그룹채팅에서 여러 명이 한 명을 괴롭히는 것을 일명 '떼카'라고 한다.

'떼카' 말고도 카톡으로 괴롭히는 방법은 다양하다. 서울 지역 중학교 3학년 C양은 지난해 12월 학교 앞에서 같은 반 '일진' D양과 마주쳤다. C양은 D양이 "먹을 것 좀 사달라"고 하자 "돈이 없어서 못 사주겠다"고 대답하고 무서워서 도망쳤다.

이후 D양은 자신의 카카오톡 닉네임으로 "찌질한 C의 진실을 알고 싶은 사람은 (내게) 대화를 신청하라"고 공지하고, 자신에게 대화를 신청하는 친구들에게는 "C가 친구들의 뒷담화를 하고 다닌다"고 소문냈다. D양의 말을 듣고 C양을 오해한 학생들은 C양에게 전화나 메시지를 통해 "뒷담화를 하다니 가만히 안 두겠다", "학교 앞에서 집단으로 때릴 거다"라고 협박했다. C양은 카톡에서 시작된 괴롭힘이 지속되자 학교를 무단 결석했고 학업 성적도 크게 떨어졌다.

이처럼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학생들 사이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집단으로 한 명을 왕따시키거나 괴롭히는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 (조선닷컴-2012.04.27)

- 이 기사가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 위에 등장하는 A, B, C, D양의 입장이라면 어떤 기분이었을지 생각하여 봅시다. 그리고 그 입장에서 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은 무엇일까요?

2. 생각 펼치기

◎ 조별 토의하기(A,B,C,D 친구들에게 조언해 줄 말 논의하기)

- 조별로 신문기사에 등장했던 친구들의 행동을 다시 생각해 보고, 그들의 행동을 평가해 봅시다. 그리고 그들의 행동에 대해 조언을 하여 볼까요?
- (시간 부족 시)A-B, 또는 C-D로 선택해서 그들의 행동을 조언해 봅시다.

3. 활동하기 : 스마트폰 폭력 예방을 위한 글짓기/그리기 대회

<스마트폰 폭력 예방을 위한 글짓기/그리기 대회>

- 준비물 : 두꺼운 도화지, 물감(또는 포스터 물감), 붓, 글짓기 도구 등
- 유의사항 : ①수업 전에 미리 준비물을 챙겨두도록 한다.
②학생들이 대회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방법 : ①학생들은 스마트폰 폭력 예방을 위해 글짓기나 그리기 중 선택할 수 있다.
②학생들이 만든 글짓기나 그리기는 교실 창문, 사물함, 복도 벽 등에 게시하도록 한다.

◎ ‘글짓기’나 ‘그리기’ 작품 전시하기

- 친구들이 만든 글짓기나 그리기를 살펴봅시다. 전하려는 의미가 잘 담겨 있습니까?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말하여 볼까요?

◎ ‘글짓기’나 ‘그리기’ 작품 전시가 주는 효과 말하기

- 교실, 복도 등에 게시된 글짓기나 그리기는 반 친구들이나 학교 선, 후배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 여러분은 대회를 통해 어떤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까?

4. 생활에 적용하기

◎ 스마트폰을 이용한 사이버 폭력을 공부한 이후, 이에 대한 나의 생각 돌아보기

- 다른 친구가 나에게 스마트폰으로 나쁜 말을 했을 때 나의 마음은 어땠는지 생각해 봅시다.
- 내가 친구에게 스마트폰을 이용해 나쁜말을 할 때 친구의 마음이 어땠는지 생각해 봅시다.
- 오늘 공부하면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나쁜 말을 쓰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까?

◎ 이번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과 다짐 발표하기

- 오늘 활동을 통해 느낀 점과 앞으로 여러분의 다짐을 이야기해 봅시다.

• 활동지1 - 신문기사 읽기

읽기자료 1

경북 지역에 사는 초등학교 6학년 A양은 이달 초 주말 집에서 휴대폰을 열었다가 충격을 받았다. 카카오톡에서 누군가 '그룹채팅'을 신청해 들어갔더니 같은 학교 학생 B양을 포함해 10여 명이 A양에게 한꺼번에 욕을 했다. "A 대가리는 꾸진 면상" "존나 나대" "인간멸종 쓰레기야" 같은 욕설이 수십 개 뜨자 A양은 휴대폰을 꺼버렸다.

며칠 전 A양은 B양과 사소한 말다툼을 했는데, B양이 자신과 친한 친구들과 함께 카톡으로 A양에게 복수를 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카톡 그룹채팅에서 여러 명이 한 명을 괴롭히는 것을 일명 '떼카'라고 한다.

'떼카' 말고도 카톡으로 괴롭히는 방법은 다양하다. 서울 지역 중학교 3학년 C양은 지난해 12월 학교 앞에서 같은 반 '일진' D양과 마주쳤다. C양은 D양이 "먹을 것 좀 사달라"고 하자 "돈이 없어서 못 사주겠다"고 대답하고 무서워서 도망쳤다.

이후 D양은 자신의 카카오톡 닉네임으로 "찌질한 C의 진실을 알고 싶은 사람은 (내게) 대화를 신청하라"고 공지하고, 자신에게 대화를 신청하는 친구들에게는 "C가 친구들의 뒷담화를 하고 다닌다"고 소문냈다. D양의 말을 듣고 C양을 오해한 학생들은 C양에게 전화나 메시지를 통해 "뒷담화를 하다니 가만히 안 두겠다", "학교 앞에서 집단으로 때릴 거다"라고 협박했다. C양은 카톡에서 시작된 괴롭힘이 지속되자 학교를 무단 결석했고 학업 성적도 크게 떨어졌다.

이처럼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학생들 사이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집단으로 한 명을 왕따시키거나 괴롭히는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 (조선닷컴- 2012.04.27)

☞ 읽기자료 1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 (조별 토의) - 흰색 전지에 토의 결과를 정리!(①A-B/②C-D 중 선택)

A양의 심정을 생각해 보고, 여러분이 A양의 친구라면 어떤 해결 방안을 제시하겠습니까?	B양의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여러분은 B양의 행동에 대해 어떠한 조언을 하고 싶습니까?
C양의 심정을 생각해 보고, 여러분이 C양의 친구라면 어떤 해결 방안을 제시하겠습니까?	D양의 행동에 대해 평가를 내려봅시다. 여러분은 D양의 행동에 대해 어떠한 조언을 하고 싶습니까?

Ⅲ. 참고 자료

1. 사람을 죽이는 SNS 언어 폭력(신문기사)

<p>'카카오톡 집단 왕따'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숨진 강모(16)양에게 스마트폰으로 집단적인 욕설을 퍼부은 혐의를 받고 있는 학생들이 모두 "그것(욕설)은 스마트폰의 일상적인 문자 대화"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 사건이 강양 부모 제보로 언론에 보도된 지난 16일 이후, 왕따 떼카(카카오톡 그룹 채팅)에 참여한 16명 중 10명 정도를 조사했다.</p> <p>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카톡(카카오톡)으로 욕하고 그러는 건, 일상적인 말로 원래 친구들과 맨날 그런 식으로 대화를 주고받는다" "악의가 있었던 게 아니라, 친구들 사이에서 욕설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처럼 별생각 없이 그랬다"고 진술했다. 왕따 의도가 없었다는 것이다.</p> <p>문제의 카카오톡 대화록을 보면, 이들은 당일 오전 0시 4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아무런 맥락 없이 "ㅅㅂ(X발)" "XX 새끼 X발 나대고 지랄이야 개깽ㅋㅋ" "X또 X미..." 등의 욕설을 내뿜었다. "XX 년아"라는 욕설에 대해 "ㅋㅋㅋ"라는 대답이 돌아올 정도로 이들의 대화는 거칠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숨진 강양의 가족은 "딸은 이 대화에 큰 충격을 받</p>	<p>고 투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p> <p>경찰 여성청소년계 관계자는 "이런 내용이 일상적인 대화라면, 카카오톡을 하는 학생들은 강양처럼 자살에 이를 수 있는 심리적 충격의 가능성에 노출돼 있다는 얘기"라고 말했다.</p> <p>조규익 숭실대 교수는 "단문(短文) 메시지에서선 이성적인 소통보다 외마디 소리나 강한 자극을 주는 욕설 등이 선호된다"면서 "스마트폰이나 SNS에 익숙한 10대가 일상적으로 욕설 메시지를 주고받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고 설명했다. 광금주 서울대 교수도 "카카오톡이나 SNS는 10대에게 충동이나 감정을 즉각 해소하는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면서 "가령 요즘 10대는 화가 나거나 욕을 하고 싶으면 바로 스마트폰을 열고 친구들을 초대해서 한마디씩 (욕설을) 던지면 된다"고 말했다.</p> <p>전문가들은 사춘기에 접어드는 학생들이 이 같은 욕설을 들으면 정신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채정호 서울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스마트폰 메시지는 지우지 않는 이상 계속 볼 수 있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속적으로 상처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조선닷컴 2012.08.21)</p>
--	--

2. 참고 문헌

- 조선닷컴 2012.04.27. [학교 폭력, 이젠 그만] 카카오톡 그룹채팅서 한명만 괴롭히기 '떼카' 성행
- 조선닷컴 2012.08.21. 친구 죽인 SNS 말폭력... 가해 학생 "그건 우리들 일상 대화"

영역	사이버 폭력	대상	중/고등학생	시간	40분
학습 주제	왕따 카페 탈출기~				

I. 이 수업에 대하여

1. 개요

왕따 카페는 비밀리에 운영되고 왕따를 당하는 학생에 대한 여론을 몰아가는 경우가 많아 본인에게 알려지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따라서 이 수업은 학생들이 자신이 왕따를 당하는 왕따 카페의 주인공이 되는 역할극을 해 봄으로써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잘못된 행동양식을 고쳐나가는데 목적이 있다.

2. 목표

- 왕따 카페 주인공의 마음을 이해하고 잘못된 행동양식을 고칠 수 있다.
- 다른 사람에 대한 나쁜 말보다 칭찬의 말을 할 수 있다.

3. 준비물

- 활동지

4. 학습 내용


단 계	내 용
생각 열기	왕따 카페에 대해 알아보기
생각 펼치기	역할극 상황과 대본 작성하기
활동하기	역할극 시연하기
생활에 적용하기	역할극에 대한 소감발표 및 칭찬의 말 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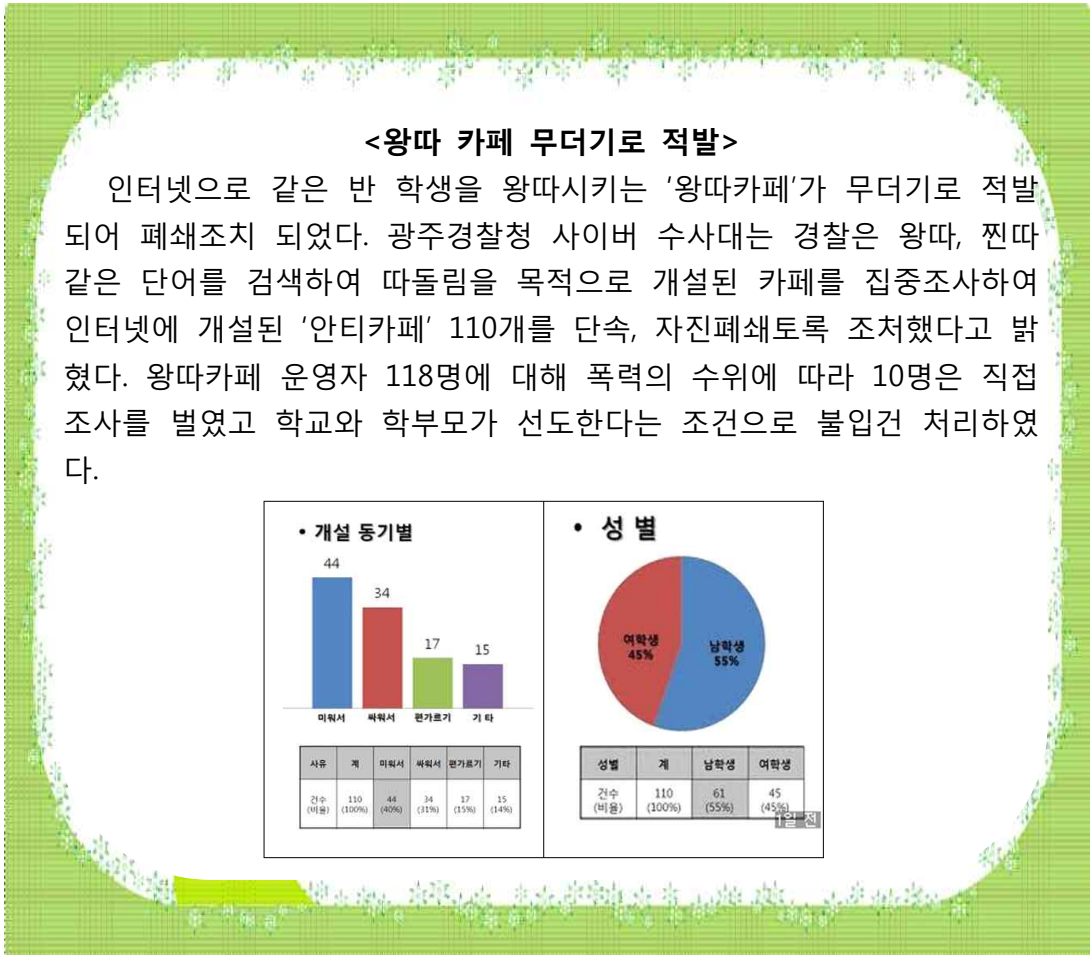
5. 유의 사항

- 역할극을 하며 장난스러운 분위기나 모욕감을 주는 분위기가 되지 않도록 지도한다.
- 모든 모둠원들이 역할극에서 왕따를 당하는 왕따 카페의 주인공이 되는 것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역할을 바꾸어 가며 진행한다.

II. 수업 과정안

1. 생각 열기

◎ 왕따 카페에 대해 알아보기  활동지 1



- 왕따 카페에 대한 기사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 실제 왕따 카페에 가입해 본 적이 있습니까?
- 내가 왕따를 당해 왕따 카페의 주인공이 된 적이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그 때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2. 생각 펼치기

◎ 역할극 상황과 대본 작성하기

- 모듈별로 왕따 카페에 대한 상황과 등장인물을 설정해 봅시다.

- 역할극으로 꾸며볼 장면을 설정하고 대본을 작성해 봅시다.
- 인물의 성격에 어울리는 배역을 정해 봅시다.

3. 활동하기 : 역할극 시연하기

◎ 역할극 진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 세우기

<왕따 카페의 주인공 되어보기>

- 상황 : 컴퓨터 주변에 여러 명이 모여서 왕따를 당하는 주인공에 대해 비방하는 말이나 욕설과 같은 말을 하고 있으나 주인공은 그 말을 직접 듣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다 그 사실을 알게 되는데....

- ◎ 역할극을 시연해 봅시다.
- ◎ 서로 역할을 바꾸어 왕따를 당하는 주인공의 역할을 체험해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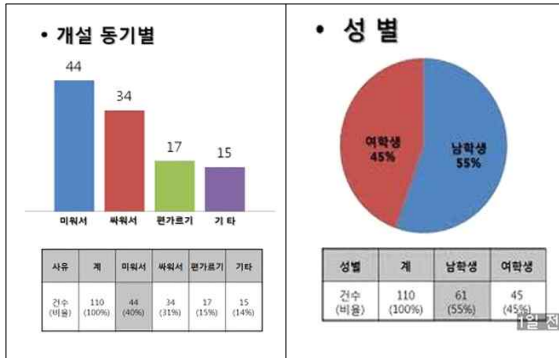
4. 생활에 적용하기

- ◎ 역할극을 하고 난 후의 소감 발표하기
 - 왕따 카페 주인공의 심정을 이해하고 앞으로 행동에 대해 다짐해 봅시다.
- ◎ 생활과제 : 칭찬의 말하기
 - 친구들 간에 사소한 점이라도 서로 칭찬하는 말을 해 봅시다.

• 활동지1 - 왕따 카페 알아보기

왕따카페 무더기로 적발

인터넷으로 같은 반 학생을 왕따시키는 '왕따카페'가 무더기로 적발되어 폐쇄조치 되었다. 광주경찰청 사이버 수사대는 경찰은 왕따, 찌따 같은 단어를 검색하여 따돌림을 목적으로 개설된 카페를 집중조사하여 인터넷에 개설된 '안티카페' 110개를 단속, 자진폐쇄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왕따카페 운영자 118명에 대해 폭력의 수위에 따라 10명은 직접 조사를 벌였고 학교와 학부모가 선도한다는 조건으로 불입건 처리하였다.



왕따 카페의 학년별 통계를 보면 초등학생 왕따카페 50%, 중학생 41%, 고등학생 9%로 나타났으며 왕따 카페를 만드는 이유는 외모나 행동이 미워서가 44%, 싸우고 나서가 34%, 평가르기 17%, 기타가 15%로 나타났다. 또한 성별로는 남학생이 61%, 여학생이 45%였다.

<왕따의 구체적 사례>

단속된 왕따카페는 주로 피해 학생의 이름과 학교명, 반명 등의 별칭을 이용해 개설되었으며, "OOO 싫어. 오늘 놀아줬더니 좋아해야ㅋㅋ. 아 글로 자꾸 붙어 XX 싫어"와 같은 글이 올라와 있었다.

지난해 11월 17일 개설된 한 인터넷 카페에는 특정 학생에 대한 욕설이나 비방글과 사진이 20여건 가까이 올라와 있었다. 경찰이 수사하기 전인 지난해 12월 18일까지 글은 계속됐다.

전라남도 한 중학교 학생 9명이 회원으로 있는 카페의 목적은 같은 반 친구를 따돌리는 것 단 한가지뿐이었다. 따돌림을 당한 학생은 학교에서 밥을 먹을 수도 없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으며 왕따 카페를 만들고 주도한 학생들이 "야, OOO하고 놀지마. 밥 먹지마"라고 하면서 반협박을 하였다. 카페를 만든 학생들은 "하는 말이 싫고, 행동도 싫고 그냥 싫었다."고 답하였다.

왕따의 대상이 집단적인 카페도 있었다. "재수없는 X반 여편네들, 욕 완전 가능", "X반 재수없는 여자 사진 가지고 계신 분은 매니저에게 폰으로 사진 전송" 등의 글이 올라와 있었다. 이런류의 카페에는 욕설과 비방이 무차별적으로 몰려지고 왕따 대상자의 신상 정보도 고스란히 노출돼 심리적 압박감과 인권 침해 소지도 매우 큰점이 우려를 낳고 있다.



<http://blog.naver.com/multiprayer/100151251161>

Ⅲ. 참고 자료

1. 학습 자료

- 왕따 카페 관련 기사문(조선일보.2012.2.17.)

[오늘의 세상] 12살짜리가 만들었다고 믿어지십니까

초등학생 '왕따 카페' 들어가보니...

성불구자·창녀·걸레... 원색적인 험담으로 가득 차, 뱀이 돼지 잡아먹는 사진도

"김철수(가명)의 전과는 ①나댄다, ②때린다, ③구라친다, ④병맛이다, ⑤감각이 병신이다, ⑥장애다, ⑦말로 설명할 수 없도록 병맛(병신 같은 맛) 같다, ⑧형들이 보면 이런 시X놈이라고 한다. 더 있으면 댓글 달아주삼. 추가할 테니."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한 초등학교 6학년들이 개설한 '왕따 카페'에 올라온 39개의 글에는 단 하나의 글도 빠짐없이 왕따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같은 반 학생에 대한 욕설로 가득했다. 'X발, 병신, 찌따' 등의 욕설은 어김없이 포함돼 있었고 '창녀', '걸레' 등 성적인 욕이나 "친애비애미는 똥졌다" 등 가족까지 대상으로 하는 험담과 비난이 가득했다. 욕설의 방식도 다양했다. 한 학생이 "김철수는 나불대는 X새끼에 성불구자"라는 글을 올리자 "X알도 성기도 없는 새끼가 X나 나댄 공로로 이 상을 수여한다"는 표창장 사진이 댓글로 붙기도 했다.



욕설과 험담으로 가득 찬 인터넷 '왕따 카페'. 카페 회원은 대부분 평범한 학생이었다. 카페 메인화면 한 쪽엔 왕따시키는 학생을 돼지에 비유하고, 돼지가 뱀에게 통째로 잡아먹히는 사진이 있다.(왕따카페 메인화면 캡처)

또 다른 초등학생 왕따카페에서 '이영식(가명)의 미래'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열면 돼지 가족사진이 화면을 채운다. 어미 돼지는 왕따 대상 학생이고 새끼 돼지는 그 자식들이라는 식이다. 이어지는 사진에서 어미 돼지는 통구이가 되고 새끼 돼지는 뱀에게 잡아먹히는 사진이 나온다. "이영식이 잘 구어진 채로 있습니다", "이영식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는 등의 글이 붙어 있다.

인터넷에 개설된 초등학생 왕따카페 대부분은 특정한 학생을 대상으로 개설된 것이었다. 대부분 왕따로 찍힌 특정 학생의 행동을 적어놓고 욕을 하는 글을 올리면 회원들이 동조하면서 욕설 댓글을 다는 식이다. 합성 사진이나 4컷 만화뿐 아니라 노래 가사를 개사하거나 질문·답변 방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왕따 대상자를 비난하는 글이 거의 매일 올려진다.

지난 15일 경찰에 적발된 110개의 왕따카페 중 이처럼 초등학생이 개설한 것이 절반에 달했다. 경찰은 대부분의 카페 개설자나 회원들이 학교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 평범한 아이들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아이들은 인터넷에서 왕따 대상뿐만 아니라 연예인 등에게 입에 담기도 어려운 욕설을 거리낌 없이 사용하는 '사이버 불링(cyber bullying·인터넷상에서 특정인을 괴롭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왕따카페 학생들은 자기들끼리 몰래 카페를 개설해서 왕따 대상에 대한 욕을 하면서 놀았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파악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영역	사이버 폭력	대상	중/고등학생	시간	80분
학습 주제	신상 털기 이제 그만!				

I. 이 수업에 대하여

1. 개요

인터넷 사용의 증가와 잘못된 윤리의식으로 네티즌들이 온라인 정보 체계를 바탕으로 특정인의 신상 정보를 찾아내고 이를 유포시켜 사생활 침해가 이루어져 사회적으로도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는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마음이 들도록 한다.

2. 목표

- 신상 털기로 인한 피해 상황을 알 수 있다.
-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보호하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

3. 준비물

- 활동지, 동영상 자료

4. 학습 내용

단 계	내 용
생각 열기	스펀지 스페셜 ‘간단한 신상 털기 방법’ 시청하기
생각 펼치기	김국진의 ‘현장박치기’ 시청하기
활동하기	신상 털기에 대한 찬반 토론하기
생활에 적용하기	신상 털기 방지 문구 발표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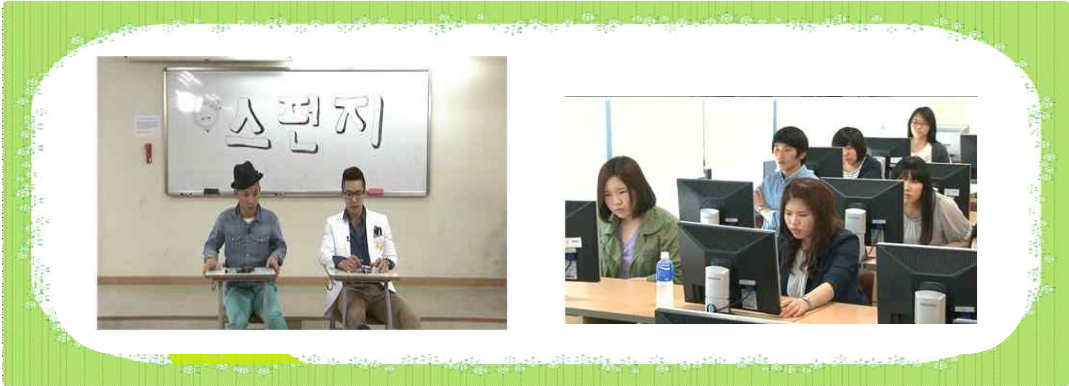
5. 유의 사항

- 다양한 동영상 시청을 통해 신상 털기의 피해에 대해 경각심을 갖도록 지도한다.

II. 수업 과정안

1. 생각 열기

◎ 스펀지 ‘간단한 신상 털기 방법’ 시청하기(2012.5.18.오후8시50분.KBS)



- 이 영상을 보고 알게 된 점은 무엇입니까?
- 이 영상에서 말하고자 하는 점은 무엇이겠습니까?

◎ 신상 털기에 대한 경험 이야기하기

- 다른 사람의 신상 털기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 주변에서 본 신상 털기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2. 생각 펼치기

◎ 김국진의 ‘현장박치기’ 시청하기(2012.9.6.오후11시.JTBC)



- 이 영상은 여러분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 신상 털기의 긍정적인 점과 부정적인 점은 무엇이겠습니까?
- 만약에 나의 신상이 털린다면 어떤 기분이겠습니까?

3. 활동하기 : 토론하기

◎ 신상 털기에 대한 찬반토론 해보기

- 사람들이 신상 털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신상공개는 비윤리적, 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현대 사회의 처벌 방식 중 하나이다”와 “신상 털기는 도를 넘어 일종의 놀이로 대중화됐으며 엉뚱한 피해자를 낳기도 한다”라는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신상 털기란 ‘알권리 충족인가? 도 넘은 인권 침해인가?’라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신상 털기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정해 서로 토론해 봅시다.

4. 생활에 적용하기

◎ 신상 털기에 대한 토론 후 깨달은 점 마음속에 새기기

- 토론 결과에 대해 발표하고 깨달은 점에 대해 발표해 봅시다.

◎ 생활과제 : 신상 털기 방지 문구 만들기

- 신상 털기를 예방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 신상 털기 방지 문구를 만들어 발표해 봅시다.

Ⅲ. 참고 자료

1. 학습 자료

- 신상털기에 관한 기사 1(중앙일보.2011.1.8.)

‘신상털기’는 폭력

이나미의 마음 엿보기-정신과 전문의 용 분석심리학자 | 제200호 |

‘집과 일터 곳곳에 양방향 텔레스크린과 마이크를 설치해 철저하게 국민을 감시한다. 동시에 정부 입장은 무조건 옳은 것이라고 홍보한다. 정치적 반대파의 사진을 비롯한 모든 정보를 삭제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인간으로 만든다’.

조지 오웰은 1949년 작 소설 1984년에서 오세아니아라는 나라를 이렇게 묘사했다. 스탈린이나 히틀러에서 소설의 영감을 얻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와 비슷한 일들이 지금도 북한 같은 독재국가에서 벌어지고 있고 영국, 미국, 유럽연합(EU) 국가에서도 관찰된다. 사방팔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CCTV(폐쇄회로TV)의 존재가 한국만의 풍경은 아니다. 미국은 아예 국토안보부(DHS)-국가안전보장국(NSA)이 전화·e-메일·팩스·문자메시지, 심지어는 DNA 정보까지도 합법적으로 들춰볼 수 있다. 지난해 12월 20일 워싱턴 포스트는 ‘감시하는 미국’이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를 게재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미네르바 사건이나 영국 위키리크스의 재판, 중국의 결혼정보 공개를 둘러싼 논란도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해커들은 개인적 이득이 없어도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웹사이트를 들락거리며 해킹을 일삼는다. 현대사회에선 정보를 많이 가진 쪽이 상대방을 통제하거나 다스리며 때로는 위협한다. 정보통제에 대한 욕심은 권력에 대한 욕구와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다.

요즘은 평범한 사람들도 쉽게 개인 정보를 빼내 유통시킨다. 이른바 ‘신상 털기’다. 휴대전화·몰래카메라 등으로 개인의 사생활을 찍은 동영상들이 인터넷을 유령처럼 떠돈다. 중국 문화혁명 때 지식인에게, 세계대전 후 프랑스에서 독일에 협조한 사람들에게 쏟아부은 언어폭력을 연상시킬 정도다. 잔인함이 묻어 있다. 특정 연예인의 학력·연애사 등 사적인 것에 의심을 품고 그 진실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에 집착하면서 자신의 열등감과 고립감을 보상받으려는 이들과 친일파, 상습적 고액 체납자, 성폭력범의 명단을 공개해 망신을 주자는 사람들의 입장은 그 의도와 의미가 아주 다르다. 하지만 무의식 속 움직임에는 비슷한 면도 없지 않다. 조선시대에도 ‘회술래’란 이름의 공개망신법이 있었다. 형리가 죄인의 상투를 잡고 복을 목에 건 다음 동네방네 복을 치고 다니게 했다. 일종의 사회적 살인이다. 그리스의 극작가 플라우투스(Plautus)는 “인간은 서로에게 늑대다(Homo Homini Lupus)”라고 했다. 집단의 선량함을 믿은 마르크스나 목자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상가들은 군중심리의 위험성을 경계했다. 일대일로 만날 때는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화내는 정도로 끝나지만, 집단이 한 명을 목표로 공격하면 그 잔인함은 증폭된다. 그게 바로 군중심리다.

필자도 공공장소에서 무례한 이들을 만난, 불쾌한 경험이 적지 않아 ‘○○녀, ○○남’이라는 용어와 관련 기사가 뜰 때 은근히 속 시원함을 느낄 때가 있다. 모두가 모두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사회가 더 잘 정돈되고, 시민정신이 더 투철해질 수도 있다. 일벌백계하는 장면을 보면서 스스로 도덕적으로 바뀔 수도 있다. 그러나 전후좌우를 따지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개인정보를 빼 이를 악용하거나 특정인을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방식은 아니어야 한다. 잘못된 법으로 다스리면 된다. 수많은 이가 달려들어 집단 안의 모자라는 누군가를 무차별하게 공격하는 행동은 동물의 세계에서도 좀처럼 볼 수 없는 기이한 현상이다.

- 신상털기에 관한 기사 2

신상털기의 실례들

■ 경희대 패륜녀



2010년 5월, 화장실에서 청소부 아주머니에게 욕설을 한 녹음 파일이 인터넷에 유포되면서 세간의 분노를 샀습니다. 녹음파일이 유포된지 이틀 만에 그녀의 실명, 사진, 미니홈피 주소 등의 신상 정보가 인터넷에 무차별적으로 유포되었고 그녀의 미니 홈피는 분노한 네티즌들의 테러로 폐쇄되었습니다. 그녀를 옹호하는 인터뷰를 하였던 한 여성의 신상도 공개되었습니다.

■ 왓비컴즈와 타진요 관련자들



2010년 8월경 가수 타블로의 학력 위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 대결구도에서 타블로를 줄기차게 공격했던 쪽이 바로 인터넷 카페 '타진요(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이고 타진요의 운영자가 바로 왓비컴즈입니다. 결국 방송 보도로 타블로의 학력이 인정되고 분노한 네티즌들은 왓비컴즈를 비롯한 타진요 운영자, 학력 논란 관련 보도를 제작 했던 MBC PD등의 신상을 톱니다.

■ 30대 여교사



2010년 10월, 중학생 제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30대 여교사에 관한 기사가 게재됩니다. 여교사를 처벌할 수 없다는 기사가 게재되고 이에 분노한 네티즌들은 법을 대신하여 그녀를 심판한다는 명분 하에 그녀의 실명, 사진, 미니홈피 주소 등의 신상 정보를 인터넷에 유포합니다.

■ 로우킵녀



2010년 11월, 엘리베이터 앞에서 여중생 두 명이 5~6세 가량의 어린이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는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됩니다. 단 하루 만에 로우킵녀의 실명, 학교, 사진, 미니홈피 주소 등의 신상 정보가 공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엉뚱한 사람의 신상 정보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직도 공개된 로우킵녀의 신상에 대한 진위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로우킵녀로 오해를 받은 여학생입니다.

■ 지하철 반말녀



2010년 12월 29일경 지하철에서 노인에게 반말을 하는 여성의 동영상이 유포됩니다. 그로부터 하루 뒤 여성의 실명, 미니홈피 주소 등의 신상 정보가 잇따라 인터넷에 유포되었습니다. 이에 동영상의 여성은 자신의 신상을 공개한 네티즌을 신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http://blog.daum.net/lawnorder/267>

- 신상털기에 관한 기사 3

신상 털기 무엇이 문제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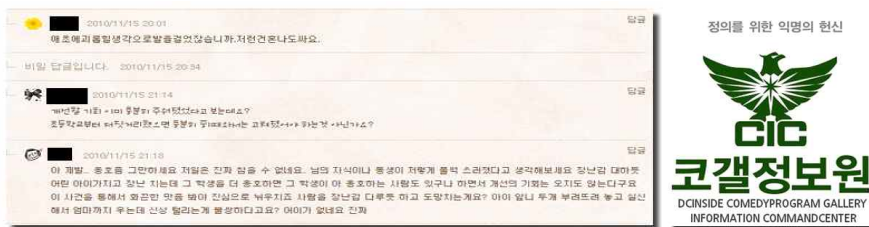
▲ **신상 털기는 범죄다** : 신상 털기는 사생활 침해인 동시에 명예 훼손 행위입니다. 개인의 실명, 휴대전화번호, 미니홈피 주소 등의 신상 정보가 인터넷에 여과없이 유출되는 것은 개인 사생활의 심각한 침해입니다. 또한 유출된 정보가 허위라 할지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형법 제307조 명예 훼손 죄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마녀사냥의 시발점** : 사례에서 언급한 인물들처럼 비윤리적인 사건으로 익명보도된 인물의 신상 털기는 곧바로 마녀사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경우 마녀사냥을 위해 신상을 터는 것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마녀사냥은 피해자의 사회생활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무서운 행위입니다. 게다가 신상 털기로 공개된 정보가 잘못된 정보여서 엄한 사람이 마녀사냥의 희생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신상 털기로 엉뚱한 사람이 지목된 대표적인 경우가 로우키크녀 입니다. 사진속의 여학생은 첫번째 사진에 나오는 미니홈피 다이어리의 글 때문에 로우키크녀로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담임 선생님의 해명이 올라 왔습니다(오른쪽 사진). 현재도 담임선생님의 글이 여학생의 저작극이며, 로우키크녀가 이 여학생인걸로 판명되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결과 전자는 추측에 불과한 주장이고 후자는 전혀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이 여학생은 14살이었습니다.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까요? 우측 사진의 '투데이'를 보시면 네티즌들의 테러가 얼마나 심했는지 짐작 가능합니다.

▲ **위험한 여론** : 신상 털기를 옹호하는 입장이 있다는 점도 신상 털기의 문제점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이슈가 되었던 신상 털기의 희생자는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던 인물입니다. 때문에 이들에 대한 신상 털기는 마치 '정의의 심판'인것처럼 둔갑하게 되고 '이런 사람들은 당해도 싸다.', 혹은 '신상 털기에는 반대하지만 이번에는 잘했다.' 등의 신상 털기를 옹호하는 여론이 조성되게 됩니다.



(좌측사진) 어느 블로그에서 로우키크녀의 신상 정보를 보고 그녀를 비방하는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우측사진) 이런 반응들 때문일까요? 신상 털기를 전문으로 하는 어느 사이트의 네티즌들이 사용하는 로고는 너무도 당당합니다.

▲ **대중화 되는 신상털기** :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검색 엔진의 성능이 좋아져 일반인들도 쉽게 신상 털기가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신상 털기는 인터넷 놀이의 일종으로 여겨지며 대중화 되고 있지요. 신상 털기에 대한 경각심 조성이 미흡한 점, 신상 털기에 대한 일반인의 호기심 증가도 여기에 한 몫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 이슈가 되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도 신상 털기의 가해자가 되거나 피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illegible]

유머게시판에 자주 올라오는 글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 하루 만에 휴대전화번호, 현재 재학중인 학교, 심지어 아버지의 주민등록번호까지 털린 모습입니다. 중간에 스스로 아버지 성함을 올린 것은 누군가 아이디를 해킹하여 올린거구요. 이처럼 누구나 신상 털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http://blog.daum.net/lawnorder/267>

2. 참고 문헌

- 국가인권위원회(2011). 신상털기와 개인정보보호. 국가인권위원회 연구보고서.
<http://library.humanrights.go.kr/hermes/imgview/11-15.pdf>
- 김국진의 ‘현장박치기’(무료보기 가능한 곳)
http://v.youku.com/v_show/id_XNDQ3NTkxODQ4.html

제 3 부

학교폭력 실태 분석을 위한 연구자료

▣ 차례 ▣

1. 학교폭력과 관련된 법률 및 규칙
2. 학교폭력 관련 주요 도서의 내용 요약
3. 학교폭력 관련 주요 연구 논문의 내용 요약
4. 학교폭력 관련 월간지 특집 기사 요약
5. 학교폭력 예방 지도 관련 신문 기사 내용 요약
6. 일본의 학교폭력, 집단 따돌림(이지메) 관련 연구 요약
7. 미국의 학교폭력 관련 연구 요약

1. 학교폭력과 관련된 법률 및 규칙

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 2012.5.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 2012.5.1] [법률 제11388호, 2012.3.21, 일부개정]
교육과학기술부(학교문화과), 02-2100-6644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5.8, 2012.1.26, 2012.3.21>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 1의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 1의3.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5. "장애학생"이란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말한다.

제3조(해석·적용의 주의의무)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교육·제도 등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학교폭력의 규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 ② 제2조제1호 중 성폭력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정책 목표·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제7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1. 학교폭력의 근절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계도
2.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재활 등의 지원
3. 학교폭력 관련 행정기관 및 교육기관 상호 간의 협조·지원
4.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문상담교사의 배치 및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5. 학교폭력의 예방과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의 치료·교육을 수행하는 청소년 관련 단체(이하 "전문단체"라 한다) 또는 전문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6. 그 밖에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교육청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그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6>

제7조(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설치·기능)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3.21>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평가
2.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3.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교육청, 제9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제10조의2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전문단체 및 전문가가 요청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2.3.21]

제8조(대책위원회의 구성) ① 대책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학교폭력 대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되고,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경찰청장
2. 학교폭력 대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제1호의 위원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사람
3.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청소년 또는 의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4.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 및 이에 따른 상담 또는 심리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5. 판사·검사·변호사
6. 전문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7. 의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8. 학교운영위원회 활동 및 청소년보호활동 경험이 풍부한 학부모

④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된다.

⑥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는 등 안건 심의를 지원하고,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책위원회에 학교폭력대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⑦ 그 밖에 대책위원회의 운영과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3.21]

제9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설치) ① 지역의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도에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1.26>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지역위원회의 운영 및 활

등에 관하여 시·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1.26>

③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지역위원회 및 제2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기능 등) ① 지역위원회는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의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매년 수립한다.

② 지역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교육감 및 지방경찰청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지역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나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상담·치료 및 교육을 담당할 상담·치료·교육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상담·치료·교육 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해당 기관의 명칭, 소재지, 업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6>

[제목개정 2012.1.26]

제10조의2(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운영) ① 학교폭력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학교폭력대책지역 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그 밖에 지역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3.21]

제11조(교육감의 임무) ① 교육감은 시·도교육청에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학교의 장 및 관련 학교의 장에게 그 경과 및 결과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학교폭력이 관할 구역 외의 학교폭력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그 관할 교육감과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은 제12조에 따른 자치위원회가 처리한 학교의 학교폭력빈도를 학교의 장에 대한 업무수행 평가에 부정적 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교육감은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전학의 경우 그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른 퇴학처분의 경우 해당 학생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다른 학교 재입학 등의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2.3.21>
- ⑦ 교육감은 대책위원회 및 지역위원회에 관할 구역 안의 학교폭력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관할 구역 밖의 학교폭력 관련 사항 중 관할 구역 안의 학교와 관련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1.26, 2012.3.21>
- ⑧ 교육감은 학교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2.3.21>
- ⑨ 교육감은 학교폭력 등에 관한 조사, 상담, 치유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2.3.21>
- ⑩ 교육감은 관할 구역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한 때에 해당 학교의 장 또는 소속 교원이 그 경과 및 결과를 보고함에 있어 축소 및 은폐를 시도한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 제50조 및 「사립학교법」 제62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2.3.21>
- ⑪ 교육감은 관할 구역에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마련에 기여한 바가 큰 학교 또는 소속 교원에게 상훈을 수여하거나 소속 교원의 근무성적 평정에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12.3.21>
- ⑫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전담부서의 구성과 제8항에 따라 실시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 및 제9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3.21>

제11조의2(학교폭력 조사·상담 등)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과 사후조치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상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1. 학교폭력 피해학생 상담 및 가해학생 조사
 2. 필요한 경우 가해학생 학부모 조사
 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계획의 이행 지도
 4. 관할 구역 학교폭력서클 단속
 5.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민간 기관 및 업소 출입·검사
 6. 그 밖에 학교폭력 등과 관련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
-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조사·상담 등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교육감 및 제2항에 따른 위탁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라 조사·상담 등을 하는 관계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

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⑤ 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조사 등의 결과는 학교의 장 및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3.21]

제11조의3(관계 기관과의 협조 등)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감, 지역 교육장,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과 관련한 개인정보 등을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정보제공을 요청받은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 및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계 기관과의 협조 사항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3.21]

제12조(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설치·기능) 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학교가 공동으로 자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 ②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1.26>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수립을 위한 학교 체제 구축
2. 피해학생의 보호
3.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자치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학교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2.3.21>

- ④ 자치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 및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3.21>

제13조(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1.5.19>

- ② 자치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신설 2011.5.19, 2012.1.26, 2012.3.21>

1. 자치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4.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5.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자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1.5.19>

④ 그 밖에 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19>

[제목개정 2011.5.19]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① 학교의 장은 학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실을 설치하고,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라 전문상담교사를 둔다.

② 전문상담교사는 학교의 장 및 자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의 상담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 등으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를 구성하며,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개정 2012.3.21>

④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구성·실시하며, 학교의 장 및 자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조사결과 등 활동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⑤ 피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사실 확인을 위하여 전담기구에 실태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9.5.8, 2012.3.21>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실태조사에 관한 예산을 지원하고, 관계 행정기관은 실태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전담기구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5.8, 2012.3.21>

⑦ 전담기구는 성폭력 등 특수한 학교폭력사건에 대한 실태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그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의뢰는 자치위원회 위원장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 명의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6, 2012.3.21>

⑧ 그 밖에 전담기구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3.21>

제1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학교폭력의 개념·실태 및 대처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②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그 운용 등을 전담 기구와 협의하여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교육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용계획을 학부모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⑤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시와 관련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19>

[제목개정 2011.5.19.]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학생이 긴급보호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의 요청 전에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삭제 <2012.3.21>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자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2.3.21>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자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④ 제1항의 조치 등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⑤ 학교의 장은 성적 등을 평가함에 있어서 제3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⑥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담 등을 받는 데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2.3.21>

1. 삭제 <2012.3.21>

2. 삭제 <2012.3.21.>

⑦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필요한 경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공제급여를 학교안전공제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2.1.26, 2012.3.21>

⑧ 피해학생의 보호 및 제6항에 따른 지원범위, 구상범위,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3.21>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 ①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조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3.21>

[본조신설 2009.5.8]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5.8, 2012.1.26, 2012.3.21>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 ② 제1항에 따라 자치위원회가 학교의 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 행위일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조치를 병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 <신설 2012.3.21>
-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자치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2.1.26, 2012.3.21>
- ④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5호와 제6호는 병과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6, 2012.3.21>
- ⑤ 자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3.21>
- ⑥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2.3.21>
- ⑦ 학교의 장이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 ⑧ 가해학생이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2.3.21>
- ⑨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 ⑩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을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6, 2012.3.21>
- ⑪ 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자치위원회는 제7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2.3.21>
- ⑫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제11조제6항에 따른 재입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3.21>

제17조의2(재심청구) ① 자치위원회 또는 학교의 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2.3.21>

- ② 자치위원회가 제17조제1항제8호와 제9호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3에 따른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 ③ 지역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3.21>
- ④ 제3항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신설 2012.3.21>
- ⑤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 제3항에 따른 심사 절차 및 결정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3.21>
- ⑥ 제2항에 따른 재심청구, 심사절차, 결정통보 등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3.21>

[본조신설 2012.1.26]

제18조(분쟁조정) ①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한다.
- ③ 학교폭력과 관련한 분쟁조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 1.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 또는 그 보호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
 - 2. 그 밖에 자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④ 자치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의 협조를 얻어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 ⑤ 자치위원회가 분쟁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피해학생·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⑥ 시·도교육청 관할 구역 안의 소속 학교가 다른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해당 학교의 자치위원회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분쟁을 조정한다. 이 경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⑦ 관할 구역을 달리하는 시·도교육청 소속 학교의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이 가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 및 관련 해당 학교의 자치위원회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분쟁을 조정한다. 이 경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학교의 장의 의무) 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 및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7조의2 및 제18조에 따른 조치 및 그 결과를 보고하고, 관계 기

관과 협력하여 교내 학교폭력 단체의 결성예방 및 해체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제20조(학교폭력의 신고의무) ①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5.8>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이를 자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5.8>

④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자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9.5.8, 2012.1.26>

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2.3.21>

제20조의2(긴급전화의 설치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수시로 신고받고 이에 대한 상담에 응할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긴급전화의 설치·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2.1.26>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긴급전화의 설치·운영·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6>

[본조신설 2009.5.8]

제20조의3(정보통신망에 의한 학교폭력 등)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한 신체상·정신상 피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3.21]

제20조의4(정보통신망의 이용 등)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 업무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다.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학교 또는 학생(학부모를 포함한다)이 학교폭력 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또는 학생(학부모를 포함한다)이 전기통신설비를 구입하거나 이용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2. 학교 또는 학생(학부모를 포함한다)에게 부과되는 전기통신역무 요금

③ 그 밖에 정보통신망의 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3.21]

제20조의5(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등)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 내에 학생보호인력을 배치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및 활용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및 활용 업무를 위탁받은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는 그 업무를 함에 있어 학교의 장과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3.21]

제20조의6(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 관제)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 예방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감과 협의하여 학교 내외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통합하여 관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통합 관제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 관제하려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청회·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학교 내외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가 통합 관제되는 경우 해당 학교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조치를 통하여 그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④ 통합 관제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한다.

⑤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 관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3.21]

제21조(비밀누설금지 등) ① 이 법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제20조에 따른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1.26>

② 제1항에 따른 비밀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에 따른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2012.3.21>

제22조(벌칙) ①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3.21>

② 제17조제9항에 따른 자치위원회의 교육 이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보호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2.3.21>

부칙 <법률 제8887호, 2008.3.1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9642호, 2009.5.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9932호, 2010.1.18>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25>까지 생략

<12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2호를 삭제한다.

<127>부터 <13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642호, 2011.5.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1223호, 2012.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조, 제13조제2항, 제15조제1항 및 제4항, 제16조, 제17조(제5항은 제외한다), 제2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전문개정 2012.3.21]

[시행일:2012.4.1]

제2조(재심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에 대한 재심청구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전학조치를 받은 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1388호, 2012.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4조제4항, 제13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20조제5항, 제20조의3의 개정규정 및 법률 제11223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교안전공제회 등의 비용부담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받아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치료 등을 받고 있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나.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2.5.1]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2.5.1]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45호, 2012.5.1, 일부개정]
교육과학기술부(교직발전기획과)02-2100-6480~84

제4조(징계의 감경)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교육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교사의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상 또는 교육감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개정 2012.5.1>

1.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 시효가 5년인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
2.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金品授受) 비위
3. 시험문제를 유출하거나 학생의 성적을 조작하는 등 학생 성적과 관련한 비위 및 학교생활기록부 부당 정정(訂正)과 관련한 비위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5. 학생에게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폭력 행위를 하여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6. 신규채용, 특별채용, 전직(轉職), 승진, 전보(轉補) 등 인사와 관련된 비위
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을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아니한 경우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생긴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3항의 경우에 징계의 감경기준에 관하여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3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7.18]

2. 학교폭력 관련 주요 도서의 내용 요약

저 자	문재형	발행연도	2012
저서명	학교폭력,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출판사	서울: 살림터		
내용 요약			
『학교폭력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는 ‘일진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의식으로 시작한 책으로, 학생생활을 이끌어가는 일진문화를 이해함으로써 해답을 제시하고자 한다.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사와 전문가들이 만든 연구팀인 평화샘 모임이 폭력 문제에 대한 치밀한 분석, 아이들에 대한 사랑, 우리 사회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고자 하는 열정으로 만들어낸 현장 보고서로, 오랫동안 가장 가까이에서 아이들을 관찰해온 교사들과 전문가들의 경험과 탐구과정을 담았다. 이 책에는 일진 문제 해결의 원칙, 부모와 교사를 위한 일진 예방 매뉴얼, 일진 사건 발생 시 대응 매뉴얼, 설문조사하기 등 실제 문제에 부딪친 교사와 부모를 위한 실질적인 대응방법을 알려주며, ‘폭력에 대처하는 4대 규칙, 멈춰 제도, 역할극, 학급 총회’ 등 일진 예방을 위한 학년별 맞춤형 대책을 꼼꼼하게 제시했다. 또한 학교폭력에 대한 학년별 설문지, 학교폭력 실태 및 일진 조사 통계 결과, 일진 설문조사 시 담임에게 보내는 쪽지, 일진 아이 상담 질문지 등 교사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자료를 더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하고자 했다.			

저 자	문용린	발행연도	2006
저서명	학교폭력 예방과 상담		
출판사	서울: 학지사		
내용 요약			
학교폭력 예방과 상담을 다룬 책. 그간 학교폭력 예방과 대처를 위해 활동해온 시민운동가와 실천가들의 실제 체험을 바탕으로 한 지혜와 경험을 담고 있다. 또한 가해자와 피해자, 그들의 부모, 교사, 경찰, 변호사들과의 긴장감 있는 체험의 기록을 함께 담고 있어 학교폭력의 예방과 상담에 대한 이론과 실재를 전해준다.			

저 자	문용린	발행연도	2008
저서명	학교폭력 위기개입의 이론과 실제		
출판사	서울: 학지사		
내용 요약			
『학교폭력 위기개입의 이론과 실제』. 학교폭력에 대한 전문적 예방과 상담에 이어 학교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많은 이해집단 속에 뛰어들어 관련된 학생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활동을 다룬 위기개입의 이론과 실재를 담았다.			

저 자	정종진	발행연도	2012
저서명	학교폭력 상담 5. 이론과 실제 편		
출판사	서울: 학지사		
내용 요약			
폭력적 환경에 노출된 학생은 폭력적 행동에 무감각해지고, 폭력을 자신이 직면한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간주하게 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처럼 폭력은 재생산되는 문제를 갖고 있다. 내 자녀든 남의 자녀든, 내 학생이든 남의 학생이든, 내 문제든 남의 문제든 오늘날 더욱 공포화·조직화되어 가는 학교폭력의 문제를 방치했다가는 언젠간 우리 모두가 보다 참혹한 꼴을 당할 수 있는 화살이 되어 날아올지도 모른다. 학교를 안전한 곳으로 만들고, 우리 아이를 학교폭력에서 지켜내기 위해서는 학교폭력의 실상을 제대로 이해하고,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			

저 자	노순규	발행연도	2012
저서명	학교폭력의 원인과 해결 방법		
출판사	한국기업경영연구원		
내용 요약			
『학교폭력의 원인과 해결방법』은 학교폭력의 개념과 원인, 실태와 사례, 예방방법, 대책과 학교의 역할, 관련법 및 해결방법을 제시하는 책이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단순한 학교폭력 가해자가 처벌되는 것과 학교폭력 피해자가 겪는 고통을 보여주는 교육은 오랜 시간 동안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며, 학교 측에서 학교폭력의 근본원인을 찾아내고 그 근본원인을 이용한 원리로 교육을 해야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저 자	박효정 외	발행연도	2006
저서명	학교폭력 대처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방안 연구.		
출판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RR 2006-8.		
내용 요약			
본 보고서는 이론적 기초를 정립하고 학교폭력 실태를 조사 분석하였으며 학교폭력 대처를 위한 국.내외 지원 체제 운영 사례를 알아보았다. 국내는 시도교육청의 운영 사례를 알아보았고 국외로는 영국, 노르웨이, 일본 등을 알아보았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학교폭력 대처를 위한 지원 체계 모형을 구축하고 운영 방안을 탐색하였다. 후속 연구로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연구와 학교폭력 지표 개발 및 활용 연구 등을 제안하였다.			

저 자	박효정 외	발행연도	2008
저서명	학교폭력 지표 개발 연구		
출판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RR 2006-09-01.		
내용 요약			
본 연구는 학교폭력 실태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변화추이에 대한 누적적인 정보의 확보를 용이하게 하고 향후 대책을 수립하는데 시사점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학교폭력 지표 관련 문헌을 검토하였으며 학교폭력 지표 요소, 조사 문항을 구안하였고, 모의 학교폭력 지수를 산출하였다. 정책적 제언을 통하여 전국적인 학교폭력 지표 개발의 필요성과 학생이 체험하는 학교폭력과 보고하는 학교폭력과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지적하고 학생의 학교폭력 보고 내용을 포함할 것을 제안하였다.			

저 자	문용린 외	발행연도	2010
저서명	학교폭력의 현황과 과제		
출판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OR2010-04-4.		
내용 요약			
본 연구는 학교폭력의 현황 및 특징과 범정부적으로 진행된 학교폭력 대책의 성과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학교폭력 대책이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야 할 과제들을 알아보았다. 연구에서 학교폭력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심리적 특성 뿐 아니라 낮은 학업성취, 가정문제 그리고 대인관계기술의 부족 등과 같은 다양한 위험요인들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을 위한 사회 안전망의 확충을 제안하였다.			

3. 학교폭력 관련 주요 연구 논문의 내용 요약

저 자	정정애	발행연도 및 권호	2012. 7(1). 301-318
논문 제목	학교폭력과 가정폭력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학회지명	한국사회복지학회		
내용 요약			
<p>건전한 삶을 유지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유하는 가정과 평화롭고 친화적인 학교를 지향함은 사회의 목표이다. 그런데 학교폭력은 조직화되고 반인륜적인 모습으로 집단폭력의 고통에 시달리다가 자살을 하는 학생이 있을 정도로 심각성이 큰 사회문제이다. 인과관계가 있는 가정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정책도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가정폭력이 꾸준히 늘고 있지만 정부의 가정폭력상담소 등 시설 숫자나 피해 지원 실적은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문화일보-2010.5.20).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학교폭력과 가정폭력의 학문적 이론을 파악하고, 학교폭력과 가정폭력의 상관관계와 가정폭력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근 3년간 신문보도 자료를 참고하여 그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p>			

저 자	정탁준	발행연도 및 권호	2009. 제28호, 57-80.
논문 제목	학생 생활 지도의 도덕교육적 의미와 제안 : 학교폭력을 중심으로		
학회지명	도덕윤리과교육		
내용 요약			
<p>학교생활 전체를 통해 학생이 건전한 사회의 일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돕는 일련의 활동인 생활지도는 학생들이 도덕적 정향성에 기초하여 자신의 잠재력을 계발하도록 돕는 활동을 뜻한다. 이런 의미에서 학교에서 행해지고 있는 학생 생활지도의 내용과 방향은 도덕교육적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빈발하고 있는 학교폭력은 생활지도의 난제가 되고 있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역시 도덕교육적 관점에서 제안하는 생활지도 방안이 필요하다. 학교 현장에서 볼 수 있는 학교폭력에 대한 지도활동은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을 위주로 하고 피해 학생에 대한 배려가 소홀한 면이 있다. 또한 전체 학교 분위기의 쇄신을 통한 체계적인 폭력방지 활동이 없어, 몇 몇 폭력 행위에 대한 미봉적 대책이 끝나고 나면 학교에는 잠재적인 폭력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학교폭력을 도덕적 가치의 측면에서 비판하는 도덕교육적 개념들이 필요하며 이 개념들에 따라 폭력방지를 위한 생활지도 방안을 도출 할 수 있다. 결국, 학생 생활지도의 방안과 활동은 도덕적 가치를 전제로 한 도덕교육적 관점에서 평가되고 제안되어야만 궁극적인 교육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학교 생활지도나 폭력 방지 활동에 있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학교는 모든 학생이 존중받는 인격체로서 상호조력하며 공존의 가치를 배우는 배움의 장이라는 도덕교육적 기본전제이다</p>			

저 자	권현용, 김현미	발행연도 및 권호	2009. 12(1), 1-12.
논문 제목	학교폭력 가해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요인에 관한 질적 분석		
학회지명	한국동서정신과학회지		
내용 요약			
<p>본 연구는 학교폭력 가해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상담사례를 질적 분석하는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기본적인 개념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내용분석을 실시하고, 기술방식으로는 '틀을 이용한 연구방법(Template data analysis methods: TAM)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학교폭력 가해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요인은 우울, 불안, 낮은 자존감, 충동성, 반사회성 행동(공격성), 분노, 절망감(장래희망), 비행, 음주, 성, 흡연, 가출, 학교생활, 교사와의 관계, 또래집단, 폭력노출, 빈곤, 가족문제, 부모의 양육태도, 멀티미디어 영향으로 분류되었다. 특히, 학교폭력 가해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요인의 핵심 요소는 가족의 기능적, 구조적 결손과 성장기에 경험한 폭력장면 노출이 주요한 요인임을 알게 되었다.</p>			

저 자	남상임	발행연도 및 권호	2008. 1. 101-115.
논문 제목	청소년 학교폭력 실태 및 대처방안		
학회지명	21세기사회복지연구		
내용 요약			
청소년의 학교폭력은 단순한 탈선 차원에서 넘어서 심각한 범죄의 단계에 이르고 있으며 급격한 산업화 과정에서 가치관의 혼란으로 청소년 자신의 행동에 대한 죄의식과 책임감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 청소년의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고 있고 일반화되며, 남학생에 국한된 것이 아닌 여학생의 가해자 혹은 피해자도 대거 등장하고 있다. 그 폭력이 뚜렷한 동기나 목적 없이 재미로 장난삼아 지속적으로 행해지기에 있음에 문제가 되고 있다. 청소년 학교폭력은 더 이상 가정사로 치부되거나 학교에서만 다루어지는 학교 일이 아니라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관심과 문제로 인식하여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과제이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특징에 따른 학교폭력의 요인 및 미국·한국의 현황 및 실태를 살펴보고, 청소년 폭력에 대한 대처 방안을 제시하여 학교폭력의 예방 및 근절에 기여하고자 한다.			

저 자	김재철, 조현분, 최원형	발행연도 및 권호	2010.18(1), 185-209
논문 제목	애착, 학교폭력 가해경험, 분노, 학교폭력 피해경험의 구조적 관계		
학회지명	열린교육연구		
내용 요약			
<p>본 연구는 애착, 학교폭력 피해경험, 분노, 학교폭력 가해경험 간의 구조적 관계를 확인하고 그것이 남녀에 따라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학교폭력 피해경험, 분노가 애착과 학교폭력 가해경험 간의 관계에서 매개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선행 이론에 근거하여 부분매개모형과 완전매개모형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실제 자료가 이론적으로 도출한 인과모형을 얼마나 지지해 주는지 구조방정식을 통해 확인하였다. 또한 학교폭력 관련변수들 간의 구조적 관계가 남녀에 따라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도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은 중학교 2학년 2,448명(남학생 1,303명, 여학생 1,145명)이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가해경험에 대해 애착은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학교폭력 가해경험에 대해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분노는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둘째, 애착은 학교폭력 피해경험, 분노를 매개로 하여 학교폭력 가해경험에 영향을 주었다. 셋째, 분노에 대한 애착과 학교폭력 피해경험의 직접효과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컸지만 학교폭력 가해경험에 대한 분노의 직접효과는 남학생이 훨씬 더 컸다. 넷째, 분노에 대한 애착의 전체효과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컸지만 학교폭력 가해경험에 대한 애착의 전체효과는 오히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컸다. 학교폭력이 중학교 이후에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구조모형의 학년 간 비교나 종단연구를 통한 다각적인 분석이 후속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p>			

저 자	윤소영, 유미숙	발행연도 및 권호	2011. 14(4), 59-75
논문 제목	일반긴장이론에 근거한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청소년의 정서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학회지명	한국놀이치료학회지		
내용 요약			
<p>본 연구에서는 일반긴장이론을 기본으로 부모관계, 교사관계, 비행친구를 조건변인으로 하고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청소년의 정서 행동상의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결과, 부모관계, 교사관계, 비행친구와 학교폭력 피해경험 요인은 청소년의 정서 행동상의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관계, 교사관계, 비행친구는 학교 폭력 피해경험과 함께 청소년의 정서 행동문제에 대한 상대적인 영향력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이 학교폭력을 경험할 시 나타내는 우울 및 불안, 위축, 주의집중 문제는 부모관계와 교사관계가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비행, 공격성의 문제는 부모관계와 비행 친구가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학교폭력 피해경험을 가진 청소년을 상담할 때, 청소년이 나타내는 피해증상에 따라 차별적인 개입 방안을 가지고 다루어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p>			

저 자	정재준	발행연도 및 권호	2012. 53(1), 529-570
논문 제목	미국의 학교폭력 방지 대책		
학회지명	서울대학교 法學		
내용 요약			
<p>지난해 12월 대구의 한 중학생이 학교폭력을 견디다 못해 자살한 사건이 발생 하였다.그러나 이것은 언론의 집중적 조명을 받아 알려진 사회적 파장일 뿐 이미 학교폭력은 학교 스스로의 자정능력을 잃고 대부분의 청소년의 삶을 위협하는 중대한 암적 요소로 자라나 있다. 그리고 보면 1980년대 일본에서도 이지메라는 학교폭력으로 일본 전역이 들썩인 적이 있다. 이러한 학교폭력의 사회문제는 미국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미 미국의 청소년 범죄 상승률은 성인의 범죄 상승률을 앞지르며 1990년대 초반까지 가파르게 오르고 있었다. 이에 연방정부 차원의 강경 정책은 학교폭력에 대한 무관용 정책(Zero-Tolerance)으로 나타났고 많은 주정부는 이에 근거한 엄벌주의 입법을 시행하였다. 개별 학교들도 이러한 입법화해 조응해 경찰과 연계를 맺고 학교 안전화를 위한 개혁에 돌입하였다. 1994년을 정점으로 미국의 청소년 범죄율과 학교폭력 발생 건수는 양자 모두 점진적인 하강을 거듭 하고 있다. 이러한 성공적 학교폭력 방지대책이 무관용 원칙에서 비롯되었는지 아니면 다양한 프로그램의 도입 등 학교 안전을 위한 개혁에서 시작되었는지는 아직 논쟁중이다. 중요한 것은 미국의 학교폭력 방지대책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20여 년의 장기 프로젝트로 수정. 변경되면서 진화하였다는 점이다. 미국 사회는 어떠한 사회문제든 이성적 근거와 치밀한 법안(혹은 프로그램)으로써 반드시 해결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보통법국가이면서도 피곤하리만큼 긴 규정과 예외조항, 단서조항, 디폴트(default) 조항을 확인해야 하는 각종 법률과 계약서 등은 이를 잘 설명해 준다. 이 논문은 바로 오늘날 미국을 만든 지식인의 사유(思惟)를 추적하는 데 있다. 미국의 경험을 ‘따라 하기’ 위한 논문이 아니라 미국의 방식을 철저히 이해하고 우리식의 ‘표준’과 ‘모범’을 만들어내어 그들을 ‘따라잡기’ 위한 필요에서이다. 오늘날 학교폭력이 우리나라의 장래를 좌우할 교육의 심각한 적으로 자라나 있기 때문이다.</p>			

저 자	유성은, 하미경	발행연도 및 권호	2011. 제20권, 327-336
논문 제목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중학교 환경계획에 관한 연구		
학회지명	한국디자인지식학회, 디자인지식저널		
내용 요약			
<p>적절한 학교 시설의 디자인은 학교폭력 발생을 감소시키고 학교폭력에 대한 두려움을 줄임으로써 중학생들의 발달과 학업성취 뿐만 아니라 건강과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건물 내 학교폭력 경험 현황과 학교폭력 불안감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학교폭력 불안감을 감소시키고 학교 안전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학교시설 내부의 환경개선 요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현재 학교시설에서 가장 취약한 물리적 환경 요소가 모든 공간에서 CCTV와 같은 보안장치가 없고 인적이 드물거나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있는 공간이기 때문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학교폭력 발생에 대한 인식이 높고 학교가 노후화되고, 학교폭력 경험이 많고, 여학생의 경우 학교폭력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설 계획 및 배치 측면에서 자연감시 및 접근통제와 안전일반이 쉽게 확보될 수 있는 공간계획이 필요하고, 여유있는 공간은 부적절한 행동을 줄여주므로 혼잡하지 않도록 적정 규모로 공간을 계획하여야 한다.</p>			

저 자	이희연, 이미연	발행연도 및 권호	2006. 11(2), 83-102
논문 제목	학교폭력 피해아동의 학교적응유연성과 관련된 보호 요소 탐색		
학회지명	경성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학논총		
내용 요약			
<p>본 연구는 학교폭력 피해아동의 학교적응유연성과 관련된 보호 요소를 알아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폭력을 경험한 아동과 학교폭력을 경험하지 않은 아동 간에 학교적응유연성에서 차이가 있는가? 둘째, 아동의 학교적응유연성과 보호요소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셋째, 학교폭력을 경험한 아동은 학교적응유연성 수준에 따라 보호요소에서 차이가 있는가? 넷째, 보호요소를 이용하여 학교폭력을 경험한 아동의 학교적응유연성 상위집단과 하위집단의 집단예측력은 어떠한가?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초등학교 573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김복환의 자기효능감척도, 이시형 등의 부모양육태도척도, 박현선의 대인관계기술척도, 사회적지지척도 및 학교적응유연성척도와 김선애의 학교폭력피해척도가 측정도구로 사용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평균차 검증과 판별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폭력을 경험한 아동과 학교폭력을 경험하지 않은 아동 간에는 학교적응유연성에서 차이가 있었다. 즉, 학교폭력을 경험한 아동은 학교폭력을 경험하지 않은 아동에 비하여 학교적응유연성이 낮았다. 둘째, 학교적응유연성 하위변인들은 거의 모든 보호요소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었다. 셋째, 학교폭력을 경험한 아동은 학교적응유연성 수준에 따라 보호요소에서 차이가 있었다. 넷째, 자기효능감, 대인관계기술, 민주적양육태도, 가족지지, 친구지지 및 교사지지는 대체로 학교폭력을 경험하였으나 학교적응유연성에 차이가 있는 아동들을 적절히 변별해주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기초로 논의를 전개하였고, 이러한 결과가 지니는 시사점을 탐색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언급하였고 후속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다.</p>			

저 자	문성호, 윤동엽	발행연도 및 권호	2011. 8(1), 87-109
논문 제목	학교폭력에 관한 뉴스프레임 연구		
학회지명	미래청소년학회, 미래청소년학회지		
내용 요약			
<p>본 연구에서는 학교폭력에 관한 언론의 보도방식과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조선일보, 동아일보, 그리고 중앙일보에 2004년 1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실린 학교폭력 관련 기사 212개를 대상으로 기사의 형식 및 내용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학교폭력 관련 기사들 대부분은 피상적으로 작성되어 있었고, 문제 중심적 접근과 개별적 접근을 취하고 있었다. 피상적 접근은 기사에 대한 독자의 심층적이고 비판적 생각을 가로막을 수 있고, 문제 중심적 접근과 개별적 접근은 피상성을 강화하는 한편 학교폭력에 대한 사람들의 공포심을 자극할 수 있다. 내용분석을 통해 나온 네 가지 프레임은 이러한 결과를 뒷받침한다. 학교폭력에 관한 언론보도는 기사를 읽는 대중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고 관점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p>			

저 자	이병환	발행연도 및 권호	2010. 16(2), 45-73
논문 제목	학교폭력 대처를 위한 지역유관기관의 지원체제정립과 활성화방안		
학회지명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교육문화연구		
내용 요약			
<p>본 연구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대안의 모색 차원에서 추진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폭력의 문제행위를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통해 근원적인 학교폭력 예방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단위학교 차원의 노력을 위주로 하되 무엇보다 지역유관기관의 지원체제 정립이 필요하며 이 지원체제가 활성화되기 위한 조건을 제안하였다.</p> <p>이 연구에서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첫째, 학교폭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선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차원에서 예방교육 및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둘째, 학교가 주도하는 예방활동이나 사안처리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지원한다. 셋째,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처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산발적으로 산재해 있는 유관기관을 기능별로 재편해야 한다. 학교폭력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이상적인 유관기관 협조체제 모델은 지역에 산재해 있는 여러 유관기관의 고유한 기능을 살리되 중심 기관을 설정하고 각 기관별로 전문화된 지원을 수행하여야 한다. 학교 이외의 지원체제는 지역사회에 산재한 여러 학교폭력 유관기관이 긴밀히 연계하여 기능상의 역할을 분담하는 체제를 말하며 현재 활발히 가동 중인 「학교·여성폭력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가 대안이 될 수 있다. 넷째,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먼저 그들이 가진 개인적인 인적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많으므로 네트워크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학부모 대상의 계몽과 홍보가 필요하다.</p>			

저 자	엄병용, 송민경	발행연도 및 권호	2011. 63(1), 241-266
논문 제목	학교 내 청소년들의 권력관계 유형과 학교폭력 참여 역할 유형		
학회지명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학		
내용 요약			
<p>본 연구는 학교 내 학생들 사이에는 권력관계에 바탕을 둔, 보이는 또는 보이지 않는 권력관계 유형이 존재하고, 이 유형들 간 역동이 학교폭력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전제로, 어떤 권력관계 유형의 청소년들이 학교폭력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규명해 보고자 시도되었다. 권력관계 유형화 작업을 위해 권력요소를 '권력장악가능성'과 '권력장악욕구'라는 두 차원으로 보고 이 두 개념을 직각으로 교차시켜 각 차원의 높고 낮음에 따라 학교폭력 상황에서의 권력관계 유형을 지배자, 실력자, 추종자, 은둔자의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학교폭력 상황에서 학생들이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역할은 Salmivalli 외(1996)가 제시한 여섯 가지 역할들을 활용했다. 분석을 위해 서울과 경기도에 소재한 초·중·고등학교 중 7개의 학교로부터 수집된 1822개의 사례가 사용되었다. 분석결과 지배자 유형의 학생은 가해자, 조력자, 강화자의 역할을, 추종자 유형의 학생은 피해자, 방관자의 역할을, 은둔자 유형의 학생은 피해자 역할을 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력자 유형의 학생들의 경우 두드러진 역할이 발견되지는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결과에 대한 함의와 함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를 위한 제안이 제시되었다.</p>			

저 자	김봉철, 주지혁, 최명일	발행연도 및 권호	2009. 9(4), 65-97
논문 제목	학교폭력에 대한 학부모들의 낙관적 편견과 예방 캠페인에 대한 탐색적 고찰		
학회지명	한국지역언론학회, 언론과학연구		
내용 요약			
<p>최근 학교폭력이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내용 면에서도 갈수록 흉포화.조직화.집단화되고 있다. 학교폭력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교폭력에 대한 심리적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한다. 특히 학교폭력은 가정환경이나 부모의 역할과 높은 상관관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학교폭력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심리학에서 지각적 편향을 설명하는 이론인 낙관적 편견(optimistic bias)을 적용해 학부모들이 학교폭력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학부모들은 학교폭력에 대해 낙관적 편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아 존중감이 높은 학부모가 낮은 학부모보다 낙관적 편견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경험이 없는 학부모들이 학교폭력 경험을 가진 학부모들보다 낙관적 편견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학교폭력과 관련한 예방 캠페인은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를 대상으로도 이루어져야 하며, 자아 존중감이 높고, 학교폭력 경험이 없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p>			

저 자	남상임	발행연도 및 권호	2008. 5(1), 101-115
논문 제목	청소년 학교폭력 실태 및 대처방안		
학회지명	21세기사회복지학회, 21세기사회복지연구		
내용 요약			
<p>청소년의 학교폭력은 단순한 탈선 차원에서 넘어서 심각한 범죄의 단계에 이르고 있으며 급격한 산업화 과정에서 가치관의 혼란으로 청소년 자신의 행동에 대한 죄의식과 책임감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 청소년의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고 있고 일반화되며, 남학생에 국한된 것이 아닌 여학생의 가해자 혹은 피해자도 대거 등장하고 있다. 그 폭력이 뚜렷한 동기나 목적없이 재미로 장난삼아 지속적으로 행해지기에 있음에 문제가 되고 있다. 청소년 학교폭력은 더 이상 가정사로 치부되거나 학교에서만 다루어지는 학교 일이 아니라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관심과 문제로 인식하여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과제이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특징에 따른 학교폭력의 요인 및 미국·한국의 현황 및 실태를 살펴보고, 청소년 폭력에 대한 대처 방안을 제시하여 학교폭력의 예방 및 근절에 기여하고자 한다.</p>			

저 자	염영미	발행연도 및 권호	2011. 8(3), 117-136
논문 제목	학교폭력가해청소년과 학교폭력가해피해청소년의 특성연구 : 자존감의 매개효과		
학회지명	미래청소년학회, 미래청소년학회지		
내용 요약			
<p>본 연구는 가해청소년 가운데 피해경험을 가진 청소년을 분류해 학교폭력가해행위와 관련 된 가해청소년과 가해피해청소년의 특성을 조사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전라남도 내 18개 지역의 학교폭력가해청소년 115명을 대상으로 가해, 피해경험을 조사한 후 가해집단(57 명)과 가해피해 집단(58명)으로 나누었고 T검증, 상관분석,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폭력의 허용적 태도, 자기통제, 자존감, 한국판 청소년 자기행동평 가척도(K-YSR)의 T검증을 통한 집단 간 비교에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가해 집단은 폭력의 허용적 태도, 자기통제, 자존감, K-YSR에서 밀접한 상관이 있었으나 가해피해 집단은 자기통제, 자존감, K-YSR은 상호 상관이 있었으나 폭력의 허용적 태도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해피해 집단은 자기통제와 외현화 요인간의 자존감 매개효과가 나타났으나 가해 집단은 나타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가해피해청소년의 경우 가해청소년과 달 리 자존감에 의해 공격성을 포함하는 외현화행동이 영향을 받고 있으며 폭력에 대한 태도에 있어 피해경험으로 인한 불안, 분노의 감정이 학교폭력가해행위에 대한 강한 인식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가해청소년과 가해피해청소년의 가해행위와 관련된 심리적 특성 의 차이를 보여주는 만큼 가해피해청소년에 대한 차별화된 접근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시사점을 논의하였다.</p>			

저 자	손경원	발행연도 및 권호	2008. 제26호, 101-124
논문 제목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사회 규범적 접근		
학회지명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도덕윤리과교육		
내용 요약			
<p>본 연구는 역동적인 관계 구조 관점에서 학교폭력 예방을 모색하려는 시도이다. 청소년기는 교우관계를 통해 자신을 확장하고 정체성을 형성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집단적 사고에 민감할 수 있다. 이러한 청소년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교폭력 문제를 집단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학교폭력 문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인성적 특징이외에도 또래들의 반응, 학급의 분위기와 같은 집단적 영향이 상호작용하여 발생한다. 따라서 학교폭력을 지켜보는 방관자 집단의 역할에 주목하는 대응방안과 학교폭력 예방에 힘쓰는 집단적 분위기 형성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의 세 조건을 제안했다. 첫째, 학교폭력에 대한 교사 인식전환 및 폭력문제 해결을 위한 관심과 의지가 필요하다. 둘째, 모든 학교구성원들이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의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목표를 공유하고, 학급의 규칙을 제정하여 서로를 규율하는 교실 내 규범을 확립해야 한다. 이렇듯 규칙의 제정이 필수적이지만 규칙의 권위를 높이고, 규칙을 자발적으로 준수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셋째, 도덕과 교육과의 연계를 통해 학교폭력에 대한 집단적 교육이 필요하며, 이러한 시도는 규칙의 제정과 준수의 동기화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p>			

4. 학교폭력 관련 월간지 특집 기사 요약

- 청소년기에는 난폭하고 위험한 활동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어 만14세가 되면 정점에 이른다는 영국 런던대 인지신경학연구소의 보고처럼,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한 학교폭력 사건 중 69%에 해당하는 사건이 중학교에서 발생했다. 그러나 가해 경험을 묻는 항목에서 남학생은 ‘초등 4~6학년’(26.9%), ‘중학교 1학년’(11.6%), 여학생은 ‘초등 4~6학년’(41.0%), ‘중학교 1학년’(9.7%)에 다른 학생을 가해하기 시작했다는 결과가 나와 학교폭력을 경험하는 시기가 빨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학교폭력은 근거 없는 시비에서 출발해 따돌림으로 발전하는 사례가 많지만, 학년이 올라가면 구타, 금품 갈취, 강제 심부름, 사이버 폭력 등 다양하고 조직화된 폭력(일진회)이 등장하였다. 또한 폭력을 장난으로 인식하여 놀이문화가 학교폭력으로 자리 잡는 경향이 있다. 학교폭력은 학생뿐만이 아니라 가족을 파탄내기도 하며, 피해를 당한 학생은 신체적·정신적 상처와 장애를 입어 일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기도 하며 때로는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한다.
- 학교폭력으로 인한 학생의 자살이 이어지면서 온 사회가 학교폭력 근절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많은 학교에서 사전에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스포츠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의 마음을 순화하여 폭력성을 약화

시키는 프로그램을 많이 활용하고 있으며, 도덕 교육과정이나 다양한 문화예술체험 활동을 통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과 더불어 학생들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모두가 성취를 경험할 수 있도록 있는 수업과, 학생과 학생, 교사와 학생 간의 신뢰를 쌓고 공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과 같이 교육을 통해 예방하는 것을 우선시한다.

- 그러나 이제는 주의와 관심, 예방만으로는 학교폭력을 막을 수 없다는 인식이 우세하여 정부와 교육계가 학교폭력 대책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지난 2월 6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학교폭력 관계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학교폭력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그 동안 각 기관별로 산재해서 운영해 오던 학교폭력 신고전화를 ‘117학교폭력신고센터’로 통합하였으며, 학교폭력신고센터로 접수된 사안은 그 경중을 판단해 경찰청 또는 학교폭력 원스톱지원센터로 사건을 이송·처리하게 된다. 학교와 담임교사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가해·피해 학생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한다. 특히 가해자를 엄정 조치하여 출석정지에 제한을 두지 않고, 유급도 가능하며, 강제전학도 법제화된다. 또한 학교 폭력서클 ‘일진회’에 대한 대응도 강화하였다.
- 한편, 학생들에게 심리적으로 접근하여 폭력의 원인을 찾아 해소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하는데 처벌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현상황을 안타까워하며, 교육의 역할을 높여 학생들이 다툼이 있을 때 서로 만족스럽게 해결하는 방법,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 있게 행동하는 방법을 더 적극적으로 가르치고 훈련할 수 있어야 하고, 이에 맞게 교육내용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또한 가정교육의 역할과 책임을 높여야 하고, 학교폭력에 대해서 교사에게 권한과 책임만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학교폭력으로 인해 교사에게 나타나는 증상과 후유증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다.

잡지명	새교육	발간일	2010년 5월
제 목	폭력사건 발생 시 대처법		
작성자	강종민 월간 새교육 기자		
내용 요약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학교폭력이란 학교 안팎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으로 신체나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20조에 따르면,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학교나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장에서 통보해야 한다. 학교장은 이를 즉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특히 성폭력 사건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통보하는 것 외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5항에 따라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잡지명	새교육	발간일	2012년 3월
제 목	알아두면 좋은 학교폭력 예방, 이모저모!		
작성자	새교육		
내용 요약			
<p>‘굿바이 학교폭력’ 어플. ‘굿바이 학교폭력’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개발·보급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다. 이 어플은 학교폭력 예방요령과 실제 피해상황에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행동요령 등의 유익한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학교폭력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학생들이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빠르고 간편하게 도움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학교폭력에 대한 자료가 알기 쉽게 설명돼 있어 학생과 학부모 및 교사에게도 상당히 유용한 어플이다.</p> <p>‘117학교폭력신고센터’. 그동안 각 기관별로 산재해서 운영해 오던 학교폭력 신고전화(Wee센터 1588-7179, 여성가족부 CYS-Net 1388, 경찰청 One-Stop 지원센터 117)를 117로 합쳤다. 이와 함께 117학교폭력신고센터를 24시간 운영하며, 현재 서울에만 있는 117신고센터를 16개 광역권으로 확대·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학교폭력 발생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학교폭력신고센터에 접수된 학교폭력 사건은 그 경중을 판단해 경찰청 또는 학교폭력 원스톱지원센터로 사건을 이송·처리하게 된다.</p> <p>‘학교폭력 예방 매뉴얼 만화’. ‘이 땅의 모든 학부모가 알아야 할 학교폭력 10가지 비밀’이라는 제목의 이 만화책은 학교폭력 유형과 가해·피해학생의 징후, 학부모대처 방법을 사례별로 정리하고 있다.</p>			

잡지명	새교육	발간일	2010년 4월
제 목	학교에 엄격한 지도·징계 권한 줘야		
작성자	김은식(충북 청주 흥덕고 교감)		
내용 요약			
<p>단순히 속박의 상징에서 벗어나려는 ‘교복환송식’에 그치던 졸업식 뒤풀이가 ‘알몸 졸업식’, ‘졸업빵’과 같이 성희롱, 집단폭력으로 변질되어가는 등 최근 학교폭력이 점점 다양하고 잔인하게 진화하고 있다. ‘셔틀’이라는 변종 폭력이 난무하고 있다. 학교폭력의 착취·폭력이 문어발식 대기업처럼 세분화·분업화되었다. 이제 더 이상 기존의 경험가 시각을 가지고 학교폭력을 보아서는 안되며, 이제는 주의와 관심, 예방만으로는 학교폭력은 막을 수 없는 문제가 되었다.</p> <p>문제는 이렇게 학생 비행이 심각해지는 경향에 비해 학교에서의 처벌 권한은 지나치게 약화돼 있다는 것이다. 육체적 체벌 금지는 물론 ‘훈계’, ‘교내봉사’, ‘사회봉사’ 수준이 고작이다. 인권 존중을 우선하는 사회적 추세와 자녀에 대한 부모의 그릇된 과잉보호 의식, 교사들의 소극적인 지도 태도가 어우러져 학생지도를 더욱 어렵게 한다. 또한 우리 사회의 ‘생활지도’와 ‘인성·인권교육’의 혼동이 현장의 교사들을 또한 번 무력감에 빠뜨리고 있다. 이제라도 학생들의 탈선이나 비행에 대해 체벌이 아닌 엄한 ‘처벌’ 등 가능한 교육적 지도권한을 학교에 주어야 한다.</p>			

잡지명	새교육	발간일	2012년 3월
제 목	학교폭력 대책, 외국에서는		
작성자	고성혜		
내용 요약			
<p><미국>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으로만 국한시켜 볼 때, 미국만큼 연령대별 혹은 주제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 보급된 국가는 없다. 유치원생부터 중·고등학생에 이르는 발달단계별 예방프로그램과 인종차별 예방 내용이 포함된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그리고 조직폭력(gang) 가입 권유를 물리치는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미 개발되어 있다. 미국은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엄격하게 하며, 학교폭력 행동을 중단시키기 위해 약물남용 예방프로그램이나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등을 포괄하고 있다는 것과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연계 하에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보다 더 큰 강점은 연방정부가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한 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방을 보다 철저히 하자'는 움직임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가자'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는 미국 정부와 사회의 관심은 안전한 학교에 집중되고 있다.</p> <p><핀란드> 교육선진국으로 잘 알려진 핀란드는 유럽 국가 중에서 학교폭력보다는 다인종간의 갈등이나 따돌림이 문제가 된 나라다. 이러한 문제 예방을 위해 학교 현장에서는 또래지킴이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으며 국가의 개입 하에 장기간에 걸쳐 개발된 키바 코울루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다. 키바 코울루 프로그램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교와 가정,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 해야 함을 강조하고 교사의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며, 학교가 가·피해자 간의 중재 역할을 한다. 특히 방관자가 피해자를 돕고 괴롭힘에 반대하는 입장을 가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진행한다.</p> <p><일본> 일본은 이지메나 폭력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해 1990년대부터 학교에 스쿨카운슬러가 배치되어 활동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팀을 이루어 '학교 경찰 연락협의회', '지역지원시스템', '스쿨 서포터 팀' 등으로 활동하면서 예방활동과 더불어 위험에 빠진 학생에 대한 개입을 하고 있다. 학교교육에서도 일본은 무엇보다 도덕교육을 강조하고 있으며 체험활동을 통해 사회성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있다.</p>			

잡지명	새교육	발간일	2012년 3월
제 목	학교폭력 후유증 교사도 치유가 필요하다		
작성자	김환		
내용 요약			
<p>학교폭력 사건은 교사에게 비일상적인 강력한 스트레스(stressor, 스트레스 유발자)로 작용하는데, 폭력 사건을 막지 못한 죄책감, 폭력사건 가해·피해 학생의 처리에 동반한 고민, 학생과 부모의 비난, 불신, 위협, 적대감에 노출됨, 경찰이나 언론이 개입될 경우 반복되는 조사로 인해 심신이 지치고 소진됨 등의 복합적인 영향을 미친다. 학교폭력이 교사의 정신을 할궤어 생긴 상처는 학교폭력 사건이 마무리된 후에도 남게 된다. 정서적으로는 무표정해지며 감정적으로 위축되거나 혹은 반대로 짜증이 늘거나 감성적 충동성이 증가하기도 한다. 인지적으로는 융통성이 저하되고 고지식해지며, 이전에 낙천적이고 긍정적이었던 사고방식도 차츰 부정적으로 변할 수 있고 주의집중력이나 암기력, 계산능력의 저하가 나타난다. 동기적 측면에서는 식욕이나 성욕이 줄어들 수 있고 전반적인 활력이 저하된다. 행동적 측면에서는 부담감이 드는 장소나 인간관계에 대한 회피, 그리고 술이나 게임을 이용하여 현실을 회피하려는 시도가 나타날 수 있다.</p> <p>따라서 학교폭력의 당사자인 피해·가해 학생들 외에 교사에게도 심리적 증상이 생기지 않도록 관심이 필요하며 상처입거나 후유증이 남는 경우에는 치유가 필요하다. 스트레스 강도를 줄이고, 고립감을 줄이고 소속·연대감을 높여야 하며, ‘역경을 통한 성장’의 기회로 삼는 것을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p>			

잡지명	새교육	발간일	2012년 3월
제 목	학교폭력 근절 대책 방안, 무엇을 담았나		
작성자	이미현		
내용 요약			
<p>지난 2월 6일, 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학교폭력 관계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교원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며 가해자를 엄정 조치하는 동시에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p> <p>정부는 학교폭력의 1차적 책임은 학교에 있다고 보고, 학교의 권한과 책임을 크게 강화했다. 담임교사의 책임도 커졌다. 담임교사는 매학기 1회 이상 학생과 1대1 면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메일, 문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상담교사를 500명 증원해 1,383명으로 늘리고, 내년에는 2,383명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예비 교원의 경우 교사자격증을 받으려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과목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p> <p>가해·피해 학생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도 눈에 띈다. 피해학생 보호에 필요한 기간 동안 가해학생의 출석정지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 유급도 가능하고, 강제전학도 법제화된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해 내려진 징계사항은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며, 이 기록은 고입 및 대입 전형에 반영된다. 학교폭력서를 ‘일진회’에 대한 대응도 보다 강화돼 ‘일진경보제’가 도입된다.</p> <p>학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첫걸음이라는 인식하에 학부모교육의 대상도 모든 학부모로 확대된다. 학기당 1회 이상의 학교설명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며, 가해학생이 ‘특별교육’ 조치를 받는 경우, 그 학부모도 소환하여 특별교육을 받게 할 계획이다.</p>			

잡지명	새교육	발간일	2012년 3월
제 목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사의 역할		
작성자	송형호		
내용 요약			
<p>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단 하나의 키워드를 꼽으라면 아이들의 '자존감 회복'이다. 이를 위해서는 모두가 성취(Everyone successful!)하는 수업을 해야 한다. 과정 중심의 내실 있는 수행평가와 협동 프로젝트 수행평가, 학습스타일과 다중지능 기반의 수업 방법을 개발해야 하며 예체능 활동을 활성화해 표현의 기회를 갖도록 해서 스트레스나 분노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담임교사는 학생들에게 1인 1역할을 쥐 학급에 기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주고, 아이들과 상담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놓아야 한다. 교사에게 권한을 부여해야 하고, 처벌에 있어서는 강력한 처벌보다는 신속하고 원칙에 따른 엄중한 처벌이 중요하다. 학교폭력의 또 다른 이유는 사회적 기술(social skills)의 결여다. 무조건적인 처벌보다 예방적 훈육으로 변화해야 한다. 훈화 이외의 영상이나 시각자료 등 다양한 수단으로 학생들의 행위 결과가 자신의 미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려주는 아이디어를 개발해야 한다. 징계보다 중요한 것은 결과에 대한 정확한 안내다.</p>			

잡지명	새교육	발간일	2012년 3월
제 목	학교폭력 제로에 도전한다		
작성자	이순이		
내용 요약			
<p>학교폭력 예방 대책의 중심에는 학생과 학생, 교사와 학생 간의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소통'이란 화두가 놓여 있다. 제천동중학교(교장 한승규)의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핵심 키워드는 '사제동행 소통'이다. 학생과 교사가 함께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고 서로 대화로써 마음의 벽을 허물 때 신뢰도 생기도 변화도 일어난다. 이 학교에서는 누구나 새 학년이 되면 학교폭력 예방 서약서를 쓰고 선서를 한다. 생활지도부실 옆에는 '소원 우체통'이 있어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고민 상담을 해결해 준다.</p> <p>순천 승평중학교(교장 정광태)는 소규모라는 학교 특징을 최대의 장점으로 살려 맞춤형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학교폭력 제로에 도전하고 있다. 교사 1인과 성향이 비슷한 학생 5명이 멘토와 멘티로 결연하여 월 2회 정기적으로 학습, 진로, 교우관계 전반에 걸친 멘토링 상담을 진행한다. 더불어, 학교를 벗어나 교사와 학생이 '1촌 맺기'를 통해 친밀하게 지내며 다양한 체험활동을 경험하고 있다.</p> <p>경기 구리중학교(교장 양용순)는 분노조절(Control One's Anger), 의사소통(Communication Based on Nonviolence), 배려(Considerate for each other)라는 3C 프로젝트를 통해 학교폭력 제로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공격성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담, 심리검사와 더불어 스포츠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한 결과 공격적인 부분이 많이 순화되고 있다.</p>			

잡지명	새교육	발간일	2011년 3월
제 목	'예방적 개입'이 최우선		
작성자	한병선		
내용 요약			
<p>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 동안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한 학교폭력 사건은 2만 2,241건이었다. 이 중 69%에 해당하는 1만 5,311건이 중학교에서 발생했다. 영국 런던대 인지신경학연구소의 보고에 의하면 청소년기에는 난폭한 운전, 음주, 폭력 등 위험한 활동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만 14세가 되면 정점에 이르는데 우리로 보면 중학교 2~3학년에 해당하는 시기다.</p> <p>폭력에 대한 원인은 매우 다양하다. 구조적인 문제와 개인적인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학교의 대형화(giant school), 경제적 양극화, 가정의 해체, 전통적 가치관의 붕괴, 입시경쟁도 원인이다.</p> <p>문제 아이들은 마음의 환자들이다. 마음의 상처가 폭력이란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학교폭력은 학생들의 내면을 살피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는다. 결국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따뜻한 관심과 애정, 감정적 교류이다. '예방적 개입'의 기본은 교사들의 밀착지도와 관계 관리를 통한 소통이다. 이로써 아이들 내부의 역학관계나 학생 개개인에 대한 상황파악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p>			

잡지명	새교육	발간일	2010년 7월
제 목	학교폭력으로 보는 교사, 학생의 관계		
작성자	김정호(서울 백석초 교사)		
내용 요약			
<p>중국의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지난 5월 한 기자가 인터넷에서 ‘학생의 교사 폭행’이라는 주제로 검색한 결과 약 803만 건의 관련 뉴스 기사가 검색됐고 ‘교사의 학생 폭행’ 역시 407만 건이 검색됐다. 교사를 존경하는 전통을 가진 중국인을 경악하게 만든 불미스러운 일들은 다음을 그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첫째, 교육의 시장화로 인해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가 점차 악화되고 있다. 일부 학생들은 자신들이 학비를 내고 수업을 듣는다는 생각에 교사들에 대한 존경심이 일체 없는 상태이고, 일부 교사들은 교사직을 돈을 벌기 위한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탓에 교직에 대한 사명의식이 점차 희박해져가고 있다. 둘째, 입시위주의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중국의 학교는 지식을 전수하고, 시험을 준비하는 곳으로서의 기능만 부각되고 있다. 때문에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의 도덕교육이 형식적이고, 암기식으로 흐르게 되는 등 소홀히 다루어지게 된다.</p> <p>중국 교육전문가들은 교사와 학생 간의 갈등이 확산되는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사회규범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학생들을 위해서는 교사들이 학생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교사의 권한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장치를 만들고, 교사들에 대해서는 교육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학생들의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에 대해 징벌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교사들도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한다.</p>			

잡지명	새교육	발간일	2010년 4월
제 목	통계로 본 학교폭력의 변화		
작성자	김미정(청소년폭력예방재단 학교폭력SOS지원단 팀장)		
내용 요약			
<p>2009년 실태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이전 년도와 비교해 본 결과 주요한 변화는 다음과 같다. 첫째, 피해율은 여전히 높고 가해율은 증가 추이에 있다. 둘째, 잘 노출되지 않으면 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한다. 셋째, 이유 없는 가해가 늘고 폭력을 장난으로 인식한다. 넷째, 초등학생의 학교폭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다섯째, 학교 내 폭력 발생률이 높아졌다. 여섯째, 학교폭력 목격자의 다수가 '모른 척' 한다.</p> <p>학교폭력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매해 발생하는 비율에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폭력의 내용이나 이로 인한 후유증, 심각성에 대한 인식도, 미흡한 대처 등은 점차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뺑서들, 사이버폭력 등을 학교폭력으로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피해 후에도 도움을 제대로 청하지 못하거나 목격하더라도 모른 척 하는 태도 등의 결과는 학생들의 인식 및 태도 개선의 변화가 필요하다. 또한 학교의 안전도를 높이는 것과 더불어 피해학생들의 심각한 고통과 후유증을 다루어 줄 수 있는 기반 마련 등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었다.</p>			

잡지명	새교육	발간일	2010년 4월
제 목	국가 차원의 '학교폭력종합대책기구' 필요해		
작성자	임재연(청소년폭력예방재단 학교폭력 SOS지원단 부장)		
내용 요약			
<p>학교폭력 대책은 1990년대 중반 이후 계속 나오고 있다. 「학교폭력법」 제정 이후 정부 차원의 학교폭력 안전시스템으로 학교폭력 긴급전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교폭력 예방교육 의무화, CCTV 설치, 배움터 지킴이 배치, 상담교사 배치 등 많은 하드웨어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효성이다. 우선 하드웨어적인 것도 있어야 하지만 소프트웨어적인 대책에 훨씬 더 신경 쓰고 그 효과성을 검토하며 가야한다.</p> <p>첫째, 학교폭력 관련 정부 각 부처는 국가 차원의 '학교폭력종합대책기구'를 신설하고 담당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는 각 부처의 학교폭력 대책들에 대한 '컨트롤 파워'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피해학생과 가족에 대한 치료 시스템 구축과 치료비 지원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셋째, 만성적인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범죄학생에 대한 강도 높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강당식 예방 교육이 아닌 학급 단위의 예방교육을 초등학교가 아닌 유치원부터 실시해야 한다. 다섯째, 학교폭력 신고자에 대한 안전 보장과 현재 법으로 명시된 전문기관의 전문상담을 통해 초기대응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p> <p>현재 우리나라 학교교육은 환경과 행정적 조건에서는 교사가 책임감을 가지고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교사에게 책임을 지우면서 예방과 해결까지 계속해서 부담을 주는 체제보다는, 교사는 사안을 발견하고 신고해야 하는 의무만 지게하고, 사안의 해결과 사후상담 및 예방활동 등은 제3의 객관적 전문가가 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p>			

잡지명	꿈나래21	발간일	2012년 3월
제 목	체벌금지 이후 학교폭력과 대안		
작성자	홍석희 명예기자(경기 홍천초등학교 교사)		
내용 요약			
<p>경기도 용인의 홍천초등학교는 체벌금지 이후 학생들을 지도할 대안을 찾아 효과적인 생활지도를 하고 있다. 이 학교는 무체벌 생활지도와 경제교육을 함께 이루는 BEC(Big Economy Classroom)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문화혁신으로 지정받았다. BEC 프로그램은 저학년은 칭찬통장 수준으로, 중학년은 국내경제, 고학년은 국제경제까지 심화되며, 올해는 BEC와 함께 6학년에 뉴스포츠 프로그램(매주 1시간의 합동체육)을 적용하고자 한다. BEC 프로그램은 학생 생활지도와 경제교육 효과가 크다. 그렇지만 교사의 생활지도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와 학생간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어야 그 효과를 크게 볼 수 있다. 이 학교는 선생님들끼리 협력이 잘 되었으며 선생님들이 항상 교실에서 학생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학교폭력이 거의 없었고, 선생님들은 BEC를 통해 학생생활지도에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학교폭력을 일으키는 학생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가 구비되는 동시에 교사의 학생들에 대한 열정과 관심이 동시에 있다면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것은 물론, 학교본연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p>			

잡지명	우리교육	발간일	2012년 봄호
제 목	학생들 사이의 폭력 해결, 이렇게!		
작성자	김선혜(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부설 갈등해결센터 소장)		
내용 요약			
<p>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대부분 가해자를 처벌함으로써 문제를 종결한다. 종종 학교가 피해자를 잘 돌보지 않는다고 여론의 질타를 받는데, 그것은 현재 학교폭력 등의 시스템이 피해자의 회복과 보호보다는 가해자의 처벌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문제가 끝나지 않는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피해 당사자와 가해 당사자, 그리고 관련 당사자가 바라는 것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피해 학생에게 필요한 것은 문제 행동으로 발생한 상처와 고통, 손실에 대한 회복, 즉 행위자의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이다.</p> <p>학교폭력 등의 문제로 인해 생긴 영향, 즉 피해자가 받은 상처, 고통, 손실 등에 대해서는 회복이 필요하고, 행위자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배우고 그것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공동체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아야 한다. 피해·가해 대화 모임은 학생들에게 이런 기회를 줄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의 상처를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방식이다.</p> <p>우리는 학교 안과 밖을 가리지 않고 어디서든 다툼이 있을 때 서로 만족스럽게 해결하는 방법,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 있게 행동하는 방법을 더 적극적으로 가르쳐야 한다. 내 행동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고 반응할 수 있는 공감의 힘을 키울 수 있게 하고,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고 전달하도록 훈련하는 교육이 필요하다.</p>			

잡지명	꿈나래21	발간일	2012년 3월
제 목	[‘학교폭력 제로화’ 현장] 땀 흠뻑 흘리며 건강 에너지 발산, 스포츠 활성화로 “학교폭력 이제 그만”		
작성자	박길자 객원 기자		
내용 요약			
<p>학교스포츠 활성화가 학교폭력을 줄이는 해법으로 떠오르고 있다. 학생들은 운동하면서 에너지를 바깥으로 발산하므로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페어플레이정신과 스포츠맨십도 배울 수 있다. 일선학교 교사들은, 스포츠는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순기능이 강하고, 학생들은 팀스포츠를 통해 인성과 사회성을 배우기 때문에 학생들이 스포츠를 즐길 공간과 시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p> <p>인천논현중(교장 김윤주) 학생들은 아마추어 남학생들의 축구대제전인 미들스타리그를 통해 학교폭력 고리를 끊는 효과를 거뒀다. 선수 중에는 이른바 ‘노는 학생’들이 있다. 이들은 운동장에서 비지땀을 쏟으며 리그 출전을 준비하면서 폭력성이 정화되고 학교를 빠지지 않고 출석하게 되었다. 서울 광문고(교장 김한섭)는 학교스포츠클럽이 자그마치 76개로 매우 활성화된 학교다. 전교생이 스포츠 활동에 거의 참여하며, 성격이 센 남학생들이 학급별 축구리그전을 하면서 친구들과 교감하고 단합하며 정서가 순화되는 순기능이 크다.</p> <p>전문가들은 체육활동 장려 정책에 환영의 목소리를 내놓으면서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먼저 학교체육이 중요하다는 학교 구성원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하고, 그래서 수업시간 외에도 자발적으로 체육활동을 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 또한 스포츠 활동 참여를 높이려면 우선 교육내용부터 변해야 하고, 체육 인프라 구축은 시급한 과제다.</p>			

잡지명	꿈나래21	발간일	2012년 2월
제 목	학교폭력 가해자 상담해 보니...		
작성자	이선숙(서울성북Wee센터 전문상담교사)		
내용 요약			
<p>중학교 2학년 희숙이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서 만난 남자친구를 만나러 가출을 한다. 한 번 가출을 하면 10일 정도는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 가출 후에 집으로 돌아온 희숙이는 인터넷으로 친구들과 자신의 부모에 대해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했다. 또, 학교에서는 친구를 집단으로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했다. 상담을 통해서 희숙이 어머니와 희숙이는 말을 통해 서로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경험을 쌓아갔다. 서로의 욕구, 생각, 감정을 털어놓기 시작하면서 희숙이는 엄마의 사랑을 느끼게 되었고, 점점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희숙이는 엄마에 대한 분노를 버리고 연민으로 돌아서게 되었으며, 미술치료와 모래놀이치료를 병행하자 가정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줄고 성적이 올랐다. 진로에 대해 생각도 하게되자, 요리에 흥미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p> <p>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은 공감능력이 떨어진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 사실 많은 상처들이 있다. 가해학생의 태도는 매우 강해보이지만, 그 안에는 슬픔과 상처와 낮은 자존감이 있는 경우가 많다. 그것을 천천히 '괜찮다, 괜찮다'고 어루만져주는 것이 상담이며, 이는 곧 학교의 역할이기도 하다.</p>			

잡지명	주간동아	발간일	2012년 2월 20일. 825호
제 목	몰아치는 학교폭력 대책에 몸살 앓는 학교		
작성자	뉴스브리핑		
내용 요약			
<p>'가해학생 즉시 격리조치', '징계사항 생활기록부 기재', '복수담임제', '전문 상담인력 증원', '학교 및 교원 평가에 학교폭력 조치 실적 반영', '학교폭력 은폐 시 학교장 및 교원 징계', '학교폭력 신고전화 117로 통합', '일진회 문제 경찰서장 직접 지휘'.... 2월 6일 김항식 국무총리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이다. 김 총리가 "학교폭력에 경찰을 적극 개입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데 대해 경찰은 학교폭력 문제를 방치한 혐의(직무유기)로 현직 교사를 입건하고, 일진회 파악에 나서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였다. 그러나 일선 교사들이 반발하며 경찰과 교사가 대립하는 양상을 띠자 경찰이 '너무 무리하게 접근하지 마라'는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교권과 학생 인권을 최대한 존중해야 학교폭력 근절 대책이 더 효과를 낼 수 있을 테고 그 취지를 일선에 설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학교폭력 등 교육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 9개 지역 주요 도시에서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주민과 대화에 나설 예정이다.</p>			

잡지명	꿈나래21	발간일	2012년 2월
제 목	학교폭력과 언어폭력은 불가분 관계		
작성자	김상온 국민일보 논설위원		
내용 요약			
<p>학교폭력이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학교폭력이 심지어 피해학생을 자살로 몰아넣기도 하는 형국이다. 학교폭력의 시작은 말 한마디로부터 시작된다. 청소년들의 욕설·비속어의 일상화는 소통과 대화의 부재, 나아가 엄청난 사회적 낭비와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 청소년들의 부정적 정서를 긍정적 정서로 전화시키기 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p> <p>우리 사회에는 애고 어른이고 가릴 것 없이 욕설이 넘쳐난다. 특히 조사(助詞) 빼고는 대화의 거의 모두가 욕이라는 청소년들은 위험수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욕은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배우는 것이다. 몇몇만 욕을 한다면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겠지만 사회 구성원 전체가 욕을 밥 먹듯 한다면 그 사회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청소년들의 욕설도 사회적 맥락에서 파악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p> <p>상스런 욕은 인격과 품위를 해치고 정서를 메마르게 하는 것은 물론 물리적 폭력을 촉발하기도 한다. 요즘 전국을 뒤흔들고 있는 학교폭력도 그 자체로 언어폭력인 욕설 사용과 불가분의 관계다. 현재 청소년들의 욕설 남발을 치유하기 위해, 욕설의 원래 의미를 수업 시간에 가르치기, 문화예술체험 채워주기, 욕설이 심한 학생들을 학생기록부에 기록하기, 지나치게 많은 수업 시간을 줄이고 삶의 질 높여주기와 같은 이런 저런 정책들이 강구되고 있다. 그러나 그 전에 학교와 가정을 비롯한 사회 전체가 욕설에 대해 더욱 엄격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p>			

잡지명	주간동아	발간일	2012년 5월 7일. 836호
제 목	“놀이문화 된 ‘괴롭히기’ 반짝 관심으로 근절 어려워”		
작성자	조정실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회장 / 이혜민 기자		
내용 요약			
<p>과거와 달리 요즘에는 교실 안에서 친구를 괴롭히는 놀이문화가 학교폭력으로 자리 잡았다. 친구 목에 있는 동맥을 눌러 환각 증세를 느끼게 하는 ‘기절 게임’, 서로 순번을 정해 왕따가 돼보는 ‘왕따 놀이’, 환생할 수 있다고 믿고 자살을 시도하는 ‘환생 놀이’, 동전을 목구멍이나 항문에 넣었다 빼는 ‘동전 게임’을 한다. 또한 학교폭력 상당수가 동성 성폭력으로, 초등학교 또는 중학생들이 학교 화장실로 동성 친구를 데려가 성기를 빨게 하거나 친구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한다.</p> <p>아이에게 “어른께 고자질하면 ‘지질하다’는 평을 들어 ‘전따(전교왕따)’가 된다고 하지만, 학교폭력에 시달린다고 부모에게 말하는 것은 고자질이 아니라 ‘신고’다.”, “일단 위험한 상황에 처하면 그곳에서 벗어난 뒤 경찰에 신고하라. 곤경에 처한 친구를 돕겠다고 옆에 있다간 공범으로 몰린다.”, “학교폭력을 종용한 사람은 사법기관으로부터 교사죄를 적용받아 피해자를 위해한 사람보다 더 많이 처벌받는다.”는 충고를 반드시 해주어야 한다.</p> <p><학교폭력 피해자 부모를 위한 Tip> 학교폭력 징후 파악하기, 아이에게 신뢰감 보여주기, 학교폭력 증거자료 수집하기, 삼자대면하기, 최악의 경우 고소하기, 사과 받고 처벌하기, 피해자 치료하기</p>			

잡지명	주간동아	발간일	2012년 2월 27일. 826호
제 목	“일진 짱이 때리고 위협” 117 전화는 불났다		
작성자	김진수 기자		
내용 요약			
<p>117센터는 올해 1월 11일 출범한 전국 유일의 학교폭력 신고 집결지다. 경찰청이 운영하는 One-Stop 지원센터(117), 교육과학기술부가 운영하는 Wee센터(1588-7179), 여성가족부의 CYS-Net(1388)으로 분산됐던 기존의 학교폭력 신고전화를 ‘117’ 단일 번호로 통합한 것이다. 새해 들어 2월 18일까지 117센터가 접수한 학교폭력 신고는 모두 1404건. 1월 한 달간 616건이던 것이 2월 들어서는 18일까지만 788건으로 부쩍 늘었다. 이를 하루 평균으로 환산하면 1월엔 19.87건, 2월엔 43.78건이 이르는 수치다. 117센터 통합 전인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하루 평균 0.77건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1월엔 25.8배, 2월엔 56.8배로 불어난 셈이다.</p> <p>117센터엔 피해 학생 본인은 물론, 자녀가 이미 겪었거나 현재 진행 중인 학교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학부모의 목소리도 봇물을 이룬다. 이는 학교폭력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경찰이 가해 학생 구속 수사 등 강력 대응으로 선회함에 따라 그동안 보복 폭행을 두려워하던 피해자의 신고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117센터로 날아드는 신고 내용은 각양각색이다. 유형별로는 폭행 및 협박이 가장 많지만, 공갈 및 갈취, 모욕(왕따 등 포함), 음란정보 전송도 적지 않다. 그러나 단일 사례보다는 폭행, 갈취, 협박이 중복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말하자면, 때리고 돈이나 옷을 빼앗은 뒤 신고하지 말라고 협박하는 사례가 많은 것이다.</p>			

잡지명	주간동아	발간일	2008년 11월 18일. 661호
제 목	한 가족 파탄 낸 몸쓸 학교폭력!		
작성자	배수강 기자		
내용 요약			
<p>현민(가명·15)군은 1학년 때부터 상습적인 집단폭행을 당했고, 강요에 의해 친구와 싸움을 해야 했다. 가해 학생들은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입을 막고는 바지를 벗기고 성추행했다.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 현민 군은 오히려 폭력적으로 변했고, 화장실에서 치약과 샴푸로 눈을 씻으며 “강해져야 해. 울면 안 돼”라고 중얼거리는 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증세를 보였다. 2007년 9월 현민 군은 폭력 가해자가 돼 등교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로부터 10개월, 현민군은 제주에서 서울로 이사하고 국립정신병원에 입원해 6개월 치료받은 뒤 부설 대안학교에 다닌다. 현민군의 어머니는 담임교사가 현민 군의 폭행 사실을 인지하고 설문조사를 했을 때, 도움을 요청하는 아들의 편지만이라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면 이 정도를 안 됐을 것이라고 흐느꼈다. 당시 담임교사는 “그게 무슨 애절한 편지냐”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가해 학생들은 폭력에 대한 처벌로 봉사활동을 하고 학교에 잘 다니고 있다.</p> <p>국회 황우여 의원실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국 학생 성범죄(성희롱, 성폭력) 사건은 2003년 22건에서 2007년 71건으로 223% 증가했다.</p>			

잡지명	시사저널	발간일	2012년 1월 11일
제 목	조폭 뺑치는 학교 무법자 ‘일진회’		
작성자	정락인 기자		
내용 요약			
<p>전국의 많은 중·고등학교에는 ‘일진회’가 조직되어 있다. 일진회는 단순한 교내 서클에서 성인 조폭을 능가하는 ‘폭력 집단’으로 발전하고 있다. 동료 학생들을 괴롭히고 금품을 갈취하는 것은 고전에 속한다. 그런데도 학교의 대처는 소극적이며, 교사들도 일진회를 무서워하는 현실이다.</p> <p>Γ중학교 1학년 이군(14)은 1년 동안 일진회에 속한 학생들로부터 집단 괴롭힘과 폭행 피해를 당했다. 이군은 기자에게 “우리 반 25명 중 15명이 일진회다.”라고 말해 충격을 주었다. 이군 아버지의 신고로 강서경찰서 여성청소년계 형사들이 이군의 집으로 찾아와 진정 경위를 파악했고, 이후 특별수사팀으로 넘어갔다. 충남 천안에 있는 여고 1학년 생 조양은 다른 반 친구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 조양은 고막에서 피가 나고 바닥에 꿇어앉히고 배와 등을 차서 신발 자국이 남아있을 정도였으며,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다. 조양은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며 학교에 대한 거부감이 큰 상태이다.</p> <p>김형태 서울시 교육위원은 학교폭력의 원인은 경쟁 교육에서 찾아볼 수 있고, 학교와 성적이 주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만한 곳이 없기 때문에 약자를 찾아 해소하려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며, 폭력의 원인을 찾아 해소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하는데 지금의 학교나 교육청은 처벌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p>			

잡지명	미즈내일	발간일	2012년 1월. 555호
제 목	때리고 빼앗는게 일상?! 10대의 학교폭력 심리학		
작성자	김혜원 리포터		
내용 요약			
<p>청소년 폭력예방재단이 전국 초·중·고생 3천 5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0년 학교폭력실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학교폭력으로 자살 충동을 느낀 학생은 30.8%이다. 성별에 따른 피해유형을 보면, 남학생은 '맞았다'(48.3%), '돈이나 물건 갈취'(10.7%)에 응답률이 높은 반면, 여학생은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33.6%), '집단 따돌림을 당했다.'(18.1%)가 1, 2순위를 차지했다. 가해 경험을 묻는 항목에서, 남학생은 '초등 4~6학년'(26.9%), '중학교 1학년'(11.6%), 여학생은 '초등 4~6학년'(41.0%), '중학교 1학년'(9.7%)에 다른 학생을 가해하기 시작했다. 학교폭력을 경험하는 시기가 빨라지는 것이다.</p> <p>초등학생은 또래보다 체격이 작거나 내성적인 학생이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지만, 근거 없는 시비에서 출발해 따돌림으로 발전하는 사례가 많다. 학년이 올라가면 구타, 금품 갈취, 강제 심부름, 사이버 폭력 등 다양하고 조직화된 폭력이 등장한다.</p> <p>10대 청소년은 어려서부터 컴퓨터와 인터넷을 접한 세대다. 행동 반응속도는 빠른 반면, 자기 조절능력은 현저히 떨어진다.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와 학업성취만 중시하는 부모의 기대 욕구를 견디기 힘들어 폭력이나 가출, 인터넷 중독 등 극단적인 행동으로 자신의 고통이나 아픔을 드러내는 것이다. 학교폭력 예방대책이 쏟아지지만, 이에 못지않게 학교폭력의 뿌리를 들여다보는 심리적인 접근이 무엇보다 시급한 때다.</p>			

잡지명	미즈내일	발간일	2012년 1월. 555호
제 목	엄마들을 위한 상황별 학교폭력 대처 매뉴얼		
작성자	주연 리포터		
내용 요약			
<p><Manual 1> 피해 학생 : 고통의 고리를 끊어주는 것이 우선!</p> <p>'뭘 어떻게든 해결해 줘야지'라는 생각보다 상처 받은 아이 심정에 깊이 공감해주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혼자 많이 힘들었겠구나, 지금이라도 이야기해줘서 고마워", "이제 우리가 알았으니 걱정하지 마"라고 대화하며 충분히 공감해준 뒤 아이와 해결방법을 의논 하는 게 수순이다. 증거자료는 아이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떻게 폭력을 당했는지 육하원칙에 따라 정리한다. 가해 학생의 진심 어린 사과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가라앉아 있는 자녀의 분노를 치유해주려는 노력도 필요하다.</p> <p><Manual 2> 가해 학생 : 진심으로 사과하고 책임 행동 알려줘라</p> <p>대다수 가해 학생은 자신이 이 일을 했을 때 무슨 일이 발생할지, 법률적으로 어떤 책임이 따르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나 부모와 교사가 사건을 인지하는 순간 자신의 행위가 잘못됐다는 막연한 인식과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느껴 심각한 의식 왜곡을 일으킨다. 이때 가해 학생 부모의 올바른 개입은 자녀의 미래를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 처벌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범죄자의 길로 가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잘못을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지는 자세를 가르쳐야 한다.</p>			

잡지명	미즈내일	발간일	2012년 5월. 571호
제 목	“위계질서에 정면으로 맞서는 힘 키워주세요”		
작성자	문재현(마을공동체교육연구소) / 유병아 리포터		
내용 요약			
<p>흔히 일진이 소외 계층 아이들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절대 아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 운동 잘하는 아이, 부잣집 아이 등 ‘잘 나가는’ 아이들이 중핵을 이룬다. 이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의 삶과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은 기성세대의 학창시절에 비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학교 밖에서 일탈 행위를 하고, 학교 안에서는 조용히 있던 예전과 행동 유형이 완전히 다르다. 왕따 현상 역시 일진 문화와 관련이 있다. 일진 아이들이 주류가 돼 학급의 생활 문화와 질서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학생을 괴롭힐 때 평범한 아이들은 동조하거나 방관할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피해자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고립된 상황에 빠지고 이렇게 왕따가 만들어진다.</p> <p>어른들이 학교폭력 문제를 저대로 해결하려면 교실 사회관계에 대한 통찰력이 필요하다. 학교 안에서 일진 아이들은 귀족, 평범한 아이들은 평민, 괴롭힘을 당하는 아이들은 천민이라는 수직적인 위계질서 속에 일종의 계급사회를 형성하고 있다. 어른들이 잘 알지도 못하고, 도움을 줄 수도 없는 상황에서 아이들은 일진회의 가입 제의를 받았을 때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며, 두렵기도 하지만 선망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p> <p>그동안 학교폭력을 말할 때는 가해자와 피해자만 있었다. 학교폭력을 근절하려면 ‘방관자’를 적극적으로 끌어들이 ‘방어자’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가해자-피해자’ 구조에서 ‘가해자-피해자-방관자’ 구조로 가져가야 한다. 이를 위해선 교육이 필수이고, 작은 것도 학교폭력이며 절대 안된다는 어른들의 인식 변화와 부모가 자녀와 소통하고 마음으로 교감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아이들의 목소리를 가까운 곳에서 들을 수 있는 교사의 책임감은 막중하다.</p>			

잡지명	미즈내일	발간일	2010년 6월. 475호
제 목	안티카페에서 졸업빵 동영상까지 사이버 공간 여학생 폭력 갈수록 심각		
작성자	홍혜경 리포터		
내용 요약			
<p>중·고등학교 여학생들의 사이버 공간 내 따돌림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컴퓨터로 게임을 즐기는 남학생들과 달리 상대적으로 싸이월드나 인터넷 아용이 빈번한 여학생들은 특유의 은밀하고 모호한 따돌림까지 더해져 사이버 폭력과 연동되어 나타나기 때문이다. 또한 종전에는 싸이월드는 블로그에 머무르던 악성 댓글이나 비방 내용이 이제는 휴대폰 등 영상 매체들이 가세함에 따라 사이버 폭력으로 치닫고 있다. 예를 들면, 블로그나 싸이월드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한 아이에 대한 '안티카페'를 들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휴대폰에 의한 영상 폭력이다. 졸업식 때 옷 벗기는 '졸업빵' 동영상이나 여학생들의 폭력 행사 등이 이에 해당된다.</p> <p>사이버 폭력이 발생했을 때는 먼저 아이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아이가 어떻게 해결하고 싶어 하는지 파악해 피해자는 사회성 향상이나 극복을 위한 심리 상담이 필요하고, 가해자는 교정 상담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절대 부모의 감정이 앞서서는 안된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할 일은 증거 자료를 수집하고 보관하는 것이다.</p> <p>사이버 폭력에 대처하려면 이것이 곧 범죄임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아이가 피해자가 되었을 때 이후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사이버 예절과 상대방의 감정을 공감하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 문제해결과정에서 아이들은 장난처럼 하던 사이버 폭력이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자기 행동에 책임을 느끼는 계기가 되며, 이러한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사이버 폭력에 대한 예방 교육으로 다가갈 수 있다.</p>			

5. 학교폭력 예방 지도 관련 신문 기사 내용 요약

신문명	중앙일보	발간일	2012년 5월 29일
제 목	[멈춰! 학교폭력] 학년당 한 명씩 육남매 묶으니 4년째 '폭력 0'		
작성 기자	신진호 기자 [zino14@joongang.co.kr]		
기사 내용			
진천 문백초의 인성교육 실험 매년 초 6명 결연 프로그램 가족 같은 아이들, 왕따 사라져			
지난 25일 오전 11시 충북 진천군 문백면 문백초등학교(교장 이상복) 운동장. 전교생 80명이 2교시를 마치고 20분간의 중간활동 시간을 이용해 줄넘기를 하고 있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			

년별로 1명씩 6명(일부 7명)이 한 조를 이뤄 고학년이 저학년에 가르쳐 주는 방식이다. 각 조의 이름은 '문백 육남매'. 6학년 김예지(12)양이 2학년 최서연(8)양에게 "팔을 크게 벌리고 천천히 뛰면 발에 줄이 걸리지 않아"라고 말하자 서연이는 "응, 언니"하고 따랐다. 예지는 남동생만, 서연이는 여동생만 있다. 하지만 학교에 오면 둘은 여동생과 언니가 생긴다.

문백초의 '문백 육남매' 프로그램은 이 학교 이정원(여·37) 교사가 2007년에 만들었다. 핵가족화로 형제자매가 많지 않은 학생들에게 가족애와 '우리'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다. 형제자매가 많지 않은 다문화가정 아이들에게는 가족의 정을 나눠주고, 일반학생에게는 서로 아껴주는 분위기를 만들어 학교폭력과 왕따를 없애기 위한 대책이었다. 이 교사는 "초등학교 때 형성된 성품이 중·고교에까지 이어져 인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실험이었다"고 말했다. 이 프로그램을 도입한 후 4년여 동안 문백초에는 학교폭력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문백초는 매년 학기 초가 되면 1~6학년에서 한 명씩 6명이 결연을 맺고 1년간 형제자매로 지낸다. 올해는 80명을 13개 조로 나눴다. 매년 조를 달리해 졸업 때가 되면 대부분의 학생들과 한 번씩은 형제자매가 된다. 매일 중간활동 시간이 되면 조별로 운동하고 금요일이 되면 점심(급식)도 같이 먹는다. 점심시간엔 조별로 화단에 심은 나무와 꽃을 가꾼다. 텃밭에는 조별 이름을 새긴 푼말을 세워놓고 상추와 고추 등도 기른다. 방과후 특별활동 때는 언니가 동생의 공부를 가르쳐주고 과제도 도와준다. 교과 수업시간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같이 보내는 셈이다. 지난해 여름 캠프 때는 전교생이 운동장에서 조별로 직접 텐트를 치고 1박2일간 야영했다. 캠프에는 학부모와 마을주민 등 100여 명이 동참했다. 1년에 한 번은 육남매 중 한 명의 가정을 방문해 하루 종일 같이 생활하며 자식 역할을 한다. 이소이(10)양은 "친언니·오빠보다도 육남매인 경은·예지 언니가 더 좋다"며 웃었다. 전학 오는 학생들도 금방 친해진다. 지난해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인천에서 전학을 왔던 한 남학생은 성적도 올랐다. 이 학생의 학부모는 "외동아들 성격이 내성적이어서 잘 어울릴까, 왕따를 당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기우였다"고 말했다. 이상복 교장은 "학기 초엔 어색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친형제, 친자매 이상으로 서로를 아껴준다"고 말했다.

신문명	중앙일보	발간일	2012년 5월 2일
제 목	선생님 9명 상담의 마법, 주먹질이 멈췄어요		
작성 기자	김경희 기자		
기사 내용			
<p>서울 천일중학교의 실험 상담사 7명 외 일반 교사 2명 동참 전교생 1051명 한 해 상담 1400건 일진 많던 학교, 폭력은↓ 성적은↑</p> <p>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강동구 천일중의 '사랑나눔터'(상담실)에 이모(14)군이 찾아왔다. 이군은 지난해 4월부터 주 1~2회씩 정기적으로 상담을 받고 있다. 거의 매일 지각과 조퇴를 반복하던 그에게 담임교사와 상담사가 "지속적인 상담을 받자"고 권유해서다.</p> <p>소현정(27) 상담사가 모래 상자와 인형·시계탑 등 모형 50여 개를 꺼내놓았다. 마음에 드는 모형을 골라 자신만의 세계를 꾸미게 하는 '모래치료(Sand Play Therapy)'를 위해서였다. 스스로 무의식을 드러내도록 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게 하는 요법이다. 잠시 망설이던 이군은 집과 차를 골라 모래에 꽂았다. 애꾸눈 해적 인형을 고른 뒤에는 "날 지켜줄 것"이라고 말했다.</p>			

소씨는 “지난해엔 상담 중에 장난만 치던 아이가 이젠 스스로 모형을 고르고 의미도 부여하는 등 좋은 변화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요즘 이군은 지각·조퇴를 거의 하지 않는다. 교사들도 “수업 태도가 좋아졌다”고 칭찬했다.

천일중은 상담이 가장 활성화된 학교로 손꼽힌다. 지난 한 해에만 개인상담(1250건), 소규모·학급별 상담(156건) 등 모두 1400여 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전교생(1051명)이 적어도 한 번은 상담을 받은 셈이다. 이 학교에선 상담사 7명과 교사 2명 등 9명이 상담을 맡는다. 대개 1명에 불과한 여느 중학교에 비하면 그야말로 대규모다.

상담활성화의 효과는 뚜렷하다. 천일중은 저소득층과 한 부모 가정 자녀가 30%에 달한다. 나징기(52) 교장은 “한때 ‘일진이 많다’며 기피하는 학교였다”며 “적극적으로 상담을 시행한 뒤엔 학교 폭력이 줄고 성적도 향상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가기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선 우수·보통 이상의 학생 비율이 59.5%로 전년도(48.5%)보다 크게 늘었다. 기초 학력 미달 학생도 12.8%에서 6.3%로 대폭 줄었다. 천일중이 이 같은 상담시스템을 갖춘 건 지난해 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사정이 열악한 학교에 상담사를 배치하겠다”고 공약한 이해식(49) 강동구청장이 그 첫 대상으로 천일중을 선택했다. 이 구청장은 “‘학교폭력, 왕따 없는 학교에 애를 보내겠다’며 다른 곳으로 이사 가는 학부모를 보며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전문 상담사 4명이 상주하고 요일에 따라 3명의 상담사가 교대로 찾아온다.

올 초 김모(13)군 등 세 명은 같은 반 친구를 수차례 괴롭혀 상담실에 오게 됐다. 마영화(46) 상담사는 설문을 통해 이들의 분노지수를 파악한 뒤 미술치료 등을 진행했다. 그 뒤 김군 등은 자발적으로 친구에게 사과편지를 썼다. 마 상담사는 “학교폭력은 사소한 갈등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며 “적극적인 상담으로 아이들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면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문명	중앙일보	발간일	2012년 4월 30일
제 목	'방과 후 운동' 두 시간 왕따가 사라졌어요		
작성 기자	김경희 기자		
기사 내용			
<p>어떤 아이가 행복할까. 어떤 학교에 왕따와 학교폭력이 적을까. '운동'에 답이 있다. 신체 발달은 물론 자신감·사회성·책임감 등을 키워 정서적으로 아이를 살찌게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청소년의 신체활동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 2008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12~18세 청소년 중 평소보다 조금 힘들거나 숨이 약간 가쁜 신체활동을 주 5일 이상, 1회 30분 하는 학생은 10명 중 1명도 안 된다.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아이를 행복하게 만드는 운동효과에 대해 알아봤다.</p>			
'일진' 지훈이도 운동하며 친구들과 친해져			
<p>지난해 선부초등학교(경기도 안산) 6학년 7반이었던 김지훈(가명·12)군은 일명 일진이었다. 6학년 중 덩치가 가장 컸다. 김군은 기분이 나쁘면 친구에게 화를 내고 욕박질렀다. 아이들은 김군을 피했다. 하지만 1학기가 끝날 무렵 김군은 180도 달라졌다. 체육 전담 이승배 교사(올해 3월 안산 화정초등학교로 전근)가 축구를 이용한 새로운 체육수업 모델을 도입한 결과다.</p> <p>기존 축구는 운동신경과 체력이 좋은 애들의 독무대였다. 하지만 이 교사가 개발한 체육수업은 다르다. 이 교사는 "운동의 성격·규칙을 이해시키고 운동을 잘하든 못하든 역할을 부여해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김군은 친구들과 머리를 맞대고 작전을 짜며 소통했다.</p>			

팀플레이를 했고, 하이파이브하며 응원했다. 패한 팀에는 악수를 건네며 격려를 잊지 않았다. 이승배 교사는 “학교 체육활동은 공동체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는 씨앗”이라고 말했다. 경인교대 체육교육학과 유생열 교수는 “재미가 녹아 있는 적절한 운동은 사회성을 키워 왕따·학교폭력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농구·축구·벨리댄스 ... 학생 170명이 참여

지난 23일 오후 3시 서울 노원구 중계로 수암초등학교. 학년과 반이 다른 학생 30여 명이 실내 체육관에 모였다. 정규수업을 마치고 방과 후 체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이들이다.

이 학교는 다른 학교보다 방과 후 수업 중 체육프로그램의 비중이 몇 배 많다. 농구·축구·티볼·댄스스포츠·벨리댄스 등 17개 강좌가 있다. 0교시에도 체육활동이 있다. 박장희 교감은 “전교생 800여 명 중 170여 명이 방과 후 체육수업에 참여한다. 두 가지 이상 하는 학생도 있다”고 말했다. 2시간 운동이 힘들지 않느냐고 묻자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공부보다 재미있어요.” 5학년 7반 이예원양이 거든다. “우리 학교는 다 친구예요. 왕따도 없어요.” 이 학교 임태상 체육부장은 “방과 후 체육활동을 늘리니 학교에 빨리 오고 싶다는 아이가 늘고 다툼도 줄었다”고 말했다.

신문명	경향신문	발간일	2012년 3월 15일
제 목	“승자·패자 낙인찍는 경쟁교육, 학교폭력·이지메의 공통 원인”		
작성 기자	남지원 기자(somnia@kyunghyang.com)		
기사 내용			
<p>일본 전문가 야마모토 교수</p> <p>이지메(집단따돌림) 전문 연구자로 알려진 야마모토 고헤이 교수(58·사진)는 “한국과 일본 모두 경쟁주의 교육 때문에 집단따돌림과 학교폭력이란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만들어 낸 공통점이 있다”고 밝혔다.</p> <p>일본 리쓰메이칸 대학 사회학과에서 연구활동 중인 야마모토 교수는 15일 서울 영등포구 하자센터에서 열린 교육포럼 ‘청소년 폭력과 부적응을 말하다’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했다. 그는 이날 포럼에서 기조발제를 맡아 집단따돌림 현상과 경쟁주의의 관계에 대해 설명했다.</p> <p>야마모토 교수는 지난 14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경쟁주의 교육으로 인해 아이들이 ‘가치 없는 사람도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 집단따돌림의 원인이 됐다고 밝혔다.</p> <p>“경쟁주의의 특징은 승자와 패자를 확실하게 나누는 것입니다. 경쟁에서 진 사람은 지배당해도 좋은 사람, 이 사회에서 쓸모없는 인간, 배제된 인간으로 취급당합니다. 이기는 것만을 강조하는 경쟁주의 교육은 친구를 보살피거나 도와주는 사람이 아닌 이겨야 하는 대상으로 바라보게 만듭니다.”</p> <p>그는 경쟁주의는 ‘쓸모없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을 당연시해 인간의 존엄마저 무시하게 한다고 했다. 아이들에게 집단따돌림은 자살을 통해서라도 벗어나고 싶을 만큼 공포스럽고 끔찍한 일이라고 밝혔다. 야마모토 교수는 일본의 사례를 통해 집단따돌림 문제를 설명했다. 일본의 경우 1960년대 이후 고도성장기를 거치며 경쟁주의 교육이 확산됐다. 이후 1980년대 일본에서는 학교 붕괴가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다고 했다. 집단따돌림은 물론 교사 폭행 사건</p>			



까지 발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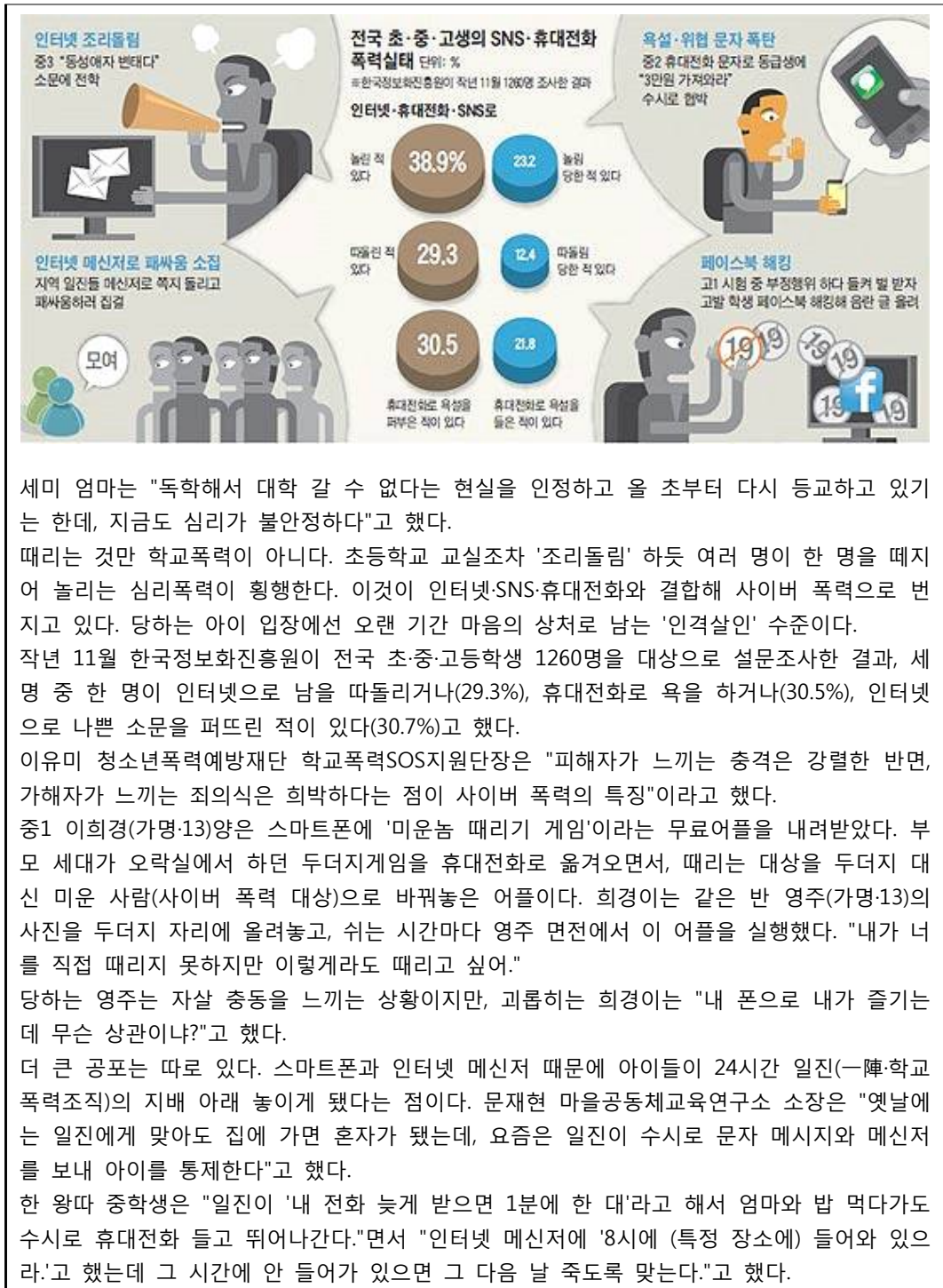
이 과정에서 반 아이들이 집단따돌림을 당하는 아이 앞에서 그 아이의 모의 장례식을 치른 이른바 '장례식 놀이' 사건도 생겼다. 피해자는 충격을 받아 자살했고 이 사건은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그는 "(당시 상황은) 수업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야마모토 교수는 집단따돌림이 사회문제가 되자 일본 당국은 처벌을 엄격하게 하는 것을 대책으로 내세웠지만 미봉책에 그쳤다고 밝혔다. 그는 "가해자 학생들이 엄한 처벌을 받았지만 같은 사건이 계속 반복됐고 계속해서 큰 처벌이 이어지는 악순환만 반복된 채 집단따돌림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야마모토 교수는 "지금 한국의 학교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경쟁주의 일변도의 교육이 강화되면서 나타난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경쟁주의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가해자에게 엄벌을 가하는 방식으로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식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는 "한국에서 대구 자살사건의 가해 학생들을 강하게 처벌하는 것도 절대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야마모토 교수는 해결책으로 대안교육의 활성화를 제시했다. 경쟁교육의 장을 현실적으로 완전히 없앨 수 없기 때문에 경쟁교육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대안교육이라는 선택지를 주어 경쟁교육의 부작용을 조금이라도 완화시키자는 얘기다. 그는 "가치관의 큰 전환이 필요하다"며 "능력 있는 사람, 경쟁의 승자만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경쟁주의 교육을 넘어서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모두 가치 있는 인간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문명	조선일보	발간일	2012년 4월 28일
제 목	[학교폭력, 이젠 그만] 학교폭력 새 흥기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 아이들 24시간 괴롭혀'		
작성 기자	김수혜 기자(goodluck@chosun.com)		
기사 내용			
<p>"전화 늦게 받으면 1분에 1대" 일진들, 수시로 문자·메신저 필요할때마다 노예처럼 부려... 단체 악성댓글 세례로 왕따도 '이세미 바이러스.'</p> <p>A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 박영호(가명·11)군이 동급생 세미(가명·11)에게 붙인 별명이다. 영호가 인터넷 카페에 세미 얼굴을 기괴하게 바꾼 사진을 띄우자, 다른 아이들도 우르르 악성 댓글을 달았다.</p> <p>사이버 세계에서 시작된 조리돌림(여럿이 1명을 동시에 공격하는 것)이 스멀스멀 현실세계로 번졌다. 세미가 학급문고를 만진 뒤 다른 아이가 근처를 지나가면 남자아이들이 킬킬대며 소리질렀다. "그거 만지지 마! 세미가 만진 거 만지면 손이 썩어."</p> <p>세미 엄마가 담임과 상담했다. 담임은 다른 반 교사들에게 "세미가 따돌림당하지 않게 다들 주의를 주라"고 했다. 하지만 이 부탁이 역효과를 낳았다. 전교에 소문이 짝 퍼져 그동안 모르던 아이들까지 다 알게 됐다. 이른바 '전따'(전교생이 따돌리는 아이)가 된 것이다.</p> <p>이 낙인이 중학교까지 따라왔다. 세미는 중2 때인 작년 9월부터 등교를 거부했다. 검정고시를 보겠다며 자기 방에 틀어박혔다. 세미 부모가 정신건강 전문가를 집에 불렀지만 세미는 "다 필요 없다"며 입을 굳게 다물었다.</p>			



6. 일본의 학교폭력, 집단 따돌림(이지메) 관련 연구 요약

- 서구 여러 나라에서 집단 괴롭힘은 교내폭력에 포함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일본의 경우는 1980년대 전반에 사회 문제화 되고나서 집단 괴롭힘이 교내폭력과는 또 다른 의미로 구별되어 파악하고 있다(문부 과학성이 실시하는 학교기본조사에서도 「이지메: 집단 괴롭힘」은 교내폭력과 구별되어 별도의 통계를 내놓고 있다). 집단 괴롭힘의 대표적인 예는 이유 없이 무시하고 집단에서 따돌림으로 하거나, 욕이나 좋지 않은 소문을 흘린다. 또 쪽지나 메일과 같은 전송수단을 통해서 주위의 사람을 부추기고, 신체적인 폭력을 하는 등의 행위를 일삼는다. 이러한 가해자의 행동으로 인해 일본에서는 많은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거나 등교거부, 심신무기력증, 자존심의 상실이나 학습 의욕의 저하, 최악의 케이스에서는 자살에 이른다.
- 다른 나라와 구별되는 일본의 집단 괴롭힘의 특징은 집단 괴롭힘을 하고 있는 것을 아이들이 알고 있어도 그것을 방관한다는 점과 보호자나 교사가 「이지메」의 실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문부과학성의 「아동 학생의 문제 행동 등 학생 지도상의 여러 문제에 관한 조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이지메에 관한 조사 결과가 공표되었다. 집단 괴롭힘의 피해를 받은 아동 학생의 소리를 들어보면 학교에 가는 것이 자체가 고통이 되고, 또 죽고 싶어진다고 하는 대답이 많다. 여기에 실상은 인지되지 않는 학교내 「이지메」가 더 많다는 것을 감안하면 문부과학성의 통계는 실태를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2006년도부터 국립과 사립을 포함한 전체의 집단 괴롭힘의 인지(발생) 건수가 통계로 나와 있다. 2012년의 문부과학성의 발표에 의하면 2011년의 집단 괴롭힘의 인지수는 초등학교 36,909건(전년보다 2,200건 증가), 중학교 33,323건(전년보다 1,200건 증가), 고교 7,018건(전년보다 1,400건 증가)되고 있다. 여기서 초등학교 이지메의 인지 건수 99%는 공립 초등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초등학생이 공립에 진학하고 있기 때문에 비중이 높다. 국립, 공립, 사립으로 분류된 자료에서는 각각의 학생 수에 차지하는 집단 괴롭힘의 인지 건수의 비율은 국립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공립, 사립의 순서로 되어 있다. 중학교에서는, 공립학교가 인지 총건수의 97%를 차지하며 동시에 국립·공립·사립별의 학생 수에 대한 집단 괴롭힘도 비율이 가장 높은 시기이다.
- 초등학교에서는 고학년이 될수록 집단 괴롭힘은 많아지고, 중학교에서는 고학년이 될수록 감소하고 있다. 초중고를 통틀어 집단 괴롭힘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학년은 중학 1학년의 시기로 16,370건이 인지되고 있다. 다만 고등학교에서는 중학교나 초등학교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집단 괴롭힘의 인지 건수는 크게 감소해, 고학년이 되는 만큼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 다음으로 집단 괴롭힘이 계기가 되어 등교거부에 이른 경우는 초등학교에서 1.9%, 중학교 2.3%(2010년)라고 하는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학교 기본 조사에서는, 등교거부의 계기가 된 이유로서 17항목 중 집단 괴롭힘은 14번째에 상당할 정도의

낮은 이유가 되고 있다(문부과학성, 2012). 하지만 집단 괴롭힘의 국제비교연구에 의하면, 집단 괴롭힘의 피해를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아이의 비율은, 피해를 받은 아이의 33.9%에 이르고 있어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높은 비율임을 감안할 때, 일본에서 이지메를 등교거부의 이유로 답한 비율은 정확한 수치라고 보기 어렵다(森田, 2010)는 의견도 있다.

- 최근 일본의 학교폭력과 이지메는 휴대전화와 인터넷 이용 활성화와 더불어 더욱 치밀해지고 악질적인 행위들이 드러나고 있다(赤坂 외, 2011). 지난 1980년대와 90년대의 학교폭력은 주로 교내폭력(校内暴力)이라고 불리는 학내에서 벌어지는 신체적인 가해나 폭언이 주를 이루었다면 이제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인터넷이나 휴대전화를 이용한 조용한 폭력이 많아졌다. 또한 일본에서는 초등학교에서부터 늘어나고 있는 ‘학급붕괴(學級崩壊)’ 현상이 아이들의 심각한 심리면의 문제를 드러내주는 현상으로 보고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 지금의 학급붕괴 현장과 그 배경은 加藤(2011)의 연구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으로 정리할 수 있다.
- 첫째, 최근 아이들의 행동은 교사가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겉보기에는 문제가 없는 아이가 충동적으로 거칠게 행동하고, 유아적인 자기중심성이 너무 강하거나,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는 것에 급급하여 정의감이라는 것은 찾아보기 힘들고, 자신의 욕구나 감정을 절대화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것은 현대의 아이들을 어떻게 파악하는가의 문제, 즉 지금시대가 가진 '균열'의 문제는 어느 시대에도 계속 연구하고 나가야 할 과제이다.
- 둘째, 부모와 학교 · 교사와의 엇갈림이나 문제가 예전에 비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학급 붕괴"는 결국 담임을 원인으로 보고 교체하는 경우가 많다. 학교붕괴에 대한 책임전가 현상은 학부모도 교사도 "공동 학급 만들기", "공동 육아" 시점이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의 의견을 받아들이기 힘들어졌다는 의견이 많다.
- 셋째, “교사 집단으로서의 학교”가 성립하지 않게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즉,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학급, 교실현장은 늘 있어왔지만 그래도 과거 일본에서는 동료 교사들끼리 서로를 격려하고 지원하는 분위기가 있었으나 지금 많은 학교에서는 그런 교사 간의 관계를 좀처럼 볼 수 없다. 지금의 상황은 어떤 교사든지 언제 수업 불가능의 상태가 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학교 밖에서는 이러한 배경을 생각하지 않고, “아이와 관계 형성을 잘 하지 못하는” 교사는 그 즉시 그 만두어도 좋은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세상에 많다는 것이다.
- 이러한 학교붕괴 현상과 배경은 주로 교사의 입장에서 기술된 측면이 많지만, 현재 우리나라 학교에서 일어나는 문제들과 유사한 부분이 많아 눈여겨보아야 한다. 우선 교육에서 학생의 심리적인 측면을 보다 주목하는 것이 필요하다. 과거의 학생들에 비해서 갈수록 공격적이고 안정화되지 못하는 행동이 많은 학생들이 늘어가는 것에 대해 심리적 측면에서 교육활동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지금의 교육현실의 어려움들을 학교 내부의 것으로 돌리는, 즉 교사-학생, 학생-학생 간의 문제로

만 생각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이지메, 수업붕괴의 문제를 서로가 책임전가하고 내 일이 아니면 방관하는 태도를 없애야 한다. 이 시대의 교육 현장의 문제들은 “모두의 아이들, 육아 공동체”의 개념에서 학교-지역-학부모가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

잡지명	benesse	발간일	2011. 9. 12
제 목	이지메의 증가, 그 이유는?		
작성자	渡辺敦司		
내용 요약			
<p>여름 방학이 지나고, 어쩌면 그 동안에 학교에 가고 싶어 하지 않는 아이도 있을 수 있다. 지난달 발표된 문부과학성의 " 문제 행동 조사 "(외부의 PDF 링크)에 의하면 등교 거부 아동 · 학생은 줄어들고 있지만, 왕따의 건수가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하니까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 단지, 이러한 조사 결과를 볼 때 조금 주의가 필요하다. 문부과학성의 발표 자료를 보면, 왕따 건수의 경년 변화에 대해서는 1985~1993년도, 1994년 ~ 2005년도, 0년 이후 라는 세 개의 테이블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을 함께 그래프가 있는데, 각각의 사이에는 정중에도 밀줄이 그어진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세 시기로 '왕따'의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p> <p>1993년까지의 이지메의 정의는 "(1) 자기보다 약한 것에 대해 일방적으로 (2) 신체적 · 심리적 공격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 (3) 상대가 심각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서, 학교가 그 사실 (관계 학생, 왕따의 내용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 또한 일어난 장소는 학교 내외를 불문한다"는 것이었다. 그것이 1994년 이후에는 "(1) 자기보다 약한 것에 대해 일방적으로 (2) 신체적 · 심리적 공격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 (3) 상대가 심각한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 또한 일어난 장소는 학교 내외를 불문한다"로 바뀌었다. 얼핏 보기에 놓쳐버릴 수 있는 차이지만 자세히 보면, "학교가 그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라는 문장이 삭제되어 있다. 당시 빈발했던 왕따 자살 사건 등으로 학교에서 왕따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음을 반성하고 그 정의를 수정한 것이다.</p> <p>2006년부터는 "해당 왕따 학생이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심리적 · 물리적인 공격을 받음으로써 정신적인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 또한 일어난 장소는 학교 내외를 불문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 정의 역시, 당시 학생이 자살한 이유를 왕따로 보고하지 않았던 교육위원회가 있었던 것이 발각되어 이를 반성하는 뜻에 따른 조치였다. 또 이때부터 왕따의 건수를 "발생 건수"에서 "인지 건수"로 호칭을 바꾸고 있다. 개별 행위가 왕따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표면적이고 형식적으로 수행하지 않고 괴롭힘을 당한 학생의 입장에 서서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고 수정되었기 때문이다.</p> <p>이번 문부과학성의 조사는 2006년 이후 처음으로 "인지 건수"가 증가했다. 단지, 이것은 왕따 자체가 늘었다고 하는 것보다, 작년 문부과학성 고시에서 전체 학교에서 설문 조사 실시 등을 포함한 "총점검"을 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즉, 더 정확한 파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왕따의 "인지"도 증가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왕따가 "인지"된 후 학교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왕따가 발생하기 어렵고, 또는 발생, 심화되기 전에 문제를 해결하는 평소의 학생-학생간, 교사-학생간 인간관계 형성이 중요하다. 우리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개별 학교가 그러한 노력을 총점검 하는 계기로 받아들이고 싶다.</p>			

저 자	玉野井 敬治	연 도	2008
출 처	年会論文集	권(호), 페이지	24, 238-239.
제 목	도덕교육 전체 계획에서 보는 각 학교의 침투도 실태(정보교육과 정보윤리, 새로운 교육의 파도) 道徳教育の全体計画にみる、各学校への浸透度の実態(情報教育と情報モラル,新しい教育の波)		
내용 요약			
학교는 학생의 규범의식 저하, 이지메, 자살, 등교거부, 학내 폭력, 비행 등의 심각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 밑에는 학교 도덕교육이 충분히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 데에서 기인하는 것이라 보여진다. 특히 최근에 도덕교육의 충실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학교 밖의 행정 분야에서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본 연구는 도덕교육의 존재방식은 어떠해야 하는지, 학교에서 실제 상황에 비추어 학생의 의식조사를 기반으로 도덕교육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새로운 교육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저 자	津村 俊充	연 도	2010
출 처	The Annual report of educational psychology in Japan	권(호), 페이지	49, 171-179.
제 목	Group-Work Training : Introducing Laboratory-Style Experiential Learning Into Classroom Teaching to Enhance Human Relations(IV Educational Psychology and Practical Activities)		
내용 요약			
<p>이지메, 등교거부, 학급 붕괴, 아이의 자살, 폭력 행위 등, 인간관계에 관련되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현상은 학교 교육에서 인간 관계력을 육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인간 관계력의 육성에 관련되는 몇 개의 그룹 접근을 소개하면서, 필자가 학교 교육 현장에서 지원하고 있는 연구실 방식의 체험 학습(experiential learning using the laboratory method:ELLM)에 의한 그룹 워크를 이용한 인간관계 만들기 수업의 기본적인 생각을 소개하고, 학교 교육 현장에서의 그 실천과 성과를 보고하고 있다. 연구 결과인 질문지 조사에 의하면, 아동·학생의 「학급 만족도」 「학급내 협력도」의 인지는, 중학교 2·3 학년에서 ELLM에 의한 인간관계 만들기 수업을 실시한 다수군이 소수군보다 의미가 있게 높아지고 있었다. 또, 아이치현의 O중학교에서는 전교생 ELLM에 의한 인간관계 만들기 수업 실천에 의해, 반드시 ELLM에 의한 수업 효과라고 단정은 할 수 없지만, 문제 행동 발생 건수나 등교거부 학생수 등에 현저한 감소 경향을 볼 수 있었다. 게다가 ELLM에 의한 수업에 임한 교사를 대상으로 프레 포스트 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육에 대한 자신」 및 「아이 중심의 교육관」인지의 점수가 높아진 것을 볼 수 있었다. 학교 교육에 있어서의 ELLM을 이용한 인간관계 만들기 수업 실천 연구는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실증적인 실천 연구를 실시하여 ELLM를 이용한 수업의 효과성의 검토를 실시해 갈 필요가 있다.</p>			

저 자	朝長 昌三·福井 昭史·地頭蘭 健二·小島 道生·中村 千秋·小原 達朗·柳田 泰典	연 도	2009
출 처	Educational science	권(호), 페이지	73, 17-30.
제 목	児童生徒の特性からみた生徒指導の質的改善 학생의 특징으로 본 학생지도의 질적 개선		
내용 요약			
아이들의 폭력적인 행동성향은 최근에 더욱 그 거침이 다양화되고 있고, 저연령화 경향도 보이고 있다. 즉, 교내폭력, 이지메 등교거부, 과격한 비행·문제 행동, 또 수업 방해, 교사에 대한 악질적이고 짓궂은 행위 등과 같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아이들의 폭력적인 성향은 지금까지의 학교 학생 지도에 문제가 있었음이 나타나고 있다. 즉 아이들의 문제 행동의 배경으로서 공격성의 고조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의 공격성을 적정화 시킬 필요성이 생겼으며 그 지도의 하나로써 학교에서의 학생지도에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성에 주목한 아사오(2006, 2007)은 나가사키시 및 근교의 중학생에 대해 공격성의 조사를 실시하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남자 학생에서는 신체적 공격이 가장 많고, 여자 학생에서는 적의가 가장 많았다. 또 신체적 공격과 언어적 공격에서는 남자 학생이 크고, 적의와 성격이 급한 것은 여자가 높았다. 즉, 남자는 행동면의 공격성이 강하고, 그에 대한 여자는 감정면의 분노나 다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신념이나 태도가 강한 경향을 보인다는 것을 알았다.			

저 자	박은희	연 도	2002
출 처	일본어교육	권(호), 페이지	22, 157-172.
제 목	일본의 학교 이지메 현상과 대응		
내용 요약			
논문에서는 일본의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지메에 대해 그 실태를 알아보고 일본의 경우 그 해결방안으로서 제시, 또는 실시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이러한 고찰을 통해서 학생의 인권보호라는 맥락에서 이지메를 어떻게 이해하고 방지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한다.			

저 자	加藤 弘通	연 도	2011
출 처	教育と医学	권(호), 페이지	59(7), 664-669.
제 목	小学校の学級はどのようにして崩壊するのか--「側近」の離反としての学級崩壊 (特集 学級崩壊を建て直す) 초등학교의 학급은 어떻게 붕괴되는가		
내용 요약			
지금의 초등학교에서 일어나는 학교 붕괴의 현장을 교사들의 증언을 중심으로 담아내고 있다.			

저 자	岡崎 由美子·安藤 美華代	연 도	2012
출 처	岡山大学教師教育開発センター紀要	권(호), 페이지	2, 33-42.
제 목	心理教育的アプローチに対する教育現場の実態とニーズ 심리교육적 접근을 대한 교육현장의 실태와 수요		
내용 요약			
초·중학생의 등교거부, 이지메, 폭력행위 등 문제 행동은 학업이나 교우관계와 관련되어 있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어, 이들에 대한 대책으로서 심리와 교육적 접근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학교 학생의 능력 및 특성의 실태를 이해하는 것과 함께 심리적 접근의 현상과 과제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초등학교 교원 489명, 중학교 교원 387명을 대상으로 교원이 입장에서 본 학교생활이 충실하지 못한 학생의 능력이나 특징, 심리교육적 접근의 실제상황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그 결과, 초중학교 교원의 반 수 이상은 학생들이 자기 컨트롤이나 대인관계 능력면에서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또 심리적인 면에서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기는 하나, 실시할 수 있는 시간적 인적, 물적인 과제나 교원의 연수, 교육 등에 관한 기회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대답하였다. 이후에는 교원 연수나 심리 전문가와의 연계를 통해서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저 자	百瀬和夫	연 도	2012
출 처	The bulletin of Kansai University of International Studies	권(호), 페이지	13, 175-185.
제 목	百瀬和夫(2012).特別支援教育 ⁵⁾ の知見をいかした学校経営1～特別支援教育の知見の活用を阻む諸原因について～ 특별지원교육을 활용한 학교경영		
내용 요약			
초등학교나 중학교의 학급붕괴나 학교내 폭력, 이지메 등에 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교육현장의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학생들의 '도태'를 방지하고 보다 안정적인 심리상태를 가지게 하기 위해서 특별지원교육의 의견을 살린 실재를 학교에서 교육활동으로 만들어 학교경영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것은 상당히 큰 힘이 된다. 또한 특별지원교육을 통해서 인지수준까지 아동의 이해를 높여가는 것은 학생들이 겪는 곤란을 인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사사진의 지도이해를 높이고, 보다 학생들에 대한 적절한 지도와 지원으로 이어지게 한다. 다만 특별지원교육을 활용하고, 교사가 장기적으로 지속해 왔던 자신만의 지도법을 개선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학교조직에서 문제교사의 직업상 특성에 해당하는 심리적인 문제 등 성인(교사)의 문제를 먼저 극복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연구는 연구자 자신이 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M초등학교에서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특별지원교육을 활용한 교육활동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저 자	伊藤 誠朗	연 도	2010
출 처	奈良教育大学教職大学院研究紀要 「学校教育実践研究」	권(호), 페이지	2, 11-20.
제 목	児童の人間関係を育てる実践の検討 ―グループ学習の工夫を通して― —아동의 인간관계 형성을 육성하는 실제의 검토-그룹학습을 이점을 통해서-		
내용 요약			
교사는 학교생활의 반수를 차지하는 각 교과 수업의 통째를 통해서 아동, 학생의 인간관계의 형성을 촉진하도록 움직이게 한다. 따라서 교과수업 중에 이지메나 학급붕괴 등의 과제를 대응할 필요가 있다. 교과와 달성과 아동의 인간관계 형성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학급집단의 실태에 대응하는 그룹학습의 실재를 실험하고, 검토하였다. 실험 전후의 설문 분석결과, 아동의 인간관계의 향상이 나타났다. 또한 학급전체의 학업성취도가 높아졌으며, 인간관계 향상 면에서는 상호의견을 참고하여 활동을 통해서 주위의 아동으로부터 인정받는 경험을 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었다. 단 학업성취도면은 학급전체의 달성도가 높아졌지만 이는 인간관계 향상이 학습상황에 대해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닌, 교사에 의한 수업구성이나 움직임, 학급규칙의 정착상황 등 다른 요인도 학업성취도에 관련됨이 나타났다.			

저 자	文 鐘聲	연 도	2010
출 처	Adolescence. Taisei Gakuin University bulletin	권(호), 페이지	12, 97-107
제 목	大阪市生野区におけるこどもに関する地域福祉学的研究 오사카 이쿠노구 지역의 아동에 관한 지역복지사학적 연구		
내용 요약			
2006년 3월 「오사카 이쿠노구 지역 복지 액션 플랜」이 책정되었다. 본 연구는, 상기 책정 위원회 어린이 부회가 주체가 되어, 이쿠노구 액션 플랜에서 당사자(어린이, 보호자, 교직원)의 소리를 반영하는 것과 동시에, 향후의 액션 플랜 추진에용 이쿠노구의 어린이(청년기)의 생활 과제의 실태를 분명히 하고, 이쿠노구의 육아 지원의 기초 자료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연구 결과 이지메·등교거부·학급 붕괴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호자의 협력과 이해」가 필요하다고 보호자, 교직원이 공통되게 인식하고 있었다. 또, 어린이의 휴일의 생활 방법에 대해 보호자는 「교육 활동의 연장이 되는 사업」,교직원은 「평생 학습 시설에 대해 누구나 할 수 있는 교류의 장소의 확보」를 들고 있었다. 이 연구를 통해서 향후, 교육 활동에도 연결되는 교류의 장소나 자원봉사 활동을 포함한 지역과의 연계 협동이 필요하게 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었다.			

- 5) 「특별지원교육」은 일본에서 장애가 있는 학생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향한 주체적인 조직을 지원하는 관점에서 아동 개개인의 교육적 수요를 파악하고 자체적인 힘을 길러, 생활과 학급 상의 곤란을 개선, 극복하기 위해 적절한 지도 및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는 제도를 말한다. 2007년 4월에서부터 특별지원교육이 학교교육법으로서 자리를 함에 따라 모든 학교에서 장애가 있는 학생의 지원을 보다 내실 있게 실시하고 있다. 여기서는 특별지원교육의 활용법을 장애 외에 장애가 없는 학생들을 위해서도 학교폭력에 대처하고 원만한 학교 생활을 이어가도록 지원하는 형태로 실시하고자 하는 연구 사례이다.

저 자	吉川 延代, 今野 義孝	연 도	2012
출 처	人間科学研究	권(호), 페이지	33, 211-231.
제 목	중학생의 이지메와 스트레스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中学生におけるいじめとストレスの関連性についての研究		
내용 요약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3개의 연구를 실시했다. 연구 1에서는, 중학생이 체험하는 스트레스의 특징에 대해 검토했다. 조사 참가자는, 공립 중학교의 학생이다. 연구 2에서는, 같은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집단 괴롭힘에 대한 생각과 스트레스와의 관계에 대해 검토했다. 연구 3에서는, 초등학교에서 집단 괴롭힘 피해를 경험한 학생 16명에 대해서, 중학교 입학 당초의 심리적 상태에 대해 검토했다. 그 결과, 연구 1에서는, 「학업」이 가장 큰 스트레스로 나타났으며, 연구 2에서는 「무기입군(無記入群)」은 스트레스의 발산의 수단으로서 다른 사람을 공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제삼자·방관자군」은, 스트레스를 교사나 친구에게 상담해 해결하는 것이 곤란한 일임이 나타났다. 이 군의 학생들은 집단 괴롭힘에 대해서 제삼자적·방관자적 태도를 취하고, 집단 괴롭힘의 악화에 간접적으로 가담하고 있을 가능성을 추측해 볼 수 있다. 마지막 연구 3에서는, 초등학교 때에 집단 괴롭힘 피해를 당한 학생은, 그 후도 후유증에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 나타났다. 그러나 부모님의 서포트가 충분한 학생에게는 후유증이 적었다.			

저 자	桂(赤坂) 瑠以, 鈴木 佳苗, 熊崎(山岡) あゆ ち, 檀淵 めぐみ, 坂元 章	연 도	2011
출 처	日本パーソナリティ心理学会大会発表論文集 Japan Society of Personality Psychology	권(호), 페이지	20, 76.
제 목	子どものインターネット利用といじめ(5) : 2波パネル調査による携帯電話利用がネットおよび学校でのいじめ被害経験に及ぼす影響の検討(ポスター発表(1)) 아동의 인터넷 이용과 이지메(5) : 2차 패널 조사에 의한 휴대전화 이용이 인터넷과 학교에서의 이지메 피해경험에 미치는 영향 검토(포스터 발표(1))		
내용 요약			
본 연구는 초등학생에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넷 이용이 이지메, 학교에서의 이지메 가해경험과 피해경험의 양방에 미치는 영향을 실제적으로 검토하는 목적이 있다. 또한 인터넷 이지메나 학교내 폭력과 이지메를 감소시키는 원인으로서 정보유리나 인터넷 기술의 영향에 대해서 검토하는 목적을 함께 가진다. 연구결과 초중고의 모든 학교급에서 휴대전화 이메일 송신으로 이지메를 경험하거나 가해하는 경우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특히 중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한 전자메일의 송수신 비율이 높을수록 이지메 가해, 피해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와 인터넷 이용률이 활발할수록, 또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인터넷의 다양한 경로를 통한 이지메 관련 가해와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 자	桂川 泰典, 菅野 純	연 도	2012
출 처	明治圖書	전체 쪽수	164쪽
제 목	いじめ 予防と対応Q&A73 이지메의 예방과 대응 Q&A73		
내용 요약			
이지메 문제는 교육학자나 심리학, 사회학 등에서 다양한 입장의 해결책과 대응, 예방에 대한 많은 연구가 나와 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결정적인 대응책이 존재하지 않아 실제로 곤란을 겪고 있는 아동에게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 책은 지금까지 부족하였던 실질적인 대응책을 중심으로 학교 교사, 상담 받는 아동, 보호자의 질문에 응답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구체적인 대안을 찾아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저 자	牧崎 幸夫	연 도	2011
출 처	The Ryukoku journal of humanities and sciences	권(호), 페이지	33(1), 107-119.
제 목	よりよい人間関係を築く力を育てるボランティア活動：特別活動改訂の趣旨を生かした取組の推進 보다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힘을 육성하는 봉사활동：특별활동개정의 취지를 살린 조직의 추진		
내용 요약			
학생의 폭력 행위나 이지메, 등교거부 등이 심각한 상황은 최근의 도시화, 핵가족화, 고령화, 정보화 등에 의한 아동의 인간관계의 형성의 어려움이나 사회성이 몸에 붙어 있지 않은 것이 한 요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2008년 3월에 개정된 중학교의 학습지도 요령에서는, 특별활동의 목표로, 새롭게 「인간관계」라고 하는 문구가 삽입되어 학생의 사회성의 육성이나 보다 좋은 인간관계 만들기가 한층 중시되고 있다. 교토부 우지시립 동 우지 중학교에서는, 학교, 가정,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제휴에 의한 여러 가지 자원봉사 활동의 추진에 의해 아동 학생의 사회성의 육성이나 보다 좋은 인간관계 만들기가 진행되어 성과를 올리고 있다. 학생이 좋은 인간관계를 쌓아 올리는 힘의 육성을 목표로 하고, 특별활동을 통한 자원봉사 활동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열린 학교 만들기를 진행시켜 학교, 가정, 지역사회의 제휴 강화에 의한 활동을 위한 기반 만들기를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 자	三坂 彰彦	연 도	2011
출 처	教育問題法律相談	권(호), 페이지	168
제 목	いじめ被害から不登校となった生徒への対応 이지메의 피해에서 등교거부가 된 학생에 대한 대책		
내용 요약			
이지메를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은 학생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하여 학생과 보호자, 그리고 교사가 대응해야 할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책이다.			

저 자	重吉 直美, 大塚 泰正	연 도	2012
출 처	広島大学心理学研究	권(호), 페이지	10, 273-287.
제 목	中学生に対する怒りのコントロールプログラム実施効果の検討 <論文> 중학생의 화(분노) 조절 프로그램 실제효과의 검토		
내용 요약			
히로시마대학 대학원 교육학연구과 심리학강좌본연구에서는 중학생의 이지메나 등교거부, 폭력행위 등의 예방책과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분노, 화 조절에 관한 프로그램 작성과 효과를 검토했다. 相川・佐藤(2006) 등의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긴장풀기(relaxation)이나 자기표현 훈련(assertion training)을 도입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중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개입군에 있어서 분노의 표출지수의 감소, 사회성 면, 교사와의 관계 지수와 자기주장 향상이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분노표출을 감소시키고, 자기주장성을 향상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저 자	長谷川 陽子	연 도	2011
출판사	ほんの森出版		
제 목	학생의 힘으로 이지메를 발견하고, 없앤다. 生徒の力でいじめを見つけ、いじめを防ぐ (特集: いじめを見つけ出す私の工夫 특집: 이지메를 찾아내는 나만의 방법)		
내용 요약			
교사들이 자신들만의 이지메 해결책에 대해서 의견을 나눈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급내에서 학생들 스스로가 이지메를 당하는 학생을 방관하지 않고 문제를 인식하여 괴롭힘을 방지하고자 하는 마음을 끌어내는 시도를 기술하고 있다.			

저 자	黒沢 幸子	연 도	2012
출 판 사	金子書房		
제 목	学校で活かすいじめへの解決志向プログラム—個と集団の力を引き出す実践方法 학교에서 활용하는 이지메의 해결지향 프로그램-개인과 집단의 힘을 끌어내는 실제적인 방법 -		
내용 요약			
개별 면접, 피어 서포트, 학급, 교직원 연수 등 , 학교의 모든 장면에서 활용할 수 있다. 단순한 문제 해결이 아닌, 아동·학생과 교사의 잠재 능력을 끌어 내, 우정·안전·행복한 학교로 이끄는 “해결 지향”의 구체적인 실천 방법으로 종래의 집단 괴롭힘에 대한 변화된 관점을 알려준다.			

저 자	相馬 誠一 佐藤 節子 懸川 武史 入門	연 도	2102
출판사	学事出版	전체 쪽수	143쪽
제 목	いじめ対策—小・中・高のいじめ事例から自殺予防まで 이지메 대책 - 초중고의 이지메 사례에서 자살예방까지		
내용 요약			
이 책은 이지메의 현상과 과제, 이지메 대한 학교 내의 긴급 대책과 예방을 초중고별 학교 내의 이지메 사례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			

저 자	柿沼 昌芳 永野 恒雄	연 도	1998
출판사	批評社	전체 쪽수	203쪽
제 목	荒れる学校—教育現場からの証言 무너지는 학교 - 교육현장에서의 증언		
내용 요약			
교육현장의 교사와 학생이 겪는 이지메, 학교폭력의 현실을 보여주는 책자이다.			

저 자	森田 洋司	연 도	2001
출판사	金子書房	전체 쪽수	203
제 목	いじめの国際比較研究—日本・イギリス・オランダ・ノルウェーの調査分析 이지메의 국제비교연구-일본, 영국, 네덜란드, 노르웨이의 조사분석		
내용 요약			
일본의 이지메 현상과 영국, 네덜란드, 노르웨이의 집단 괴롭힘 현상을 비교분석하고 있다. 저자는 일본의 학교 내 집단 괴롭힘인 이지메 개념과 의미, 그 구체적인 현상이 다른 국가의 집단 괴롭힘의 실태와 어떠한 부분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분석하고 있다.			

저 자	森田洋司	연 도	2010
출 처	中央公論新社	전체 쪽수	207쪽
제 목	いじめとは何か：教室の問題、社会の問題 이지메란 무엇인가 : 교실의 문제, 사회의 문제		
내용 요약			
저자는 일본에서 1980년대에 발견된 이지메 현상은 현재 왜 자살자가 나올 정도의 비극이 계속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이지메, 집단 괴롭힘의 정의, 개념을 고찰하고 국제적인 비교를 통해서 일본의 학교내 이지메의 특징을 분석하고 있다. 이 글 자체가 이지메의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가 함께 이지메를 생각하는 토대를 만들고, 이지메를 멈추게 하는 사회로 변화하기 위한 일본 사회와 교육이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고 있다.			

7. 미국의 학교폭력 관련 연구 요약

저 자	정재준	연 도	2012년
제 목	미국의 학교폭력 방지대책		
권(호), 쪽	서울대학교 법학. 53(1). pp.529-570		
내용 요약			
<p>미국의 청소년 범죄 상승률은 성인의 범죄 상승률을 앞지르며 1990년대 초반까지 심각한 양상을 보여주었다. 이에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무관용 정책(Zero-Tolerance)과 같은 강경책을 시행하였고, 많은 주정부들은 이에 근거하여 엄벌주의(tough on violence) 입법을 시행하였다. 개별 학교들도 이러한 입법화해 조응하여 경찰과 연계하여 학교 안전화(school safety)를 위한 개혁에 돌입하였다. 1994년을 정점으로 미국의 청소년 범죄율과 학교폭력 발생 건수는 양자 모두 점진적인 하강을 거듭하고 있다. 이러한 성공적인 학교폭력 방지대책이 무관용 원칙에서 비롯되었는지 아니면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학교 안전을 위한 개혁을 시도함에서 비롯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 중이다. 중요한 것은 미국의 학교폭력 방지대책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20여 년의 장기 프로젝트로 수정·변경되면서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는 점이다.</p> <p>미국 사회는 어떠한 사회문제든 이성적 근거와 치밀한 법안(혹은 프로그램)으로써 반드시 해결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보통 법 국가이면서도 피곤하리만큼 긴 규정과 예외조항, 단서조항, 디폴트(default) 조항을 확인해야 하는 각종 법률과 계약서 등은 이를 잘 설명해 준다. 이 논문은 바로 오늘날 미국을 만든 지식인의 사유(思惟)를 추적하는데 있다. 그런 연유에서 이 논문에서는 미국의 학교 폭력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대응하는 미국의 학교폭력 방지 대책을 개관하면서 우리나라 교육현장에 주는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p> <p>이 논문은 폭력 원인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 대책으로 ① 학교폭력 유발 요인들에 대한 감소 전략, ② 학교 환경(School climate)의 개선, ③ 가해행동에 대한 저지대책(Disciplinary rules and procedures)을, 방지법안의 제정과 각종 프로그램으로는 ① 무관용 정책(Zero Tolerance)에 입각한 폭력방지 법률안 제정, ② 학교 안정화 프로그램(SSP)에 의한 폭력방지 매뉴얼, ③ 학급 동료에 의한 중재와 조정(Peer Mediation) 등을 각각 살펴보고 있다. 또한, 성공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학교 폭력 방지 대책으로는 ① 스쿨 바우처(School Vouchers), ② 볼티모어 예방 프로젝트(Baltimore Prevention Project, BPP), ③ 뉴욕시의 갈등해결 프로그램(Resolving Conflict Creativity Program, RCCP), ④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CPTED), ⑤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 등을 개관하고 있다.</p> <p>이 논문의 궁극적인 관심은 미국의 경험을 ‘따라하기’ 위한 논문이 아니라 미국의 방식을 철저히 이해하고 우리식의 ‘표준’과 ‘모범’을 만들어내어 그들을 ‘따라잡기’ 위한 토대를 구축함이다. 따라서 필자는 결론 부분에서 앞에서 열거된 모든 프로그램들이 한국 사례에 적용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나라의 학교폭력이 장래를 좌우할 만큼 교육의 심각한 적으로 자라나 있기 때문이라는 문제의식의 발로다.</p>			
주제어: 폭력의 개념, 학교폭력, 폭력방지 대책, 청소년 범죄, 회복적 사법			

저 자	최영신	연 도	2001년
제 목	미국의 청소년 폭력 예방프로그램 : 폭력예방을 위한 청사진 (Blueprints for Violence Prevention)		
권(호), 쪽	형사정책연구소식 통권 제67호(2001.9/10월호). pp.14-21		
내용 요약			
<p>이 글은 논단의 형식으로 미국의 대표적인 청소년 폭력 예방 프로그램인 ‘폭력 예방을 위한 청사진(Blueprints for Violence Prevention)’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분석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표로 삼는다.</p> <p>‘폭력 예방을 위한 청사진(Blueprints for Violence Prevention)’은 미국의 소년사법과 비행예방사무국(Office of Je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OJJDP)에서 지원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서, 1996년 폭력예방연구센터(the Center for the Study and Prevention of Violence)가 형사사법국과 질병통제센터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10개의 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선별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시작되었다. 이것은 프로그램의 이론적 합리성, 시행된 프로그램의 핵심 요소, 프로그램 설계와 성과에 대한 평가, 다양한 환경에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중에 직면한 실제적인 경험을 제공하기 위함이며, ‘청사진’은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매우 실제적으로 기술하여, 주 정부, 지역사회, 개인들에게 ① 적합한 개입 프로그램을 결정, ② 실제 소요 경비를 계산, ③ 프로그램 시작 및 유지에 필요한 조직화된 역량 평가, ④ 잠재적인 위험과 장애물 인지 등과 같은 도움을 제공한다.</p> <p>이 글에서 소개되고 있는 10개의 주요 프로그램은 ① 대안적 사고능력 향상 프로그램(Promoting Alternative Thinking Strategies, PATHS), ② 기회 제공 프로그램(Quantum Opportunities Program, QOP) ③ 학교 폭력 예방 프로그램(Bullying Prevention Program, BPP), ④ 성인-청소년 자매결연(Big Brothers, Big Sisters of America, BBBSA), ⑤ 가족 기능 요법(Functional Family Therapy, FFT), ⑥ 생활 기술 훈련(Life Skills Training, LST), ⑦ 태아, 영아 가정의 방문 간호 프로그램(Prenatal and Infancy Home Visitation by Nurse Program, PIHVNP), ⑧ 중서부 예방 프로젝트(Midwestern Prevention Project, MPP), ⑨ 다체계적 요법(Multisystemic Therapy, MT), ⑩ 다면적 양육 처우(Multinational Treatment Foster Care, MTFs) 등이 있다. 상기 열거된 프로그램 중에는 학교폭력 방지와 관련하여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대책들이 망라되어 있다.</p> <p>이 글은 마지막으로 미국 청소년 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특성으로 ① 폭력 예방 프로그램은 조기 개입을 강조한다 ② 청소년기 다양한 연령층의 필요와 비행 위험에 따라 프로그램이 분화되어 있다 ③ 가족의 기능을 보조하고, 지원하는 특성이 강하다 ④ 다면적, 다체계적 접근을 중시한다 ⑤ 저소득층과 취약 계층에 대한 사회복지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기술한다.</p>			

저 자	김지선	연 도	2005년
제 목	청소년비행 예방을 위한 결연관계의 새로운 모델 : 멘터링 프로그램(mentoring program)		
권(호), 쪽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19호. pp.257-300		
내용 요약			
<p>청소년 비행이 양적으로 증가할 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 폭력화, 흉포화, 저연령화의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 소년 범죄자 중에서 재범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나라 청소년 비행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청소년 비행을 다루었던 기본적인 접근방법 및 정책에 있어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그 방향은 대체적으로 예방 중심 모델의 지향, 지역사회 중심의 정책 및 민간 부문의 참여 확대, 비공식적인 사회관계의 적극적인 활용 등으로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 및 프로그램들이 아직 개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p> <p>이러한 현실에서 본 연구는 미국에서 비행청소년의 선도보호를 위한 성공적인 프로그램의 하나로 정부의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받으면서 전국적인 규모로 실시되고 있는 멘터링 프로그램의 유용성 및 그 효과에 주목하여 국내에 멘터링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소개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다.</p> <p>본 연구는 멘터링 프로그램의 이론적 기초로 위험요인, 보호요인, 적응유연성,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 자본이라는 개념을 들고 있다. 멘터링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로는 크게 인적인 구성 요소와 내용적인 구성 요소로 구분하고 있으며, 멘터링 프로그램의 유형으로는 ① 일대일 대 집단 멘터링 프로그램, ② 지역사회기반 대 학교기반 멘터링 프로그램, ③ 대면적 대 전자우편 멘터링 프로그램을 들고 있다. 프로그램의 운영 방식으로는 운영 주체로 민간단체를, 재정적·기술적 지원은 정부를 지목한다. 그리고 성공적인 프로그램을 위한 요건으로 ① 멘터와 멘티 간의 신뢰관계의 형성, ② 체계적인 프로그램의 하부구조 구축(멘터와 멘티 간의 관계에 대한 감독, 지속적인 교육·훈련, 멘터에 대한 지원)을 제시한다.</p> <p>결론 부분에서는 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국내에서의 멘터링 프로그램 실행 가능성을 검토하고, 이를 전국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① 미국의 JUMP와 같이 멘터링 프로젝트를 제안한 기관이나 단체에 대해 제도적 지원 및 개선이 필요하다, ② 범죄예방위원제도처럼 정부가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교육, 감독, 관리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전문적인 결연관리자들을 유급 직원으로 두어야 한다, ③ 정부가 개별적인 자원봉사자들을 위촉, 교육, 관리하는 방법과 병행하여, 지역사회에서 자생적으로 형성된 민간단체, 대학, 기업 등을 적절히 활용하여 이들이 멘터링 프로그램의 운영 및 추진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p>			
주제어: 멘터링 프로그램, 요보호소년, 보호요인, 적응유연성, 사회적 지지			

저 자	성진아	연 도	2012년
제 목	미국의 학교폭력 예방과 사회성 감성 교육		
출 처	http://21erick.org/180		
	http://schools.nyc.gov/SchoolPortals/15/K024/default.htm		
	http://www.edutopia.org/conflict-resolution-peace-helpers-video		
내용 요약			
<p>미국에서는, 1999년 수십명의 학생들과 교사들의 생명을 앗아간 콜로라도 주의 한 중학교에서 벌어진 총기 난사 사건 이후, 학교 폭력 근절과 예방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과 함께 사회성-감성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고취되어 왔다. "Second Step"이나 "RCCP" (Resolving Conflict Creatively Program)와 같은 폭력 예방을 목적으로 개발된 프로그램들과, 이에서 더 나아가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 자아존중감, 이타심, 존중과 배려, 갈등해결 방법, 긍정적 문제해결 방법 등을 가르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더 포괄적인 사회성-감성 교육 프로그램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p> <p>미국에서도 사회성-감성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학교는 흔하지 않다. 그 이유는 많은 공립학교들이 2002년에 마련된 No Child Left Behind 라는 교육 정책에 의해 학생들의 시험 점수 올리기에 치중함에 따라 시험에 포함되지 않는 교과 과목에 할애하는 시간들을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성-감성 교육에 시간을 할애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학업 성적 향상과 안전하고 화기애애한 학교 문화를 만드는데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며, 단기적이고 표면적인 접근이 아닌, 사회성-감성 교육을 통한 근본적이고 장기적이며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이 목표를 이루어가고 있는 학교들도 있다.</p> <p>학교폭력 예방 및 중재에서 성공 사례로 알려진 뉴욕 브룩클린에 소재한 PS24 공립 초등학교는 사회성-감성 교육에 중점을 두고, 다각적이고 총체적인 방법을 통한 학교 혁신을 추구해온 학교로, 이 학교가 채택한 사회성-감성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 센터 (Morningside Center)와 학생들의 카운슬링을 지원하는 지역의 의료기관이 협력하여 사회성-감성 교육을 통한 학교 분위기 혁신과 학생들의 학업 능력 향상을 도모해 오고 있다. 이 학교에서는 ① 사회성-감성 교육 수업(Social -Emotional Lessons), ② 또래 중재(Peer Mediation), ③ 분쟁 해결사(Peace Helpers), ④ 피스 코너(Peace Corner), ⑤ 방과후 프로그램 PAZ(Peace A to Z), ⑥ 런치 클럽(Lunch Club), ⑦ 교내 봉사(Community Service), ⑧ 학부모 교육(Workshop for Parents), ⑨ 교사교육과 지원(Professional Development) 등과 같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실행하고 있다.</p> <p>PS 24의 학교폭력 예방과 학생들의 사회성 감성 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에서 보듯, 이 학교의 성공 비결은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의 협력과 다각적인 차원에서의 장기적인 노력을 들 수 있다. 학생들의 정서적인 안정을 도모하고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교사와 학부모 지역사회 단체가 함께 협력하여, 교육에 있어 일관성 있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는 것이 그 열쇠이다. 학교 혁신 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학교와 가정, 그리고 지역사회의 꾸준하고 장기적이며 다각적 차원에서의 노력과 투자가 요구된다.</p>			

저 자	이동원	연 도	1999년
제 목	미국의 청소년 폭력예방 프로그램의 고찰 - 뉴욕 RCCP를 중심으로		
권(호), 쪽	형사정책연구. 10(3). pp.295-317		
내용 요약			
<p>청소년들의 폭력 문제에 대하여 미국의 전문가들 역시 폭력예방에 있어서 학교의 관여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에 있어서 대부분 일치하고 있으며, 미국 보건복지성이 제시한 '국민보건 2,000'이라는 청사진에 따르면 초중고교생에게 폭력예방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학교가 전체의 50%를 넘어서고 있다. 이처럼 미국에서는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는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설계된 학교중심의 폭력예방프로그램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학교중심의 청소년 폭력예방프로그램을 마련하는데 기초가 될 수 있는 미국의 사례를 고찰하여 우리나라의 폭력예방프로그램 구축에 기여하고자 한다.</p> <p>이 연구에서 주로 고찰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은 미국의 대표적인 학교중심 청소년폭력예방프로그램인 RCCP(Resolving Conflict Creativity Program)이다. RCCP는 뉴욕시의 공립학교들과 '사회적 책임을 위한 교사모임(ESR. Educators for Social Responsibility)'이 공동으로 운영 지원하는 갈등 해소 및 중재 프로그램으로서, 청소년들이 갈등을 처리하는 비폭력적 대안을 구성할 수 있게 하고, 타협이나 기타 갈등해소 테크닉을 가르치며 아울러 보다 평화로운 학교 세계를 창출해 내는데 학생들이 스스로가 커다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RCCP가 전문가들 사이에 가장 훌륭한 프로그램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는 이유는 프로그램 접근 방식이 매우 포괄적이기 때문인데, 프로그램에는 초등학교, 중등학교 및 특별교육 교과과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학생들 스스로 중재에 참여하는 프로그램, 학부모 프로그램, 교사 프로그램 등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p> <p>실제 RCCP에 대한 조사 결과, 교사들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생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생중재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다른 관점을 지닌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은 물론 학생 자신의 갈등을 해결하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는 반응을 얻었다. (※ 조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자료는 pp.314~316을 참조)</p> <p>본 연구는 결론으로 RCCP에 대하여 고찰한 내용을 토대로 우리 사회에 적합한 청소년폭력예방프로그램을 구축하는데 시사하는 바가 무엇이고 염두에 두어 할 것을 ① 철학을 가진 예방 프로그램 구축이 필요하다, ② RCCP 교육과정이나 학생중재 프로그램에서 볼 수 있듯이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야 한다, ③ RCCP의 교사 교육과정이나 학부모 교육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학생에게 변화를 미칠 수 있는 성인들의 변화를 먼저 이끌어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p>			

저 자	Reece L. Peterson & Russel Skiba	연 도	2000년
제 목	Creating School Climates That Prevent School Violence, Preventing School Failure		
권(호), 쪽	Alternative Education for Children and Youth, 44:3, 122-129		
내용 요약			
<p>학교 풍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폭력 감소를 위해 유망한 전략으로 의도된 접근법으로 분류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존재하는 것 같다. 이 연구에서는 5가지 프로그램들, 즉 Parent and Community Involvement(부모와 지역사회 관여), Character Education(인성 교육), Violence-Prevention and Conflict-Resolution Curricula(폭력 예방 및 갈등 해소 교육과정), Peer Mediation(또래 중재), Bullying Prevention(괴롭힘 예방) 등에 대해 개념 및 특징들을 소개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의 영향이 기대한 것만큼 강력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각각 유망한 접근법이라는 결론을 내리기에는 충분하다. 이러한 프로그램 중 하나 혹은 두 개가 제 자리를 잡아도 다른 요인들이 학교 풍토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과정들이 존재함으로써 학교 풍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학교 폭력의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것 같다. 게다가,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주는 복합적인 효과는 아직 연구되지 않았지만, 그러한 효과는 유망하며 긍정적인 결과들을 더욱 강화시켜줄 수 있을 것이다.</p>			

저 자	Stephen R. Band & Joseph A. Harpold	연 도	1999년
제 목	School Violence : Lessons Learned		
권(호), 쪽	FBI Law Enforcement Bulletin, 68(9), pp.9-16		
내용 요약			
학교 폭력이 발생하는 것으로부터 배우게 된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학교 폭력이 학교 체제만의 유일한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 사회의 모든 부문들이 함께 협동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사법부, 지방 정부, 시민단체, 법인, 그리고 부모들은 폭력과 싸우기 위한 연대감을 형성해야 한다. 사법당국,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는 각각의 기관이나 조직이 위기의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일을 해야 할지를 명백히 정의하는 규정을 각서로 작성해야 한다. 게다가, 이 규정은 모든 참여자들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을 향상시키고 폭력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연합을 요구해야 한다. 일단 사법당국이 학교 및 지역사회와 연대를 맺게 된다면, 상담의 이용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야 한다. 이 때, 특정한 학교 폭력 예방 대책들은 익명의 보고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에 초점을 둘 수도 있다.			

저 자	Jijun Zhang; Jennifer Truman; Thomas D. Synder; Simone Robers; American Institutes for Research	연 도	2011년
제 목	Indicators of School Crime and Safety		
권(호), 쪽	National Criminal Justice Reference Service 236021		
내용 요약			
<p>이 보고서는 학교 범죄와 학생 안전에 대해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의 데이터를 제공한다. 전국적으로 학교 범죄와 안전에 대해 최근의 상태를 보여주는 훌륭한 지표들을 갖추고, 그러한 지표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감시하는 것은 미국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중요한 조치들이다. 처음 제시된 데이터에 따르면, 2009년 7월1일에서 2010년 6월30일까지 학교 관련 폭력으로 인해 3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2010년에는 12~18세 학생들 중에 학교에서 약 828,000명의 학생들이 사망으로 직결되지는 않는 피해를 입었는데, 그 중에서 절도로 인한 피해자가 470,000명, 폭력으로 인한 피해자(단순한 모욕과 중대한 폭력 포함)는 359,000명에 달했다. 2009-2010년에, 약 74%의 공립학교들이 하나 혹은 그 이상의 폭력 사건들을 보고했으며, 그 중에서 16%가 중대한 폭력 사건들을 신고했다.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절도 사건을 보고한 경우는 44%에 달했다.</p> <p>이 보고서는 교사 부상, 괴롭힘, 학교 상황, 싸움, 무기류, 마약과 알코올의 이용 가능성과 학생들의 사용, 학교에서 개인 안전성에 대한 학생들의 인지도 등을 다루고 있다. 범죄와 안전에 대한 지표들은 상이한 인구 집단과 시간에 따라 비교되고 있다.</p> <p>학교에서 벗어난 곳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한 데이터는 구할 수 있는 지점에서 비교의 관점으로 제시된다. 이 보고서에 나타난 지표들은 학생, 교사, 교장들에 대한 전국적인 조사를 포함하여 다양한 원천에서 도출된 정보에 근거하고 있다.</p>			
주요 주제어 : 범죄통계자료(Crime statistics), 학교 내의 범죄(Crime in schools)			

저 자	J. David Hawkins; Sabrina Oesterie; Eric C. Brown; Kathryn C. Monahan, Robert D. Abbott; Michael W. Arthur; Richard F. Catalano	연 도	2012년
제 목	Sustained Decreases in Risk Exposure and Youth Problem Behaviors After Installation of the Communities That Care Prevention System in a Radomized Trial		
권(호), 쪽	Arch Pediatr Adolesc Med. 166(2). 141-148		
내용 요약			
<p>이 연구는 the Communities That Care(CTC) 방지 시스템이 설치된 이후 6년 간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의 문제 행동이 지닌 위험 수준을 실제로 감소시켰는지 알아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 표집은 7개주 24개 소도시에서 무선 표집으로 이루어졌으며, 2004년에서 2009년까지 4,407명의 학생들이 5학년에서 10학년까지 재학하는 동안 조사가 실시되었다.</p> <p><연구 결과> 5학년에서 10학년 사이의 학생들에 대한 표적 위험들의 평균 수준은 통제된 지역사회보다 CTC 상태에서 있었던 지역사회에서 증가 추세가 덜했으며, 특히 10학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즉, 10학년에서의 비행 행동, 음주, 흡연의 발생, 현재 흡연과 과거 비행행동 등의 정도는 통제집단보다 실험집단에서 유의미하게 낮게 나왔다.</p>			

저 자	정슬기	연 도	2003년
제 목	An Application of the Primary Socialization Theory to Alcohol and Drug-Related Crime among American Youth on Probation. (Primary Socialization Theory에 기반한 미국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의 알코올 및 약물 관련 범죄 행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 요인 연구)		
권(호), 쪽	청소년복지연구. 5(1). pp.129-141		
내용 요약			
<p>청소년기의 알코올 및 약물 남용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알코올과 약물 복용은 청소년기에 신체와 정신에 끼치는 여러 해악을 떠나 성인이 된 이후에까지 많은 폭력과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Primary Socialization Theory에 의하면 가족, 또래집단, 학교, 지역사회, 문화 등의 주요한 요인(primary source)들이 청소년의 가치와 신념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가족과 청소년간의 약한 유대 또는 학교와 청소년간의 약한 유대관계는 청소년의 알코올 및 약물 관련 범죄행동과 같은 일탈행동으로 이끄는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는 미국 서부에 위치한 한 주(State) 내 475명의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을 대상으로 Primary Socialization Theory의 가장 기본 요소인 가족, 또래집단 및 학교가 이들 청소년의 음주 및 약물과 관련한 일탈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가족의 지지, 부모의 약물 복용, 또래집단의 약물 복용, 그리고 학교 생활이 청소년들의 알코올 및 약물 관련 범죄행동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구조방정식 모델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구조 모델의 결과는 RMSEA=0.034; CFI=0.96; AGFI=0.95; IFI=0.96; $\chi^2=263.31$, $df=169$, $p<.01$로써 수용할만한 모델적합도를 나타내었다. 4개의 독립잠재변수는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 약물관련 범죄행동 변량의 72%를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도 또래집단의 약물행동이 청소년의 약물관련 범죄행위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과거의 연구들은 또래 혹은 친구들의 약물 복용이 청소년의 약물행동의 주요한 요인임을 밝힌 바 있다. 본 연구는 단순 약물행동에서 조금 더 나아가 약물복용과 관련된 범죄행동까지 범위를 확산함으로써 청소년의 범죄행동을 감소시키는 개입전략을 고안하는 데 있어 그 청소년의 또래집단 혹은 친구들의 약물행동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함의를 강조한다.</p>			
Key word : Primary Socialization Theory, Youth, Alcohol, Substance use, Criminality			

[미국의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1. PS 24 초등학교 사회성-감성 교육 관련(자료 출처: Morningside Center 주최 2011 Annual Conference)

프로그램	개요
사회성-감성 교육 수업 (Social-Emotional Lessons)	동화를 이용, 사회성과 책임감을 길러주기 위해 고안된 프로그램인 “4Rs” (Morningside Center 개발)을 활용해 교사들은 매 주 일 회 사회성 감성 교육 수업을 진행한다. 이 수업은 각 수업별 해당 주제 (예, 감정 조절하기)에 관련된 동화를 학생들에게 읽어주고 이에 대해 깊이 있게 토론한 후 주제에 관련된 활동을 한다.
도래 중재 (Peer mediation)	도래 중재자로 선택된 고학년 (4-6학년) 학생들은 갈등 중재에 관련된 일련의 교육을 받은 후, 점심 시간과 쉬는 시간 중에 도래들과 저학년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문제를 중재한다.
분쟁해결사 (Peace Helpers)	저학년의 각 학급 당 교사의 추천을 받은 4-5명의 학생들이 고학년인 “도래 중재자” 들에 의해 교육을 받은 후, 각 학급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중재하고 분쟁에 연관된 학생들과 대화를 통해 문제해결을 돕는 역할을 한다. (관련 비디오 http://www.edutopia.org/conflict-resolution-peace-helpers-video)
피스코너 (Peace Corner)	각 저학년 학급에는 학생들이 감정에 관해 얘기하고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쓸 수 있는 피스코너라고 부르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이 공간에서 각 학급의 분쟁해결사들은 분쟁에 연관된 도래 학생들을 돕는다.
방과후 프로그램 PAZ (Peace A to Z)	매일 방과후에는 3시부터 6시까지 “폭력 예방 및 갈등해결” 수업 및, 스포츠, 미술, 숙제도움 등을 학생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며, 학생들의 사회성과 정서 발달 및 학업 능력 향상을 도모한다.
런치 클럽 (Lunch Club)	매주 일회 학생들의 점심 시간을 이용해 하계되는 런치클럽은, 문제 행동을 보이는 학생들과 모범적인 행동을 보이는 학생들을 소그룹으로 혼합하여 상담사가 학생들과 함께 사회성, 감정 조절 기술의 습득을 위한 활동들을 하며 학생들의 사회성 기술 향상을 돕는다.
교내 봉사 (Community Service)	모든 6학년 학생들은 정기적으로 저학년 학생들의 학습을 도와주는 튜터가 되거나 책 읽어주기 파트너가 되어 봉사를 하며 남을 돕는 것으로 부터 오는 기쁨과 자신감을 습득하도록 한다.
학부모 교육 (Workshops for Parents)	교직원이나 지역 단체의 컨설턴트에 의해 학부모를 위한 워크샵을 제공한다.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 부모가 알아야 하는 내용, 자녀와 대화하는 기술 뿐 아니라, 학부모들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며, 학부모들의 주인의식과 협력을 유도해 다정다감한 학교 커뮤니티를 형성한다.
교사 교육과 지원 (Professional Development)	효율적인 사회성 감성 교육 프로그램의 실시를 위해 지속적인 교사 교육과 코칭을 통한 지원 제공이 필수적이며, 모닝사이드 센터의 컨설턴트들이 교사들을 위한 워크샵 뿐 아니라, 일대일 교사 코칭과 모델링을 통해 교사들을 교육하고 지원한다.

2.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청사진(Blueprints for Violence Prevention) 10대 사례

가. 대안적 사고능력 향상 프로그램(Promoting Alternative Thinking Strategies, PATHS)

1) 특징

- * 정서 능력과 사회적 능력을 개선하고 초등학교의 공격과 문제 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한 종합 프로그램
- * 여러 해에 걸쳐 시행되는 일반적 개입 모델이며, 교육자와 상담자 모두 사용

2) 프로그램 대상

- * PATHS 교육과정은 모든 초등학교 학령기의 어린이를 상대로 교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됨. 초등학교 입학과 더불어 시작하여 5학년까지 지속
- * 일상적인 교실 환경뿐만 아니라 다양한 특수 아동들(농아, 학습장애, 정서장애, 가벼운 정신 지체, 영재)에 대해서도 검사하고 연구

3) 프로그램 내용

- * 매주 3회, 하루에 최소한 20~30분 정도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 의사소통 기술을 가르침
- *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정서적 능력, 자기통제, 사회적 능력, 긍정적인 또래관계, 대인 관계 및 문제 해결 기술 등을 가르치기 위해 발달에 기초를 둔 체계적 수업이며, 수업자료 및 교수를 제공
- * 교사들은 2~3일간의 워크숍에서 훈련을 받고 2주에 한 번씩 교육과정 상담자와 모임을 가짐

나. 기회 제공 프로그램(Quantum Opportunities Program, QOP)

1) 특징

- * 불우 청소년들에게 재정적 지원과 더불어 교육, 봉사, 청소년 발달을 위한 활동을 제공하는 청소년 발달 지원 프로그램

2) 프로그램 대상

- * 정부로부터 생계비 보조를 받는 가정의 청소년으로 9학년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 4년 간 지원

3) 프로그램 내용

- * 250시간 교육 : 컴퓨터 보조 수업, 또래 교수(peer-tutoring) 등 기본 학업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활동에 참여
- * 250시간 발달활동 : 문화적 경험 확대, 개인의 발달을 촉진시키는 활동 참여, 삶이나 가정에 필요한 기술 습득, 고도의 기술/직업 훈련, 직업 준비 계획
- * 250시간 봉사활동 : 지역사회 봉사활동 프로젝트 참여

다.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Bullying Prevention Program, BPP)

1) 특징

- * 범죄의 예방과 감소를 위한 일반적 개입 프로그램이며, 주요 대상 지역은 학교

- * 학교 직원은 프로그램이 소개와 시행에 일차적인 책임

2) 프로그램 대상

- *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으로서 모든 학생은 대부분의 프로그램에 참여
- * 부가적으로 개별 개입은 가해자나 피해자로 확인된 학생을 대상으로 함

3) 프로그램 내용

- * 학교수준 : 개별학교에서 괴롭힘이 일어나는 발생빈도와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무기명 설문 조사 시행, 괴롭힘을 주제로 한 학교 회의, 개입에 대한 계획 수립, 괴롭힘 예방 위원회 결성, 학생들에 대한 감독 강화 등
- * 학급수준 : 괴롭힘을 막기 위한 학급 규칙 제정 및 제정, 정기적인 학급회 개최
- * 개인수준 : 괴롭힘의 가해자나 피해자라고 확인된 어린이들에 대한 개입, 해당 어린이 부모와의 협의 등. 교사는 이러한 활동을 보조

라. 성인-청소년 자매결연(Big Brothers, Big Sisters of America, BBBSA)

1) 특징

- * 성인들이 청소년들에게 재정적 지원과 우정 제공
- * 국경을 넘어 약 500여개의 BBBSA 네트워크를 통해 7만 명 이상의 청소년과 성인이 1:1 관계로 관리됨(1991년 보고서)

2) 프로그램 대상

- * 편모 또는 편부 가정의 청소년(6~18세)

3) 프로그램 내용

- * 정기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
- * 각 사례의 개시부터 종료까지 관리
- * 자격 요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어느 한 쪽이 관계에 충실하지 않으면 종료

마. 가족 기능 요법(Functional Family Therapy, FFT)

1) 특징

- * 부적응 행동 및 관련 증상을 보이는 청소년을 위한 예방 및 개입 프로그램

2) 프로그램 대상

- * 11~18세 청소년으로서, 비행, 폭력, 약물남용, 무질서, 반대행동 등을 보일 위험이 높은 청소년

3) 프로그램 내용

- * 최소 8~12시간 대상 청소년과 가족에게 직접 서비스 제공
- * 가장 심각한 상황에서 26시간 초과하지 않음
- * 전달 양식 : 가정, 병원, 소년 법원, 수용 시설에 입소한 대상 청소년에게 1~2명이 유연하게 서비스 제공
- * 시행 :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 담당자로 보호관찰 담당자, 정신건강 전문가, 학위 소지 정신건강 전문의

바. 생활 기술 훈련(Life Skills Training, LST)

1) 특징

- * 흡연, 음주, 마리화나 등과 같은 약물 남용의 통로를 차단 혹은 감소시키기 위해 계획된 3년 간 개입 프로그램

2) 프로그램 대상

- * 모든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 개입 프로그램

3) 프로그램 내용

- * 첫째 15개 분과, 둘째 해 10개 분과, 셋째 해 5개 분과로 나누어 시행
- * 한 분과는 1주일에 1회 또는 강도가 높은 단기 코스로 시행
- * 구성 : ① 일반적인 자기 관리 기술, ② 사회적 기술, ③ 약물 남용 관련 정보나 기술 ▶ 기술은 교수, 시범, 피드백, 강화, 실습 등과 같은 훈련 기법을 사용하여 가르침

사. 태아, 영아 가정의 방문 간호 프로그램(Prenatal and Infancy Home Visitation by Nurse Program, PIHVP)

1) 특징

- * 여성의 임신 기간과 첫 아이 출생 후 2년 동안 간호사가 집중적이고 종합적인 가정 방문 처우, 건강 서비스와 인적 서비스를 제공

2) 프로그램 대상

- * 저소득, 위험 가능, 첫 아이를 기르고 있는 임산부

3) 프로그램 내용

- * 여성의 임신 상태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출산을 돕도록 계획
- * 영아의 건강과 발달을 위해 영유아에 대한 보호 기능 강화
- * 미래의 임신 계획에 대한 관심
- * 여성의 교육적 성취, 부모의 직업 참여를 제공하여 여성 자신의 발전을 보조

아. 중서부 예방 프로젝트(Midwestern Prevention Project, MPP)

1) 특징

- * 청소년 폭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약물 남용 예방 프로그램
- * 지역 사회에 기반을 두고, 다양한 국면을 다룸
- * 학교에서 시작하여 가족과 지역사회 맥락으로 확대

2) 프로그램 대상

- * 초기 청소년기로부터 후기 청소년기로의 전환을 연결시켜줌
- * 청소년 초기는 술, 담배, 대마초와 같은 약물을 남용하는 최초의 위험 시기여서 프로그램은 중학교 전체(6,7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함

3) 프로그램 내용

- * 약물 복용에 대한 사회적 압력 인식
- * 약물 복용과 약물 복용 상황을 회피하는 방법에 대한 기술 훈련
- * 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배우고, 이후 부모, 미디어, 지역사회를 통해 강화

자. 다체계적 요법(Multisystemic Therapy, MT)

1) 특징

- * 청소년 범죄자들의 반사회적 행동의 결정요인을 다루는 가족 및 지역사회 중심 처우 (family- and community-based treatment)

2) 프로그램 대상

- * 12~17세 남녀 청소년으로 시설에 수용(out-of-home placement)될 위험이 높은 청소년 범죄자, 고질적이거나 폭력적이거나 약물 남용 청소년 범죄자

3) 프로그램 내용

- * 청소년의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비행과 관련된 다양한 요인들을 다룸
- * 각 시스템(가족, 동료, 학교, 이웃, 자생적인 지원 망)의 힘을 이용하여 청소년이 익숙한 환경에서 행동을 변화시키도록 함

차. 다면적 양육 처우(Multinational Treatment Foster Care, MTFS)

1) 특징

- * 만성적 반사회적 행동, 정서 장애와 비행의 문제를 지닌 청소년들을 지역사회 시설 수용, 교정시설 수용, 입원 치료의 대안으로서 경제적으로 효과적인 대응

2) 프로그램 대상

- * 시설에 감금될 위험이 높은 만성적 범죄 경력을 지닌 10대

3) 프로그램 내용

- * 공동체 가족을 위한 MTFC 훈련 : 청소년에게 구조화되고 치료적인 생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행동 관리 방법을 강조. MTFC 부모들은 관리자가 운영하는 집단 모임에 참석, 매일 청소년 향상과 문제 행동을 확인하기 위한 전화 의무
- * 청소년 가족에 대한 서비스 : 부모들은 MTFC 가정에서 사용되어 온 구조화된 체제를 사용하도록 교육을 받음
- * 협조와 공동체 접촉 : MTFC 사례관리자, 청소년의 가석방/보호관찰 대상자, 교사, 사례감독자, 다른 관련 성인들이 서로 자주 접촉